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2014년 8월

석사학위논문

조선시대 □자형 전통가옥의
사랑채와 안채간 동선체계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천 열 홍

조선시대 □자형 전통가옥의
사랑채와 안채간 동선체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irculation System between Sarang-Chae
and An-Chae of □-shape Traditional Houses from the
Joseon Dynasty

2014년 8월 25일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천열홍

조선시대 □자형 전통가옥의
사랑채와 안채간 동선체계에 관한 연구

지도교수 신 응 주

이 논문을 건축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4년 4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건축학과

천 열 홍

천 열 홍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위원장 조선대학교 부교수 김 인 호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신 응 주 (인)

위 원 조선대학교 조교수 김 경 원 (인)

2014년 5월

조선대학교 대학원

목 차

ABSTRACT

1. 서론	1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2
1.3 선행연구 고찰	5
1.3.1 □자형 가옥에 관한 연구	7
1.3.2 사랑채 · 안채에 관한 연구	13
1.3.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방향	17
1.4 용어의 정의	18
2. 이론고찰	20
2.1 □자형 가옥의 개념	20
2.1.1 □자형 가옥의 정의	20
2.1.2 시대적 배경	22
2.2 □자형 가옥의 형성 및 특징	25
2.2.1 □자형 가옥의 발생 및 분포	26
2.2.2 □자형 가옥의 공간구성	29
2.2.3 □자형 가옥의 사례	33
3. 연구대상 □자형 가옥의 특징	37
3.1 배치 특징	37

3.1.1 채의 구성	38
3.1.2 마당 및 담장 구획	41
3.1.3 진입방식	47
3.2 평면구성 특징	49
3.2.1 사랑채	49
3.2.2 안채	54
3.3 口자형 가옥의 유형분류	60
3.3.1 폐쇄형	61
3.3.2 개방형	65
4. 사랑채와 안채의 연결 방식	70
4.1 마당을 통한 연결	72
4.1.1 굴절형 연결	74
4.1.2 직선형 연결	84
4.1.3 차폐형 연결	86
4.2 문을 통한 연결	92
4.2.1 협문을 통한 연결	93
4.2.2 중문을 통한 연결	101
4.3 마루를 통한 연결	106
5. 결론	111

참고문헌

부록

표 목 차

표 1. 조선시대 □자형 전통가옥의 연구대상 목록	3
표 2. □자형 가옥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	5
표 3. 경국대전 호전 급조가지조의 가대분급	22
표 4. □자형 가옥 분포 마을	27
표 5. 대상가옥 채 구성 현황	39
표 6. 대상가옥 마당 및 담장 구획 현황	41
표 7. 진입유형 분류	47
표 8. 사랑채 유형분류	49
표 9. 측면형 사랑채 사례	50
표 10. 전면형 사랑채 사례	51
표 11. 모서리형 사랑채 사례	52
표 12. 분화형 사랑채 사례	53
표 13. 안채 유형분류	54
표 14. 연구대상 채 구성의 유형적 분류	60
표 15. 두 채 폐쇄형 사례	61
표 16. 세 채 폐쇄형 사례	62
표 17. 네 채 폐쇄형 사례	64
표 18. 두 채 개방형 사례	65
표 19. 세 채 개방형 사례	67
표 20. 네 채 개방형 사례	68
표 21. 지역별 연결 방식	71
표 22. 지역별 마당을 통한 연결 방식	73
표 23. 평면 유형별 마당 연결	91
표 24. 지역별 마당을 통한 연결 방식	92
표 25. 지역별 마루를 통한 연결 방식	106

표 26. 마루의 세부유형 및 건립시기 106

그림 목 차

그림 1. 문세영(1987)의 유형분류	7
그림 2. 여상진(1996)의 유형분류	8
그림 3. 김화봉(1999)의 유형분류	9
그림 4. 박진옥(2000)의 유형별 안마당의 구성	10
그림 5. 신치후(2010)의 평면구성	11
그림 6. 이용재(2011)의 □자형 주택 구성방식	12
그림 7. 이유미(1989)의 유형분류	13
그림 8. 윤일이(1999)의 유형분류	14
그림 9. 김미나(2002)의 유형분류	15
그림 10. 신수경(2011)의 유형분류	16
그림 11. 우리나라 민가 평면의 발전과정도	21
그림 12. 각 지방 주택평면과 연평균기온	25
그림 13. 선행연구자 대상가옥 위치	26
그림 14. 연구대상 가옥의 위치	28
그림 15. 거창 정운선생가옥 배치도	29
그림 16. 영천 만취당 영역	31
그림 17. 관가정 배치도	33
그림 18. 향단 배치도	34
그림 19. 의성김씨종택 평면도	35
그림 20. 창덕궁 연경당 배치도	36
그림 21. 여섯마당의 구성원리	43
그림 22. 청도 운강고택 배치도	44
그림 23. 영천 만취당 배치도	45
그림 24. 윤증선생고택 배치도	46
그림 25. 진접 여경구가옥 사랑채 전경	50
그림 26. 홍성 사운고택 사랑채 전경	51

그림 27. 괴산 김기응가옥 사랑채 전경	52
그림 28. 가일수곡고택 사랑채 전경	53
그림 29. 어재연장군생가 안채 평면도	55
그림 30. 윤증선생고택 안채평면도	56
그림 31. 정운선생생가	57
그림 32. 시기별 사랑채 유형	58
그림 33. 시기별 안채 유형	58
그림 34. 지역별 사랑채 유형	59
그림 35. 지역별 안채 유형	59
그림 36. 시기별 □자형 가옥의 유형	69
그림 37. 지역별 □자형 가옥의 유형	69
그림 38. 마당을 통한 연결방식	70
그림 39. 문을 통한 연결방식	70
그림 40. 마루를 통한 연결방식	70
그림 41. 시기별 연결유형	71
그림 42. 굴절형	73
그림 43. 직선형	73
그림 44. 차폐형	73
그림 45. 시기별 마당 연결형	74
그림 46. 하회 남촌택 평면도	74
그림 47. 수원광주이씨월곡택 평면도(좌), 사랑채 우측면(우)	75
그림 48. 영천 정용준씨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75
그림 49. 달성 삼가헌 평면도(좌), 사랑채 좌측면(우)	76
그림 50. 단양 조자형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76
그림 51. 음성 공산정 고가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77
그림 52. 남원 몽심재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77
그림 53. 거촌리 쌍벽당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78
그림 54. 가평리 계서당 평면도(좌), 사랑채 좌측면(우)	78

그림 55. 율현동 물체당 평면도(좌), 사랑채 우측면(우)	79
그림 56. 가일수곡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79
그림 57. 하리동 일성당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0
그림 58. 안동 학암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0
그림 59. 의성김씨 율리 종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1
그림 60. 부여 민칠식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1
그림 61.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평면도(좌), 안채 전면(우)	82
그림 62. 서산 김기현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2
그림 63. 안동 권성백 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3
그림 64. 영주 괴헌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3
그림 65. 어재연장군생가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4
그림 66. 제원 정원태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4
그림 67. 청도 운강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5
그림 68. 하회 북촌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6
그림 69. 화성 정용래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7
그림 70. 청원 유계화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7
그림 71. 양동 이향정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8
그림 72. 하회 주일재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8
그림 73. 아산 건재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9
그림 74. 하회동 하동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89
그림 75. 안동 오류헌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90
그림 76. 정은선생생가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90
그림 77. 구례 운조루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93
그림 78. 경주 교동 최씨 고택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94
그림 79. 양동 낙선당 평면도(좌), 사랑채 협문(우)	94
그림 80. 양동 상춘헌 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협문(우)	95
그림 81. 양동 두곡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협문(우)	95
그림 82. 양동 수졸당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96

그림 83. 진접 여경구 가옥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96
그림 84. 괴산 김기응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협문(우)	97
그림 85. 부안 김상만 가옥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97
그림 86. 영천 만취당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98
그림 87. 함양 일두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측면 협문(우)	98
그림 88. 명제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 협문(우)	99
그림 89. 아산 외암리 참판댁 큰댁 평면도(좌), 사랑채 협문(우)	100
그림 90. 예천권씨 초간 종택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100
그림 91. 영천 매산고택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101
그림 92. 여주 김영구 가옥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101
그림 93. 해저만회고택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102
그림 94. 범흥동 고성이씨탑동과종택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102
그림 95. 예산 정동호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중문(우)	103
그림 96. 아산 성준경 가옥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103
그림 97. 서천 이하복 가옥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104
그림 98. 홍성 사운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중문(우)	104
그림 99. 합천 묘산묵와 고가 평면도(좌), 사랑채 중문(우)	105
그림 100.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고택 종택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105
그림 101. 양동 사호당 고택 평면도(좌), 마루방(우)	107
그림 102. 송석헌 평면도(좌), 안채 쪽마루(우)	107
그림 103. 양동 서백당 평면도(좌), 안채 쪽마루(우)	108
그림 104. 남양주 궁집 평면도(좌), 안채 전경(우)	108
그림 105. 화성 정용채 가옥 평면도(좌), 안채 대청(우)	109
그림 106. 영동규당고택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109
그림 107. 예천 의성김씨남악종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 계단 및 마루(우)	110

ABSTRACT

A study on Circulation System between Sarang-Chae and An-Chae of □-shape Traditional Houses from the Joseon Dynasty

Cheon, Yeol Hong

Advisor : Prof, Shin, Woong Ju, Ph.d.

Department of Architecture

Graduate School of Chosun University

The form of a house was determined by natural environmental surroundings and it had been developed its form by people's lifestyles, values, and social structure and norms. As people have studied and learnt roles and functions of houses as well as architectural methods, each society shared the similar building types.

The Confucian philosophies, with social status system, ancestor worship, and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affected the styles in residence construction during Joseon Dynasty. A house divided into several zones which are male zone, female zone, shrine zone, and servants' zone. They had developed their own spatial qualities and further the spaces of Sarangchae, Anchae, Sadangchae and Haengrangchae.

Looking at the layouts of the houses, Anchae and Sarangchae were separated from each other and Sadang was located in the back and on the west of the house.

Houses with '□' shaped plan, which were commonly found in Gyeongsangbukdo region, were composed of 'Chae's. Under the social circumstances In Joseon Dynasty, there might have been several of ways architectural planning to separate or connect those Chaes.

This research aims to establish the housing type with '□' shaped plan and to look at the architectural characteristics and spatial connections by studying their

layouts and spatial configurations. The subjects are houses with ‘□’shaped plans with architectural significance.

The research methods were collections of Architectural drawings and literature, as well as field surveys where necessary.

Analogy methods were firstly, literature data and architectural drawings. Secondly, there was an analysis on human behavior patterns inside of houses by conducting interviews. Thirdly, there was an analysis on various approaches to Anchaе. Fourthly, there was a comparison of the spatial characteristics between Sarangchaе and Anchaе planning. And finally, the spatial connections between Sarangchaе and Anchaе were derived.

Connections between Sarangchaе and Anchaе

Connections through Madang (courtyard)

A courtyard in a house with ‘□’shaped plan was surrounded by Anchaе, Sarangchaе, and Hangrangchaе. Connection types via a courtyard were a bent type, a linear type, and a shielded type. The Bent type was found in most of houses with ‘□’shaped plan.

These types had the shortest paths connecting via back doors of Sarangchaе but they caused visual exposure.

A connection through Hyeobmoon (side door)

A Hyeobmoon (side door) could be found in a house more than a certain size, and this connection type had the longest path. The door was usually locked strengthening Anchaе’s closure qualities.

A connection through Maru (floor)

This type connected Sarangchaе and Anchaе. A door or steps was introduced to separate those spaces. This type was found in the houses from the early to mid Joseon period when there was the cultural law of distinction between the sexes.

The paths between Sarangchae and Anchaе could be devided by the transitional spaces which were influenced by the sizes and layouts of the houses. The lengths of paths were determined by various elements such as wall surfaces, trees, or walls. Furthermore, those paths stressed their spatial characteristics by using visual exposure or closure.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집은 그들이 처한 자연환경에 의해 그 형태가 갖추어지기 시작한 후로 생활양식과 가치관, 사회제도나 규범에 의해 발달시켜왔다. 이러한 집을 통해 사회 구성원들은 집의 역할과 기능, 조영방법 등을 습득하면서 일정한 형태의 집을 짓게 되면서 사회마다 유사한 형식이 나타나게 되었다. 집의 형태와 평면을 설정하는 것은 건축계획의 기본 요소로서 앞서 말한 집을 발달시킨 요소들에 의해서 결정되며, 이는 환경조화성, 기능성, 수용성, 생활 존중성 등의 여건을 인지하고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기 위함이다.

한국의 전통가옥은 공간들이 모여 하나의 채를 구성하고 채들이 모여 가옥을 구성하는 채 분화의 특성을 지닌다. 채 분화는 인간-건축-자연을 하나로 여기는 사상과 그 당시의 시대관, 환경관 등의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나기도 하고 가사 규모의 증대로 인한 증축을 한 경우에서도 보여 진다.

현재 남아 있는 전통가옥의 대부분은 조선시대 중기인 17세기 무렵에 축조된 것으로 유교적 신분질서로 인해 조상숭배와 남녀유별 사상이 고착화되면서 주거에도 영향을 미쳤다. 가옥은 남성영역과 여성영역, 사당영역으로 나뉘게 되어 사당, 안채, 사랑채, 행랑채가 각기 건립된 형태를 갖게 되었으며, 지역에 따라 그 배치가 다양한 것을 볼 수 있다.

□자형 평면은 각 채들이 모여 형성하는 형태로 그 사례가 경북지역에서 주로 나타난다. 서로 다른 특성을 갖는 채들이 인접해 배치된 □자형 또는 튼 □자형 가옥 내에서 영역의 분할과 연결을 위한 다양한 방법이 고안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남성과 여성의 공간인 사랑채와 안채의 배치 방법과 영역설정 등의 건축방법을 고찰하고자 한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지금까지의 선행연구결과를 비롯해 이론고찰을 통하여 □자형 전통가옥의 유형 개념에 대하여 정립하고 이를 ‘개방형’, ‘폐쇄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채의 배치와 공간구성을 살펴보고 건축적 특성과 연결방식을 파악하고자 하며, 연구의 결과를 통해 □자형 가옥의 계획 수법을 유추해 봄으로써 건축계획에 다소나마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1.2 연구의 대상 및 방법

본 연구는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은 가옥 중 ㅁ자형 또는 ㅌㅁ자형을 대상으로 배치 형식과 평면 특징을 살펴보고 사랑채와 안채의 분리와 연결을 위한 건축계획수법을 찾고자 하는 연구로서 각 건축물의 평면을 바탕으로 두 채 간의 동선체계를 비교, 분석하였다.

분석의 대상은 중요민속자료 중 ㅁ자형 평면을 형성한 가옥으로, 그 수는 62호이며 소재지와 건축연대 및 배치형태, 소재지 등의 개략적인 내용은 <표 1>과 같다. 건축연대는 가장 오래된 양동 서백당을 시작으로 19세기 후반까지이며, 지역별로 살펴보면 62호 중 33호가 경북지역에 위치해 있다.

본 논문의 ㅁ자형 가옥의 경우 대부분이 17세가 전후에 세워졌으며 목조건물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이보다 더 거슬러 올라가기는 어렵다. 4,5백년이 되었다는 집도 있으나 이는 입향조(入鄕祖)가 최초로 집을 세운 시기를 이르는 말이며 이후 여러 차례 중수(重修)를 거쳐 오늘에 이르렀음은 두말 할 것이 없다.¹⁾

자료 수집은 문헌자료와 도면자료를 수집하였고 현지조사의 단계를 거쳤다. 문헌자료 수집과 도면자료 수집은 거의 동시에 이루어졌으며, 문헌자료 수집에서는 건축계획에 밀바탕이 되는 시대적 환경과 자연적 환경 등에 관한 연구물이나 보고서와 같은 자료 확보에 중점을 두었다. 현지 조사는 문헌자료 및 도면자료의 수집이 완료된 후에 이루어졌으며, 대상 건축물에 대한 촬영과 수집된 자료에 대한 확인 작업 위주로 이루어졌다.

연구의 방법은 문헌고찰을 토대로 각 가옥별 분석을 시도하였다. 문헌고찰에서는 ㅁ자형 가옥에 관한 선행연구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연구의 동향을 살펴보고 아울러 이론적 배경을 형성한다.

분석은 단행본, 보고서, 도면 등을 수집, 정리하여 자료로 삼았고 현지조사를 통하여 가옥의 특징을 살펴보고 거주자와의 인터뷰를 통하여 그 당시 생활모습을 파악하였다. 또한 각 가옥별 배치를 살펴보고 개방형, 폐쇄형으로 분류하여 유형별 특징을 조사, 분석하였다. 이를 다시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을 유추하기 위해 도면 및 사진을 분석하여 접근방식에 따라 그 유형을 분류하고 영역간의 연결요소를 살펴본다.

이상과 같은 조사 및 분석과정을 통해 조사대상 가옥의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을 영역연결 요소위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4, P.87

표 1. 조선시대 □자형 전통가옥의 연구대상 목록

번호	지역	명칭	건축연대	배치
1	전남구례	구례운조루	1766	□자형
2	경북경주	양동서백당	1457	□자형
3	경북영천	영천매산고택및산수정	18세기 중엽	□자형
4	경북경주	경주교동최씨고택	18세기 중엽	튼□자형
5	경북경주	양동낙산당	1540년경	□자형
6	경북경주	양동사도항고택	1840년경	□자형
7	경북경주	양동상촌헌고택	1730년경	튼□자형
8	경북경주	양동두곡고택	1730년경	튼□자형
9	경북경주	양동수출당	1616년경	튼□자형
10	경북경주	양동이향정	1695년경	튼□자형
11	경북안동	하회 북촌택	1797년경	□자형
12	경북안동	하회 남촌택	1797년경	□자형
13	경북안동	하회 주일재	조선시대	□자형
14	경북구미	달성 삼가헌	1769년경	튼□자형
15	경북청도	청도운강고택	1726년경	튼□자형
16	경북영천	영천정용준씨가옥	1725년경	□자형
17	경기수원	수원광주이씨월곡택	1888년	□자형
18	경기화성	화성정용채가옥	1887년	□자형
19	경기화성	화성정용래가옥	1899년	튼□자형
20	경기여주	여주김영구가옥	19세기 중반	□자형
21	경기이천	어재연장군생가	1800년대 초	튼□자형
22	경기남양주	진접여경구가옥	1800년대 추정	튼□자형
23	경기남양주	궁집	18세기 말	□자형
24	충북괴산	괴산김기응가옥	1910-1913	튼□자형
25	충북청원	청원유계화가옥	1866년	□자형
26	충북영동	영동규당고택	19세기 후기	튼□자형
27	충북음성	음성공산정고가	19세기 중반	튼□자형
28	충북단양	단양조자형가옥	1770년경	튼□자형
29	충북제천	제원정원태가옥	19세기 초	튼□자형
30	전북남원	남원몽심재	1753-1830	튼□자형
31	전북부안	부안김상만가옥	1895	□자형
32	경북봉화	해저만회고택	조선후기	□자형
33	경북봉화	거촌리쌍벽당	1450년경	□자형
34	경북봉화	가평리계서당	1613년경	□자형
35	경북예천	울현동물체당	조선중기	□자형

번호	지 역	명 칭	건축연대	배치
36	경북영천	영천만취당	1781년경	□자형
37	경북안동	가일수곡고택	1792년경	튼□자형
38	경북안동	하회동하동고택	1836년경	튼□자형
39	경북안동	하리동일성당	조선 중기	□자형
40	경북안동	안동 학암고택	조선 후기	□자형
41	경북안동	의성김씨율리종택	1630년경	□자형
42	경북안동	안동 오류헌	1678년경	튼□자형
43	경북안동	법흥동고성이씨탑동파종택	1700년	□자형
44	경남함양	함양일두고택	조선중기	튼□자형
45	충남논산	논산명재고택	18세기 초	튼□자형
46	충남예산	예산정동호가옥	19세기 초	튼□자형
47	충남부여	부여민칠식가옥	1829년	□자형
48	충남아산	아산성준경가옥	1825년	튼□자형
49	충남아산	아산외암리참판택	조선후기	튼□자형
50	충남아산	윤보선전대통령생가	1907년	튼□자형
51	충남서천	서천이하복가옥	조선말기	□자형
52	충남홍성	홍성사운고택	19세기 중반	튼□자형
53	충남서산	서산김기현가옥	19세기 중엽	□자형
54	경북예천	예천권씨 초간종택	1589년	□자형
55	경북안동	안동권성백고택	1800년대 후반	□자형
56	경남거창	정온선생생가	1820년경	튼□자형
57	경남합천	합천묘산목와고가	17세기	튼□자형
58	충남아산	아산건재고택	조선후기	튼□자형
59	경북예천	예천의성김씨남약종택	1630년경	□자형
60	대구동구	대구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조선시대	□자형
61	경북봉화	송석헌	1718년경	□자형
62	경북영주	영주 괴헌고택	1779년경	□자형

1.3 선행연구 고찰

본 연구의 대상인 ‘ \square 자형 가옥’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되었다. 1980년대 ‘ \square 자형’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연구(송인호 1982)를 시작으로 1990년대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김화봉 1999)를 걸쳐 2000년대에 전통주택 안마당의 공간구조적 특성 연구(박진옥 2000) 및 안동문화권 뜰집의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경계구조(김미나 외1인 2002), 경북 영주시 무섬마을 전통주택의 변화과정에 관한 연구(신치후 2003) 등이 활발히 연구되었다.

표 2. \square 자형 가옥에 관한 대표적인 선행 연구

구분	연도	논문제목	연구자	연구대상	비고
□자형 가옥	1982	' \square 자형'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송인호	경북-가옥 5호	석사학위
	1987	구자형 전통주거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문세영	전국-가옥 49호	석사학위
	1996	\square 자완전일체형 전통 살림집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	여상진	경북-가옥30호	석사학위
	1999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김화봉	안동문화권-361호	박사학위
	2000	전통주택 안마당의 공간구조적 특성 연구 : 충청지방의 \square 자형 중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박진옥	충청-13호	석사학위
	2004	'연결형' 뜰집의 공간구성 유형의 특성	김화봉	안동문화권-21호	학술지
	2010	안동문화권 \square 자형 뜰집 평면구성의 지역적 특성	신치후	안동문화권-302호	학술지
	2011	영동지역 \square 자형 주택의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이용재	영동-30호	석사학위
사랑채·안채	1988	조선전기 상류주택의 안채구성에 관한 연구	이유미	충남·경북-14호	석사학위
	1997	양동마을 전통주택의 안채와 사랑채의 구성관계에 관한 연구	김복태	양동마을	석사학위
	1999	조선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윤일이	전국-625호	박사학위
	2002	안동문화권 뜰집의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경계구조	김미나	안동문화권	학술지
	2011	한국전통주거의 채와 채나눔 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신수경	전국-29호	석사논문

시기별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1980년대에는 구조, 비례, 평면구성에 관한 기초적인 건축특성에 대해 연구되었고, 90년대에는 \square 자형 가옥에 대한 유형 분류를 시도되었으며, 공간구성과 구조 등의 분석을 통하여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2000년대는 선행된

연구들의 성과를 토대로 영역, 경계, 가변, 변용에 관한 분석이 시도되었고, 기존의 경상북도 지역으로 한정되었던 연구 범위 또한 충청도, 전라남도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에 진행된 선행연구들은 □자형 가옥의 분포를 파악하고 각 가옥의 공간 및 평면을 살펴 공간특성을 파악한 것으로, 특히 □자형완전일체형 전통 살림집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여상진 1996)는 가옥의 규모 및 안채·사랑채의 배치에 따라 평면형의 유형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현존하는 □자형 가옥의 구성 원리를 밝히는데 기여하였다.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김화봉 1999)는 기존에 정립되지 않은 뜰집의 유형에 대한 분류를 시도함으로써 그의 분류방식이 널리 적용되는데 일조하였다.

2000년대에는 특정 마을 또는 건축물에 대하여 전문적인 지식을 배경으로 상세하게 진행되었다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특히 가옥을 이루고 있는 안채 및 사랑채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건물(채)과 다른 요소와의 관계, 특성 등을 연구하는 내용이 주를 이루었다. 양동마을 전통주택의 안채와 사랑채의 구성관계를 살핀 연구(김복태 1997)와 조선후기 가옥을 집중형, 결합형, 분산형으로 구분하여 사랑채와의 관계를 살펴본 연구(윤일이 1999)도 주목된다. 가옥을 구성하는 채의 연결과 분리에 관한 논문은 2000년 이후 시작되었다. 안동문화권 뜰집의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경계구조(김미나 2002)연구에서는 중·상류주택 내의 안채와 사랑채 영역 연결 및 분리를 위한 경계의식을 해석하여 뜰집의 배치형태상에서 영역간의 물리적 경계구조를 도출하였다. 채 구성방식의 유형을 분류한 후 채 나눔 기법을 시대별, 지역별, 유형별로 종합한 연구(신수경 2011)와 충청지역 가옥의 구성방식과 동선체계를 고찰한 후 각 채의 영역을 설정하여 경상도지역 가옥과 비교한 연구(박진옥 2000)도 보인다.

1.3.1 □자형 가옥에 관한 연구

1990년대 □字型傳統住居의 平面構成에 關한 研究(문세영 1987)에서는 전국에 분포하는 □자형 가옥 49호를 대상으로 하여 평면구성상 규모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패턴을 고찰하고자 하였다.

상류주택은 유교와 가사 제한령, 풍수 및 도참사상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았고, □자형 주거를 상류주택이 가져야할 보편적인 기능을 적절히 압축한 주거형식으로 조선시대 중·상류주택의 일반적 형식으로 보았다. □자형 가옥의 중요건물은 주로 안채를 지칭하였고, 안채는 부엌의 연결형식에 따라 꺾임형과 일렬형으로 분류하였다. 꺾임형은 안방-대청-건너방-부엌으로 구성되며 16칸 내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보았고, 일렬형은 부엌-안방-대청-건너방의 구성으로 20칸 이상에서 나타난다고 하였다. 사랑채는 평면구성을 파악하여 돌출형과 이탈형으로 분류하였다.

□자형 가옥은 중요건물이 □자 형상을 이루고 있으며 12~25칸의 규모에서는 하나의 □자를 구성하는 것으로 보았고 이를 71.7㎡의 최소형이라고 규정하였다. 또한 25~35칸은 두 개의 □자 구성을 보이며, 35칸 이상에서는 세 개 이상의 □□자 구성을 하고 있다고 보았다. 하나의 □자를 구성하는 규모에서는 12칸(4×4), 16칸(5×5), 20칸(6×6)의 정방형 □자 구성과 14칸(4×5), 18칸(5×6)의 장방형 □자 구성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자구성이 두 개일 경우는 대표적 유형을 세 유형으로 보았다. 이러한 패턴은 안채와 사랑채 관계의 질서에 근거한다고 보았고, 사랑채가 □자 안채와의 연결위치에 따라 평면구성의 변화과정을 설명하였다.



그림 1. 문세영(1987)의 유형분류

□자완전일체형 전통 살림집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여상진 1996)는 □자형 가옥 중 안채와 사랑채, 부속채가 트임 없이 접속된 가옥을 ‘□자완전일체형’이라 명칭하고, 경북지역에 위치한 5개 마을의 가옥 30호를 대상으로 부분과 부분의 구성적 관계를 이해하고자 하였다.

여상진은 대상 가옥의 칸 조합과 실배열, 가구구조, 지붕구성을 파악하고 안채 및 사랑채, 부속채와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각 채의 평면구성을 살펴본 후, 안채를 일렬형과 꺾임형으로 분류하였고, 일렬형은 횡방향 6칸, 5량 전퇴구조, 팔작지붕으로 파악하였고 꺾임형은 횡방향으로 4칸, 3량 구조이고 가적지붕잇기 등의 구성을 보인다고 말한다. 사랑채는 돌출형과 비돌출형으로 분류하였고, 돌출형은 방과 대청의 패턴으로 구성되었으며, 비돌출형에서는 방과 대청, 다시 방의 패턴으로 구성된다고 보았다. 부속채와 문간의 경우, 문간은 대문간과 부엌 반대측 익랑의 측문간 등 2곳에 시설되기도 하고 생략되기도 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부속사는 마구, 고방, 행랑방 등으로 마구는 반드시 문간과 연결하여 나타난다고 하였다.

가옥의 전체 구성은 안채와 사랑채를 최대한 분리시키기 위하여 문간과 고방을 적절히 배치하였으며, 후면 모퉁이에는 도장이 배치되고 전면 모퉁이와 돌출부에는 사랑대청과 행랑방, 마구를 두었다고 하였다. 또한 횡방향으로는 간을 부가하여 구성하고 종방향으로는 반 칸을 이용하여 구성한 것을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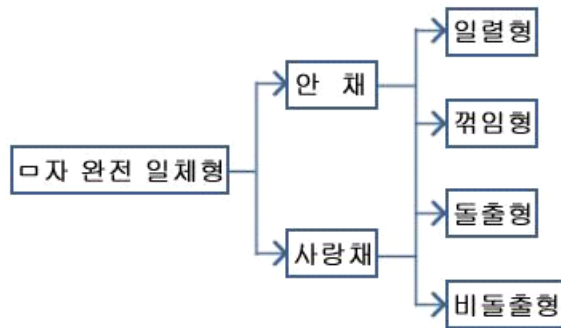


그림 2. 여상진(1996)의 유형분류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김화봉 1999)에서 뜰집은 안동문화권 내의 중상류 계층의 주거인 ㅁ자형 주거형태로서 ㅁ자형 가옥의 구성적 특성을 살펴보고 뜰의 장소성 및 뜰집의 공간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뜰집은 안채와 사랑채로 이루어진 본채공간과 부속공간인 행랑채로 구성되고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행랑공간이 위치하여 공간적으로는 연결하고 기능적으로는 단절한다고 말한다. 또 안채는 내향적이고 사랑채는 외향적으로 구성되어 뜰을 중심으로 둘러싼 형태를 하게 되는데 이 형태에 따라 완결형, 연결형, 분리형의 세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완결형은 공간이 완전히 연결되어 ㅁ자형을 이루고, 연결형은 전체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는 하지만 뜰을 완전히 감싸지 못하고 일부가 떨어져 있는 형태이며, 분리형은 본채가 두 채에서 세 채까지의 동으로 구성되어 있는 형태를 보인다고 하였다. 또한 二자집, ㄷ자집, 미완결의 분리형 및 연결형이 뜰집과 유사한 폐쇄성을 갖기 위해 측면을 담장으로 막음을 알 수 있었으며 뜰은 빈 공간이나 주거의 중심에 위치하고 마루와 방이라는 공간적 단계를 통하여 내부공간과 연결되는 등 이중성, 여백성, 전용성, 매개성, 유동성의 등의 공간적 특성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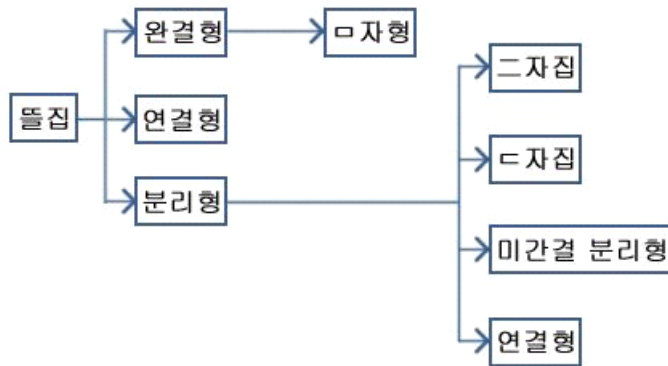


그림 3. 김화봉(1999)의 유형분류

전통주택 안마당의 공간구조적 특성 연구(박진옥 2000)에서는 충청지역 □자 주택 9호와 튼 □자 주택 4호 등, 총 13호의 주택을 대상으로 평면과 단면의 관점에서 안마당을 규정하는 구성요소를 파악하고 안마당과의 관계에 관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안마당은 기단과 지붕, 건물등 세 가지 요소가 관계를 맺으며 영역을 한정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자 주택에서는 기단과 지붕의 분절이 나타나며, 튼 □자 주택에서는 평면, 기단, 지붕의 구성이 □ + _ 로 구성되어 기단과 지붕의 분절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또한 두 주택형식 모두 몸체를 중심으로 □자 형태의 세 면을 구성하는 요소들은 분절되지 않으면서 안마당을 한정한다고 말한다.

주택의 동선축은 전면진입과 측면진입이 동시에 나타나고 안마당으로 진입은 직선보다는 굴절된 동선을 갖는데 이는 공간의 인지를 폐쇄에서 개방으로 전환시킴으로써 변화와 개방성을 부여하고 있다고 말한다. 안마당의 폐쇄와 개방은 그 마당을 규정하는 평면의 구성방식에 의해 결정되기도 하지만 안마당으로의 동선구성방식에 많은 영향을 받음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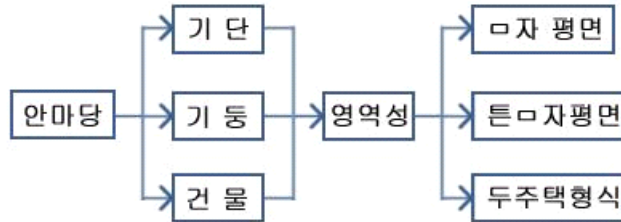


그림 4. 박진옥(2000)의 유형별 안마당의 구성

안동문화권 口자형 뜰집 평면구성의 지역적 특성(신치후 2010)에서는 안동문화권의 뜰집 302호를 대상으로 평면분석을 시도하여 시대별로 특징을 파악하고자 했으며, 사회 및 문화의 영향관계를 유추하고자 하였다.

본채와 안채, 사랑채로 나누어 각각의 유형분류를 시도하였으며, 본채는 결합형과 분리형, 안채는 대칭형과 비대칭형, 사랑채는 모서리형과 전면형으로 보았다. 본채에서는 결합형과 안채는 대칭형, 사랑채에서는 모서리형의 유형이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면을 시기별로 살펴본 결과 17~8세기 가장 큰 변화를 보인다고 말한다. 17~8세기 평면특성은 본채에서 결합형이 적게 나타나며, 안채에서 대칭형이 가장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또한 사랑채에서는 확장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전면형이 출현했다고 확인하였다. 17세기 이전에는 본채 결합형, 안채 비대칭형, 사랑채 모서리형 및 안대청과 사랑대청의 규모가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말한다. 18세기 이후는 본채에서 결합형, 안채에서 대칭형이 다시 줄어들어 안대청과 사랑대청의 규모가 작은 사례를 많이 보인다고 말한다.

17~8세기 문중 위주의 사회질서 확립 및 제례공간 성격의 변화와 같은 사회, 문화적 배경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면서 평면형태가 큰 변화를 준 것으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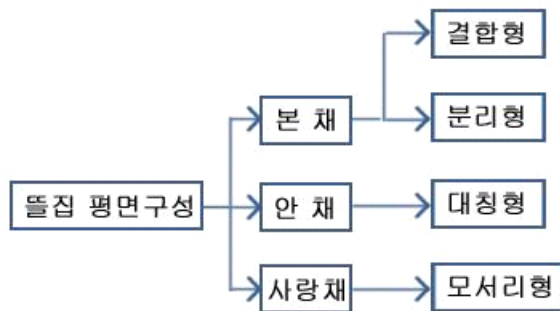


그림 5. 신치후(2010)의 평면구성

영동지역 □자형 주택의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이용재 2011)에서는 영동지역의 주택 30호를 대상으로 평면 및 지붕, 가구구성의 분석을 통하여 구성원리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대상들은 이 지역의 토착 민가 형식을 그대로 수용하여 안채가 주로 田자형의 양통형 평면이면서 부엌 공간을 넓게 사용하고, 마루 공간보다는 방을 우선시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안채에서만 의례 공간인 대청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지붕 구성상으로는, 각 채의 지붕이 독립적으로 구성되는 경향이 나타나며, 특히 안채와 사랑채 지붕의 경우 독립적으로 구성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말한다.

가구 구성상의 특징은 □자의 부분마다 각기 다른 주열을 가지며 전체적인 주방의 모습이 종·횡으로 어긋나 있음을 알 수 있었다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았을 때 이 지역의 □자형 주택들이 처음부터 □자형으로 계획된 것이 아닌, 안채, 사랑채, 부속채들이 각각 독립적으로 계획·구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파악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안채 一자형의 가장 많이 나타나며, 영동 남부지역에서 나타난 안채 일체형은 지붕이 익랑이고 부속채와 일체화 된 유형으로 다른 유형과는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고 말한다. 안채 ㄱ자형은 영동북부에서만 발견되었고 안채와 사랑채의 배치형식이 맞고패의 형태를 띠며, 안채의 평면구성은 중부형의 민가형식을 따르고 있다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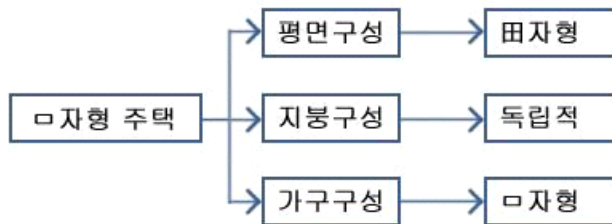


그림 6. 이용재(2011)의 □자형 주택 구성방식

1.3.2 사랑채 · 안채에 관한 연구

조선전기 상류주택의 안채구성에 관한 연구(이유미 1989)는 ㄷ자형 및 ㅌㄷ자형의 주택 14호를 대상으로 주거의 발전사 측면에서 주거 공간 구성의 변화양상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안채의 평면은 안방과 부엌의 관계에 따라 경기형과 민가형으로 분류되었고, 경기형은 대청을 통한 출입방식, 안방-부엌-격납공간 연결 등의 평면구성이 건립 시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였다. 민가형에서는 안방의 형태에 대청의 가로방향으로 변하여 출입방식이 뒷마루를 통한 출입도 가능해지고, 평면구성이 안방-부엌-온돌방의 연결관계에서 안방-부엌-격납공간의 연결로 변한 것으로 보았다. 이러한 평면형에 관계 없이 시기적으로 16세기 중기에 건너방의 규모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확인하였다.

월성지역은 16세기 중기 이전에 지어진 주택이 많이 분포하고 안동지역은 16세기 중기 이후 주택이 다량 분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안채 평면형은 안동지역의 경우 경기형이 더 많고 월성의 경우는 건립연대가 오래된 두 주택의 경우 경기형 평면을 취하고 있어 경기형 평면을 민가형 평면보다 고택의 유형으로 볼 수 있다고 말한다.

또한 민가형의 경우 경기형보다 부엌과 격납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큰 것으로 보아 중소지로서의 경제적 배경을 반영한 것으로 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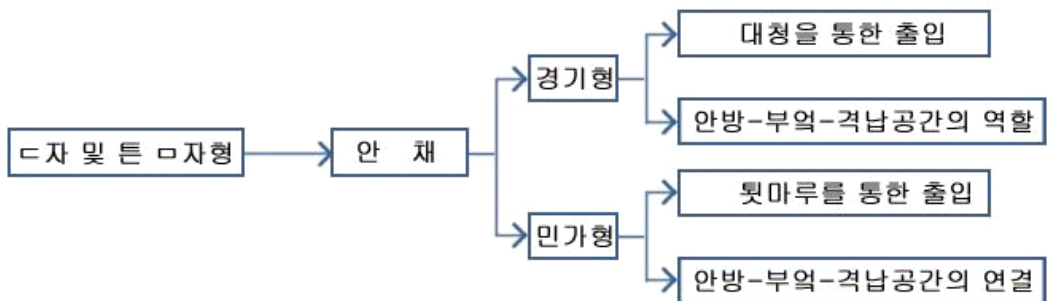


그림 7. 이유미(1989)의 유형분류

조선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윤일이 1999)는 사랑채의 배치와 구성 및 지역별 사랑채의 동질성과 차별성, 계층별 위계적 구성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사랑채의 배치는 가옥의 형태와 안채 구성에 따라 좌우되고, 사회적 공간으로 사용하기 위해 안채와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외향적인 성격을 지닌 공간으로 파악하였는데 측면마루형을 가장 선호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가옥 형태를 집중형과 결합형, 분산형의 3가지로 유형분류를 시도하였고, 안채에서는 중부형과 영남형, 호남형, 영동형으로, 사랑채는 일반형과 분화형으로 유형분류를 하였다. 사랑채의 일반형은 다시 측면마루형 과 중앙마루형, 모마루형으로 유형분류를 시도하였다.

분석결과 조선시대 상류주택은 유교적 질서를 유지한다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안채와 안마당의 폐쇄, 개방 정도와 더불어 사랑채 성격에 차이가 생겼다고 하였다. 또한 계층별로 대외적 교류범위, 사회적 역할과 가치관의 차이에 따라 사랑채의 영역과 기능이 달리 추구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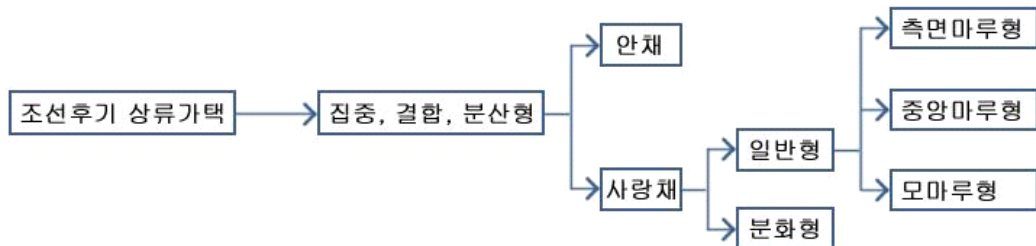


그림 8. 윤일이(1999)의 유형분류

안동문화권 뜰집의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경계구조(김미나의 1 2002)는 □자형 가옥 내에서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분리와 연결을 고찰하고 시대상의 영향이 공간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경계구조는 여성을 보호하는 구조와 남성과 여성의 공간을 분리하는 경계, 생활의 필요에 따라 남성과 여성공간을 연결하는 경계구조 등의 3가지 관점을 통해 가옥을 고찰하였다.

분석결과 물리적인 경계구조를 담장과 내외담, 내외문 등 3가지로 도출하였고 담장은 전면과 후면, 후면형식을 취하고, 이는 시선차단과 진입을 막는 경계구조로 보았다. 내외담은 안채의 내부공간으로의 시선을 차단하고, 내외문은 전면과 측면, 전측면 결합형으로 분류하였으며, 동선을 꺾이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파악하였다. 안채와 사랑채의 차단구조는 벽장과, 가림벽, 뒷간의 벽과 문을 이용하였고 두 영역간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구조로 확인하였다.

연결구조에서는 행랑채, 쪽마루, 전이공간을 통하여 연결된 것으로 파악하였으며, 행랑에서는 공간을 통한 평면적 연결로 보았고, 쪽마루는 진입이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하였다. 사랑방 후면의 마루칸은 책방을 통하여 연결되고, 대문간 담장에서 통로를 통해 연결되기도 하였다고 말한다. 경계구조는 가옥의 배치형태에 따라 결과를 도출하였는데 사랑채와 안채가 전후에 배치된 경우에서 사랑방과 대청이 안마당에 접하여 차단과 연결이 함께 발달한 것으로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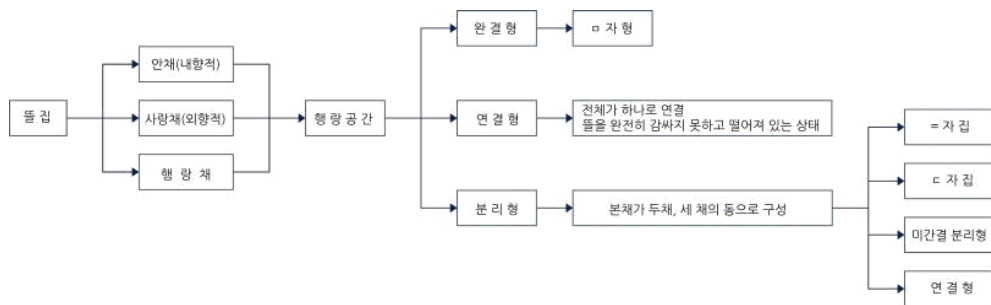


그림 9. 김미나(2002)의 유형분류

한국전통주거의 채와 채나눔 구성방식에 관한 연구(신수경 2011)는 채나눔의 수법을 파악하고 그 특성의 의미와 구성방식을 규명하고, 시대별, 지역별, 유형별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축과 동선, 영역, 위계에 의한 구성기법을 통하여 분석을 시도하였고, 채의 분화는 유교사상에 의한 남녀와 신분 계층 간으로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채나눔 구성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한다. 이로써 여자와 남자공간, 주인과 하인공간, 산자와 죽은 자의 공간을 달리하여 위계성을 표현했고 영역간의 채나눔의 형식을 빌어 마당이라는 매개공간을 통해 서로 유기적으로 관계를 이루도록 하였다고 말한다. 채 배치에 따라 별동형, □자형, 혼합형으로 나누었고 이 유형을 시대별, 지역별로 살펴본 결과 사회문화적 변화상이 채 배치에 영향을 주어 영남권에서는 폐쇄적이고 독립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자형을 선호하고 호남권에서는 별동형과 일자형 안채를 두어 개방성과 안마당을 작업공간으로 활용한다고 파악하였다.

축에 의한 채나눔 유형인 평행축형은 별동형과 □자형가옥에서 많이 보이고 사선축형은 조선시대 중기, 혼합형에서 많이 나타난 것으로 보았고, 안채, 사랑채, 사당채로 향하는 세 갈래와 안채와 사당채가 묶인 두 갈래 모습으로 파악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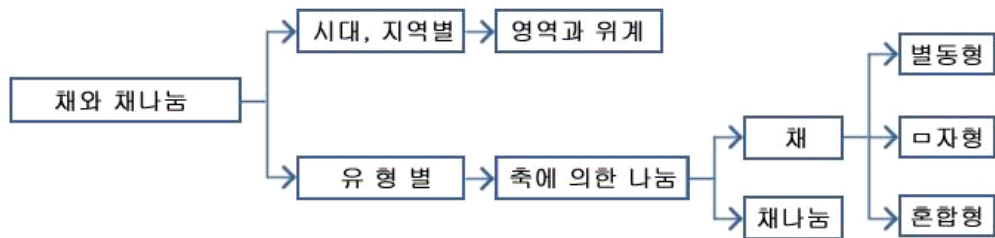


그림 10. 신수경(2011)의 유형분류

1.3.3 선행연구 고찰 및 연구의 방향

상기 선행연구들은 크게 두 가지의 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하나는 ㄱ자형 가옥의 전반적인 구성을 이해하고 여러 대상을 선정하여 평면적 특징을 밝히는 부류의 연구와 다른 하나는 유형분류를 통하여 빈도를 살펴본 연구가 있다.

ㄱ자형 가옥의 특징과 유형을 밝히는 연구는 2000년대에 집중되었고, 이를 토대로 2010년대 ㄱ자형 가옥이 밀집한 안동문화권 및 영동지역의 연구가 진행되었다. 1980년부터 시작된 ㄱ자형 가옥에 관한 연구는 경북 및 안동지역에서 충청 및 호남지역으로 대상의 위치가 변화하였으나, 그 연구의 수가 적으며 대상은 다시 안동지역으로 편향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에 의해 타 지역 가옥의 특성이 왜곡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된다. 또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인접한 지역 가옥의 동질성, 이질성을 파악하여 가옥의 특성을 파악한 점은 큰 성과라고 할 수 있으나 타 지역과의 비교 연구가 부족한 상황에서 특정결과가 그 지역만의 특성으로 오해될 소지가 남아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와 이론고찰을 통하여 유형개념에 대하여 정립하고 ㄱ자형 가옥을 ‘개방형’, ‘폐쇄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배치와 연결방식, 공간구성을 살펴 가옥의 공간특성과 사랑채와 안채간의 동선을 유추하고자 한다.

1.4 용어의 정의2)

전통건축물의 용어는 일부 상호 혼용되고 체계적으로 통일되지 못하여 한국전통건축을 연구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원활한 전개와 일관성 있는 서술을 위하여 사용되는 용어에 대한 정의가 필요하다.

가) 안채

한국 주택에서 가장 안쪽에 자리하며 부인들이 기거하는 공간이고 몸채, 내당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여성들의 가사노동과 육아, 귀중품을 보관하는 장소로, 공간의 성격은 폐쇄적이다.

나) 사랑채

주택에서 가장 앞 쪽에 자리하며, 바깥주인이 주로 거처하는 방이 있는 집채. 보통 안채와 바깥 행랑채 사이에 둔다. 남성들의 학문, 사색, 접대, 사무를 위한 장소로, 공간의 성격은 개방적이다.

다) 행랑채

주택에서 대문간의 좌우 또는 그 앞에 둘러 세운 부속 집채로 하인들의 노동공간과 수장 기능을 내포하고 있다.

라) 별당채

몸채에서 떨어져 따로 지은 집으로 거처하는 방이 있는 집채.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이다.

마) 건너방

한식 주택 안방에서 대청의 건너편에 있는 온돌방. 몸채에서 안방 다음으로 주요하게 쓰이는 방. 월방. 건넌방.

바) 마루방

2)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3

바닥에 마루널을 깐 방으로 안방과 건너방 사이에 마루를 깐 방, 대청마루 등을 말하며 널을 깔아 놓은 방. 사방을 벽이나 창문으로 막아 놓은 간.

사) 쪽마루

한두 쪽의 넓은 널을 깔아 만든 좁은 툇마루.

아) 툇마루

툇가에 놓은 마루

방이나 마루 바깥에 붙여 꾸인 좁은 마루의 총칭

자) 협문

대문의 정간(중앙간) 좌우에 있는 작은 문. 동협문. 서협문

조그마하게 따로 낸 대문. 셋문

차) 마당

집 앞이나 어느 곳에 단단하게 닦아 놓은 땅,

건물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또는 전체적으로 둘러싸여진 지면.

카) 간/間

사방 네 기둥 또는 벽으로 둘러싸인 공간. 방 · 실 · 청 따위,

본 논문에서 적용하는 간은 각각의 대상 가옥이 갖는 간의 크기를 기준으로 함.

타) 동선

사람의 움직임을 나타내는 선.

2. 이론고찰

2.1 □자형 가옥의 개념

2.1.1 □자형 가옥의 정의

□자형 가옥은 평면형식상으로 보았을 때 각 채들의 조합에 의해 □자 모양을 이루으로써 안마당을 형성하고, 각 채들이 안마당을 둘러싸면서 안마당이 수직으로 열린 가옥을 의미한다. 즉, □자형 가옥은 건물이 서로 연결된 형태로 상호 유기적인 관계를 갖는 건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자형 가옥의 평면에 따른 명칭은 지역에 따라 다소 상이하다.

□자형 주거에 대한 연구가 건축적으로 처음 진행된 것은 식민지의 기초자료를 조사했던 일본 학자들(今和次郎(1923), 岩槻善之(1924), 藤島亥治郎(1924) 등)에 의해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³⁾ 선행 연구에서 사용된 □자형 가옥에 관한 용어는 ‘□字形’, ‘□字집’과 같이 ‘□字’형태를 중심으로 한 용어와 ‘뜰집’, ‘뺨리집’, ‘맞고패집’과 같은 가옥을 일컫는 언어를 중심으로 한 용어가 있다.

‘뜰집’이란 용어는 長聖浚의 연구⁴⁾에서 가장 먼저 사용되었으며, ‘뜰집’을 ‘주 건물의 평면이 □자 모양을 이루으로써 건물의 안쪽에 뜰(안마당)을 가지고 있는 형식’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경상북도 안동지방에서 중규모 이상 주거의 살림채(본채)에 흔히 사용된다.’는 지역성을 갖는 용어임을 밝히고 있다.

김화봉⁵⁾의 연구에서는 뜰집을 ‘朝鮮時代に 건축된, 安東文化圈(奉花郡, 安東市, 盈德郡, 英陽郡, 榮州市, 醴泉郡, 義城郡, 靑松郡)에 분포하는, 주거공간으로 둘러싸이거나 출입이 제한된 뜰을 갖는 세 채 이하로 구성된 튼 □字形 및 □字形의 傳統 瓦家’라고 밝혔다.

‘뺨리집’은 ‘경기도, 황해, 평안도 지방에 분포하는 튼 □字形 혹은 □字形 住居’⁶⁾로 지칭하며, □자 형태는 ㄱ자형의 안채와 사랑채 및 곡간, 헛간 등이 서로 만나 □자를 이루어 뺨리모양을 이룬다하여 붙여진 이름이기도 하다.

백유정⁷⁾의 연구에서 다룬 맞고패집은 고패집 두 개가 서로 마주한 튼 □자형 배치

3)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11

4) 장성준, 安東 土溪洞의 住宅類型에 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22권 81호, 1978.4, pp.3-10

5) 김화봉, 위의 논문, p.50

6) 김광언, 위의 책, pp.177-213

7) 백유정, 대문간 위치로 본 경기북부 맞고패집의 바깥채 공간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제 27권 제7호 통

를 이루는 가옥을 지칭한다. 고패집은 곱은자집, 기억자집 등으로 불리는 ㄱ자형 가옥을 지칭하는 방언이고 대체로 경기만지역과 충청권에서 통용되는 一자형 집에 부엌이나 외양간 따위가 직각으로 이어 붙어진 집을 일컫는다.

이러한 ㄱ자형 가옥의 명칭들은 평면형식상으로 ㄱ(미음)자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각 지방에 따라 내포하는 의미의 차이에 기인하여 명칭상 다소 차이를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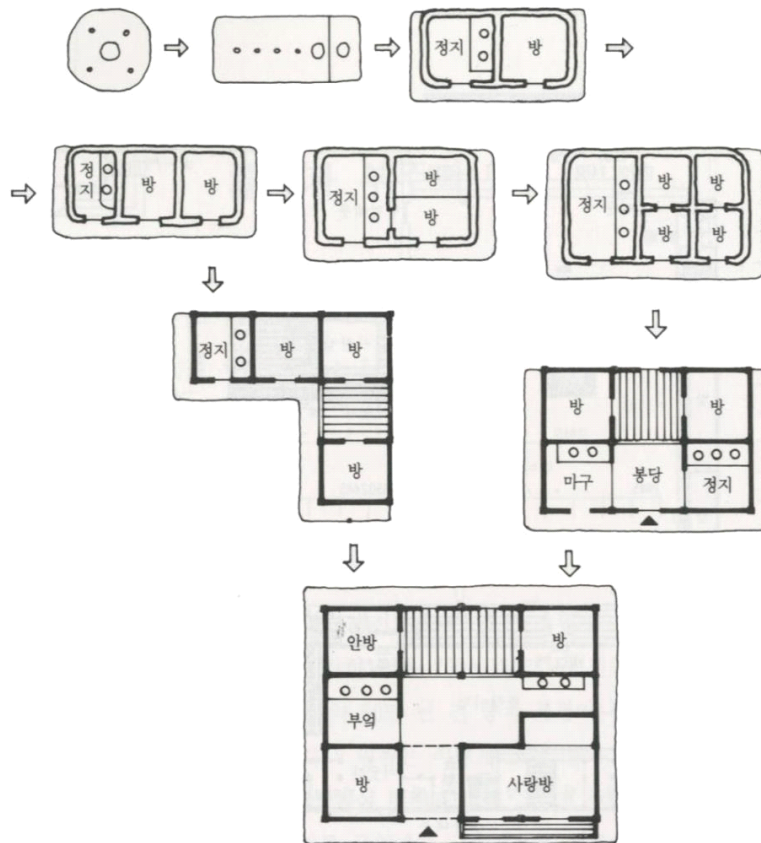


그림 11. 우리나라 민가 평면의 발전과정도

출처 :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2.1.2 시대적 배경

고고학적 고증에 의하면 우리나라 주거의 형태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新石器時代의 토기를 사용했던 시기로 밝혀졌다. 이 시대의 주거는 지반을 파고 반지하식으로 만든 움집이며, 이 형식은 청동기시대를 거쳐 삼국시대까지 보편화되었음이 문헌과 실제 발굴조사에서 확인되었다.⁸⁾

조선시대는 성리학적 국가체제를 추구했던 고려말의 신진사대부(新進士大夫)들은 이성계(李成桂)의 역성혁명(易姓革命)을 도와 조선 개국의 주역이 되었다. 이들이 양반과 료로 등용되고 지배세력으로 성장함에 따라 조선사회는 양반관료사회를 형성하게 된다. 이들의 성리학적 지배질서와 통치이념은 고래시대를 대표하는 문벌귀족사회의 중세 봉건적 사회와 문화를 변화시키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왕조의 교체만이 아니라 종교, 사회, 경제, 문화 등 전방위에 걸친 사회적 변화를 의미하며 이에 따라 주거문화의 시대적 변화도 이루어졌을 것이다.

사회환경의 변화는 한양 천도가 결정됨에 따라 새로운 도성의 건설을 위한 도시계획이 이루어지면서 시작되었다. 성을 쌓아 경계를 만들고 51부 49방으로 구역을 나누어 궁궐과 관청, 시장, 주택지의 자리를 정하였다. 토지는 국유제(國有制)를 바탕으로 하여 주택의 사유와 매매는 인정하였지만 대지는 국가에서 급여하고 가기세(家基稅)를 징수한 것이다. 그러나 세력이 있는 계층이 택지를 과점하거나 대규모의 주택을 건설하는 사태를 막기 위해 가대규제(家垔規制)를 두어 택지의 규모를 제한하였다.⁹⁾

표 3. 경국대전 호전 급조가지조의 가대분급

품 계	부 수	현행평수	m ²	품 계	부 수	현행평수	m ²
정 1 품	35	1,410.5	6,662.8	정 6 품	10	403	1,332.2
정 2 품	30	1,209	3,996.7	정 7 품	8	322.4	1,065.8
정 3 품	25	1,007.5	3,330.6	정 8 품	6	241.8	799.3
정 4 품	20	806	2,664.5	정 9 품	4	1661.2	536.9
정 5 품	15	604.5	4,998.4	서 인	2	80.6	266.4

택지의 제한과 더불어 가사규제의 필요성으로 인해 세종 13년(1431)에 하교에 따라 제1차 가사제도를 제정하였는데, 세종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표기되어 있다.

《세종실록》“대소신민의 가사제도가 없어 백성의 가사가 공경의 집을 지나치고, 공경의 제택은 궁궐과도 같다. 서로 사치와 화려함을 숭상하여 상하가 그 등위가 없으니

8)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6, p.488

9) 강영환, 새로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3, pp.145-150

실로 온당치 않은 일이다. 이제부터 임금의 친하들, 친형제와 공주의 집은 50칸으로 하고 대군은 이에 10칸을 더하며, 2품 이상은 40칸, 3품 이하는 30칸으로 하고 서인은 10칸을 넘지 않게 하라. 주춧돌을 제외하고는 다듬은 돌을 쓰지 말고, 화공을 구성하지 말며, 진채(眞彩)로 단청하지 못하도록 하여 검소, 간략한 기품을 숭상하게 하라. 사당, 부모가 물려준 가옥, 사들인 가옥, 외방에 세운 가옥은 이 제한을 받지 않는다.”¹⁰⁾

토지 및 가사규제는 주거의 성격을 변화하게 하였는데 그것은 다음과 같다.

첫째, 기능별로 다양한 건물과 공간이 분화되었다. 가사규제에 등장하는 용어만도 정침(正寢), 익랑(翼廊), 서청(西廳), 내루(內樓), 내고(內庫), 사랑(舍廊), 행랑(行廊) 등 다양한 공간과 건물명이 나타났으며, 제한기준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보아 살림채 및 사랑채, 행랑채가 별동으로 건립되었을 것이다.

둘째, 수직적 규모의 제한이 나타나고 있다. 기둥의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건물의 높이를 한정였다. 조선시대에는 루건축이 보편화 되고 건물의 평면규모 또한 커졌기 때문에 제한하였을 것이다. 특히, 상류계층에서 주택 내에 루를 두는 것이 보편화 되어 이를 제한하기 위함이었을 것이다.¹¹⁾

성리학은 본래 우주와 인간의 질서를 이기론(理氣論)을 통하여 하나의 통일적 원리로 파악하는 철학적인 유학이었다. 성리학은 특히, 인륜(人倫), 즉 인간의 사회적 관계에 있어서의 윤리를 중히 여기는 사상으로서는 사대부들은 이러한 사회윤리로 사회를 교화(教化)시켜야 항구적인 질서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믿었다.

사대부들의 생활이념과 규범은 가정생활에 있어서 새로운 생활문화를 이루어 나갔다. 삼강오륜(三綱五倫)은 사회 속에서 지켜야 할 인간관계의 가치덕목이며, 주자가례(朱子家禮)는 이러한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의례의 기준이었다. 이러한 구범들을 실천하고 의례를 실행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주거생활의 방식이 요구되었으며, 주 생활의 변화는 주거형태의 변화를 수반하게 하였다.

주거형태는 변화는 가묘의 건립과 남녀의 영역구분, 거주공간의 변화 등으로 특징지어 질 수 있다.

내외법(內外法)에 따른 남녀영역의 구분은 성리학적 윤리관에 따라 남녀간에 지켜야 할 행동규범을 의미한다. 성리학적 윤리관에 따르면 남자와 여자는 본래부터 주어진 역할이 다르며(夫婦有別), 서로간의 예의를 지키기 위하여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10) 《세종실록》 권51, 13년 1월 丁丑

11) 강영환, 위의 책, pp.151-154

지(男女七歲不同席), 음식을 같이 먹지 않는다든지(男女不共食) 하는 규범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남녀가 생활 속에서 소로 회피함으로써 예의를 지킬 수 있다는 인식을 배경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적 윤리는 주거생활에서도 적용되어 성별에 따라 주거영역을 구분하는 배경이 되었다.

<예기(禮記)>의 내칙(內則)에는 ‘예(禮)는 부부간에 서로 삼가는데서 시작된다. 집을 지을 때는 내외를 구분하여 남자는 바깥에 거처하고, 여자는 안쪽에 거처하며, 문단속을 철저히 한다. 남자는 내당에 들지 아니하고, 여자는 밖에 나가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내외의 행동규범을 지키기 위해서는 주거영역의 분리가 필수적임을 적시한 것이다. 이에 따라 비록 부부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침실을 가져야 한다는 것(夫婦別寢)이다. 남녀의 영역구분은 침실만을 분리하는 것 뿐만 아니라 남녀의 역할에 따라 필요공간을 구성하였고, 이는 사랑채와 안채로 채 분화를 가져왔고 건물과 외부공간을 함께하여 영역을 이루었으며, 각 영역은 담장과 문으로 경계를 이루었다.

사랑채와 안채의 배치는 음양론적(陰陽論) 사고가 적용되었다. 남자는 양(陽), 여자는 음(陰)이고, 양의 방위인 남쪽과 동쪽은 남성의 공간이 위치하고, 음의 방위인 북쪽과 서쪽은 여성의 공간이 위치하게 되었다. 이에 사랑채와 안채는 전후로 배치되었다.¹²⁾

12) 강영환, 위의 책, pp.162-167

2.2 ㅁ자형 가옥의 형성 및 특징

우리나라의 전통민가는 평면형식으로 보아 크게 분류하면 홑집과 겹집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것은 다시 그 형태로 보아 一子형, 二子형, ㄱ子형, ㄷ子형, ㅁ子형 등으로 나누어진다. 이러한 평면형식과 형태는 그 지역의 자연적 조건과 풍습에 따라 이루어지는 지방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것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대체로 북부지방형(함경도), 서부지방형(평안도), 중부지방형, 남부지방형, 제주지방형 및 서울지방형으로 구분하고 있다.¹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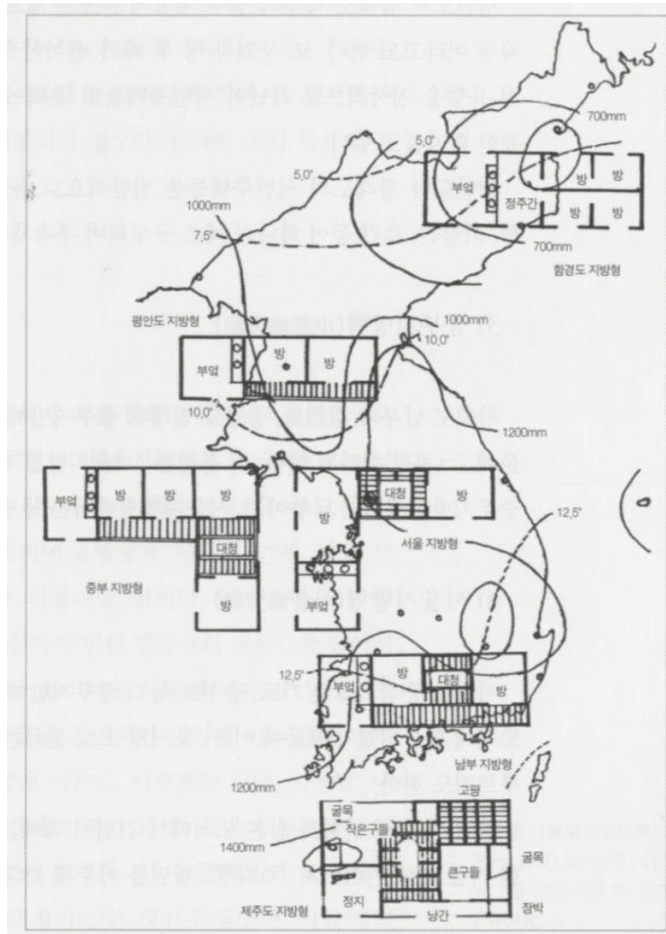


그림 12. 각 지방 주택평면과 연평균기온

출처 : 주남철, 한국건축사

13)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p.75

2.2.1 □자형 가옥의 발생 및 분포

우리나라의 강원도, 경상북도, 충청북도 일부 지역에서 대륙성 기후의 영향으로 □자의 폐쇄적인 가옥구조가 나타나기도 하며, 전라도 지방에서도 □자 형태의 가옥을 찾아볼 수 있다.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안동문화권에서는 총 302호가 분포되어 있으며, 가장 중심에 위치한 안동이 11호(38%)로 가장 많고 그 다음으로 봉화가 49호(16%), 영덕이 45호(15%)로 나타난다. 영양은 33호(11%), 영주가 27호(9%), 예천이 22호(7%)가 보이며, 청송이 8호(3%), 의성이 3채(1%)로 가장 적은 분포를 나타냈다. 안동은 조선시대에 안동문화권 8개의 시군 가운데 가장 큰 중심 도시였기 때문에 남아 있는 주택의 수가 가장 많다고 볼 수 있다.¹⁴⁾

□자형 가옥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를 살펴 가옥의 위치를 파악해보면 <그림 4>와 같다.



그림 13. 선행연구자 대상가옥 위치

14) 신치후, 안동문화권 □자형 주택의 평면형식의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p.24

또한 전통마을 내에 위치한 □자형 가옥의 수를 살펴보면 표 4와 같다.

표 4. □자형 가옥 분포 마을

	명 칭	입향시기	주 소	□자형 가옥	명 칭	
1	아산 외암마을	1820년	충남 아산시 송악면 외암리	4 개소	건재고택 교수택	참판택 송화택
2	고성 왕곡마을	14세기	강원 고성군 죽왕면 오봉리	-	-	
3	보성 강골마을	16세기 후반	전남 보성군 득량면 오봉리	4 개소	이금재가옥 박준균가옥	이복래가옥 이용육가옥
4	안동 하회마을	고려말기	경북 안동시 풍천면 하회리	7 개소	하동고택 북촌택 양진당 충효당	조순희가옥 주일재 류세하가옥
5	경주 양동마을	1457년	경북 경주시 강동면 양동리	9 개소	서백당 무침당 관가정 수졸당 낙선당	이원봉가옥 이원용가옥 이희태가옥 이향정
6	성주 한개마을	1450년	경북 성주군 월항면 대산리	3 개소	한주종택 월곡택	하회택
7	진주 남사마을	-	경남 산청군 단성면 남사리	3 개소	이씨고가 분양고가	최씨고가
8	제주 성읍마을	1423년	제주 남제주군 표선면 성읍1리	4 개소	조일훈가옥 홍태훈가옥	김관희가옥 한봉일가옥
9	대구 웃골마을	1616년	대구 동구 둔산동	1 개소	백불고택	
10	나주 도래마을	1480년경	전남 나주시 다도면 풍산리	-	-	
11	봉화 닭실마을	1520년경	경북 봉화군 봉화읍 유곡리	2 개소	총재종택	권양호가옥
12	김천 원터마을	1510년 추정	경북 김천시 구성면 상원리	-	-	
13	화순 월곡마을	-	전남 화순군 도곡면 월곡리	-	-	
14	영일 덕동마을	-	경북 영일군 기북면 오덕리	3 개소	이희구가옥 이원돌가옥	이동욱가옥
15	대전 상사마을	-	대전 동구 이사동	-	-	

총 15개 마을 중 경북지역에 위치한 마을이 7개소이고, 전남지역이 3개소, 충남지역 2개소, 강원, 충남, 제주지역에서 1개소씩 분포해 있다. 마을 내 가옥의 수를 살펴보면, 경북 경주의 양동마을 내에 서백당, 무침당, 관가정 등 9호가 나타나며, 경북 안동의 하회마을 내에 하동고택 및 북촌택, 양진당 등 7호를 찾아볼 수 있다. 충남 아산의 외암마을 내에 건재고택 및 참판택 등 4호가 보이며, 제주에 위치한 성읍마을 내에서도 조일훈가옥 등 4호가 나타난다. 경북 성주에 위치한 한개마을과 경남 산청에 위치한 남사마을, 경북 영일에 위치한 덕동마을에서 3호씩 위치한 것으로 나타나며, 경북 봉화의 닭실마을과 대구의 옷골마을에서 각 2호와 1호의 口자형 가옥을 찾아볼 수 있다.



그림 14. 연구대상 가옥의 위치

2.2.2 口자형 가옥의 공간구성

「內訓」¹⁵⁾에 의하여 남·녀간의 지켜야할 예의에 대해 훈계하고 있다. 이는 가족지간에도 禮를 바탕으로 한 철저한 남·녀간 생활의 분리를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러한 남·녀간 생활의 분리는 주택에서 공간의 분리로 구조화되었다.¹⁶⁾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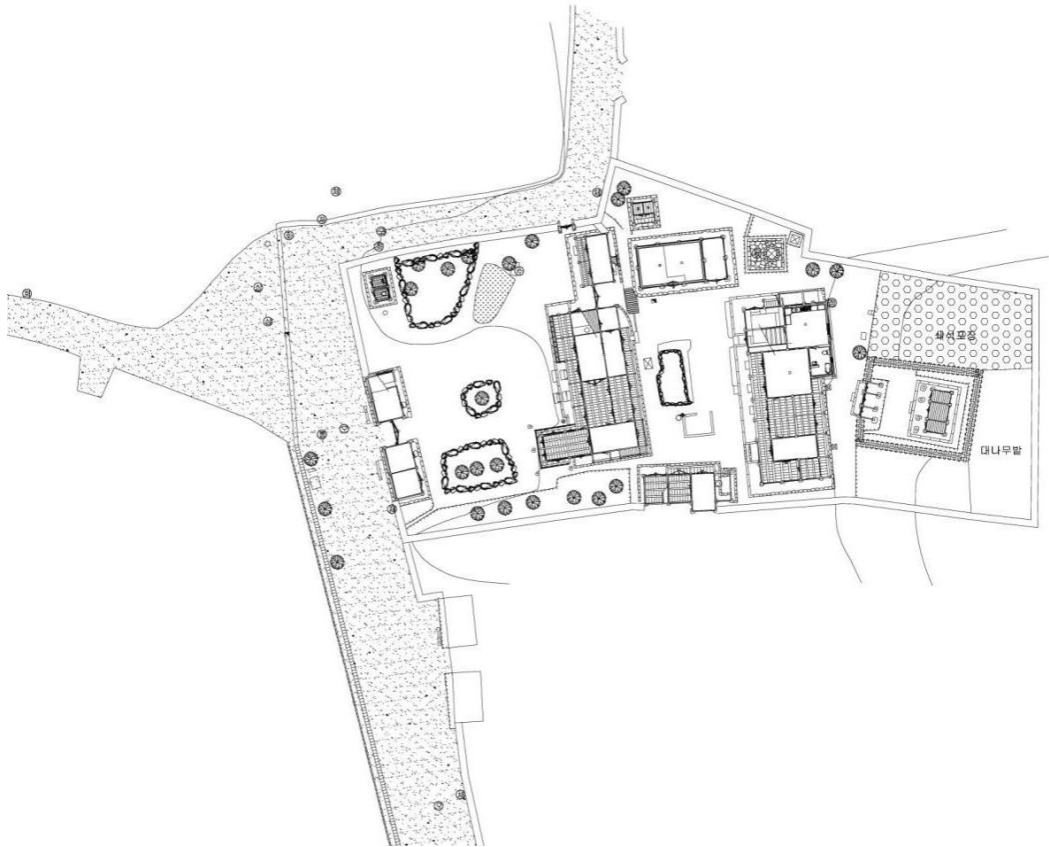


그림 15. 거창 정은선생가옥 배치도

출처 : 문화재청, 정은선생 가옥 기록화보고서

15) 소혜왕후 한씨, 이민수, 校註, 「內訓」, 흥신, 1994, p.17

16) 김미나, 안동문화권 뜰집의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경계구조, 대한건축학회지 제18권 제11호 통권 169호, 대한건축학회, 2002.11, pp.149-157

경남 거창군 위천면 강천리에 속한 정은선생가옥은 一자형 대문간채와 ㄱ자형 사랑채, 一자형 안채, 一자형 아래채, 곳간채, 사당채로 구성되었고, 동남향으로 자리 잡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는 병렬로 배치하였고 아래채와 곳간채를 두어 튼 ㄱ자형을 이루고 있다. 담장은 가옥 전체를 둘러 일곽을 이루었고, 담장과 건물을 통해 공간을 구분하였다. 사랑채와 중문채, 중문채의 담장을 통해 안채를 시각적으로 차단하고 사랑채 전면에 사랑마당을 두어 남성적 공간을 형성하였다. 여성적 공간인 안마당은 튼 ㄱ자형로 배치된 각 채들로 인하여 형성되며, 가장 안쪽에 제사를 위한 사당공간이 자리 잡고 있다.

가) 사랑채 영역

영역은 활동 및 기능, 효과, 관심 따위가 미치는 일정한 범위를 이르는 말로 사랑채의 물리적인 공간을 포함하면서 바깥주인의 활동 범위까지 사랑채 영역이라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사랑채의 기본구성요소는 사랑방과 사랑대청이다. 여기에서 점차 수용한 역할들을 보다 합리적으로 행하기 위해 간분화·채분화하며 유교적 원리와 더불어 풍류를 드러낸다. 분화양상은 사랑채에 내재한 성격을 반영하여 작은사랑방, 침방, 책방, 청지기방, 감실 또는 제청, 누마루로 분화되어 사랑채를 구성한다.

또한 사랑 마당과 정원은 사랑채의 성격을 그대로 보여주는 곳으로써 사랑채와 함께 사당마당이 존재하여 손님을 맞이하는 대외적인 활동이 이루어지고, 사랑채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배려하였다. 그 크기는 자유롭고, 외부사회와 자연스럽게 연결되도록 경계구조는 매우 개방적이다.¹⁷⁾

사랑정원은 여성중심의 후원과는 대별되는 성격을 지닌 곳으로써 사람의 심성을 자연에 동화시키는 안식처이며 여흥을 즐기는 터이고 학문을 수학하는 장소인 동시에 현세의 고민에서 벗어나 자각과 자족을 느끼는 수신외의 구도장이기도 하였다.¹⁸⁾

나) 안채 영역

안채는 안주인의 거처이며 가정생활의 중심이 되는 공간으로, 대청과 안방, 안마당 등으로 구성된다. ㄱ자형 가옥에서 안채는 형태에 의하여 폐쇄적인 공간감을 갖게 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창호 등을 통해 밖을 바라볼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17) 윤일이, 조선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pp.57-66

18) 이희준, 전통회화속에 나타난 자연관과 조영양식, 환경과 조경 9709, 재인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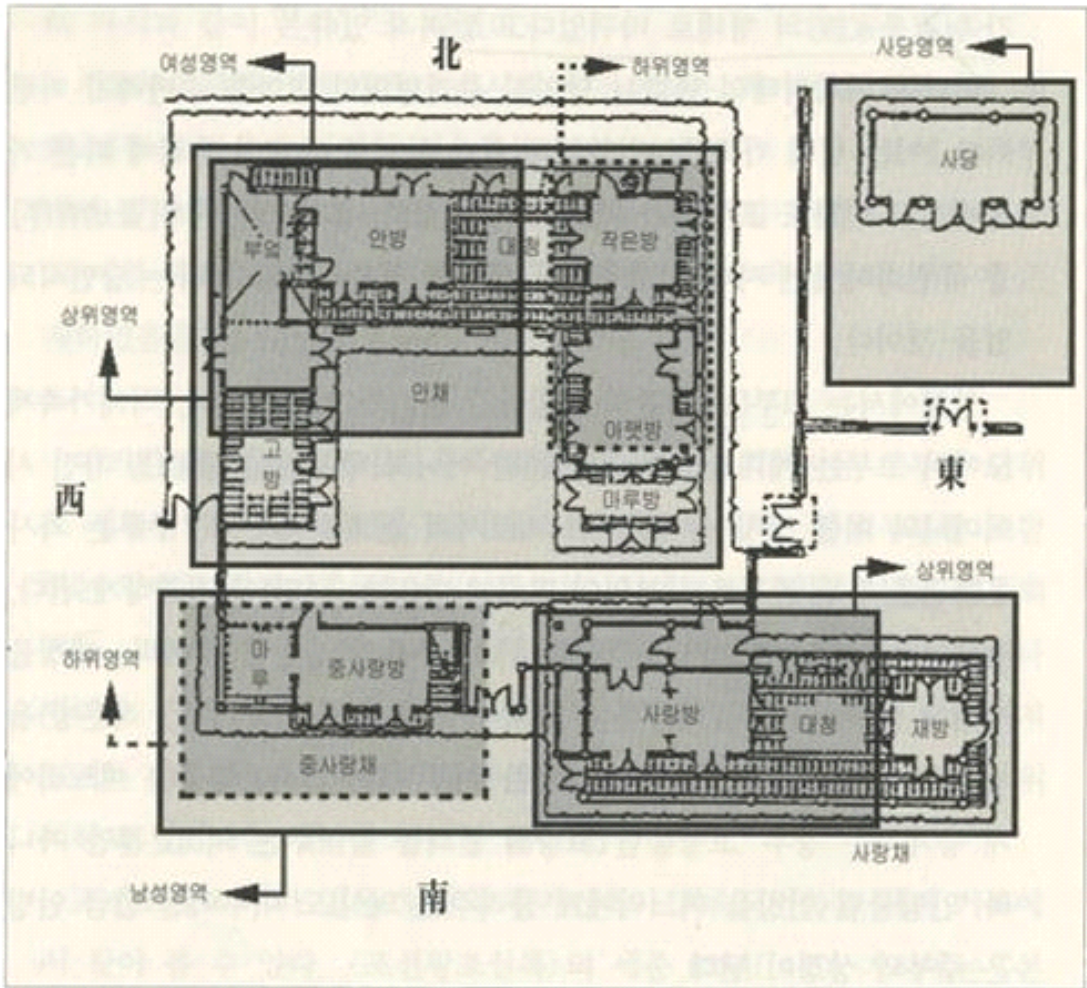


그림 16. 영천 만취당 영역
출처 : 강영환, 새로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안채의 생활영역에는 대가족 제도와 가부장적 생활에서의 다양한 요구에 부합하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공간이 존재한다. 조선시대의 주거에는 일반적으로 부모와 결혼한 자식의 二代 혹은 조부모가 포함된 三代의 부부가 공동생활을 하므로 공간의 영역은 기본적으로 두 영역 혹은 세 영역으로의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이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안채에 속하는 안마루는 안방과 상방의 영역을 구분하고 안마당과 침실의 공간을

완충해주는 공간으로서 안채의 중심자리에 놓이게 된다. 또 취사의 장소인 정지는 일반적으로 안방의 정지이지만 상방의 정지도 間을 차지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며, 이 공간들을 뒷마당으로의 출입동선을 용이하게 하는 통로의 역할도 겸하고 있다.¹⁹⁾

다) 행랑영역

하인들의 거처와 가사노동의 공간으로 활용된다. 경우에 따라 지체 낮은 손님들의 숙박공간으로도 활용되며 수장 공간까지 겸하기도 한다. 뿐만 아니라가옥 바깥에 결혼한 외거노비들이 거주하는 ‘가랍집(호지집)’ 이라 부르는 행랑채를 두기도 한다.

행랑채 주위로 넓은 행랑마당이 조성되는 주로 긴 장방형으로 안채와 사랑채의 동선을 분리하는 역할을 한다. 행랑마당에는 하인청(下人廳), 곳간, 방앗간과 같은 별도의 채가 조성되기도 하며 우물과 같은 시설을 두기도 한다.²⁰⁾

라) 별당채

규모가 있는 상류주택에서 별도의 채를 마련하여 이용하는 사람에 따라 그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한다. 또한 주인의 여가생활이나 공동대화의 장소로서 활용되는 휴식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공간이다. 여기에는 정원과 연지, 그리고 누마루 등이 놓이게 된다.

마) 사당채

가묘법에 의하여 상류주택에서 볼 수 있고, 조상의 위패를 모시고 제사를 올리는 의례공간이다. 여기에는 사당 공간와 참배 공간으로 구성되며, 위패를 봉안하고 있다.²¹⁾

19) 오채준, 경북 영덕군 원구리 마을의 전통주택 평면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p.73

20) 강인선, 조선후기 한성부 상류주택 안채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pp.32-33

21) 신수경, 한국전통주거의 채와 채나눔 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p.27

2.2.3 ㅁ자형 가옥의 사례

가) 관가정

경상북도 경주시 양동마을에 소재한 조선초기 상류주택으로 사랑채와 안채, 사당, 가림집으로 구성되어 사대부가에서 기본적으로 갖추고자 하는 최소한으로 형성되어 있다. 평면상으로 살펴보면 사랑채와 안채가 전후로 배치되어 ㅁ자 형태의 정침을 형성하고 전면부에서 양 옆으로 공간이 증축된 형태인 날개집으로 사랑채의 증축을 위하여 발생된 유형이다. 사랑채 가운데 중문간을 두고 서측 끝으로부터 누마루와 사랑웃방, 사랑아랫방이 연결되어 있다.

사랑채와 안채가 연결되는 부분에 어간마루가 위치하여 시각적 차단과 동선을 연결하는 전이공간의 역할을 한다. 조선중기 이후의 주택에서 나타나는 사랑채와 안채 연결방식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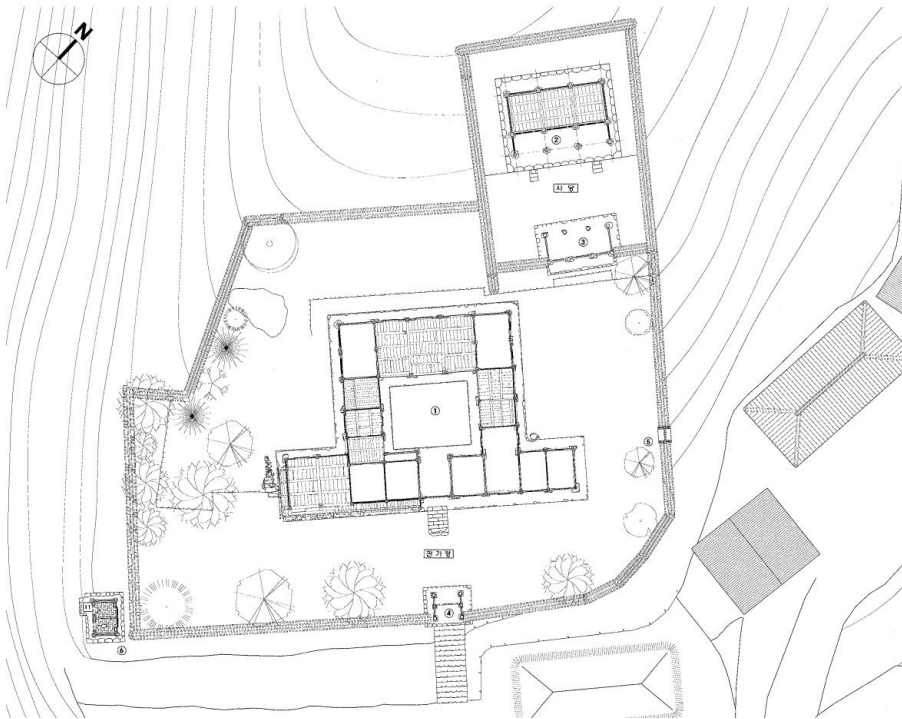


그림 17. 관가정 배치도

출처 : 문화재청, 관가정 실측조사보고서

나) 향단

1540년에 건립된 향단은 이연적이 경상감사 시절에 아우인 이연팔에게 지어준 건물이라고 전한다. 향단은 행랑채와 안채의 거리가 지극히 협소할 뿐만 아니라, 좁은 통로로 연결되어 있어 안채로 향하는 은밀한 동선을 만들었다. 외부에서는 거대하고 위엄 있는 모습과 달리 내부에는 매우 폐쇄적이고 작은 내정을 만들었다. 뜰집의 내정 중앙에 방을 배치하여 두 개의 작은 내정으로 나뉘어진 모습으로 보인다. 중앙에 위치한 방은 이연적이 어머니가 기거했던 곳이라 전한다. 방과 연결되어 전면으로 향한 마루도 어머니를 위한 공간이다. 행랑채가 앞을 가로막아 외부인의 시선을 차단하고 내부에서는 개방적인 공간감을 갖는 의도로 짐작할 수 있다. 오히려 사랑채는 측면을 향하게 되어 뜰집의 전형과는 거리가 멀다. 향단은 조성중기 이후 사대부가의 주택들이 양식적 규범에서 벗어나 건축주의 요구나 취향에 따라 자유롭게 변형이 시도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 할 수 있다.²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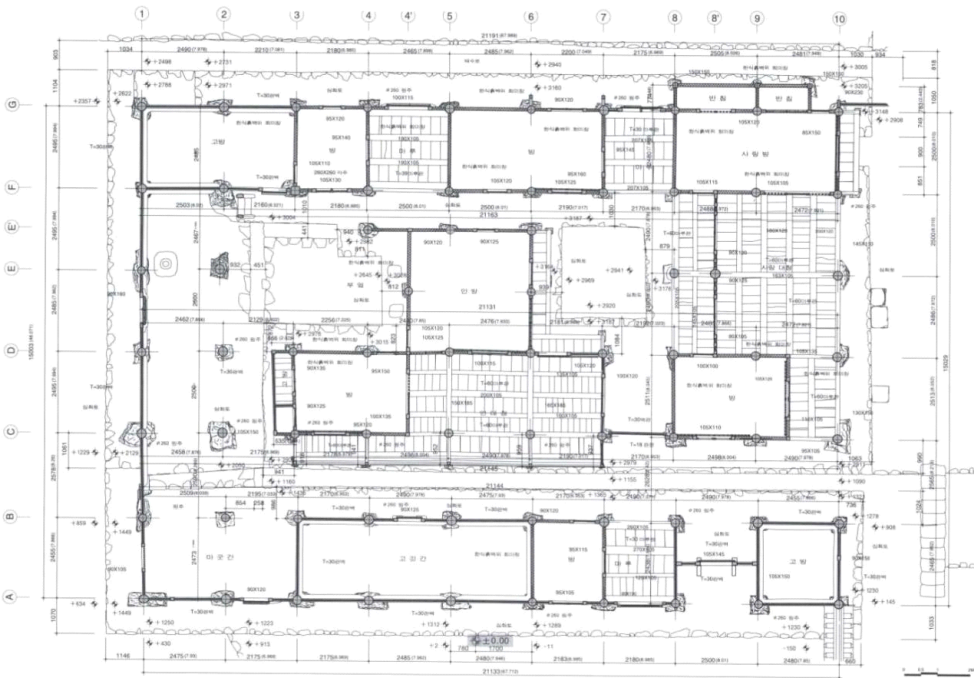


그림 18. 향단 배치도

출처 : 문화재청, 향단 실측조사보고서

22) 강영환, 위의 책, p.220

다) 의성김씨 종가

안동 임하면 천전리에 있는 이 주택은 전체적으로 보아 평면 구성은 口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가 병립하고 있으며, 그 사이를 행랑채와 기타 부속채가 이어져서 ㄷ자형상으로 연결되어 한 동처럼 보이나, 남녀구별에 의한 공간 분화가 잘 이루어진 평면이다. 앞쪽에 늘어선 채는 행랑채로서 마루, 방, 대문, 외양간, 광들로 구성되고, 여기의 대문을 들어서면 안채의 외곽부와 사랑채의 침방 앞이 되는 특이한 중간마당에 이르게 된다.

이 집의 주인은 중간마당을 통하여 안채에서 사랑에 이르지만, 내각은 행랑채의 대문을 들어서지 않고 서쪽의 넓은 사랑마당을 통해 사랑에 이르게 된다. 또 다른 주택과 다른 것은, 이 사랑채의 대청과 바깥 행랑채 사이에는 좁고 긴 누다락으로 연결되고, 이 누다락 아래는 헛간으로 되어 있다.²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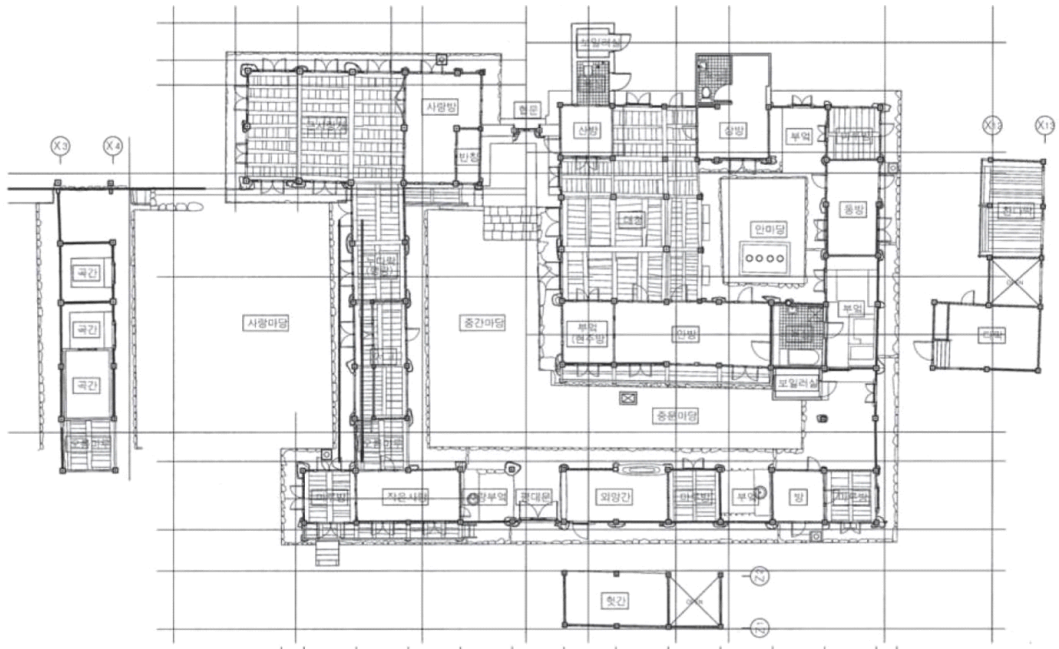


그림 19. 의성김씨종택 평면도

출처 : 문화재청, 의성김씨종택 실측조사보고서

23) 윤장섭, 증보판 한국건축사, 동명사, 2008, p.485

라) 창덕궁 연경당

우리나라 사대부집의 표본은 비원의 演慶堂이다. 대문인 長樂門의 문간채를 들어서면 그 뒤로 행각과 같이 붙은 長陽門과 脩仁門을 좌우로 대하게 된다. 이 중 좌측에 있는 수인문은 안채로 들어가는 문이고, 장양문은 사랑채인 연경당으로 통하는 문이다.

안채와 사랑채는 반대로 꺾인 격쇠와 같은 평면으로 붙어 있지만, 그 앞마당은 낮은 담으로 막아 두 개로 나누었는데 협문을 통하여 다닐 수 있게 되어 있다. 연경당의 동쪽에는 善香齋가 있고 그 동북쪽 높은 지대에는 濃繡亭이 있다. 또 안채의 뒤에는 담 밖으로 별채가 있다.

이 건축은 1828년 순조 때 세자의 청으로 士大夫의 생활을 알기 위하여 그 주택을 모방하여 지은 것이라 전해진다. 뒷동산을 배경으로 펼쳐지는 연경당의 시원한 대청과 樓마루, 뜰에 놓인 石槽와 怪石들과 귀한 수목 그리고 안채의 아기자한 짜임 등은 조선시대 사대부가옥의 운치와 격조를 잘 보여준다.²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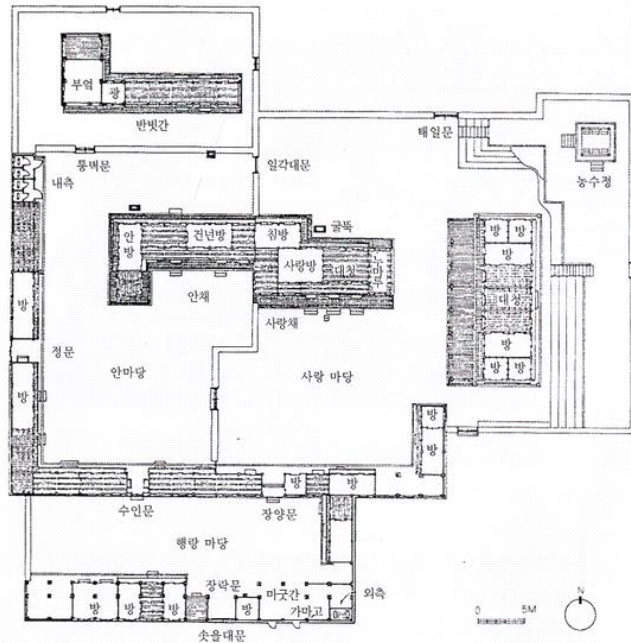


그림 20. 창덕궁 연경당 배치도

출처 : 문화재청, 관가정 실측조사보고서

24) 장경호, 앞의 책, p.506

3. 연구대상 ㅁ자형 가옥의 특징

3.1 배치 특징

한국 주거건축의 구성 및 평면계획(平面計劃)은 물리적인 기능보다는 가정생활의 전통적인 개념, 조상, 이웃사람, 그 밖의 가족 구성원에 대한 사회적인 활동개념에 그 근원을 두고 있다고 생각된다. 대체적으로 서울을 중심으로 하는 중류 이상 주택의 배치 및 평면구성(平面構成)에 대하여 살펴본다면, 주거의 전체 배치는 대지의 크기와 지형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북쪽에 산을 등지고 남쪽이 넓게 터져 있는 자리를 택하여서 주거의 중요한 부분을 이루는 안채와 사랑채를 남향 또는 동남향으로 배치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으로 여겨졌다. 안채와 안마당으로 형성된 안채 영역은 가정 안의 주부(主婦)를 중심으로 가족들의 내적 가정활동이 이루어지는 비교적 폐쇄적인 공간이 안쪽에 배치된다. 사랑채 및 사랑마당은 외부와 가까운 곳에 배치되며, 주인(主人)의 거실, 서재(書齋) 및 접객공간(接客空間)으로 사용되고, 비교적 개방적이며 외부와 접촉 활동이 이루어지는 공간이다. 다음에는 대문과 행랑채 및 바깥마당으로 형성되어, 사역인(使役人)들의 거처 또는 마구간, 창고 등으로 사용되는 공간이 배치된다.²⁵⁾

조사대상 전통가옥은 사랑채와 안채 및 중문간채, 행랑채 등이 안마당을 감싸 ㅁ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그 중 안채와 사랑채만으로 안마당을 감싸는 사례도 나타난다. 경기와 충청지역에서는 광채와 결합하여 ㅁ자 형태를 이루는 사례가 가장 많았고, 충남지역에서는 사랑채와 안채만이 배치된 경우가 다소 나타난다. 경북지역의 경우 중문채가 함께 배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25) 윤장섭, 위의 책, pp.479-480.

3.1.1 채의 구성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가족 윤리에 따른 가부장적 제대가족 제도로 인해 3대 이상이 한 울타리 안에 기거하였다. 따라서 각 세대가 동거하는 형태로서 ‘채’와 ‘방’이 많이 배치되어 자연히 주택의 규모가 확대되었다. 채의 구성은 행랑채, 사랑채, 안채, 고방채, 별당채, 사당채 등으로 구성된다.²⁶⁾

연구대상 가옥의 채 구성은 <표 5>와 같다.

표 5. 대상가옥 채 구성 현황

번호	명 칭	안채		사랑채		행랑채			고방채	별당채	사당채	합계
		안채	아래채	사랑채	안사랑채	행랑채	곳간채	문간채				
1	구례운조루	○		○	○	◎					○	6
2	양동서백당	○		○			○				○	4
3	영천매산고택및산수정	○		○				○		○	○	5
4	경주교동최씨고택	○		○		○			○		○	5
5	양동낙선당	○		○				○	○		○	5
6	양동사호당고택	○		○		○						3
7	양동상춘헌	○		○							○	3
8	양동두곡고택	○	○	○					○			4
9	양동수출당	○	○	○							○	4
10	양동이향정	○	○	○								3
11	하회 북촌댁	○		○	○	○				○	○	6
12	하회 남촌댁	○		○				○		○	○	5
13	하회 주일재	○		○				○	○		○	5
14	달성 삼가헌	○		○				○	○	○		5
15	청도 운강고택	○		○	○	○		○	○		○	7
16	영천정용준씨가옥	○	○	○			○	○		○		6
17	수원광주이씨월곡댁	○		○				○	○			4
18	화성정용채가옥	○		○		○		○				4
19	화성정용래가옥	○		○								2
20	여주김영구가옥	○		○	○				○			4
21	어재연장군생가	○		○			○					3
22	진접여경구가옥	○		○			○				○	4
23	궁집	○		○								2
24	괴산김기응가옥	○		○		○	○		●			7
25	청원유계화가옥	○		○								2
26	영동규당고택	○							○	○		3
27	음성공산정고가	○		○		○						3
28	단양조자형가옥	○		○								2

26)최상헌, 조선 상류 주택의 내부 공간과 가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p.30-31

번호	명 칭	안채		사랑채		행랑채			고방채	별당채	사당채	합계
		안채	아래채	사랑채	안사랑채	행랑채	곳간채	문간채				
29	제원정원태가옥	○		○								2
30	남원몽심재	○		○					○			3
31	부안김상만가옥	○		○	○			○	○			5
32	해저만회고택	○		○				○				3
33	거촌리쌍벽당	○		○		○		○		○	○	6
34	가평리계서당	○		○				○			○	4
35	울현동물체당	○		○				○			○	4
36	영천만취당	○		○	◎					◎	○	7
37	가일수곡고택	○		◎	◎						○	6
38	하회동하동고택	○		○				○				3
39	하리동일성당	○		○				○				3
40	안동 학암고택	○		○	○	○	○	○				6
41	의성김씨율리종택	○		○				○				3
42	안동 오류현	○		○		○		○			○	5
43	법흥동 고성이씨탑동파종택	○		○						○	○	4
44	함양일두고택	○		○	○			○	○		○	6
45	논산명재고택	○		○					○	○	○	5
46	예산정동호가옥	○		○			○					3
47	부여민칠식가옥	○		○		○			○	○		5
48	아산성준경가옥	○		○		○		○				4
49	아산외암리참판댁	○		○			○	○			○	5
50	윤보선전대통령생가	○		○		○		○				4
51	서천이하복가옥	○	○	○			○					4
52	홍성사운고택	○		○	○				○			4
53	서산김기현가옥	○		○	○	○	○			○		6
54	예천권씨 초간종택	○		○	○					◎	○	6
55	안동권성백고택	○		○				○				3
56	정온선생생가	○		○		○		○	○			5
57	합천묘산목와고가	○		○		○	○				○	5
58	아산건재고택	○		○			○				○	4
59	예천의성김씨남약종택	○		○				○				3
60	대구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		○						○	◎	5
61	송석현	○	○	○			○				○	5
62	영주 괴헌고택	○		○				○			○	4

범례 : ○-1개 / ◎-2개 / ●-3개 / ◆-4개

□자형 가옥의 최소 구성은 중심건물인 안채와 사랑채만으로 이루어지며 안채, 사랑채, 안사랑채, 행랑채, 문간채, 고방채, 별당채, 사당채로 구성된 대규모 가옥까지 보인다.. 최소 구성인 2채로 이루어진 가옥은 양동 사호당고택, 화성 정용래가옥, 남양주 궁집, 청원 유계화가옥, 단양 조자형가옥, 제원 정원태가원으로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

북도 지역에서 나타나며, 가장 많은 분포를 보이는 지역은 충청북도이다. 형태는 남양주 궁집을 제외하고 튼 ㅁ자형이고 궁집의 경우 ㅁ자형 안채에 사랑채 부가된 형식으로 ㅁ자 안채만으로 완결성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채로 구성된 가옥은 양동 상춘헌, 이향정, 어재연장군생가, 영동 규당고택, 음성 공산정고가, 남원 몽심재, 해저만회고택, 하회동 하동고택, 하리동 일성당, 의성김씨 율리종택 등 12호로 파악되고 최소 구성인 사랑채와 안채 및 문간채, 곳간채, 행랑채, 사당채 등이 구성된다. 사랑채와 안채, 문간채로 구성된 가옥이 12호 중 6호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였고, 곳간채와 고방채가 더해진 가옥은 각각 2호로 나타났다. 사당채, 별당채, 행랑채는 각 1호씩으로 파악된다.

4채로 구성된 가옥은 17호에서 나타났으며, 양동 서백당, 두곡고택, 수졸당, 수원광주이씨월곡택, 화성 정용채가옥, 여주 김영구가옥, 괴산 청천리고가, 가평리계서당, 서천이하복가옥, 홍성 사운고택 등이다. 이 사례에서는 사랑채와 안채 및 곳간채, 행랑채, 사당채 등으로 구성된다. 가평리 계서당은 사랑채와 안채, 문간채, 사당채의 구성을 보이며, 이 구성과 같은 가옥이 3호에서 파악되고, 사랑채와 안채, 곳간채, 사당채의 구성인 가옥이 3호로 나타난다.

사랑채와 안채 및 사당채, 문간채, 고방채로 구성된 가옥은 양동 낙선당과 하회 주일재에서 나타나고 영천 매산고택과 하회 남촌택은 사랑채와 안채, 문간채, 별당채, 사당채의 구성을 보인다. 5채의 구성을 보이는 가옥은 15호이며, ㅁ자형 가옥이 6호이고 튼 ㅁ자형 가옥이 9호로 나타난다.

6채 이상으로 구성된 가옥은 11호로 파악되고 중심건물인 안채와 사랑채에 행랑채 사당채 등이 부가된 사례이다. 11호 중 7호에서 행랑채와 사당채가 보이며, 6호에서 별당채가 나타난다. 사랑채가 분화한 큰사랑채, 중사랑채 등이 나타난 사례는 4호에서 보이며, 사랑채의 채 분리는 작은사랑채, 학습공간은 서재, 접객공간은 별당 그리고 의례공간은 제청으로 연장된다.²⁷⁾ 7채가 배치된 가옥은 청도 운강고택 및 괴산 김기응가옥, 영천 만취당 등 3호이며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문간채, 고방채, 사당채 등이 배치되어 있다.

27) 윤일이, 위의 논문, p.64

3.1.2 마당 및 담장 계획

마당은 공간의 경계요소인 담을 통해 주택의 안과 바깥영역이 구분되면서 형성된다. “의미를 갖고 대지를 나누는 것이 전체가 이루어지기 위한 선결적 요소로서 완전한 부분의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며 부분 부분이 바르게 되면 전체의 운행이 바르게 된다. 사랑채 역시 하나의 개체이며 안채 역시 당당한 하나의 개체로서 개체가 서로를 바탕으로 삼고 인도하면서 전체로서의 거주를 이룬다. 나뉘어진 개별 영역은 반드시 독자적 마당을 갖는데 즉, 마당과 건물이 항상 함께 하면서 채를 이룬다.”²⁸⁾

채에 의해 형성되는 마당은 그 채의 성격을 반영하게 되는데, ”안마당은 폐쇄적 구조를 갖게 되므로 감싸져야 하며 그 경계요소가 면이 아니라 입체여야 한다. 사랑마당은 개방성, 공공성 때문에 경계요소가 담장이나 수목 등 면적인 요소로서도 가능하지만 밀실성을 가져야하는 안마당은 입체로서 구체적 기능을 갖는 방과 마루로써 감싸져야 한다.”²⁹⁾

연구대상 가옥의 마당과 담장의 구성은 <표 6>과 같다.

표 6. 대상가옥 마당 및 담장 계획 현황

번호	명 칭	마당							합계	담장		
		안마당	사랑마당	바깥마당	행랑마당	중문마당	뒷마당	별당마당		외부	내부	
1	구례운조루	○	◎					○		4	○	○
2	양동서백당	○	◎					○		4	○	○
3	영천매산고택및산수정	○	○			○		○	○	5	○	○
4	경주교동최씨고택	○	○		○			○		4	○	○
5	양동낙선당	○	○			○		○		4	○	
6	양동사호당고택	○	○	○						3	○	○
7	양동두곡고택	○	○	○	○			○		5	○	○
8	양동상촌현고택	○	○					○		3	○	○
9	양동수졸당	○	○	○	○			○		5	○	○
10	양동이향정	○	○		○			○		4	○	○
11	하회 북촌택	○	○			○		○	○	5	○	○
12	하회 남촌택	○	○			○		○	○	5	○	○
13	하회 주일재	○	○	○				○		4	○	○
14	달성 삼가헌	○	○					○	○	4	○	○
15	청도운강고택	○	○		○	○		○	○	6	○	○
16	영천정용준씨가옥	○	○					○	○	4	○	○
17	수원광주이씨월곡택	○	○					○	○	4	○	○
18	화성정용채가옥	○	○		○			○		4	○	
19	화성정용래가옥	○						○		2	○	

28) 이원교, 반가의 공간 구성과 마당의 공간도식, 플러스8903, 1989, p.150 재인용

29) 김봉렬, 방밖의 방, 건축과 환경8606, 1986, p.86 재인용

번호	명 칭	마당							합계	담장		
		안마당	사랑마당	바깥마당	행랑마당	중문마당	뒷마당	별당마당		외부	내부	
20	여주김영구가옥	○	◎					○		4	○	○
21	어재연장군생가	○						○		2	○	
22	진접여경구가옥	○	○					○		3	○	○
23	궁집	○	○	○	○					4		○
24	괴산김기응가옥	○	○		○	○		○		5	○	○
25	청원유계화가옥	○	○			○		○		4	○	○
26	영동규당고택	○						○		2	○	
27	음성공산정고가	○						○		2	○	
28	단양조자형가옥	○						○		2	○	
29	제원정원태가옥	○	○					○		3	○	
30	남원몽심재	○	○					○		3	○	○
31	부안김상만가옥	○	○	○						3	○	○
32	해저만회고택	○	○			○		○		4	○	
33	거촌리쌍벽당	○	○		○			○	○	5	○	○
34	가평리계서당	○	○			○		○		4	○	○
35	울현동물체당	○	○					○		3	○	
36	영천만취당	○	◎						●	6	○	○
37	가일수곡고택	○	◎			○				4	○	○
38	하회동하동고택	○	○			○				3	○	
39	하리동일성당	○	○			○				3	○	○
40	안동 학암고택	○	◎		○	○				5	○	○
41	의성김씨율리종택	○	○	○				○		4	○	○
42	안동 오류현	○	○		○			○		4	○	
43	법흥동고성이씨탑동파종택	○	○						○	3	○	○
44	함양일두고택	○	○					○	○	4	○	○
45	논산명재고택	○	○					○	○	4	○	○
46	예산정동호가옥	○	○							2	○	○
47	부여민칠식가옥	○	○		○			○	○	5	○	○
48	아산성준경가옥	○	○	○				○		4	○	○
49	아산외암리참판댁	○	○					○		3	○	○
50	윤보선전대통령생가	○	○		○			○		4	○	
51	서천이하복가옥	○	○							2	○	
52	홍성사운고택	○	○					○	○	4	○	○
53	서산김기현가옥	○	○					○		3	○	
54	예천권씨 초간종택	○	◎					○	○	5	○	○
55	안동권성백고택	○	○			○		○		4	○	○
56	정온선생생가	○	○							2	○	○
57	합천묘산목와고가	○	○					○	○	4	○	○
58	아산건재고택	○	○		○			○		4	○	○
59	예천의성김씨남약종택	○	○	○		○		○		5	○	○
60	대구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	○					○		3	○	○
61	송석현	○	○		○			○	○	5	○	○
62	영주 괴현고택	○	○			○		○		4	○	○

범례 : ○-1개 / ◎-2개 / ●-3개

가) 마당

마당은 크게 주택의 내·외의 영역으로 구분되고 주택 내의 마당에 여섯 마당(행랑마당, 사랑마당, 안마당, 고방마당, 별당마당, 사당마당)이 포함되며 주택외의 마당은 동네라는 마을의 범위로 확대된다. 따라서 주택외의 마당은 동네마당, 우물마당, 마을공동 마당 등이 되며 바깥마당도 주택외 마당으로 분류한다.³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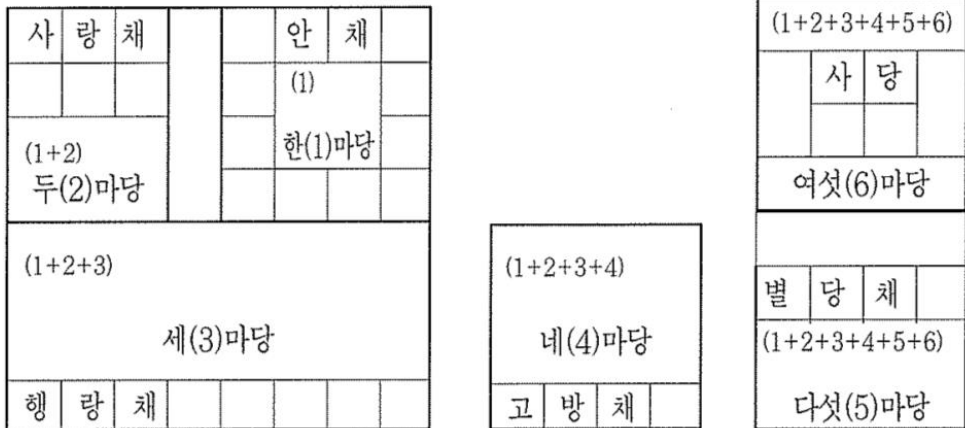


그림 21. 여섯마당의 구성원리

출처 : 최동호,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2)

채와 긴밀한 관계를 갖는 마당은 채의 성격에 따라 마당의 성격이 결정되어 진다. 대상 가옥은 □자 또는 튼 □자를 이루고 있는 형태로서 안마당은 모든 대상에 형성되어 있다. 사랑마당은 화성 정용래가옥, 어재연장군생가, 영동 규당고택, 음성 공산정고가, 단양 조자형가옥 등 5호에서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된다. 화성 정용래 가옥의 경우 안채와 사랑채만으로 이루어진 튼 □자 형태이고, 어재연장군생가는 사랑채, 안채, 곳간채로 이루어진 튼 □자 형태로 안마당과 뒷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영동 규당고택과 단양 조자형 고택 또한 안마당과 뒷마당을 갖고 있다. 뒷마당을 형성한 가옥은 62호 중 50호에서 나타나며 채의 후면과 가옥 배면의 산 및 담장에 의하여 한정된다. 중문마당을 형성한 가옥은 양동 낙선당, 하회 북촌택, 하회 남촌택, 청도 운강고택, 괴산 김기응가옥, 청원 유계회가옥, 해저만회고택, 가평리 계서당, 가일수곡고택, 하회동 하동고택, 하리동일성당, 안동 학암고택, 영천 매산고택 등 16호에서 나타난다. 괴산 김

30) 최동호,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1), 건축사9606, 1996, P.87 재인용

기응가옥은 안마당과 사랑마당, 행랑마당, 중문마당, 뒷마당 등 5개의 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안마당은 안채와 광채가 튼 ㄱ자 형태로 배치되어 형성하고 있으며, 광채와 사랑채의 결합으로 사랑마당을 이루고 있다. 또한 중문과 광채, 담장이 관계를 맺으며 중문마당을 이루고 가옥의 진입부에 위치한 행랑채와 담장을 통해 행랑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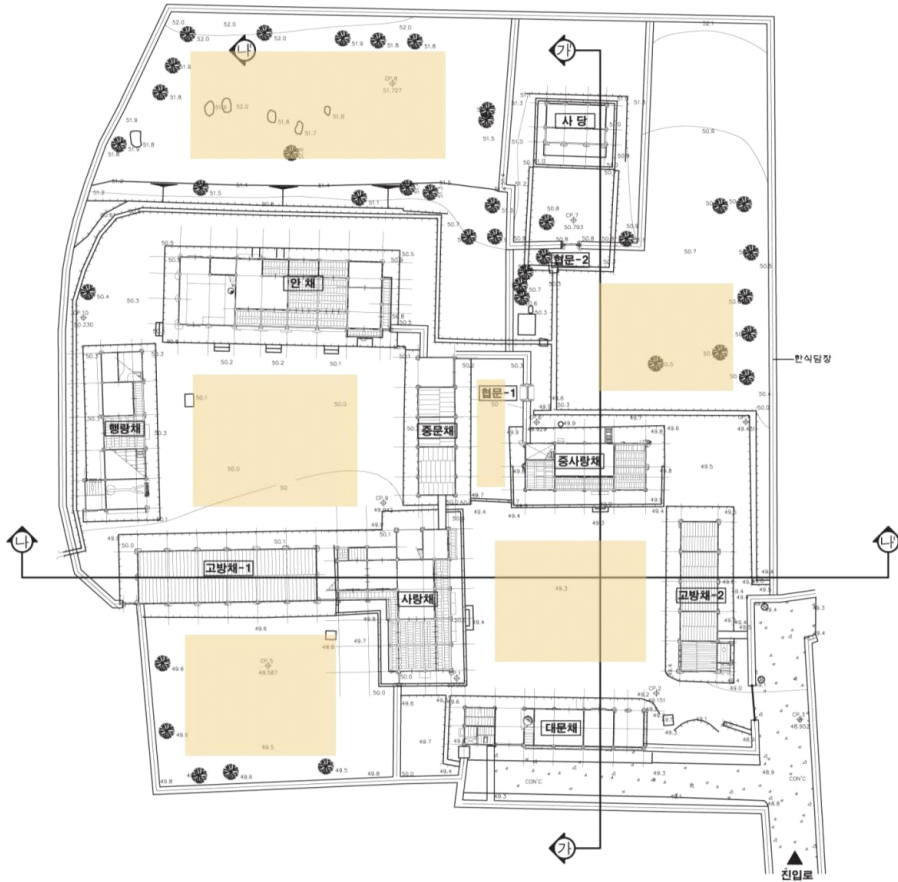


그림 22. 청도 운강고택 배치도

출처 :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가장 많은 마당을 갖는 가옥은 6개의 마당을 형성한 청도 운강고택과 영천 만취당으로, 운강고택은 안마당, 사랑마당, 행랑마당, 중문마당, 뒷마당, 별당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나) 담장

담장은 대지의 경계를 형성하여 외부세계로부터 방어 및 보호를 해주는 기능을 한다. 또한 담과 문을 통하여 동선을 유도하여 다른 공간과 연결하고 남과 여, 상하의 공간을 분할하며, 내부의 공간별로 프라이버시를 보호한다.³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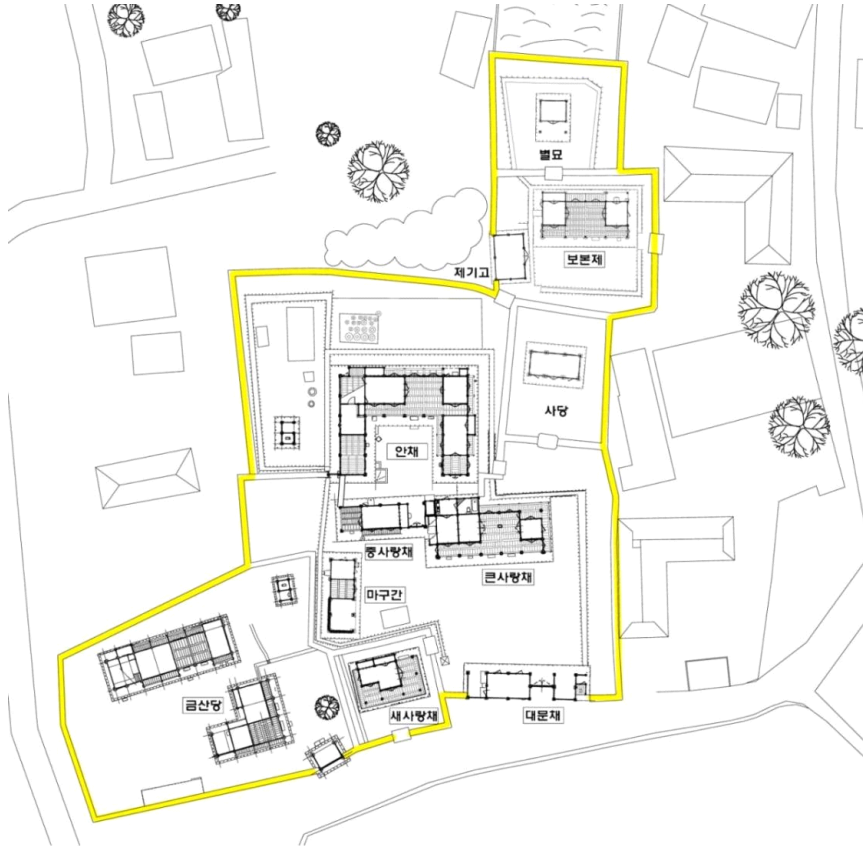


그림 23. 영천 만취당 배치도
출처 :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영천 만취당은 남북으로 길게 배치된 행태로 가옥의 전체 영역을 담장이 감싸고 있으며, 별묘, 보본채, 사당채, 안채, 큰사랑채, 새사랑채, 금산당의 영역을 담장으로 구획하고 있다. 안채와 중사랑채, 큰사랑채가 튼 口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좌측에 트인 부분은 담장으로 구획하여 안채의 폐쇄성을 확보하고 있다.

31) 최계문, 한국 전통상류주택의 담장 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p.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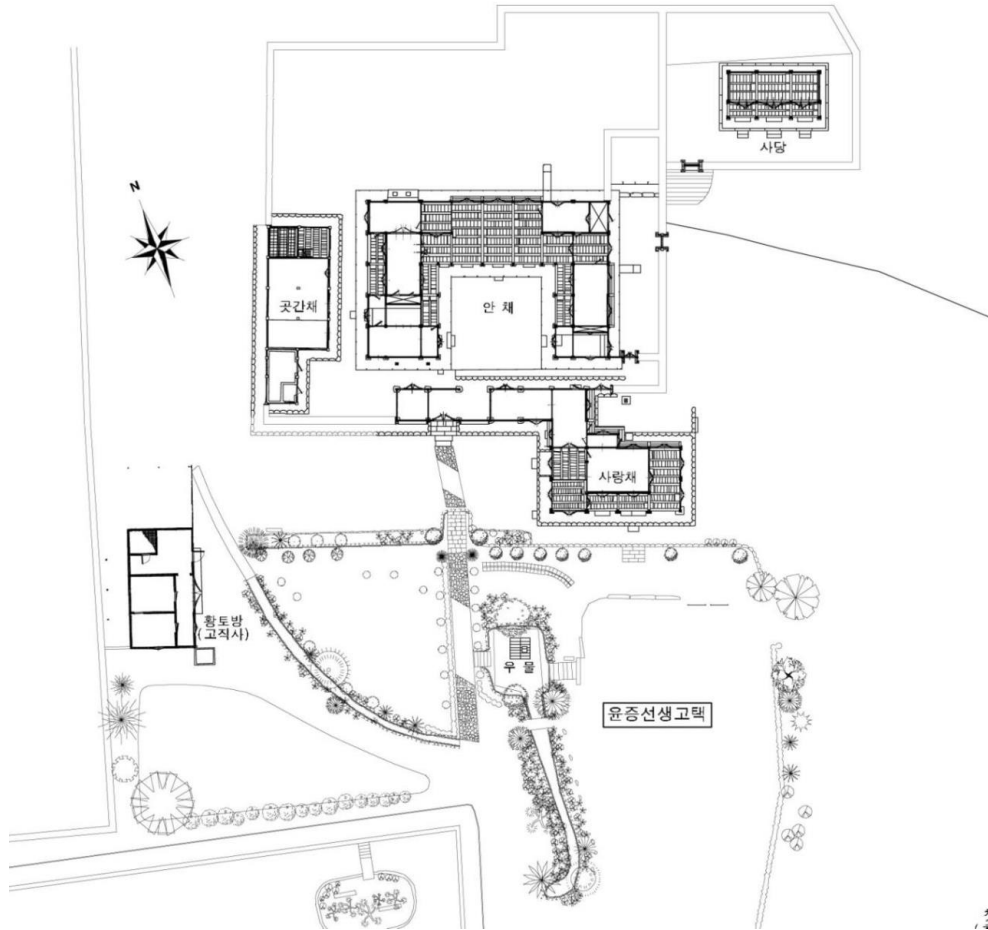


그림 24. 윤증선생고택 배치도
출처 :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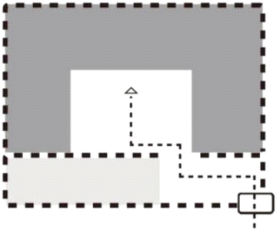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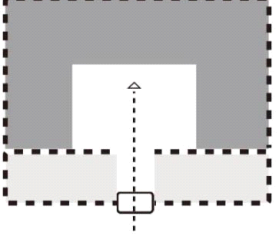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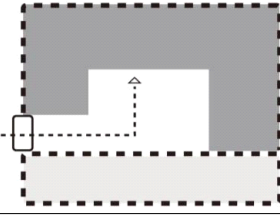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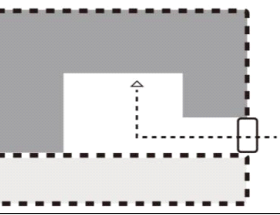
윤증선생고택은 문간옆 외곽담장과 문간 뒤 담장, 후정과 사당의 경계담장, 안방 뒤 통로에 담장이 시설되어 있으며, 후정과 안사랑, 큰사랑의 외곽담장이 경계를 형성하고 있다.³²⁾

32) 최계문, 앞의 논문, p.25

3.1.3 진입방식

진입방식은 평면분석을 통하여 대문에서 안채로의 동선을 유추하여 유형분류를 하였다. 유형은 전면 출입형과 측면 출입형으로 분류하였고, 전면 출입형은 출입구의 위치에 따라 모서리형과 중앙형으로 파악되었으며, 측면 출입형은 좌측형과 우측형으로 분류하였다.

표 7. 진입유형 분류

	모서리형	중앙형
전면출입		
계(호)	11	36
	좌측형	우측형
측면출입		
계(호)	8	7

대상 가옥 중 안채 전면의 중문을 통하여 진입하는 가옥은 45호로 파악되며, 이 중 모서리형이 11호이고 중앙형이 34호이다.

모서리형으로 파악되는 가옥은 전체 가옥 중 18%이고 안채와 사랑채 및 행랑채 등이 결합하여 ㄱ자 형태를 형성하고 있으며, 안채의 전면에 위치한 행랑채 및 사랑채의 측면에 중문을 두어 안채영역으로 진입시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한다. 괴산 김기응 가옥은 대문에서 사랑채 영역을 거쳐 중문을 통한 뒤 광채 측면의 문을 통하여 안채 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이때 중문의 내외벽으로 인하여 안채로의 시각은 차폐되며, 광채 측면의 문을 통과함으로써 안채는 더욱 깊은 공간감을 갖게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여주 김영구가옥은 큰사랑채의 남쪽 텃밭은 원래 행랑채와 행랑마당이 있던 곳으로, 행랑마

당 중앙에는 정자가 하나 있었으며, 행랑채 오른쪽 광선영 가옥과의 사이에 큰 대문이 있어 이곳으로 출입하였다. 현재 외부에서 안마당으로의 출입은 이중대문이 달린 큰사랑채의 대문간을 이용하거나, 작은 사랑채와 큰 사랑채 사이에 난 중문을 이용한다.³³⁾

중앙형으로 유형 분류된 가옥은 대상 가옥 중 58%로 가장 많은 사례가 보이며, 안채와 사랑채가 전후로 병렬배치된 가옥에서 주로 나타난다. 안채와 사랑채 및 행랑채가 ㄱ자 평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랑채와 행랑채 사이에 중문이 위치하여 안채로의 진입동선을 제공한다. 가평리 계서당은 안채 전면에 사랑채와 중문간채가 위치하며, 중문간채와 사랑채 사이의 중문을 통해 안채로 진입하게 된다.

측면출입형은 좌측과 우측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좌측형은 대상가옥 중 8호에서 나타나며, 우측형은 7호로 파악된다.

좌측형으로 유형분류된 가옥은 그 사례는 적으나, 전국에서 나타나고 경기지역에서 3호, 경북지역 2호, 충북지역 및 전북, 전남지역에서 각 1호씩이다. 청원 유계화 가옥은 안채의 전면에 사랑채가 위치해 있고 안채와 사랑채가 맞닿는 부분에 중문이 있다. 중문에서 안채로의 시선을 차폐하기 위해 내외담이 설치되어 있으며, 측면 진입으로 인하여 안채로의 동선을 굴절된다.

우측형 가옥은 좌측형 가옥의 비해 그 사례는 다소마나 적으나, 충청도지역에서 그 사례가 주로 나타난다. 서산 김기현가옥은 외양간과 큰사랑사이에 중문이 위치하고 있으며, 큰사랑이 남북으로 길게 배치되어 사랑영역을 한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대문에서 굴절된 동선은 사랑채와 안채의 사이에 위치한 중문에 진입할 때 한번 더 굴절되어 안채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아산 견재고택은 문간채를 지나 사랑영역으로 진입하게 되고 사랑채 우측면에 위치한 중문으로 안채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중문을 거쳐 안마당으로 들어가면 안채로의 시선을 차폐하는 사잇담으로 인해 안채의 폐쇄적 공간감을 표현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33) 문화재청, 가옥과 민속마을1, 2010, p.87

3.2 평면구성 특징

3.2.1 사랑채

□자형 가옥에서 사랑채 위치는 안채의 안방과 대청을 기준으로 ‘측면형 - 전면형 - 모서리형’으로 나타나며, 유형별로 집 규모와 생활행태에 차이를 가진다. 그리고 사랑채 실구성은 방과 마루의 결합으로 정착되어 간다.³⁴⁾ 사랑채가 분화하여 큰 사랑채, 중간사랑채가 배치되어 있는 형식을 ‘분화형’으로 정의하였다.

표 8. 사랑채 유형분류

	유형	대상가옥	계		
안면피견		양동 낙선당 양동 수졸당 양동 이항정 양동 사호당고택 양동 상춘헌고택	영동 규당고택 수원광주이씨월곡택 화성 정용채가옥 진접 여경구가옥	9	
전면피견		양동 두곡고택 영천 정용준씨가옥 어재연장군생가 정원 유계화가옥 단양 조자형가옥 제원 정원태가옥	남원 몽심재 예산 정동호가옥 아산 성준경가옥 아산 외암리참판택 홍성 사운고택 정운선생생가 둔산동경주최씨종택	13	
근조근견		양동 서백당 영천 매산고택 남양주 궁집 경주최씨종택 하회 남촌택 하회 주일재 달성 삼가헌 화성 정용래가옥 괴산 김기응가옥 음성 공산정고가 해저만회고택	거촌리 쌍벽당 가평리 계서당 율현동 물체당 하회동 하동고택 서천 이하복가옥 하리동 일성당 안동 학암고택 의성김씨종택 안동 오류헌 법흥동탑동파 논산 명재고택	부여 민칠식가옥 윤보선생가 서산김기현가옥 예천권씨초간 안동권성백고택 합천묘산묵와 아산 견재고택 의성김씨남악 송석헌 영주 괴헌고택	32
피면피견		구례 운조루 하회 북촌택 청도 운강고택 여주 김영구가옥	함양 일두고택 부안 김상만가옥 영천 만취당 가일수곡고택	8	

34) 윤일이, 위의 논문, p.75

가) 측면형

측면형은 대상 가옥 중 19호에서 나타나며, 그 사례는 양동마을 내에 위치한 가옥이 5호, 경기지역에 3호, 충북과 경남지역에 1호씩이다. 사랑채가 좌측면에 위치한 가옥은 양동 낙선당, 수졸당, 이향정과 수원광이씨월곡택 및 진접 여경구가옥이고 우측면에 위치한 가옥은 화성 정용채가옥, 영동규당고택 등 5호이다.



그림 25. 진접 여경구가옥 사랑채 전경

진접 여경구가옥은 안채를 기준으로 사랑채가 좌측에 자리 잡고 있다. 위치상으로 보았을 때 측면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별동형으로 보아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이다. 사랑채는 위아래 사랑방과 대청, 건너방이 차례로 배치되어 있으며, 전면 툇마루가 있어 각 방으로 이동이 가능하다.

표 9. 측면형 사랑채 사례

<p>양동 이향정 배치도.</p>		
<p>양동 이향정</p>	<p>양동 상춘헌</p>	<p>영동 규당고택</p>

나) 전면형

전면형은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에 위치한 형태로 대상가옥 62호 중 13호에서 나타난다. 가옥의 배치가 안채와 사랑채, 대문채가 일직선상의 축에 의해 배치되어 있는 형태에서 파악된다. 안채로의 동선은 사랑채의 측면 또는 후면에 위치한 중문을 통해 진입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사랑채가 전면에 구성되는 것은, 남성의 상대적 우위로 사랑채가 집을 대표하는 성격이 짙어짐을 의미한다.³⁵⁾



그림 26. 흥성 사운고택 사랑채 전경

흥성 사운고택은 안채와 사랑채, 문간채가 축에 의해 일직선상의 축으로 배치된 형태이다. 문간채를 통해 가옥 내부로 진입하게 되면 一자형 사랑채가 口자 형태의 가옥 전면부를 이루고 있다. 정면이 5칸인 사랑채는 부엌, 큰사랑, 대청, 작은사랑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가옥은 3개의 외부공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사랑채를 통하여 안채공간과 사랑채공간을 분할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표 10. 전면형 사랑채 사례

<p>영천 정용준씨가옥</p>	<p>대구 둔산동 경주최씨 종택</p>	<p>남원 몽심재</p>

35) 윤일이, 위의 논문, p.77

다) 모서리형

모서리형은 사랑채와 안채의 배치가 대각선을 이루고 있으며, 사례는 32호에서 나타난다. 32호 중 20호가 경북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충남지역이 2호, 경기지역과 충북지역에서 각 2호씩이다. 경북지역은 안동시와 봉화군에 위치한 가옥의 사랑채가 모서리형으로 파악되며, 이 외 경주, 영천, 예천에서도 나타난다.



그림 27. 괴산 김기응가옥 사랑채 전경

괴산 김기응가옥은 문자형 배치로, 안채와 광채가 가장 깊은 공간에 위치하여 口자를 이루고 있고 사랑채가 우측모서리에 접속되어 있다. 사랑채는 담장으로 감싸져 있어 대문을 통해 내부로 들어서도 직접 보이지 않는 점이 다른 가옥과의 차이점이다. 사랑채는 정면 다섯 칸에 전퇴를 둔 T자형으로 두 칸의 온돌방과 좌우로 한 칸의 마루방으로 구성되어 있다. 마루에서 사랑정원을 감상할 수 있으며, 배치 방식으로 인해 사랑채가 독립성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1. 모서리형 사랑채 사례

<p>괴산 김기응가옥</p>	<p>부여 민철식가옥</p>	<p>거촌리 쌍벽당</p>

라) 분화형

분화형은 영천 만취당, 가일수곡고택, 부안 김상만가옥 등 8호에서 나타난다. 영천 만취당과 가일수곡고택, 하회 북촌택은 큰사랑채와 중사랑채가 안채의 전면에 위치하고, 두 채 사이에 문간을 두어 채를 나눈다.



그림 28. 가일수곡고택 사랑채 전경

구례 운조루는 중 사랑채와 큰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과 좌측면에 배치되어 있고, 안채와 큰사랑, 중사랑채는 중문간이 배치되어 공간을 나누는 것으로 파악된다. 여주 김영구가옥은 안채의 우측과 전면에 작은 사랑채와 큰 사랑채가 배치되어 있으며, 사랑채 사이에 중문이 자리 잡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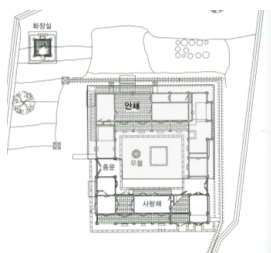

표 12. 분화형 사랑채 사례

<p>영천 만취당</p>	<p>구례 운조루</p>	<p>여주 김영구가옥</p>

3.2.2 안채

대상가옥의 안채는 평면의 형태를 중심으로 분류하였다. 형태에 따라 ㄱ자형, ㄷ자형, 一자형으로 나눌 수 있으며 ㄱ자형과 T자형이 나타나기도 한다. ㄱ자형 안채는 화성 정용래가옥, 어재연장군생가, 합천묘산 묵와고가, 영동 규당고택, 음성 공산정고가, 단양 조자형가옥, 홍성 사암고택, 안동 오류헌 등 62호의 가옥 중 20호에 나타난다. ㄷ자형 안채는 가장 많이 나타나는 형태로, 수원광주이씨월곡택, 여주 김영구가옥, 남원 몽심재, 양동 낙선당, 울현동 물체당 등 가옥 29호에서 파악할 수 있다. 一자형 안채로 파악되는 가옥은 경남지역과 충남지역, 전북, 경북지역에서 나타나며, 함양 일두고택, 부여 민칠식가옥, 부안 김상만가옥, 영천 정용준씨가옥 등으로 파악된다.

표 13. 안채 유형분류

	유형	대상가옥	계	
ㄱ자형		화성 정용래가옥 어재연장군생가 합천 묘산묵와고가 영동 규당고택 음성 공산정고가 단양 조자형가옥 제원 정원태가옥 아산 외암리참판택 운보선전대통령생가 홍성 조음식가옥	아산 건재고택 양동 서백당 양동 상춘헌 양동 두곡고택 양동 수출당 양동 이향정 하회 북촌택 하회 남촌택 안동 오류헌 예천권씨초간종택	20
ㄷ자형		수원 광주이씨월곡택 화성 정용채가옥 여주 김영구가옥 괴산 김기응가옥 청원 유계화가옥 논산 명재고택 아산 성준경가옥 남원 몽심재 구례 운조루 영천 매산고택 경주 교동최씨고택 양동 낙선당 양동 사호당고택 해저만회고택	거촌리 쌍벽당 가평리 계서당 울현동 물체당 영천 만취당 가일수곡고택 하회동 하동고택 안동 학암고택 의성 김씨율리종택 안동 권성백고택 예천의성김씨남악종택 송석헌 영주 괴헌고택 달성 삼가헌 대구 경주최씨고택	29
一자형		함양 일두고택 정운성생생가 예산 정동호가옥 부여 민칠식가옥 서천 이하복가옥 부안 김상만가옥	하회 주일재 청도 운강고택 영천 정용준씨가옥 하리동 일성당	10

가) ㄱ자형 안채

ㄱ자형 안채는 황해도 남부와 경기도, 충청도 일대의 중부지방에 분포된 형으로 ‘ㄱ자’ 모양을 이루기 때문에 ‘ㄱ자형’이라고 한다.³⁶⁾ ㄱ자형으로 분류된 가옥의 분포는 경기 화성, 이천, 경남 합천, 충북 영동, 음성, 단양, 제원, 충남 아산, 홍성, 아산, 경북 양동, 안동, 예천이다. 전남, 전북지역에서는 사례가 나타나지 않으며, 충남과 충북지역에서 각 4호씩의 분포를 보인다. 경북지역에서는 경주 양동마을과 안동 하회마을에서 5호와 3호가 분포하고 있으며, 양동마을의 경우, 가장 이른 시기에 건립된 서백당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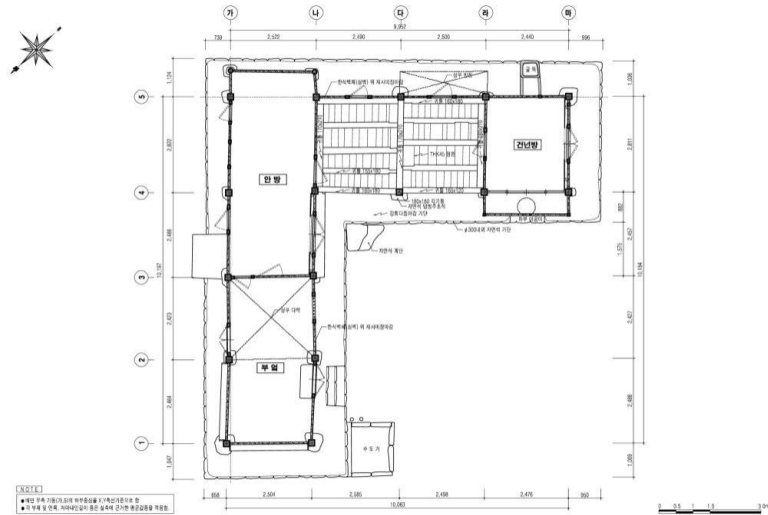


그림 29. 어재연장군생가 안채 평면도

출처 :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곱패집’ 혹은 ‘곱은자집’이라 불리는 ㄱ자형은 부엌·안방의 배열 축과 대청·건넌방의 배열 축으로 나누어 서로 직교되게 배열한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³⁷⁾

어재연장군생가의 안채는 ㄱ자형 평면으로, 사랑채 뒤편에 자리 잡고 있다. 안방 2칸과 부엌, 대청 및 건넌방으로 구성되고, 건넌방에는 안마당 방향으로 반침이 설치되어 있다.

36) 주남철, 앞의 책, p.410

37) 조성기, 한국의 민가, 도서출판 한울, 2006, p.192

나) ㄷ자형 안채

ㄷ자형 안채는 안방, 대청, 건넌방이 위치한 중심부와 방과 아궁이 부엌 등으로 구성된 좌·우 측면의 날개부가 결합한 형태로 파악된다. 이 유형은 대상 가옥 중 29호에서 나타나며, 그 중 ㄱ자형 가옥이 15호, ㄷ자형 가옥 14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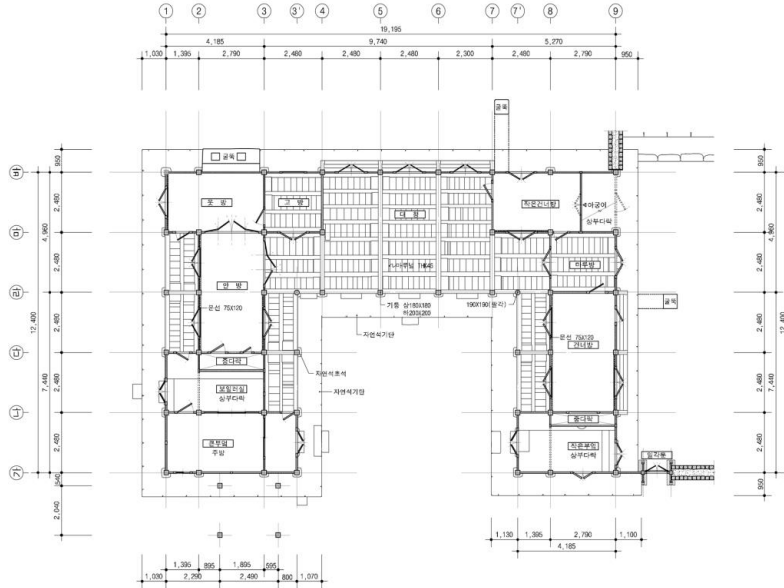


그림 30. 윤증선생고택 안채평면도

출처 :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논산명재고택(윤증선생고택)은 3칸 대청을 중심으로 좌측에 고방, 옷방, 안방, 보일러실, 큰부엌이 위치하고, 우측으로는 작은건너방, 마루장, 건너방, 작은 부엌이 차례로 있다. 고방은 부식이나 곡식을 보관하는 장소로 사용되며, 옷방과 연결되어 있다. 옷방은 손님의 접객공간을 활용되기도 하고 어린 자손이 거처하는 공간이다. 대청 우측의 마루방은 안여자들이 모여 바느질을 하는 공간으로 사용되었다.³⁸⁾

38)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17, 2007, pp.21-22

다) 一자형 안채

一자형 안채는 부엌과 방, 대청, 방이 일렬로 구성되는 형식으로 남부지방형³⁹⁾으로 분류된다. 이 유형은 대상 가옥 중 16%에서 나타나며, 사랑채와 안채가 병렬로 배치된 가옥에서 一자형 안채를 찾아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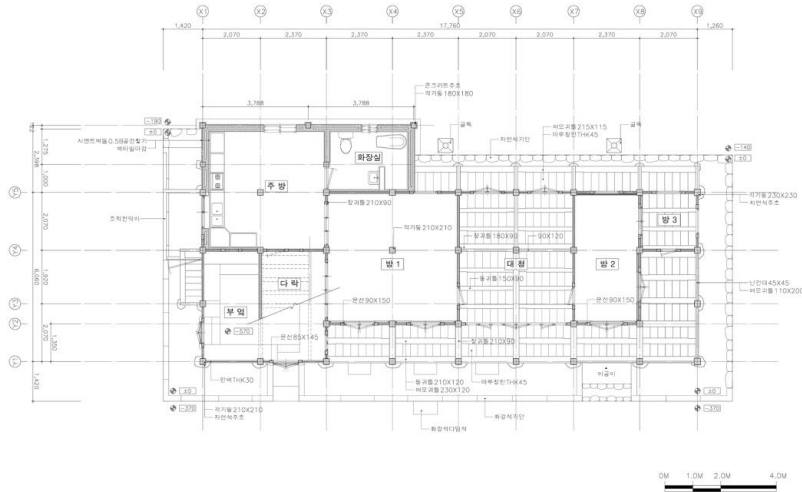


그림 31. 정은선생생가

출처 :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경남 거창군에 위치한 정은선생생가는 남부지방에서 보기 드문 곱집의 형태이다, 주방과 부엌, 방, 대청 방으로 구성되며, 좌측 방과 대청의 크기는 같으나, 높이 차이가 있다.

함양 일두고택 또한 사랑채와 안채가 병렬배치된 형태이고, 안채는 정면 여섯 칸의 규모로 대청과 안방, 작은방, 부엌으로 구성되어 있다. 안방에서부터, 대청, 방까지 전 퇴가 설치되어 있으며, 부엌과 안방에 후면의 뒷마루는 담장으로 구획된 공간을 이용하기 위한 것으로 생각된다.

39) 주남철은 조선시대 주택의 배치를 함경도지방형, 평안도지방형, 중부지방형, 서울지방형, 남부지방형, 제주도형으로 분류함.

사랑채를 시기별로 살펴보면 15~17C에는 모서리형과 측면형의 사례만 있고 18C 들어 측면형의 비율이 줄어들면서 전면형과 분화형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모서리형의 비율은 약 50%로 구성되어 19C까지 유지된다. 19C에는 줄어들었던 측면형 사랑채의 비율이 10% 증가하는 것으로 파악되며, 전면형 또한 5% 증가하였다. 시간순으로 보았을 때 전면형은 18C세기에 처음 나타나 일제초까지 비율을 유지하며, 측면형은 30%의 비율에서 줄어들다가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다. 모서리형은 초기에 주로 배치되는 형식으로 보이며, 분화형은 성리학이 주택에 영향을 미치는 중기 이후부터 나타난다.

안채는 초기 ㄱ자형과 ㄷ자형만이 나타난다. 18C 들어와 一자형과 기타형식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후기에 들어 비율이 증가한다. ㄱ자형 안채는 초기 약 50%의 비율을 보이나 점점 들며, ㄷ자형 안채는 약 50%의

비율을 유지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一자형안채는 19C에 들어 6호에서 그 사례를 확인할 수 있으며, 기타형식 또한 1호에서 3호로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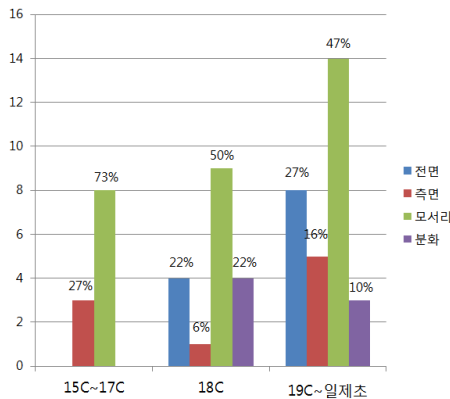


그림 32. 시기별 사랑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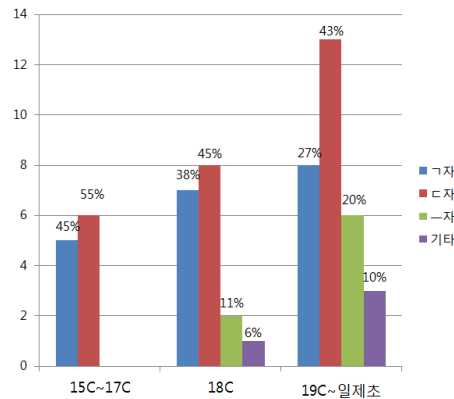


그림 33. 시기별 안채 유형

대상가옥을 경북지역과 기타지역으로 분류하여 살펴보면 사랑채는 모서리형이 경북 지역에서 19호로 가장 많은 사례를 보이며, 기타지역에서도 41%에서 나타난다. 전면형은 경북지역 2호, 기타지역에서 10호로 파악되었고 측면형은 5호와 4호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분화형 또한 4호와 3호에서 나타난다.

경북지역에서 안채는 ㄱ자형이 9호, ㄷ자형이 18호, 一자형 2호로 파악되며, 다른지역과 비교했을 때 ㄷ자형의 사례가 많고 ㄱ자형의 사례가 다소나마 적게 나타난다. 一자형은 타 지역에서 6호가 나타나 경북지역보다 높게 나타나며, 기타형식은 각각 1호와 3호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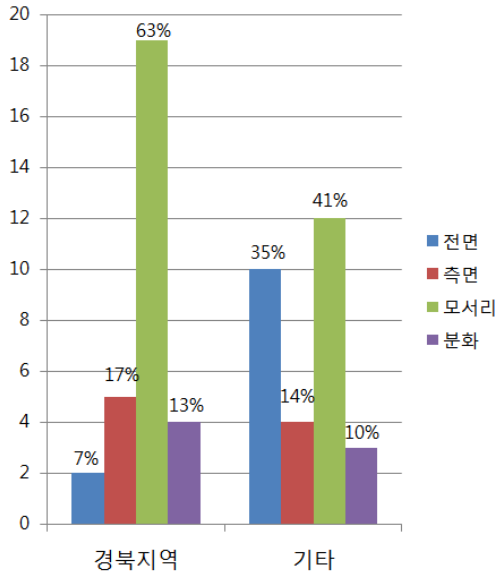


그림 34. 지역별 사랑채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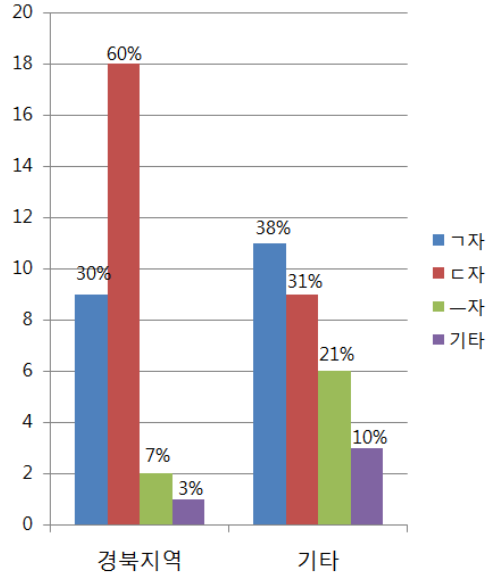


그림 35. 지역별 안채 유형

3.3 □자형 가옥의 유형분류

조사된 전통가옥은 62호이며 □자형 가옥의 배치 특징을 살펴보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먼저 도면을 참고하여 □자 형태를 이루는 채의 구성을 파악한 후 두 채 결합형, 세 채 결합형, 네 채 결합형으로 분류하였고, 두 개 이상의 □자 형태를 이루는 경우 각 □자를 형성하는 채를 파악하여 네 채 결합형에 포함하였다.

□자 형태에서 트인 부분이 없이 완전히 결합된 형식을 ‘폐쇄형’으로 정의하였고 일 부분이 트여 있는 형식을 ‘개방형’으로 정의하였고 채의 수에 의해 분류된 가옥은 각 채들의 배치방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하였다.

표 14. 연구대상 채 구성의 유형적 분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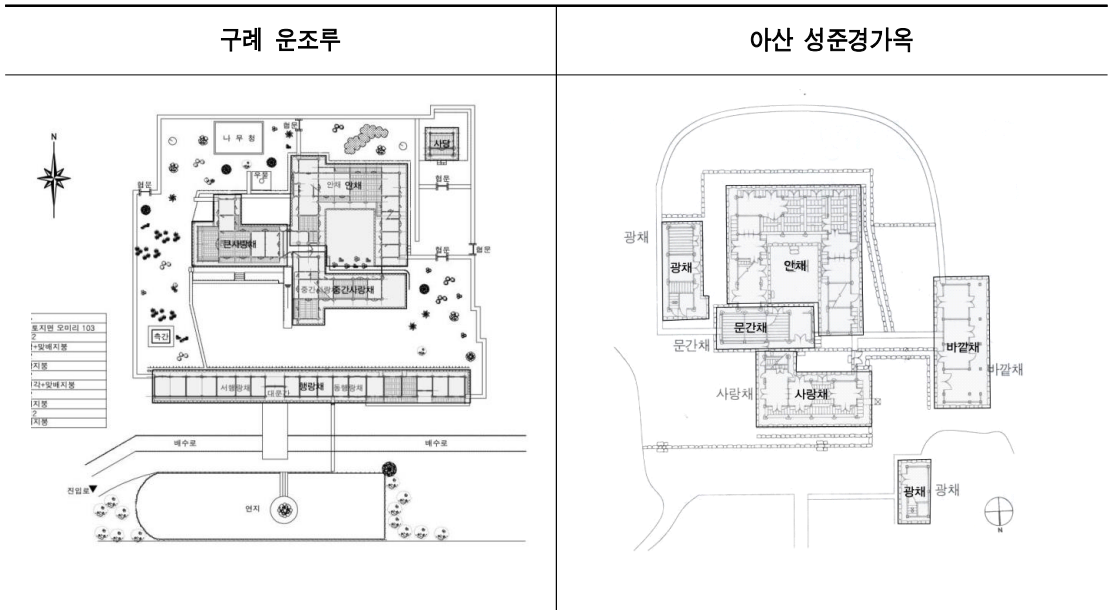
채의 구성	폐쇄형	개방형	계		
두 채 결합형	부여 민철식가옥 아산 성준경가옥 서산 김기현가옥 구례 운조루 남양주 궁집 양동 서백당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파종택	제원 정원태가옥 논산 명재고택 아산 외암리참판택 윤보선전대통령생가 아산 건재고택 남원 몽심재 양동 낙선당 양동 사호당고택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종택	7/9		
세 채 결합형	여주 김영구가옥 청원 유계화가옥 서천 이하복가옥 영천 매산고택 하회 북촌택 하회 남촌택 거촌리 쌍벽당 가평리 계서당	울현동 물체당 하리동 일성당 안동 학암고택 의성김씨율리종택 예천권씨초간종택 안동 권성백고택 의성김씨남약종택 송석헌	광주이씨월곡택 화성 정용래가옥 어재연 장군생가 진접 여경구가옥 영동 규당고택 음성 공산정고가 단양 조자형가옥 예산 정동호가옥 홍성 사운고택 경주교동최씨고택	양동 상춘헌 양동 두곡고택 양동 이항정 해저만회고택 영천 만취당 가일수곡고택 하회동 하동고택 안동 오류헌 영주 괴헌고택 달성 삼가헌	16/20
네 채 결합형	화성 정용채가옥 괴산 김기응가옥 부안 김상만가옥 하회 주일재	함양 일두고택 정온선생생가 합천 묘산목와고가 양동 수출당 청도 운강고택 영천 정용준씨가옥	4/6		
계	27	35			

3.3.1 폐쇄형

가) 두 채 결합형

두 채가 결합하여 ㄱ자 형태를 이룬 가옥은 경기, 충남, 전남, 경북지역의 7호의 가옥에서 나타난다. 가옥의 중심 공간인 안채와 사랑채가 결합한 기본적인 형태이나 아산 성준경가옥은 ㄴ자형 사랑채와 ㄷ자형 안채를 전후로 배치하고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 작은 행랑을 둔 경우도 보인다.

표 15. 두 채 폐쇄형 사례



구례 윤조루는 ㄷ자형은 안채와 ㄴ자형 중간사랑채가 결합하여 ㄱ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큰 사랑채는 안채 좌측에 배치되어 있다.

이 유형의 안채 형태는 ㄱ자, ㄴ자, ㄷ자, ㄱ자형으로 나타나고 사랑채의 형태는 ㄱ자, ㄴ자, ㄴ자형이 보이며, ㄷ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결합한 형태가 가장 많이 나타난다. 법흥동 고성이씨 탑동과종택은 폐쇄형을 이룸에 있어 다른 채와 결합하지 않고 안채가 ㄱ자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사랑채는 좌측에 인접하여 배치되어 있다

나) 세 채 결합형

세 채 결합형은 대상 가옥 중 16호에서 파악되며, 주로 경북지역에서 그 사례를 찾아볼 수 있다. 이 유형은 사랑채와 안채에 중문채 또는 행랑채가 결합하여 폐쇄형을 이루고 있으며 이 때 중문채는 안채의 전면에 위치하고 사랑채는 좌측 또는 우측면의 모서리에 위치하게 된다.

표 16. 세 채 폐쇄형 사례

<p style="text-align: center;">안동 학암고택</p>	<p style="text-align: center;">여주 김영구가옥</p>
<p style="text-align: center;">안동 학암고택 배치도.</p>	<p style="text-align: center;">여주 김영구가옥 배치도.</p>
<p style="text-align: center;">하회 북촌대</p>	<p style="text-align: center;">거촌리 쌍벽당</p>
<p style="text-align: center;">하회 북촌대 배치도.</p>	<p style="text-align: center;">거촌리 쌍벽당 배치도.</p>

안동 학암고택은 ㄷ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 一자형 중문간채가 결합하여 폐쇄형을 이루고 안채 우측면에 곳간채가 자리 잡고 내외담을 쌓아 폐쇄적인 두 개의 마당을 형성하였다.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 좌측에 위치해 있으며 새사랑채는 일정한 거리를 두고 곳간채 전면부에 배치되어 있다. 여주 김영구가옥은 ㄷ자형 안채에 一자형 큰 사랑채가 우측에 배치되고 그 아래쪽으로 작은 사랑채가 결합되어 있다. 사랑채가 분화 된 것은 가사규모의 증대에 의한 것으로 추측되며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채 사이에 중문을 두어 양분된 형태로 나타난다.

다) 네 채 결합형

네 채 결합형은 사랑채와 안채에 행랑채, 문간채, 중문채, 광채 등이 배치되면서 폐쇄형 ㄱ자를 이루며, 분포한 지역은 경기지역, 경북지역, 전북지역, 충북지역이다.

화성 정용채가옥은 안마당과 사랑마당이 형성되어 있는데, 사랑마당은 사랑채와 문간채, 행랑채가 둘러 싸면서 문간채 옆의 담장으로 인하여 트인부분이 없는 폐쇄형태를 나타낸다. 안마당은 안채와 행랑채가 결합하여 폐쇄적 안마당을 형성하고 있다.

괴산 김기웅가옥은 전체배치가 ㄷ자형이고 안마당은 안채와 광채가 결합하여 폐쇄적 형태를 형성하고 있다. 사랑채는 광채와 함께 사랑마당을 둘러싸고 있으며, 중문채와 광채, 담장이 중간마당을 형성하고 있어 네 채가 결합하여 각각의 마당을 이룬 것으로 파악된다.

부안 김상만가옥은 안마당과 사랑마당을 형성하는 채를 파악해보면, 중문채를 중심으로 안사랑채와 바깥사랑채, 문간채가 결합한 폐쇄형과 안채와 곳간채가 형성하는 개방형이 동시에 나타난다.

하회 주일재는 각 채가 분동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나 담장을 구획하여 공간을 한정하고 있다. 一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가 전후로 배치되고 광채와 협문간채가 안채의 좌우로 자리 잡고 있으며, 사랑채는 협문간채의 전면에 위치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 사이에 협문간이 배치되어 안채와 사랑채의 분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표 17. 네 채 폐쇄형 사례

<p style="text-align: center;">화성 정용채가옥</p>  <p>화성 정용채 가옥 배치도.</p>	<p style="text-align: center;">괴산 김기응가옥</p>  <p>괴산 김기응 가옥 배치도.</p>
<p style="text-align: center;">부안 김상만가옥</p> 	<p style="text-align: center;">하회 주일재</p>  <p>하회 주일재 배치도.</p>

연구대상 중 폐쇄형으로 분류된 가옥은 27호이고, 이를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기지역이 3호, 충북지역이 2호, 충남지역이 4호, 경북지역 16호, 전북, 전남지역에서 각각 1호씩이고 경남지역은 나타나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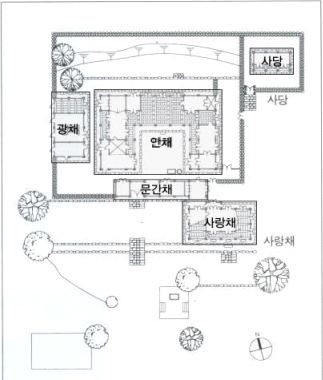



3.3.2 개방형

개방형 가옥은 □자형의 평면 형태를 이루는 가옥 중 트인 부분이 있으며, 트인 부분의 위치를 살펴보면 좌측이 트인 형태와 우측이 트인 형태, 좌·우 양측이 트인 형태를 볼 수 있다.

가) 두 채 결합형

두 채가 결합한 개방형 □자 가옥은 논산명재고택, 아산외암리참판댁(큰댁), 양동 사호당고택, 대구 둔상동 경주최씨종택 등 11호이다.

표 18. 두 채 개방형 사례

논산 명재고택	양동 낙선당
	 <p>양동 낙선당 배치도.</p>
아산 건재고택	남원 동심재
	

논산명재고택은 안채와 문간채가 완전히 결합하지 못한 개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좌우로 트여 있다. 좌측은 광채로 진입하는 동선을 제공하고 하며, 우측은 사당채와 사랑채 뒤편으로 가는 협문이 자리 잡고 있다. 양동 낙선당은 논산명재고택의 사례와 같이 안채와 문간채가 좌우로 트여 있고 좌측은 사랑채가 배치되어 있으며, 우측은 사당채가 배치되어 있다.

아산건재고택은 안채와 사랑채로 형성되어 있고 곳간채가 안채 좌측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우측의 트인 부분은 가묘로 가는 동선을 제공한다.

남원 몽심재는 안채와 사랑채가 개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안채 좌측에는 광채와 헛간채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자리 잡고 있다.

나) 세 채 결합형

두 채가 결합한 개방형 □자 가옥은 진접 여경구가옥과 영동 규당고택, 홍성 사암고택, 가일수곡고택 등 19호에서 파악되고, 안채와 사랑채가 부속채와 맞물려 배치된 형태로 안채와 사랑채가 전후로 자리 잡고 있다.

진접 여경구가옥은 안채가 광채와 중문간채의 결합으로 개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좌우측이 트여 있다. 좌측은 사랑채와 사당채가 배치되어 있고, 우측 끝의 담장에 협문이 설치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안주인 또는 며느리의 외부 출입을 위한 동선을 제공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영동 규당고택의 경우, 안채와 별채, 광채로 구성되어 있고, 각 채는 간격을 두고 서로 트여 있는 배치형식을 보인다. 광채와 별채의 간격이 가장 크고, 그 다음은 안채와 광채, 안채와 별채의 간격이 가장 짧다.

홍성 사암고택은 안채와 사랑채, 광채가 자리 잡고, 광채 우측에 별당채가 배치되어 있으며, 사당채는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에 위치하고, 사랑채 좌측과 우측에 각각 협문이 존재하여 안채 영역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진다.

가일수곡고택은 사랑채가 큰 사랑채와 중사랑채, 새사랑채로 분화된 형태를 보이며, 안채가 큰 사랑채, 중사랑채와 함께 결합한다.

달성 삼가현은 안채와 사랑채가 자리 잡고 사랑채에 측면에 중문채가 배치되어 개방형을 이루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지 않고 트여 있으나, 안채의 우측에 간격을 두고 담장이 설치되어 있다. 좌측의 트인 부분은 곳간채 및 하엽정으로의 진입동선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표 19. 세 채 개방형 사례



다) 네 채 결합형

이 유형은 사랑채와 안채가 아래채 및 문간채와 개방형 口자 형태를 이루고 있고, 경북지역의 청도 운강고택, 영천 정용준씨가옥과 경남지역의 가옥 3호에서 나타난다.

표 20. 네 채 개방형 사례

함양 일두고택	정운선생생가
<p>함양 일두 고택 배치도.</p>	<p>정운선생 생가 배치도</p>
청도 운강고택	영천 정용준씨가옥
	<p>영천 정용준 씨 가옥 배치도.</p>

함양 일두고택은 사랑채와 안채, 아래채, 중문채, 안곳간채가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전체 배치상 안채를 중심으로 주위에 광채, 곳간채 등의 부속채가 위치하고 있다. 안채는 아래채와 인접해 있고 사랑채는 중문채와 인접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이격되어 있으며, 이 부분을 통하여 사당 및 광채로의 출입동선이 제공되는 것으로 보인다.

경남 거창에 위한 윤증선생 생가는 사랑채와 안채가 2자형의 전후로 위치하고 안채의 좌측에 곳간채, 우측에 아래채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랑채 좌측의 중문채를 통하여 안마당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지고, 각 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떨어져 배치되어 있다.

청도 윤강고택은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 고방채, 중문채가 인접해 있고, 안채와 중문채 사이에는 담장이 있다. 안채와 행랑채 사이는 트여 있고, 사랑채는 고방채와 지붕을 통해 연결되어 있다. 사랑마당은 사랑채와 중사랑채, 고방채, 대문채가 감싸 개방형을 이루고 있어, 전체 배치상 두 개의 개방형 ㄱ자를 형성하고 있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개방형과 폐쇄형은 각각 7호씩이고 시기에 따라 개방형이 증가함을 볼 수 있다. 18C에 들어와 개방형만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19C에는 폐쇄형이 13호, 개방형 17호로 파악된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북지역에서 폐쇄형과 개방형의 비율이 약 50%씩이며, 기타지역에서는 개방형이 폐쇄형보다 20% 높은 수치가 높아 지역적 환경이 형태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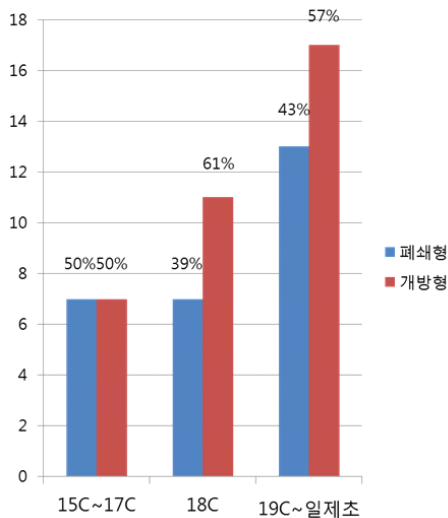


그림 36. 시기별 ㄱ자형 가옥의 유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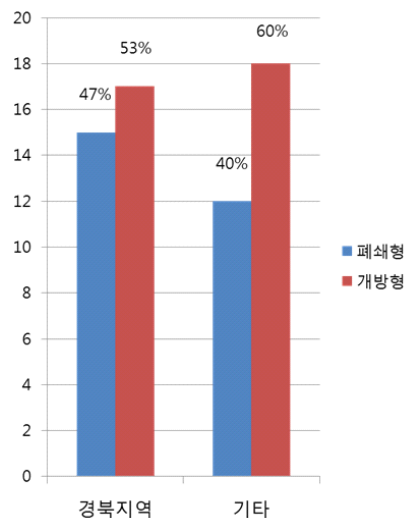


그림 37. 지역별 ㄱ자형 가옥의 유형

4. 사랑채와 안채의 연결 방식

□자형 전통가옥은 남녀의 공간이 분리되어 각자의 독립적인 공간으로 활용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세대가 생활하는 공간에서 상호 유기적인 연결체계는 다양한 방식으로 확보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대상가옥을 살펴본 결과, 사랑채와 안채 간의 영역 연결 구조는 마당, 문, 마루 등 세 가지 전이공간을 통해 다양하게 드러낼 수 있도록 계획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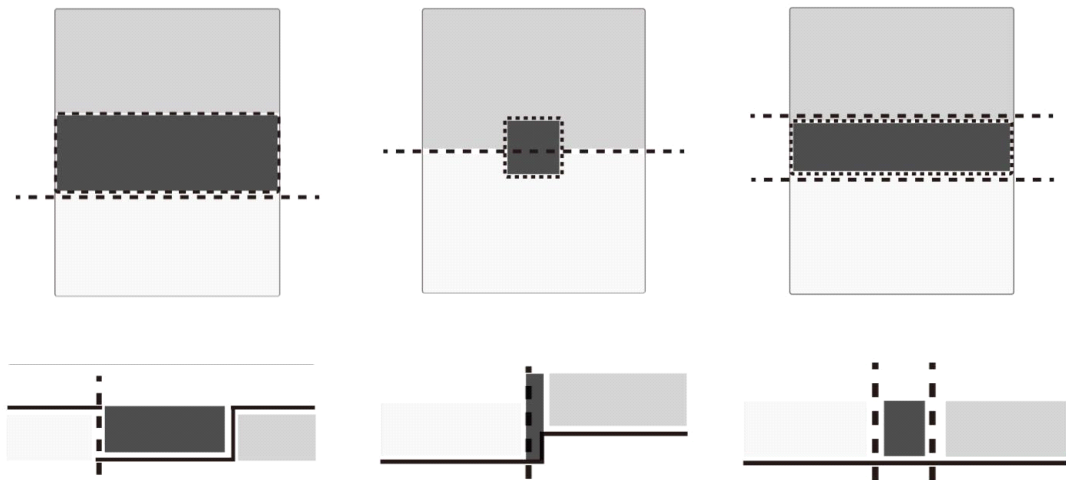


그림 38. 마당을 통한 연결방식

그림 39. 문을 통한 연결방식

그림 40. 마루를 통한 연결방식



첫째, 사랑채와 안채가 서로 연결되지 않고 독립된 공간을 가지면서 사랑채의 후면으로 난 문을 통해 진입하는 방식이다. 사랑채와 안채는 안마당을 전이공간으로 활용함으로써 외부 시선에 노출되기 쉬워 다른 요소를 활용한 사례도 나타난다. 안마당은 안채에 의해 성격이 규정되어 영역을 형성하게 되는 특징을 갖는데, 전이공간을 안마당을 활용한 점은 안채로의 직접적인 동선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둘째, 채와 채 사이 및 채와 담장 사이에 위치한 문을 통한 연결방식이다. 영역과 영

역의 점점에 위치한 문은 폐쇄를 통하여 동선을 차단하고 이용자의 개방을 통해 통행을 가능하게 하여 진입을 조절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문은 사랑채영역과 안채영역을 분리 및 연결하는 장치로써 영역을 구성하는 마당 등의 요소를 거치게 되어 동선이 가장 긴 사례가 나타난다.

셋째, 사랑채와 안채가 인접되어 배치되거나 연결된 구조에서 영역의 분리와 연결의 문제를 마루로써 해결한 방식이다. 뒷마루를 통하여 직접적인 동선을 제공하기도 하며, 마루라는 전이공간을 통해 안채로 진입하게 되는 형식이다. 안채영역과 사랑채 영역의 사이에 위치하며, 수장 및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아 중간영역을 형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표 21. 지역별 연결 방식

	경 기	충 북	충 남	경 북	경 남	전라도	계(호/%)
마당	3	4	4	18	1	1	31 / 50
문	2	1	6	11	2	2	24 / 39
마루	2	1	-	4	-	-	7 /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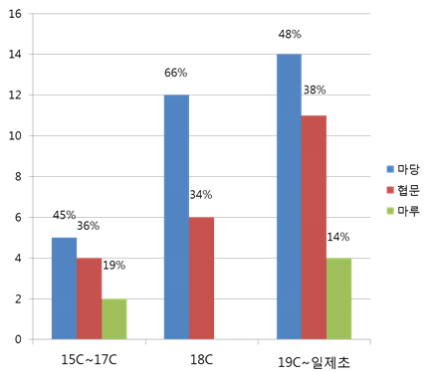


그림 41. 시기별 연결유형

연결 방식을 살펴보면 마당>문>마루 순으로 파악되며, 50%가 마당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난다. 마루와 문을 이용한 방식은 각각 11%와 39%로 나타난다. 경북지역은 대상가옥 33호 중 18호에서 마당을 통해 안채로 출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경상남도과 전라도에 위치한 가옥은 마당과 문을 통하여 안채로 진입하였고, 각각 1호와 2호로 그 사례의 수는 같다, 또한 마루를 통한 연결형이 없는 것으로 파악되며, 충남지역에서도 나타나지 않는다. 경기지역은 세 유형이 3호, 2호, 2호의 사례로 균등한 것을 볼 수 있으며, 충북지역은 마당을 통한 연결형이 대상가옥 6호 중 4호로 높은 빈도를 나타낸다. 시기별로 살펴보면 15~17C에 세 유형은 45%, 36%, 19%로 나타나고 18C에 마루를 통해 연결되는 가옥의 사례는 보이지 않는다. 마당을 통해 연결된 방식이 66%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헐문의 비율은 상이하다. 19C에 들어 15~17C의 비율과 비슷한 형태로 회귀되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두 시기를 비교해 보면 마루를 통한 형식의 14%로 5% 감소했고, 마당을 통한 연결형이 3% 증가한 것으로 파악된다.

4.1 마당을 통한 연결

전통주거에서 가장 강한 축을 갖는 것은 마당의 축이라고 볼 수 있다. 안마당의 중심축을 기준으로하여 보면 하나의 중심띠를 갖는 선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축의 크기는 보통 3~5間的 물리적인 치수로서 설명되기도 하지만 내부의 마당이 가지고 있는 규모가 문제가 아니라 대청 뒤의 마당과 연결되는 그 결합성이 바로 마당이 갖는 에너지가 되는 것이다. 이 축은 내부 공간만을 묶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마당과 그 마당의 저 건너편까지를 함께 이어주는 강한 흡입력을 갖는다. 이 축을 중심으로 해서 각 방향으로 전개되어 가며 구성 원리의 위계질서가 형성되어 가고 있다. 물론 마당을 향한 외, 내향성의 특성원리는 그대로 작용하면서 각방향이 갖는 공간의 질서가 형성되는 것이다. 중앙의 안마당을 기준으로 하여, 동북으로 사랑마당을 배치하고 사랑마당은 동남에 그리고 서북에 안채의 부속마당인 옆마당 등을 위치시킨다.⁴⁰⁾

한국 전통건축의 특성상 각 실(室)들은 직접 외부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각 채의 출입은 마당이라는 공간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따라서 마당은 연결동의 역할이 가장 우선 되어야 하며 그 때문에 마당의 흠바닥은 평평한 땅이 되어야만 한다.⁴¹⁾

마당의 동선으로서의 역할은 마당의 형태에서도 나타나 있다. 즉, 행랑마당은 주거 내부로의 진입과정상 외부에 면하는 표층(表層)으로서 안마당과 사랑마당으로 향하는 동선을 마당의 단부(端部)에서 분리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다음 마당으로의 동적인 움직임은 강조하는 통로로서의 역할을 띤 장방향의 형태를 취하는 반면, 안마당은 여성들의 주 생활공간이기 때문에 외부인들의 출입을 제한하고자 하는 의도로 멈춤의 의미를 띤 정적인 정방향의 형태를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⁴²⁾

이 유형은 마당을 전이공간으로 하는 유형으로 아래와 같이 굴절형, 직선형, 차폐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굴절형은 사랑채의 위치가 안채의 전면 모서리 또는 측면에 자리하여 안채방향의 문을 통해 안마당으로 진입하게 된다. 안마당에서 안채로의 방향성을 고려했을 때 꺾임을 갖게 되었을 것으로 파악되며, 꺾임으로 인해 동선의 길이를 조절한 방식으로 생각된다.

직선형은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에 배치되어 후면의 문을 통해 안마당을 거쳐 직접적으로 안채로의 동선을 갖는 유형이다. 동선의 거리가 가장 짧고 비교적 규모가 작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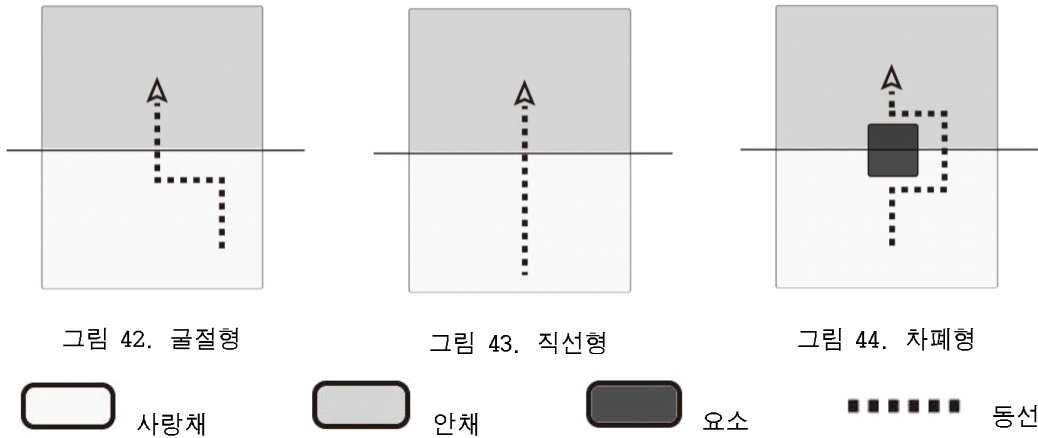
40) 최동호,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2), 건축사9612, 1996, p.90

41) 이혜연, 전통마당 공간특성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p.16

42) 이동찬, 시지각에 따른 조선중기 상류주거 외부공간의 구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재인용

가옥에서 나타난다.

차폐형은 안마당에 위치한 요소로 인해 시선이 차폐되거나 동선의 꺾임을 갖게 하는 방식이다. 동선이 굴절됨으로써 안마당의 직선길이보다 긴 동선을 갖게 되고 시선의 차폐로 인해 사랑채와 안채간의 거리가 더 멀게 느껴져 안채의 공간특성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마당을 통한 연결 방식 중 굴절형으로 파악되는 가옥의 61%이고 차폐형이 29%,이며, 직선형은 3호의 가옥에서 그 사례를 보인다. 경북지역에서는 18호 중 12호가 굴절형으로 파악되고, 차폐형이 5호에서 나타난다. 직선형은 경기지역과 충북, 경북지역에서 각 1호씩 나타나며, 경기지역은 세 유형이 각 1호씩 균등한 것으로 파악된다. 충남에 위치한 대상 가옥에서는 굴절형 3호와 차폐형 1호로 4호가 마당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되고 충북지역의 대상가옥은 굴절형이 2호, 직선형 1호, 차폐형 1호로 경기지역과 비슷한 분포를 보인다.

표 22. 지역별 마당을 통한 연결 방식

		경 기	충 북	충 남	경 북	경 남	전라도	계(호/%)
마 당	굴절	1	2	3	12	-	1	19 / 61
	직선	1	1	-	1	-	-	3 / 10
	차폐	1	1	1	5	1	-	9 / 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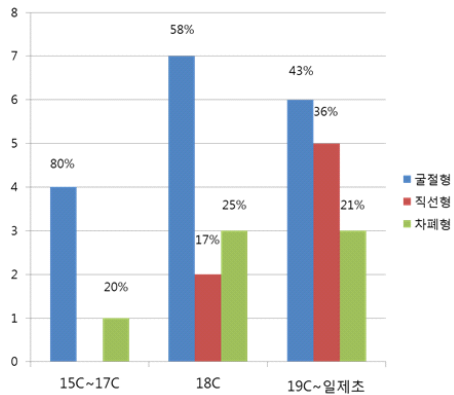


그림 45. 시기별 마당 연결형

다.

4.1.1 굴절형 연결

하회 남촌댁⁴³⁾은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 우측에 위치해 있고 안채로의 진입은 사랑채와 중문간채가 맞닿는 곳의 중문을 통하여 진입하게 된다. 중문을 2칸으로 하여 안마당으로의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하여 안채공간이 직접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은 사랑채 후면의 뒷마루가 설치된 책방에서 나와 안마당에서 안채방향으로 굴절하여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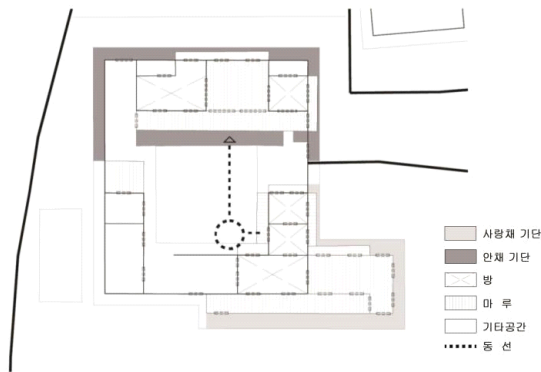


그림 46. 하회 남촌댁 평면도

43) 1954년 화재로 몸채와 새사랑채가 소실되었고 현재 대문채와 별당채, 사당채만이 남아 있어 도면을 토대로 분석을 시도하였음.

수원광주이씨월곡댁은 ㄷ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전후로 배치되어 개방형을 이루고 있다. 사랑채의 방에서 안마당을 거쳐 1단 꺾임을 갖게 한 후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예상되며, 사랑채 방에서 안채의 좌측면 방으로 쪽마루를 거쳐 진입 또한 가능했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47. 수원광주이씨월곡댁 평면도(좌), 사랑채 우측면(우)

영천 정용준씨 가옥은 안채와 곳간채, 아래채, 사랑채, 문간채가 ㄱ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문간채와 사랑채 사이에 중문이 있다. 사랑채는 안채의 우측에 위치해 있고 후면은 벽으로 처리되었으며, 돌출된 방의 좌측면에 난 문을 통하여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문을 후면에 바로 내지 않고 좌측면에 낸 점은 안채로의 직접적인 시선을 피하고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하였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48. 영천 정용준씨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달성 삼가현은 ㄷ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 및 중문채가 배치되어 개방형을 이루고 있으며, 사랑채와 안채의 좌측면에는 곳간채 및 하엽정이 위치해 있다. 사랑채 대청의 후면에 위치한 서고는 곳간채 및 하엽정 방향으로 열려 있고, 서고로부터 동선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서고에서 안채와 사랑채의 띄워진 공간을 통해 안마당으로 향하여 안마당에서 굴절된 동선을 통하여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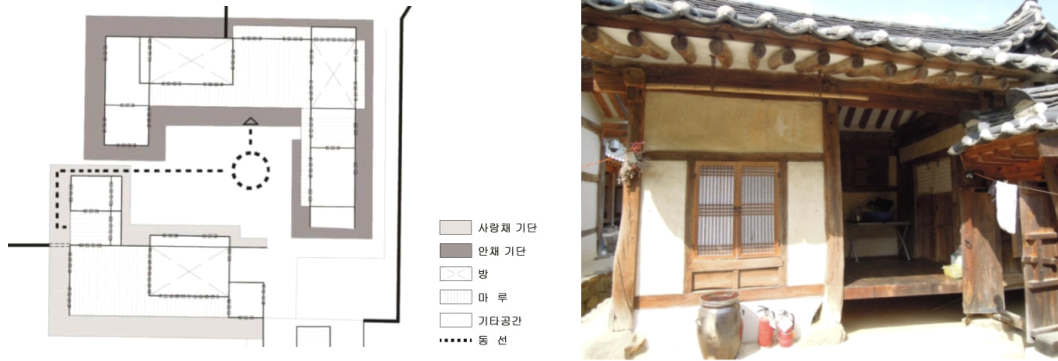


그림 49. 달성 삼가현 평면도(좌), 사랑채 좌측면(우)

단양 조자형 가옥은 1770년경 건립된 가옥으로 ㄴ자형 사랑채와 ㄱ자형 안채가 개방형을 평면을 형성하고 있다. 사랑채는 전면 4칸, 측면 4칸으로 전면 부분은 사랑공간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꺾임부분은 대문간과 광으로 이용되었다. 사랑채 후면에 위치한 문을 통하여 안채영역으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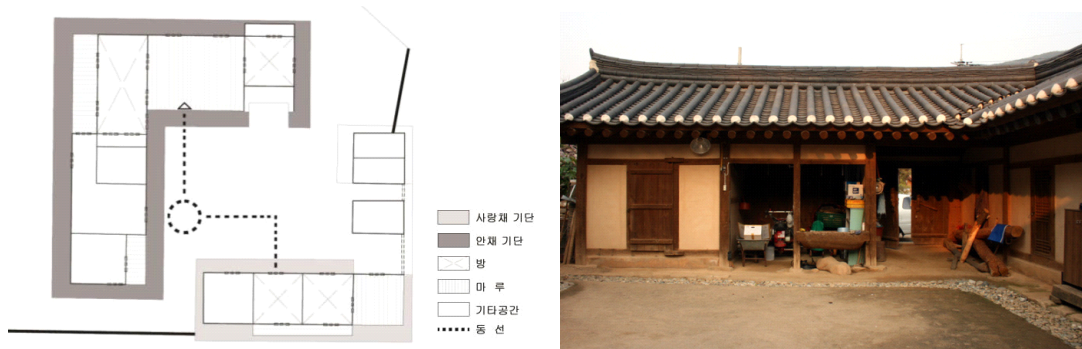


그림 50. 단양 조자형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음성 공산정 고가는 ㄱ자형 안채와 사랑채 및 一자형 행랑채가 개방형 평면을 이루고 있고 행랑채와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과 우측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다. 안채로의 진입은 사랑채 후면의 통하여 안마당을 거치는 방법과 사랑채 우측 꺾인 부분의 중문을 통하여 안마당으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1. 음성 공산정 고가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남원 몽심재는 一자형 사랑채와 ㄷ자형 안채가 개방형 평면을 이루고 있으나 안채와 사랑채의 이격거리가 다른 가옥에 비하여 상당하다. 사랑채 후면에는 안채방향으로 개폐가능한 문이 3곳이 있으나 사랑채 우측 대청의 문을 통하여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2. 남원 몽심재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거촌리 쌍벽당은 안채와 사랑채, 중문채가 결합하여 폐쇄형을 이루고 있으며,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 우측 모서리에 위치한다. 이처럼 안채와 사랑채가 사선 배치되는 형태의 주택은 기본배치가 어려운 지형이거나 안채공간의 폐쇄성 또는 상징성을 나타내는 방식으로 판단된다. 중문에 인접한 방을 통해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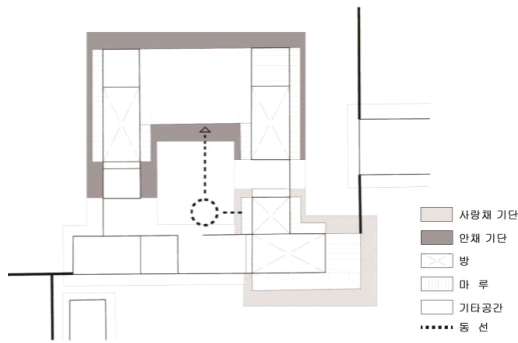


그림 53. 거촌리 쌍벽당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가평리 계서당은 ㄷ자형 안채와 一자형 사랑채 및 중문간채, 사당채로 이루어져 있고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 후면으로는 뒷마루와 벽장을 좌우로 두어 안채로의 출입동선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며, 안채쪽으로는 시선을 차단하기 위한 차면벽이 설치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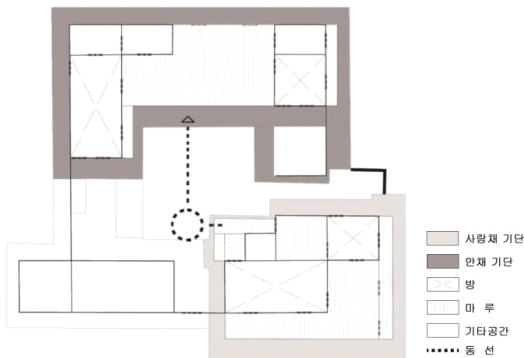


그림 54. 가평리 계서당 평면도(좌), 사랑채 좌측면(우)

울현동 물체당은 조선 중기의 가옥으로 안채는 ㄷ자형이고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 모서리에 위치해 있다. 전면 중앙의 대문간을 통하여 안채로 진입하게 되고 사랑채에서 안채로 난 문을 열어 내부 기단을 이용하여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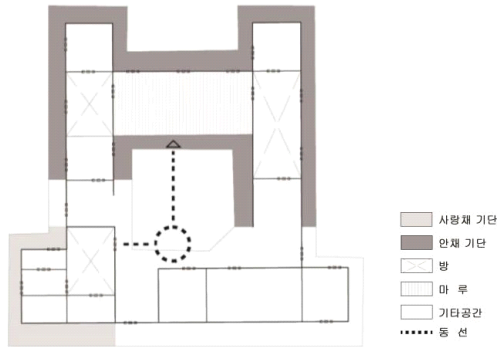


그림 55. 울현동 물체당 평면도(좌), 사랑채 우측면(우)

가일수곡고택은 ㄷ자형 안채와 사랑채가 전후로 배치되었고, 사랑채는 분화하여 작은 사랑채와 큰 사랑채가 좌우로 위치하고 있다. 큰 사랑채는 큰사랑방과 대청마루, 책방으로 구성되고 책방의 문이 안채방향으로 열린다. 큰 사랑채는 대청 후면의 사당방향으로 안채의 상방과 모방사이의 문을 이용하여 안채로의 진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작은 사랑채는 마루방에서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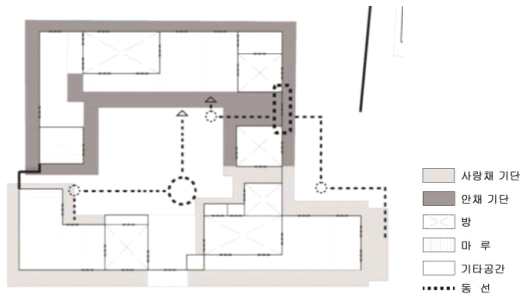


그림 56. 가일수곡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하리동 일성당은 一자형 안채와 사랑채 및 중문간채로 구성되고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다. 안채의 우측 윗방과 사랑마루에는 툇마루가 있고 이 사이에는 문을 통해 영역을 분리하고 있다. 사랑채 후면에는 사랑방과 사랑마루에서 안채 방향으로 문이 있으며, 마당을 통해 연결되고 사랑마루에서는 이 문을 통하여 음식을 받았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림 57. 하리동 일성당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안동 학암고택은 조선 후기 건립된 가옥으로 안채와 사랑채, 중문간채, 곳간채가 배치되어 폐쇄형 평면을 이룬다.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 모서리에 위치하고 전면의 중문간을 통해 안채로 진입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는 사랑방과 마루로 구성되며, 안채 방향으로 난 문은 부엌으로 향한 문과 중문과 맞닿는 부분의 문등 2개소이다. 이 문을 이용하여 안채의 마당을 거쳐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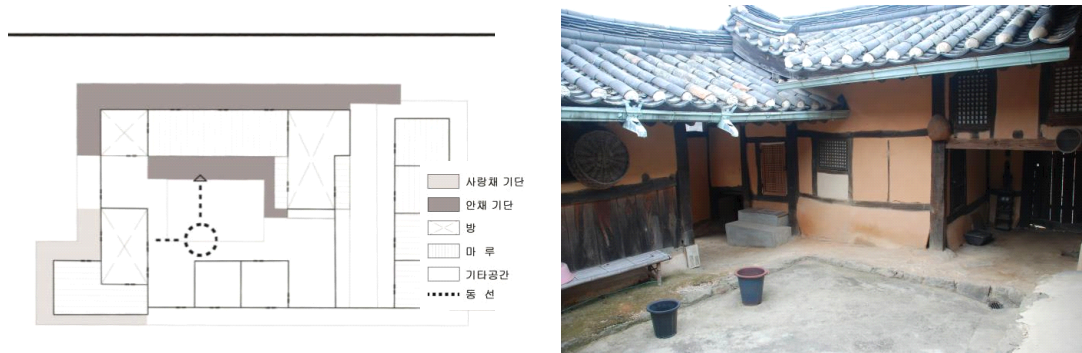


그림 58. 안동 학암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의성김씨 율리 종택은 ㄷ자형 안채와 사랑채, 대문간채로 구성되고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모서리에 위치하고 있다. 안채와 사랑채가 맞닿는 부분과 안채와 대문간채가 맞닿는 부분에 부엌이 위치하고 외부로 통하는 문이 있다. 사랑채는 좌측부터 마루와 사랑방이 있고 사랑방 뒤편으로 책방과 벽장을 설치하였다. 사랑채 후면에서 안채방향으로 난 문은 책방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이 문을 통하여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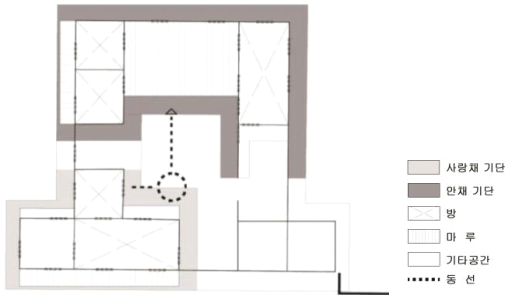


그림 59. 의성김씨 율리 종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부여 민칠식 가옥은 ㄷ자형 안채와 ㄴ자형 사랑채가 전후로 배치되고 사랑채 좌측의 중문을 통해 안채로 들어서게 된다. 사랑채와 안채가 맞닿는 부분의 문이 시설되어 있으며, 담장을 통해 사랑영역과 안채영역을 분리하고 있다. 사랑채 후면으로는 텃마루가 설치된 방의 문을 통해서 안마당으로 진입하여 안채로 들어왔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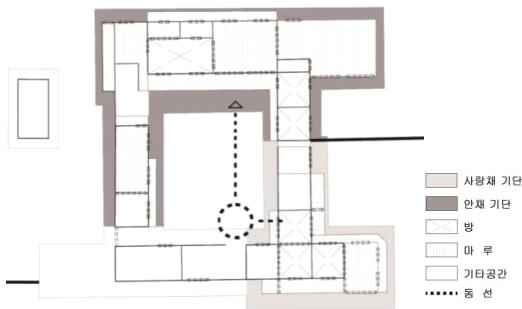


그림 60. 부여 민칠식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는 사랑채와 안채, 문간채 등으로 구성되고 안채와 행랑채가 개방형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 우측에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와 안채는 상당한 거리를 두고 이격되어 있는 점은 사랑채의 독립성이 커지고 외부공간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위함인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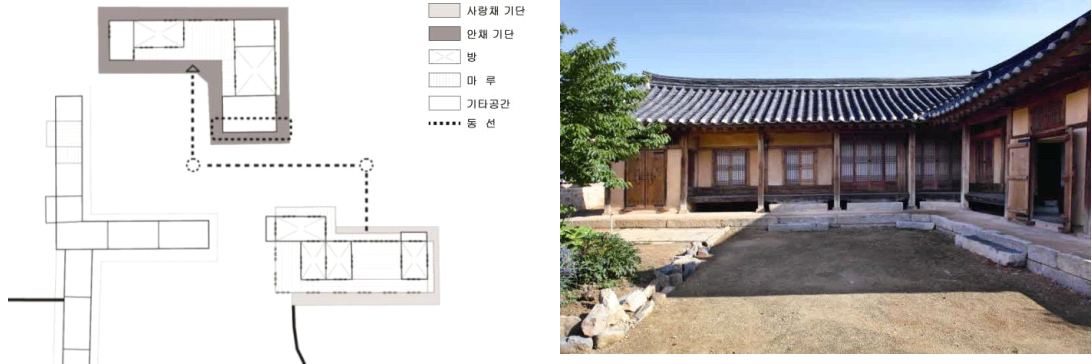


그림 61.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평면도(좌), 안채 전면(우)

서산 김기현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가 폐쇄형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사랑채는 안채의 모서리에 덧달려 있는 형식이다.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진입은 사랑채와 안채의 맞닿는 부분의 중문을 이용하는 방법과 사랑채 후면의 작은 사랑방에 안채 방향으로 난 문을 통하여 안채영역을 들어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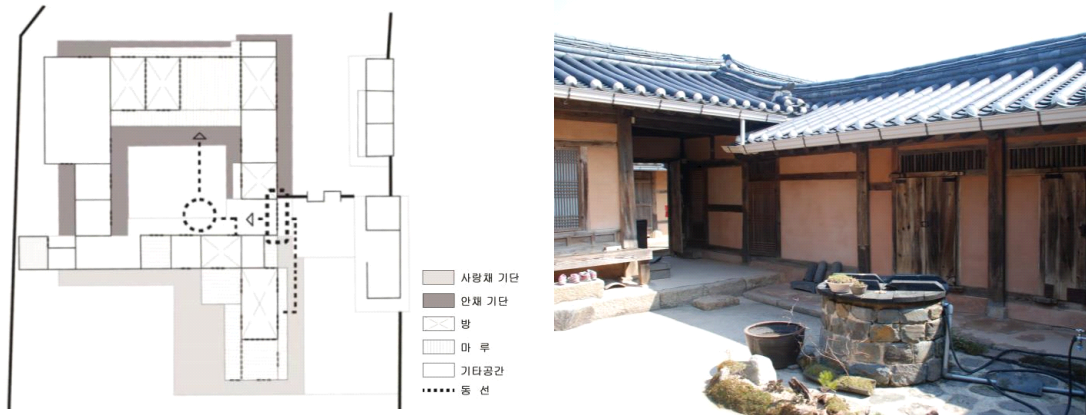


그림 62. 서산 김기현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안동 권성백 고택은 1800년대 후반에 건립된 가옥으로 안채와 사랑채, 중문간채가 폐쇄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다. 중문은 두 칸으로 차면벽을 통해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하고 안채의 좌측과 우측에 외부로 나가는 문이 있다.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 모서리에 배치되었고 사랑채 후면의 문을 통하여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3. 안동 권성백 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경북 영주 괴헌고택은 사랑채에 뒤편에 난 문을 통하여 안마당으로 진입한 것으로 파악된다. 이때 반침벽을 의도적으로 뺀어 나오게 하여 사랑채에서 안채를 직접적인 시선을 차단한다. 굴절된 동선은 안채로의 진입방식을 의도적으로 꺾음으로서 더욱 깊은 공간으로 만들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4. 영주 괴헌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4.1.2 직선형 연결

직선형 연결은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이 안마당을 거쳐 바로 연결되는 유형이다.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에 위치한 사례에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유형으로 청도 운강고택과 어재연장군생가, 제원 정원태가옥 등 세 곳으로 파악되고, 비교적 작은 규모의 가옥에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판단된다.

어재연장군생가는 사랑채와 안채, 광채가 개방형 口자 형태를 이루고 있고 사랑채 우측의 문간과 사랑채의 동선을 구분하기 위하여 내부담장이 형성되어 있다. 사랑채의 후면의 툇마루를 통해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5. 어재연장군생가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제원 정원태 가옥은 19세기 초에 건립된 가옥으로 안채와 사랑채가 전후로 배치되어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다. 사랑채 측면의 일각문을 통해 안채로 진입하게 되며, 사랑채에서는 큰 사랑방에 연결된 툇마루를 통하여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6. 제원 정원태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청도 운강고택은 안채와 사랑채, 중문채, 행랑채, 고방채가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고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에 배치되어 있으며, 안마당의 크기가 상당하다. 사랑채는 남북으로 길게 배치되어 있으며, 고방채 측면 방의 후면에 벽장과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벽장의 크기에 비하여 툇마루의 크기가 작아 좁은 통로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며, 이 통로를 통하여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7. 청도 운강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4.1.3 차폐형 연결

차폐형 연결은 안마당에 위치한 요소와 사랑채 후면에 시설된 장치로 인해 시각적 차폐와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하는 것을 고려할 때, 굴절형과 직선형의 발전된 형식으로 생각된다. 안마당에는 굴뚝, 내외담, 수목 등이 위치하여 안채로의 시선을 방해하고 사랑채 후면의 차면벽은 안채에서 보았을 때 사랑채 후면의 문을 가리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하회 북촌댁은 ㄷ자형 안채와 사랑채가 결합하여 폐쇄형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사랑채는 분화하여 중사랑채와 큰사랑채로 나타난다. 사랑채 사이에는 중문간을 두어 안채로의 동선을 제공하고, 큰 사랑채와 안채가 맞닿는 부분에도 중문이 시설되어 있다. 중간 사랑채는 집안의 주인이 거처하는 곳으로 전면에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후면으로는 벽장을 두었으며, 벽장 옆으로는 안채 방향으로 개방이 가능한 문이 시설되어 있다. 안마당에는 2개에 굴뚝과 장독대가 있고 안채의 대청에서 사랑채를 바라보았을 때 굴뚝과 벽장으로 인하여 후면의 문은 눈에 띄지 않는다. 안채로의 출입은 이 문을 활용했을 것으로 파악되며, 요소들과 배치를 고려했을 때 두 번의 꺾임을 갖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시각적 차폐와 안마당의 요소를 통하여 안채로의 거리를 조절하여 안채의 공간적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68. 하회 북촌댁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화성 정용래 가옥은 안채와 사랑채가 전후로 배치되어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다. 안채의 전면 우측에 위치한 대문을 통해 가옥으로 진입하며,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시선을 차단하기 위하여 사랑채 후면에 가림벽을 설치하였다. 가림벽을 통해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69. 화성 정용래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유계화가옥은 사랑채와 안채가 폐쇄형 口자를 형성한다. 사랑채와 안채는 일직선의 축 선상에 배치된 것으로 파악되며, 사랑채 후면으로 나올 경우 안채가 바로 보이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 점을 수목을 통하여 시선을 차단하고 안채로의 진입 동선을 꺾이게 한 점은 동선이 갖는 거리를 조절하여 안채의 성격을 강화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70. 청원 유계화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양동 이향정은 사랑채와 ㄱ자형 안채, 아래채가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사랑채 측면으로 담장이 있으며, 담장과 사랑채 사이에 중문을 두었다. 성격이 다른 공간을 이격하여 대각선으로 하고 사랑채와 아래채는 사이에는 담장이 있으며, 사랑채 후면에는 안채로 진입할 수 있는 문이 설치되어 있다. 이 문을 활용하여 안채로 진입할 경우, 사랑채와 아래채의 틈인 공간을 통해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진입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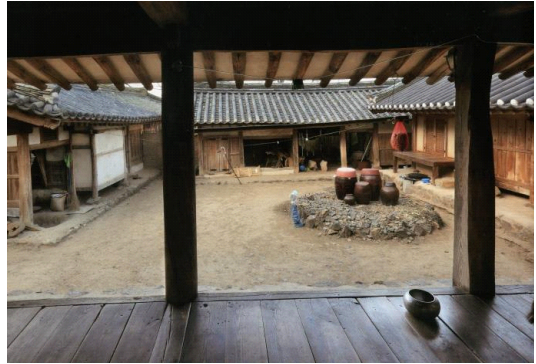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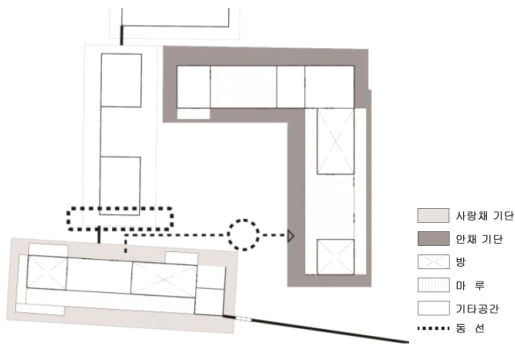


그림 71. 양동 이향정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하회 주일재는 사랑채와 안채, 협문간채, 광채가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고, 안채의 전면에 배치된 중문을 통해 안채로 진입한다. 우측의 협문간은 사당으로의 동선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되며,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은 사랑방 후면의 뒷마루를 거쳐 안마당을 통해 출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 때 협문간채의 벽면이 안채의 시선을 일부 차단하여 안채를 바로 보이게 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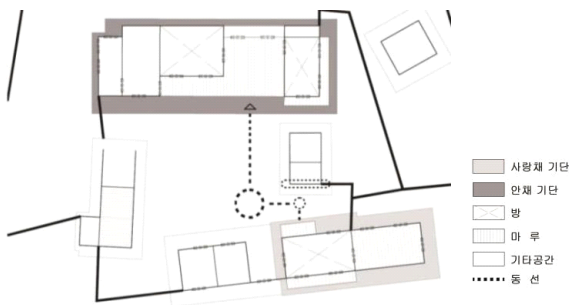


그림 72. 하회 주일재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아산 건재고택은 안채와 사랑채, 꽃간채 등이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다. 사랑채 동편에는 중문이 위치하고 중문을 넘어서면 사잇담 설치되어 안채로의 시선을 차폐한다.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은 후면에 설치된 뒷마루에서 쪽마루를 거쳐 안마당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사잇담으로 인해 시선에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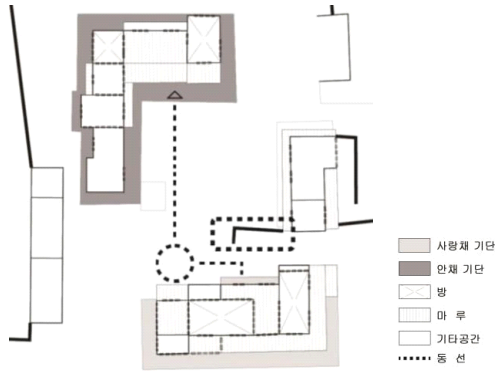


그림 73. 아산 건재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하회동 하동고택은 ㄷ자형 안채와 사랑채, 중문간채가 개방형으로 배치되어 있으며,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 모서리에 위치한다. 사랑채는 사랑방과 마루로 구성되고 전면으로 툇마루를 놓았으며, 사랑방 후면으로는 벽장과 차면벽이 설치되어 있다. 사랑채에서 안채가 직접 보이지 않도록 차면벽을 설치하여 시선을 차폐하고 내부의 문을 보이지 않게 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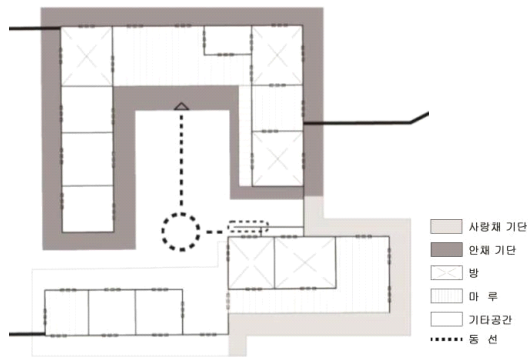


그림 74. 하회동 하동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안동 오류현은 ㄱ자형 안채와 중문간채, 사랑채가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사랑채는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 우측면에는 사당과 방앗간채가 위치하여 안채와 사랑채가 맞닿는 부분에 문을 두어 통행할 수 있게 하였다. 사랑채 후면에는 부속방에서부터 모방에 이르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며, 외쪽문을 통하여 안마당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안마당에는 수목 조경이 되어 있어 안채의 대청으로 시선을 차폐하

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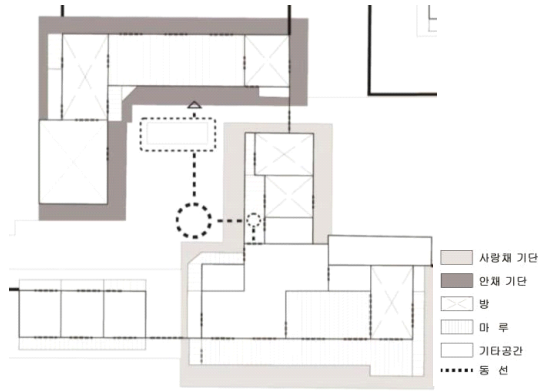


그림 75. 안동 오류현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정온선생생가는 一자형 안채와 아래채, 곳간채, 사랑채 등이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다. 중문은 사랑채 좌측면에 위치하여 안채로의 동선을 제공하고, 사랑채의 우측면과 후면에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다. 이 쪽마루를 통하여 안마당을 거치게 되고 안채로 진입하는 동선을 제공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안마당의 수목이 동선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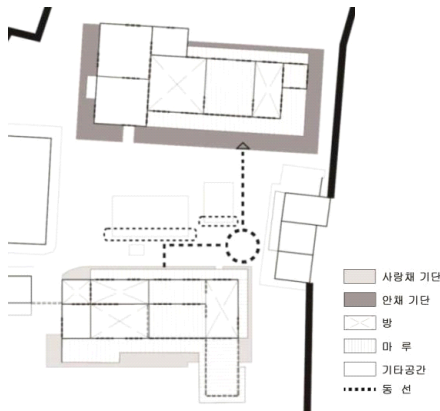


그림 76. 정온선생생가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우)

폐쇄형으로 분류된 가옥 중 마당을 통하여 안채로 진입한 가옥은 14호에서 나타나며, 이 중 굴절형이 10호, 직선형이 1호, 차폐형 3호로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진입시 주로 굴절된 동선을 갖는 것으로 파악된다. 굴절형은 두 채 결합형에서 1호, 세 채 결합형에서 9호로 파악되는데,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을 고려하여 사랑채를 안채의 좌우측면으로 배치하여 굴절을 갖게 한 것으로 파악된다.

직선형 연결은 폐쇄형 가옥 중 1호에서 그 사례를 파악할 수 있으며, 사랑채로 난문을 안채의 중심이 아닌 바깥으로 열리게 하여 진입시 개방적인 시선을 제공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차폐형 연결은 세 채 결합형에서 2호, 네 채 결합형에서 1호의 사례를 찾을 수 있고, 각 사례를 살펴보면 사랑채와 안채의 이격거리가 4칸으로, 비교적 가깝게 위치하여 수목, 담장 등의 요소를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개방형 중 안마당을 통하여 연결하는 가옥은 18호이며, 두 채 결합형이 4호, 세 채 결합형 12호, 네 채 결합형이 2호이다. 두 채가 결합형 가옥 중 굴절과 직선형은 각 1호씩에서 나타나며, 차폐형 연결은 2호로 파악된다. 세 채 결합한 가옥 중 굴절형이 6호, 직선형이 3호, 차폐형이 3호로 굴절을 갖는 동선이 가장 많은 사례로 파악된다. 네 채가 결합된 가옥은 굴절형과 직선형에서만 그 사례를 보여 비교적 규모가 큰 가옥에서는 마당이 아닌 협문을 통하여 연결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표 23. 평면 유형별 마당 연결

		폐쇄형			개방형		
		두 채결합형	세 채결합형	네 채결합형	두 채결합형	세 채결합형	네 채결합형
마당	굴절	1	9	-	1	6	1
	직선	1	-	-	1	3	1
	차폐		2	1	2	3	-

4.2 문을 통한 연결

문은 경계의 접점에 위치한다. 나라, 도시, 마을, 집, 마당, 방의 경계에 문을 세워 스스로를 방어하고 권세를 과시하는 장치이다. 또 특수한 기능을 가진 장소를 기념하고 장엄하게 만드는 수단이기도 하며, 의장적으로 다양한 모습을 가진다.⁴⁴⁾

문을 통한 연결은 협문과 중문을 통하여 안채로의 동선을 갖는 것으로 파악되며, 동선상의 거리가 짧게 나타나는 가옥이 있는 반면 가장 긴 동선을 갖기도 한다.

대상가옥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경남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나타나며, 경기와 충북 지역에서 각 1호씩이고, 충남과 전라도 지역이 2호, 경북지역 8호로 24호 중 14호가 협문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조사 대상가옥 중 경남과 전라도에 위치한 가옥은 각 3호씩이며, 경남지역에서는 중문을 활용한 가옥의 2호, 전라도 지역은 협문을 통해 안채로 출입한 가옥이 2호로 이 지역의 대상가옥은 문을 활용한 가옥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파악된다. 중문을 통해 안채로 출입한 가옥은 충북과 전라도에 위치한 가옥에서는 보이지 않으며, 충남과 경북지역에서 각 4호와 3호에서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표 24. 지역별 마당을 통한 연결 방식

		경 기	충 북	충 남	경 북	경 남	전라도	계(호/%)
문	협문	1	1	2	8	-	2	14 / 58
	중문	1	-	4	3	2	-	10 / 42

협문을 시기별로 살펴보면 경북지역에서는 예천권씨 초간중택이 1589년에 건립되어 가장 이른 것으로 파악되고 충북 괴산에 위치한 김기응 가옥이 1910년경으로 가장 늦다. 지역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경북지역이 건립시기가 앞서 있고 충남과 전남지역이 그 뒤를 따른다. 구례 운조루는 1766년경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고 경북의 가옥 중 가장 늦게 건립된 것으로 파악되는 만취당과 연대가 비슷한 것으로 보아 경북지역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문을 활용한 가옥은 17C부터 19C 중·후반에 건립된 것으로 파악된다. 조선 후기는 신분제의 동요와 농업의 발달로 인해 부농주거와 서민주거가 발달하면서 각 지역의 특성이 나타나는 시기로서 가옥 내 공간의 크기가 증가하고 마당의 역할이 확대된다. 그러므로 성리학적 영향보다는 생활의 특성에 맞는 배치가 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44) 조진환,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 주택문화사, 2008, p.20

4.2.1 협문을 통한 연결

구례 운조루는 안채와 중사랑채가 결합하여 폐쇄형 口자를 이루고 있으며, 큰사랑채가 안채의 좌측으로 덧달려있는 형태이다. 대문에서 안채로의 진입은 안채와 중사랑채, 큰사랑채가 인접하는 부분에 위치한 중문간을 통해 이루어진다. 안채의 전면은 중사랑채가 위치하여 안마당을 감싸고 있고, 후면으로는 담장을 통해 뒷마당을 형성한다. 안채의 동익랑과 중사랑채가 만나는 부분에는 셋문이 설치되어 안주인의 비밀스러운 통로를 제공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은 나무청이 있는 큰사랑채 뒤편을 이용하여 안채의 후면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사랑채 뒤편으로 진입시 책방 우측의 담장이 1차적으로 시선을 차폐하고, 우물 옆 담장이 안채로의 시선을 차단한다. 담장과 협문이 안채 뒷마당을 차폐하여 안채의 영역성을 강화한다. 운조루의 동선은 담장과 협문을 통해 안채에 이르는 3중구조로 파악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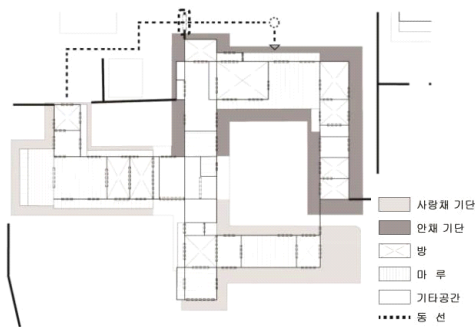


그림 77. 구례 운조루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충남 명재고택은 안채와 대문채가 개방형 口자를 형성하고 있으며, 사랑채는 대문채의 우측면에 접속되어 있다. 안채로의 진입은 대문채를 통해 이루어지고 대문채에서는 차면벽을 통해서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한다.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동선은 사랑채 후면에 위치한 협문을 통하게 된다.

사랑채 후면에는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협문을 통해 안채영역으로 들어서게 되면 안채의 우익랑이 시선을 차폐한다. 지면에는 배수로가 있어 안채와 사랑채의 영역을 나누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안채의 우익랑을 기준으로 좌측과 우측으로의 동선이 나누어지게 된다. 좌측은 안마당으로 동선이고, 우측은 일각문을 마주하게 된다. 이 일각문을 통해 안채의 건너방 또는 마루방으로의 진입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된다. 운

증선생고택은 사랑채후면에서 1차 연결요소인 협문을 두고 건물의 배치를 통해 안마당을 차폐한다. 2차 연결요소 일각문을 통해 안채로의 진입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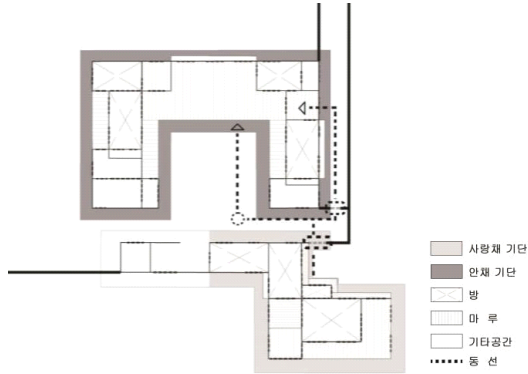


그림 78. 명재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 협문(우)

경주 교동 최씨 고택은 18세기 중엽 건립된 가옥으로 ㄷ자형 안채와 사랑채, 행랑채가 개방형 평면을 구성하고 있다. 사랑채와 행랑채 사이한 중문은 2칸으로 내외벽이 시설되어 있어 안채로의 시선을 차폐하면서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한다. 사랑채와 안채 사이에는 중문이 시설되어 있으며, 안채 서익사 온돌방 서측으로 벽장이 시설되어 있고 벽장과 담장이 맞닿는 부분에 협문을 설치하여 동선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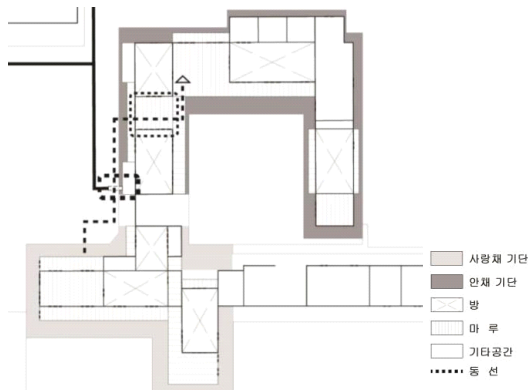


그림 79. 경주 교동 최씨 고택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출처 : 서정호, 한옥의 미1

양동 낙선당은 ㄷ자형 안채와 一자형 중문간채가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안채 좌측면에 사랑채가 덧붙여 있는 형태이다. 사랑채는 좌측부터 대청과 2개의 방으로 구성되어 있고 뒷마루로 연결되어 있다. 중문채와 사랑채가 연결되는 벽면에 협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사랑채 전면에서 이 협문을 통하여 안채로 진입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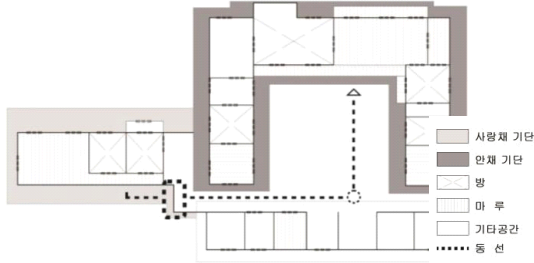


그림 80. 양동 낙선당 평면도(좌), 사랑채 협문(우)

양동 상춘헌 고택은 안채와 사랑채가 연결되어 ㄷ자 형태를 이루고 있으며, 一자형 대문채와 함께 개방형 평면을 형성한다. 사랑대청과 사랑방, 방은 문을 통해 연결되어 있으며, 사랑방에서 방까지 쪽마루가 설치되어 있으나 방에서 안채의 대청으로 연결된 뒷마루에는 이르지 못한다. 사랑대청과 대문채가 연결된 벽에 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문을 통해 안채영역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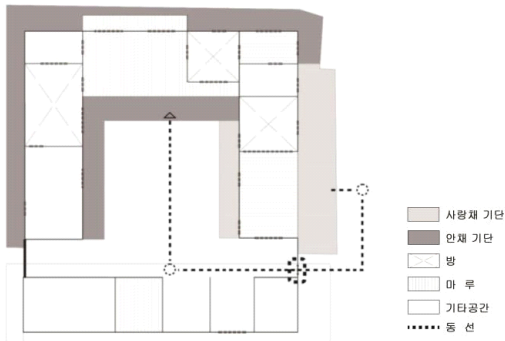


그림 81. 양동 상춘헌 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협문(우)

양동 두곡고택은 사랑채와 안채, 아래채가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다. 안채 영역으로의 진입은 사랑채와 아래채, 안채와 아래채가 맞닿는 부분의 중문을 통하는 방법과 사랑채 우측의 담장과 맞닿는 부분에 설치된 협문을 통하여 안채의 뒤편 또는 안마당으로의 진입을 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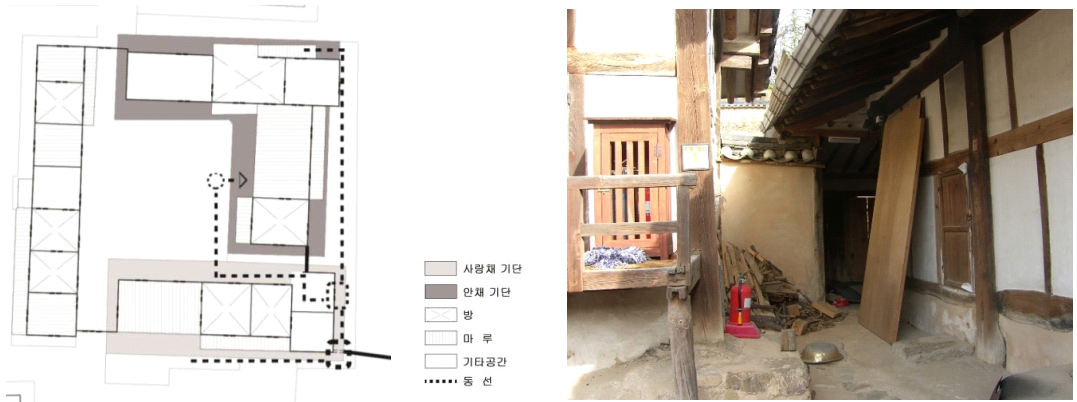


그림 82. 양동 두곡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협문(우)

양동 수졸당은 ㄱ자형 안채와 아래채, 사랑채, 대문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랑채는 안채의 측면에 위치하고 있다. 사랑채와 인접하여 배치된 대문채를 통하여 안채의 측면으로 진입하게 된다. 대문채와 사랑채의 맞닿는 부분에 벽과 기둥의 사이에 협문이 설치되어 있으며, 이 문을 통하여 안채로의 진입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랑 마루에 안채방향으로 설치된 외여단이문 또한 전이요소로 이용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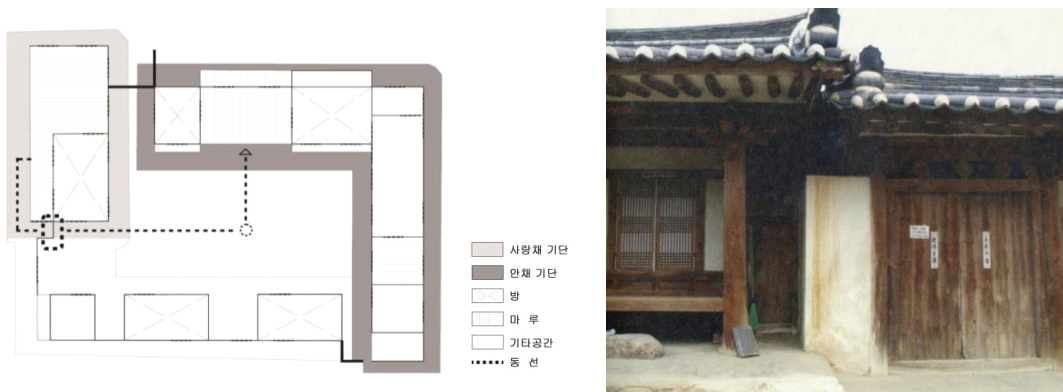


그림 83. 양동 수졸당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출처 : 서정호, 한옥의 미1

진접 여경구 가옥은 T자형 안채와 광채가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중문간은 안채로의 시선을 차폐하기 위하여 두 칸으로 되어 있다. 사랑채는 안채의 좌측에 배치되어 있으며, 사랑채 후면으로 사당이 자리 잡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는 기단을 두고 분리되어 있으며, 안채와 광채가 맞닿는 부분에는 작은 협문이 시설되어 있다. 이 문을 통해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직접적인 동선을 제공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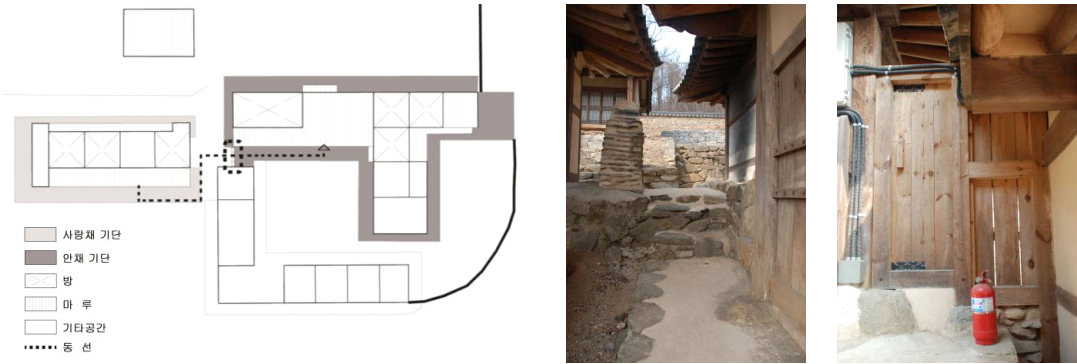


그림 84. 진접 여경구 가옥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괴산 김기응 가옥은 안채 영역과 사랑채 영역이 광채로 인해 분리되고, 사랑채는 담장으로 둘러싸여 있는 모습이다. 사랑채는 역 ㄴ자 형태이며, 광채와 맞닿는 부분에 시설된 협문을 통하여 안채와 연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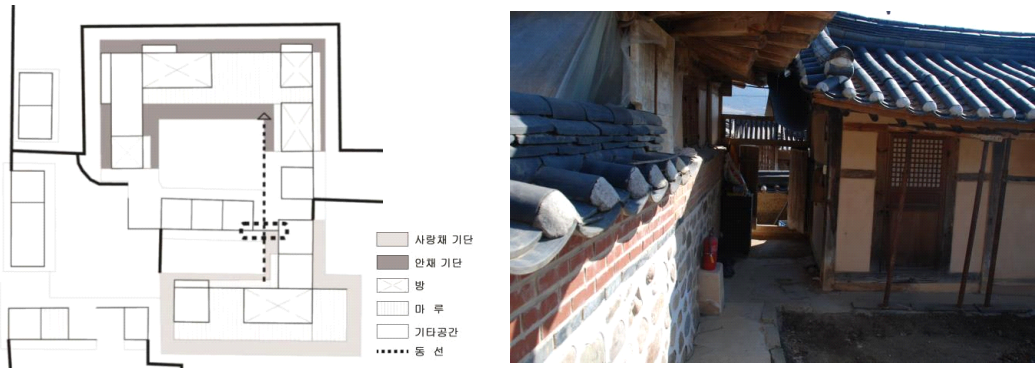


그림 85. 괴산 김기응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협문(우)

부안 김상만 가옥은 안채영역과 사랑채 영역이 직렬로 배치되어 있으며, 중문채는 두 영역사이에 배치되어 영역을 분리하고 있다. 안채로의 진입은 사랑채 영역을 형성하고 있는 문간채를 통하여 중문채를 거쳐 안채로 진입하게 된다. 사랑채에서는 안사랑채와 안채 사이의 담에 시설된 협문을 통하여 진입할 수 있게 되며, 이는 진접 여경구가옥에서 나타난 방식과 같은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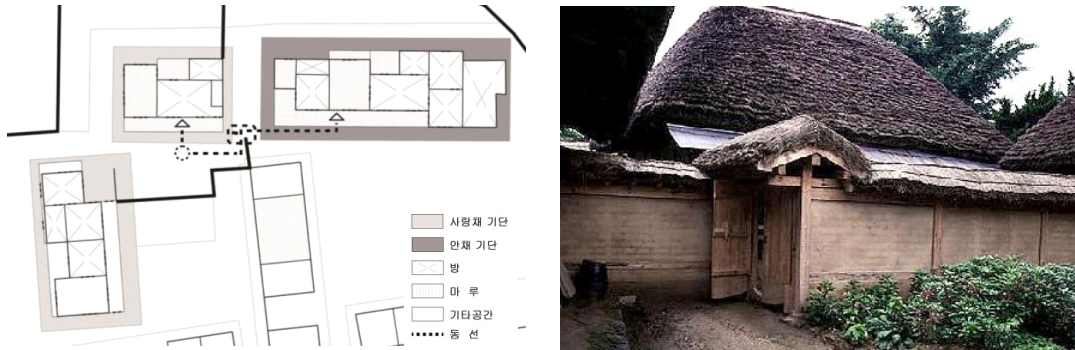


그림 86. 부안 김상만 가옥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영천 만취당은 ㄷ자형 안채와 사랑채가 전후로 배치되어 있으며, 사랑채가 분화하여 큰사랑채와 중사랑채로 나타난다. 사랑채 사이에는 중문이 위치해 있고 큰 사랑채 후면으로 사당이 자리 잡고 있으며, 담장에 설치된 협문을 통해 안채로 연결된다. 중사랑채 후면에는 담장과 안채가 맞닿는 부분에 협문이 설치되어 사랑채와 안채간 이동을 가능하게 하였고, 이 협문을 통하여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진입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87. 영천 만취당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함양 일두고택은 조선후기 건립된 가옥으로 안채와 아래채, 중문채와 사랑채 등이 배치되어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다. 사랑채의 북동측에는 안사랑채가 자리 잡고 있고 북측으로 연결된 담장에 협문이 시설되어 있다. 이 협문을 통해서 안채영역으로 연결되어 3번의 꺾임을 통해 안채에 이르게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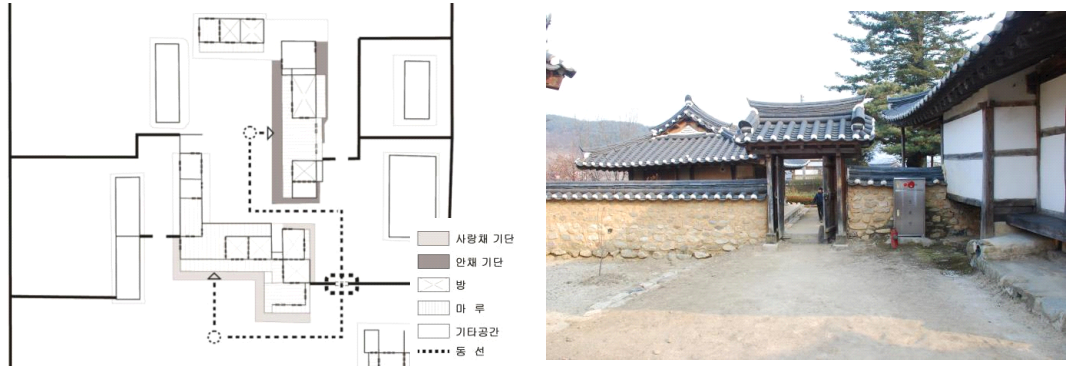


그림 88. 함양 일두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측면 협문(우)

아산 외암리 참판댁 큰댁은 역 7자형 안채와 곳간, 사랑채가 개방형 평면을 이루고 있으며,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에 자리 잡고 있다. 사랑채 우측의 중문간은 안채로의 시선을 차폐하기 위해 2칸으로 시설되어 있으며, 굴절된 동선을 통해 안채로의 거리를 조절한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 좌측면으로 담장과 맞닿는 부분에 협문을 설치한 것으로 보아 동선을 제공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사랑마루에서 후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쪽마루와 디딤돌을 두었고 사랑방의 후면에 차면벽이 설치된 점 또한 안채와의 관계에서 시선을 차단할 목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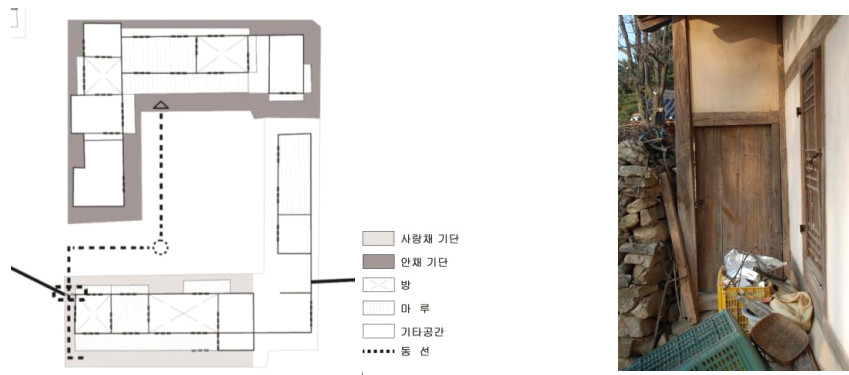


그림 89. 아산 외암리 참판댁 큰댁 평면도(좌), 사랑채 협문(우)

예천권씨 초간종택은 안채와 안사랑채, 안대문이 폐쇄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별당채계 전면 우측으로 덧달린 형태이다. 안사랑채는 중방 2칸과 마루방으로 구성되며, 안대문은 좌측으로 치우쳐 자리하여 안채로의 진입동선을 제공한다. 별당은 마루 후면에 시설된 문을 통하여 계단을 올라 협문을 개방하여 쪽마루에 이르게 된다. 쪽마루에 내려와 안채 우측면에 시설된 쪽마루를 거쳐 안채 대청으로의 진입이 가능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90. 예천권씨 초간 종택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4.2.2 중문을 통한 연결

영천 매산고택은 ㄷ자형 안채와 중문간채, 사랑채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문간과 사랑채 사이 및 안채와 사랑채가 인접한 부분에 중문이 위치하고 있다. 중문의 위치로 볼 때 각 영역을 분리하기 위한 설계방법 중 하나로 생각된다. 사랑채는 안채의 전면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고 우측면의 문을 통해 후면으로 돌아서 중문에 이른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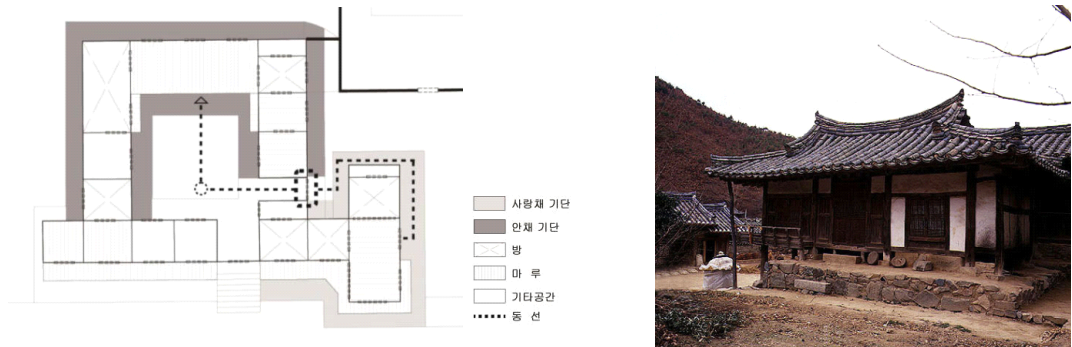


그림 91. 영천 매산고택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여주 김영구 가옥은 사랑채가 분화한 형태로 작은 사랑채와 큰 사랑채가 안채의 우측에 자리잡고 있다. 큰 사랑채와 작은 사랑채는 전후로 배치되어 있고 그 사이에는 중문을 시설하여 안채로의 동선을 제공한다. 큰 사랑채 후면에는 차면벽을 설치하여 안채로의 시선을 차폐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 곳 또한 안채로 연결되는 동선 중 하나로 판단된다.



그림 92. 여주 김영구 가옥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해저만회고택은 사랑채가 안채의 전면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고 안채 전면의 중앙에 위치한 중문을 통해 안채로 이르게 된다. 또한 안채와 사랑채가 인접한 곳에 중문이 시설되어 있으며, 사랑채의 마루방 후면으로 나와서 중문을 활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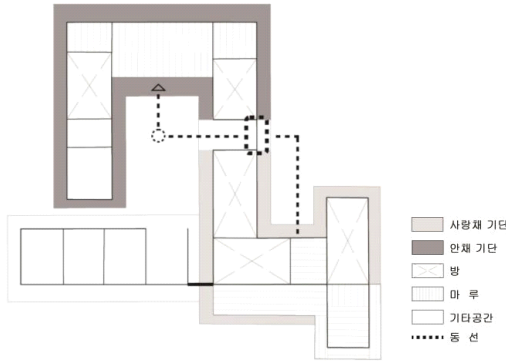


그림 93. 해저만회고택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범흥동고성이씨 탐동파종택은 卍자형 안채에 사랑채가 덧달려 있는 형태이다. 출입의 경우 사랑채는 마루방의 후면으로 하게 되어 있고, 안채는 전면에 시설된 중문을 통하여 하게 되어 있다. 사랑채와 안채는 서로 간격을 두고 떨어져 건립되어 있으며, 안채의 좌측면 방과 부엌사이에 시설된 중문이 사랑채에서 안마당으로 진입할 시 가장 효율적인 동선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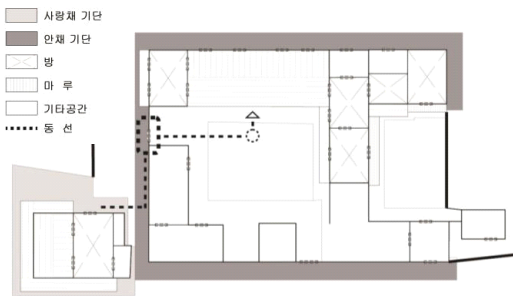


그림 94. 범흥동 고성이씨탐동파종택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출처 :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예산 정동호 가옥은 사랑채와 안채, 곳간채가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랑

채와 안채는 전후로 배치되어 있다. 안마당으로 진입은 안채 전면에 위치한 문과 안채 우측면에 위치한 중문을 이용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랑채 좌측면에 광채와 맞닿는 부분에 시설된 문을 사용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문은 가옥의 전면에서 보았을 때 굴뚝으로 인해 노출되지 않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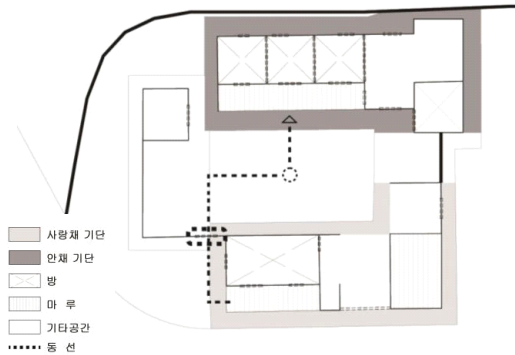


그림 95. 예산 정동호 가옥 평면도(좌), 사랑채 중문(우)

아산 성준경 가옥은 사랑채와 안채가 전후로 배치되어 각각의 영역을 형성하고 있으며, 그 사이에 문간채를 두어 영역을 분리하는 모습이다. 사랑채는 ㄴ자형 평면 형태로 후면의 문간채와 담장에 맞닿는 부분에 시설된 문과 중문을 거쳐 안채로 이르는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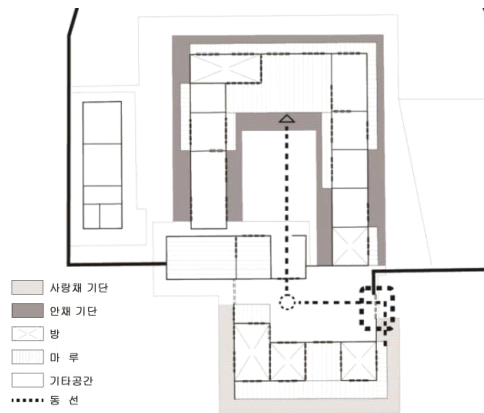


그림 96. 아산 성준경 가옥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서천 이하북 가옥은 안채와 아래채, 광채, 헛간채가 개방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랑채는 아래채 우측에 배치되어 있다. 아래채 좌측과 우측에 문이 시설되어 가옥으로 진입을 가능하게 한다. 사랑채에서는 사랑마당을 거쳐 안채 우측에 시설된 중문을 통하게 되고 진입을 하게 되고 헛간의 내벽이 안채로의 시선을 차폐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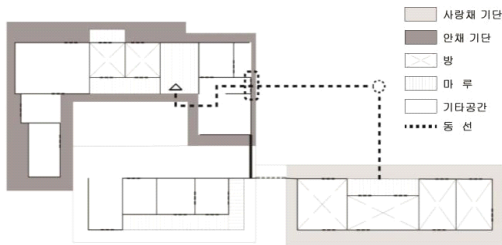


그림 97. 서천 이하북 가옥 평면도(좌), 안채 중문(우)

홍성 사운고택은 一자형 사랑채와 ㄱ자형 안채가 개방형 평면을 이루고 있고, 전후로 배치되어 있다. 사랑채 측면으로는 담장을 설치하여 영역을 분할하고 있는 모습이고 담장에 설치된 문을 통하여 안채 영역으로 진입이 가능하다. 중문을 통하여 안채로 이르면 좌측면의 뒷마루에서 방으로 직접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며, 사랑채 후면으로 난 문을 통하여 안채로 진입시 안채의 마루로 연결이 가능할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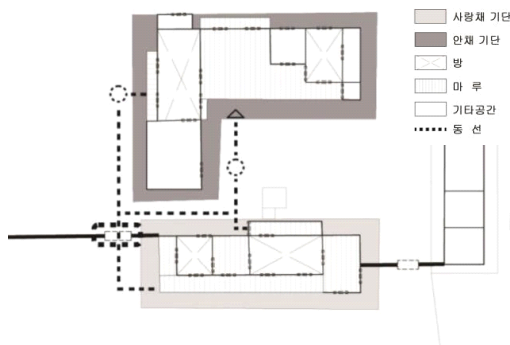


그림 98. 홍성 사운고택 평면도(좌), 사랑채 중문(우)

합천 묘산묵와 고가는 사랑채와 안채가 전후로 배치되어 있으며, 사랑채와 방앗간채가 맞닿는 부분에 중문이 시설되어 있다. 중문은 가옥의 전면에서 바라보았을 때 수목으로 인하여 노출이 자제된다. 또한 사랑채의 누마루가 돌출되어 대문간채에서 중문이 확인되지 않으며, 마당공간을 분할했던 것으로 추측된다. 사랑채는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툇마루를 통해 중문으로 진입한 후 안마당을 거쳐 안채로 진입했을 것으로 파악되며, 사랑채 후면으로 난 문은 부엌에서 음식을 나르기 위한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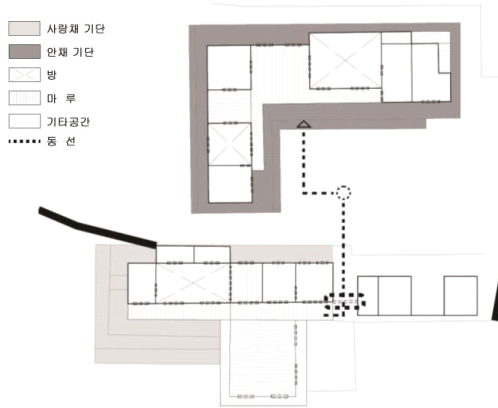


그림 99. 합천 묘산묵와 고가 평면도(좌), 사랑채 중문(우)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 종택은 사랑채와 안채가 전후로 배치되어 있으며, 인접한 부분에 두 부분에 중문을 두고 있다. 안채로의 진입은 전면 중앙에 시설된 중문을 통하여 이루어지고 우측의 중문은 사랑 대청에서 후면으로 안채로의 동선을 갖을 때 이용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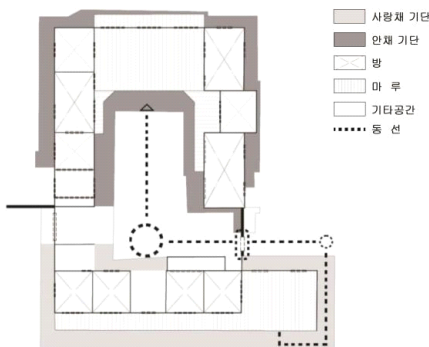


그림 100.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고택 종택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4.3 마루를 통한 연결

마루는 인접하는 공간에 따라 성격이 규정된다. 대상가옥을 살펴본 결과 사랑채와 안채의 중간에 위치하여 두 공간의 성격이 아닌 중간적 성격을 갖고 있으며, 각 채 방향으로 문이 시설되어 연결공간의 역할도 한다. 방과 방 사이에 위치한 경우 방과 방을 연결하게 되고, 툇마루가 연결되지 않는 가옥에서는 안마당으로의 문을 개방할 수 있어 출입시 이용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사랑채에서 안채로 툇마루가 연결된 경우 높이차이로 인하여 툇마루 중간부분에 계단이 설치된 사례를 볼 수 있으며, 안채의 높이에 맞춰 사랑채까지 오는 사례도 나타난다. 이 경우 사랑채의 방 내부에 계단을 두어 마루에 출입하게 된다.

표 25. 지역별 마루를 통한 연결 방식

경 기	충 북	충 남	경 북	경 남	전라도	계(호/%)
2	1	-	4	-	-	7

마루를 통한 연결형은 총 7호로 파악되며, 그 중 경북이 4호, 경기 1호, 충북지역 1호에서 그 사례를 볼 수 있다. 경기도 남양주에 위치한 궁집을 제외한 대상가옥은 사랑채가 안채의 우측에 위치해 있으며, 툇마루를 통해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형식이 3호로 파악된다. 마루방을 거쳐 안채로 출입한 가옥 또한 3호에서 보이고 예천의성김씨남악종택의 경우 툇마루를 통해 마루방을 거치게 되는 복합형을 파악된다.

표 26. 마루의 세부유형 및 건립시기

	지 역	가 옥 명	건립시기
툇마루	경북	양동 서백당	1457년
	경기	화성 정용채 가옥	1887년경
	경북	송석헌	1718년경
마루방	경북	양동 사호당 고택	1840년경
	경기	남양주 궁집	18세기말
	충북	영동규당고택	19세기 후반
복합형	경북	예천의성김씨남악종택	1630년경

양동 사호당 고택은 사랑채가 안채의 우측면에 덧붙여져 있는 배치형태이며, 전면에는 대문채가 자리잡고 있다. 사랑채와 안채의 우측의 방 사이에는 마루방이 위치하여 두 영역의 연결과 분리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랑채에서 마루방을 통해 안마당과 방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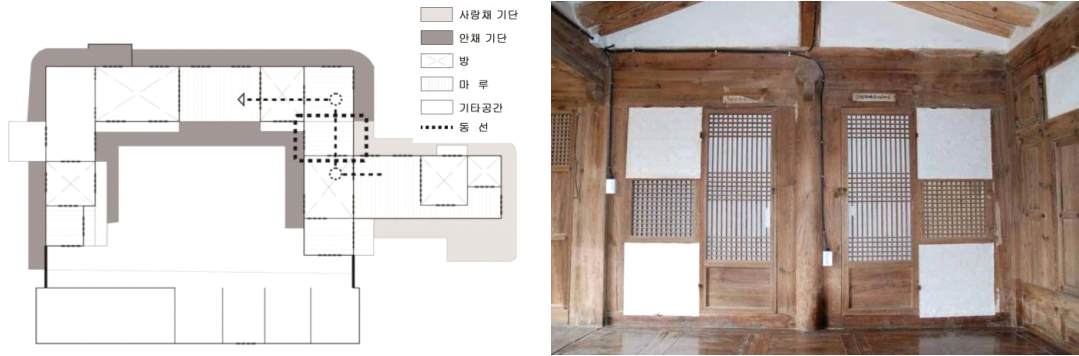


그림 101. 양동 사호당 고택 평면도(좌), 마루방(우)

경북 봉화읍 송석헌의 경우 사랑채에서 사랑채 좌측면에 달아낸 쪽마루를 안채의 대청마루로 연결함으로써 이동 동선을 제공하고 경북 예천 의성김씨 남악종택은 사랑방에서 마루를 통해 나와 사랑채 뒤편의 계단을 이용하여 안채우측에 달아낸 쪽마루를 이용하여 안채로 이동할 수 있게 하였다.



그림 102. 송석헌 평면도(좌), 안채 쪽마루(우)

양동 서백당은 사랑채와 안채가 결합하여 폐쇄형 평면을 이루는 가옥으로, 사랑채는 전면 우측 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다. 안채로의 진입은 전면 중앙에 위치한 중문간을 통해서 이루어졌다. 사랑채는 중사랑방과 큰사랑방, 사랑마루 등으로 구성되며 큰사랑방 후면에 반침이 시설되어 있으며 반침 옆으로 작은 문이 나 있다. 이 문을 통해 안채 대청과 연결된 쪽마루를 이용하여 안채로 진입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중사랑방과 산실청 사이에 위치한 마루방을 통해 안채로의 진입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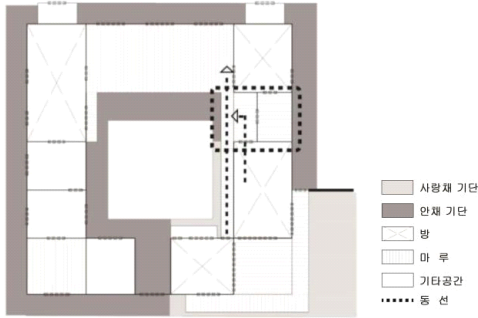


그림 103. 양동 서백당 평면도(좌), 안채 쪽마루(우)

출처 :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25

남양주 궁집은 口자형 안채에 사랑채가 덧달려 있는 형태로 사랑방 후면으로는 마루방이 자리잡고 있다. 마루방은 사랑방과 안채의 방으려 연결되어 있으며 안마당으로도 문이 개방되어 안채의 영역으로 진입을 가능하게 하는 공간으로 파악된다. 사랑방에서 마루방을 거쳐 안마당을 거쳐 안채의 대청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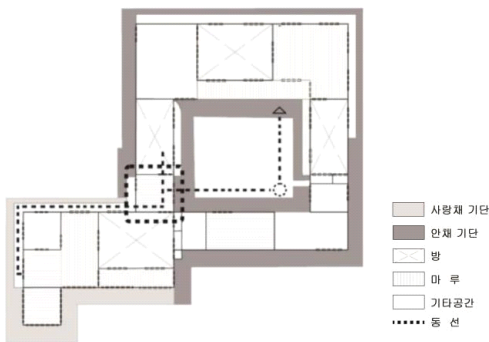


그림 104. 남양주 궁집 평면도(좌), 안채 전경(우)

출처 : 문화재청, 한국의 전통가옥 14

화성 정용채 가옥은 사랑채와 안채가 남북으로 직렬 배치된 형태이다. 동쪽으로 길게 배치된 행랑채로 인하여 사랑마당과 안마당을 한정하고 있으며, 문간채를 통해 사랑영역으로 진입하게 된다. 안채로의 동선은 동쪽으로 치우쳐 배치된 중문을 통하여 안마당으로 이르게 되며, 사랑채에서는 사랑방에서 안채의 건너방 뒤편으로 설치된 통로를 통하여 대청으로 바로 진입하게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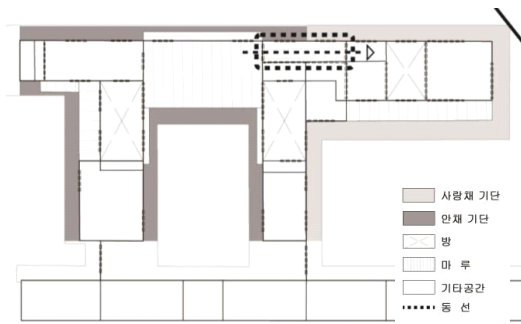


그림 105. 화성 정용채 가옥 평면도(좌), 안채 대청(우)

영동 규당고택은 남성 공간과 여성 공간이 결합하여 ㄱ자형 안채를 이루고 있으며, 영역이 맞닿는 부분에 마루방이 위치하고 있다. 안채의 우측면에 툇마루가 설치되어 있고 중간부에 마루방에 돌출되어 툇마루와 연결된다. 마루방은 툇마루와 방, 마당으로 창호가 설치되어 사랑채에서 마루방을 거쳐 툇마루나 방, 대청으로 연결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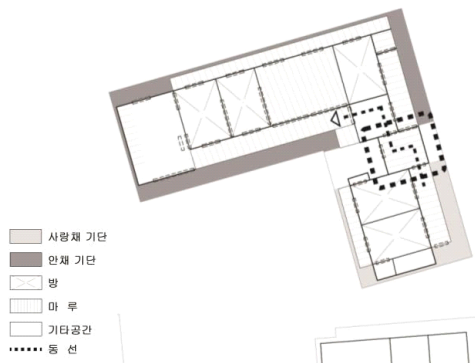


그림 106. 영동규당고택 평면도(좌), 안채 협문(우)

예천 의성김씨 남약종택은 안채와 사랑채, 중문채가 결합하여 폐쇄형 평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사랑채는 전면 우측모서리에 배치되어 있다. 안채 전면에 전면 중앙에 시설된 중문을 통해 안채로 진입할 수 있고, 사랑채와 안채가 인접한 공간에도 중문이 시설되어 있다. 사랑채에서 안채로의 진입은 안채의 우측면에 설치되면 계단을 통하여 안채 대청 측면에 위치한 마루방을 거쳐 대청으로 진입했을 것으로 파악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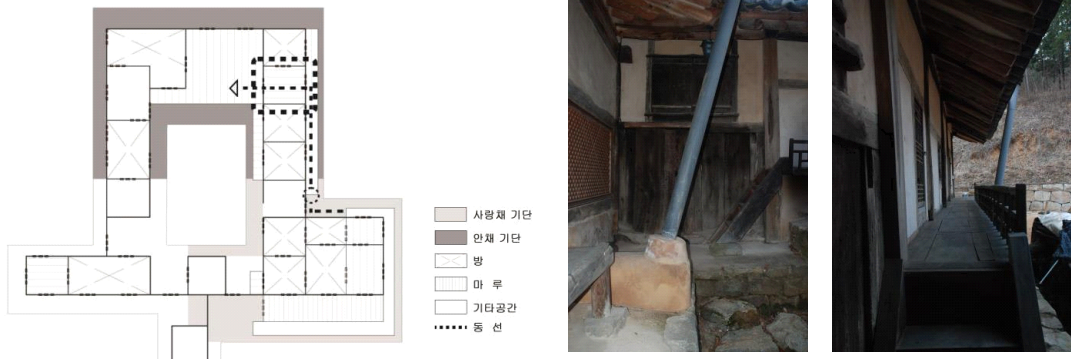


그림 107. 예천 의성김씨남약종택 평면도(좌), 사랑채 후면 계단 및 마루(우)

5. 결론

본 연구는 조선시대 전통가옥의 형성배경을 알아보고, 사랑채와 안채가 인접한 口자 평면 형태를 갖는 가옥을 대상으로 성격이 다른 영역의 분리와 연결의 방법을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口자형 가옥의 위치를 파악하고, 배치 및 구성을 살핀 후 배치에 따른 유형을 분류하였다. 최종적으로 영역의 성격이 대비되는 사랑채와 안채의 연결방법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시대적 배경은 조선시대가 성리학이 발달함에 따라 생활이념과 규범의 변화를 초래하여 주거형태의 변화를 수반하게 하였다. 이 변화는 가옥 내 가묘의 건립과 남녀의 영역구분, 신분계층 간의 분화를 이루어지게 하였다.

둘째, 분석대상가옥의 건축적 특징으로 1700년대부터 1900년대까지 건립된 가옥들이 주를 이루고 가옥의 채 구성은 중심건물인 안채와 사랑채 및 행랑채, 사당채로 이루어진다.

채의 구성을 살펴보면 안채와 사랑채 및 행랑채, 사당채로 구성되는 가옥의 사례가 가장 많이 나타나며, 사당채가 없이 구성된 가옥도 다수의 사례를 보인다. 행랑채는 남성의 공간인 사랑채와 여성의 공간인 안채 사이에 위치하여 전이공간의 역할을 하며, 기능적으로는 두 채를 단절하고 있다.

대상 가옥의 마당과 담장을 살펴보면 채의 구성에 따라 마당이 형성되고, 마당을 통해 채를 묶어주기도 한다. 담장의 기능은 영역을 한정해주고 시선의 차폐, 굴절된 동선을 갖게 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셋째, 사랑채는 안방과 대청을 기준으로 한 측면형, 전면형, 모서리형과 사랑채가 분화하여 위치한 분화형으로 분류하였다. 측면형은 안채와의 거리가 가깝고 출입도 용이하여 경계가 약한 것으로 파악된다. 안채는 평면형태에 따라 ㄱ자형, ㄷ자형, 一자형으로 분류할 수 있었으며, ㄷ자형인 47%로 높은 비율을 나타냈다.

넷째, 사랑채와 안채의 연결은 중간의 전이공간을 매개로 하는데 마당, 협문, 마루를 활용되었으며 도출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마당을 통한 연결방식

□자형 가옥의 안마당은 안채와 사랑채 및 행랑채 등으로 둘러 싸여 그 영역을 한정하고, 각 실의 출입은 마당을 통해 이루어졌다. 안마당을 통한 연결은 굴절형과 직선형, 차폐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굴절형이 전체에서 다수를 차지하며, 차폐형은 차면벽, 안채의 좌우익랑의 벽면, 수목, 담장 등을 이용한 것으로 파악된다.

사랑채 뒤편의 문을 통해 연결되는 구조로 안채의 시각적 노출이 발생되나 가장 짧은 동선을 갖는 유형으로 파악되었다.

-협문을 통한 연결방식

협문은 일정한 규모 이상의 가옥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파악되며, 영역과 영역의 접점에 위치하여 유형 중 가장 긴 동선의 사례가 나타난다. 문을 개폐할 수 있으며, 평상시 문을 잠궈둠으로써 안채의 폐쇄성을 강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마루를 통한 연결방식

마루를 통한 영역 연결형은 사랑채와 안채가 완벽하게 연결된 구조로서 거리상 가까워진 두 영역을 문, 계단을 설치함으로써 명확히 구분 짓기 위한 의도를 찾아볼 수 있다. 사랑채와 안채가 분화되기 전인 가옥에서 사례를 갖는 것으로 보아 내외법을 시작한 조선초기의 건물과 내외법의 영향에 따라 사랑채의 독립성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조선 중기의 건물에서 파악된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할 때 조선시대 □자형 전통가옥에서 사랑채와 안채간의 동선은 전이공간에 따라 분류하여 볼 수 있으며, 이는 시대적 양상이 아닌 건축물의 영조시각 채의 배치방법과 증축, 가옥의 규모와의 관계에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동선은 가옥내부의 담장과 벽, 수목 등의 요소에 의해 거리가 조절되며, 시각적 개방과 차폐를 이용하여 공간의 성격을 나타낸 것으로 판단된다.

參 考 文 獻

■ 자료

가. 국내보고서 및 자료집

- 『향단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1999.
『예천권씨 초간종택 별당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1.
『창덕궁 연경당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2.
『관가정 실측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2.
『한국의 전통가옥 1-42』, 문화재청, 2005~2013.
『최순우 옛집 기록화 조사보고서』, 문화재청, 2008.

■ 단행본

가. 국내 단행본

- 주남철, 『한국주택건축』, 일지사, 1980.
강영환, 『집의 사회사』, 웅진출판, 1992.
소혜왕후 한씨, 이민수 校註, 『內訓』 홍신, 1994.
장기인, 『한국건축사전』, 보성각, 1993,
김광언, 『한국의 주거민속지』, 민음사, 1994.
장경호, 『한국의 전통건축』, 문예출판사, 1996.
강영환, 『한국의 건축문화재 7』, 기문당, 1999.
이왕기, 『한국의 건축문화재 5』, 기문당, 1999.
강영환, 『새로 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2.
천득염, 『한국의 건축문화재 9』, 기문당, 2002.
강영환, 『새로쓴 한국 주거문화의 역사』, 기문당, 2003.
홍승재, 『한국의 건축문화재 8』, 기문당, 2005.

- 최상현, 『조선 상류 주택의 내부 공간과 가구』, 이화여자대학교출판부, 2006.
- 조전환,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 주택문화사』, 2008.
- 윤장섭, 『한국건축사』 (증보판), 동명사, 2008.
- 조전환, 『한옥 전통에서 현대로』, 주택문화사, 2008.
- 문화재청, 『가옥과 민속마을1』, 2010.
- 서정호, 『한옥의 미1-2』, 2010.
- 김홍식, 김왕직, 『한국의 건축문화재 2』, 기문당, 2012.
- 김경표, 『한국의 건축문화재 4』, 기문당, 2012.

■ 연구논문

가. 국내 학위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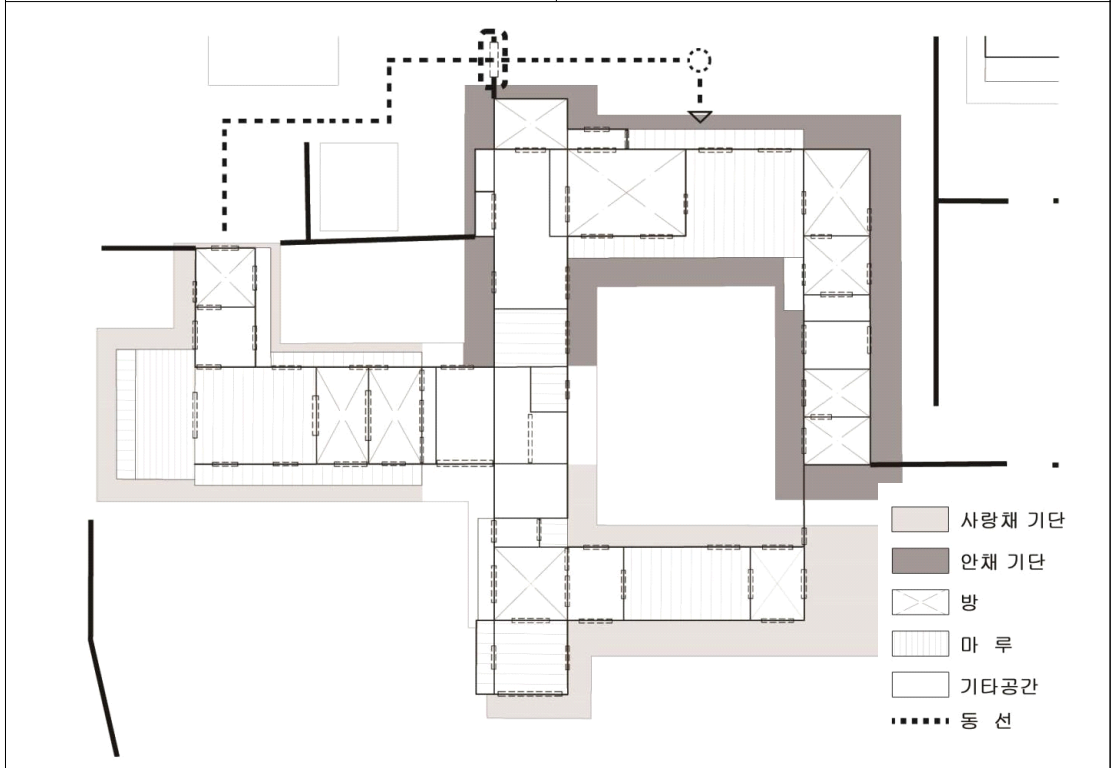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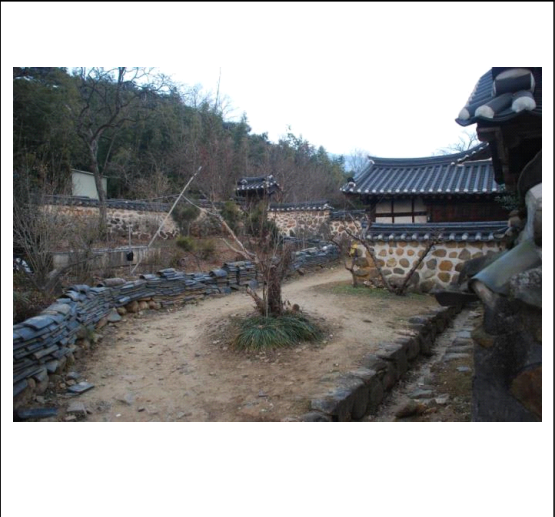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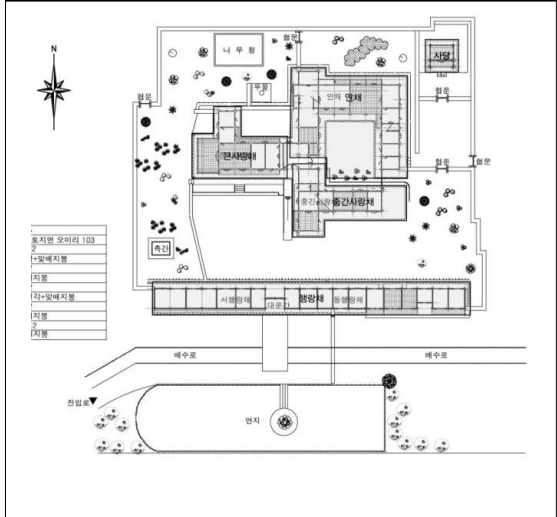
- 송인호, 『'ㄱ자형' 전통주거건축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2.
- 문세영, 『구자형 전통주거의 평면구성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7.
- 이유미, 『조선전기 상류주택의 안채구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88.
- 여상진, 『ㄱ자완전일체형 전통 살림집의 건축구성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6.
- 김복태, 『양동마을 전통주택의 안채와 사랑채의 구성관계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7.
- 이동찬, 『시지각에 따른 조선중기 상류주거 외부공간의 구성』, 경북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8.
- 김화봉, 『조선시대 안동문화권의 뜰집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최재문, 『한국 전통상류주택의 담장 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윤일이, 『조선후기 상류주택 사랑채의 공간적 특성에 관한 연구』, 부산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9.
- 최재문, 『한국 전통상류주택의 담장 특성에 관한 연구』, 충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999.
- 박진옥, 『전통주택 안마당의 공간구조적 특성 연구 : 충청지방의 ㄱ자형 중. 상류주택을 중심으로』, 한남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이혜연, 『전통마당 공간특성의 현대적 적용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0.
- 오채준, 『경북 영덕군 원구리 마을의 전통주택 평면 특성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04.
- 신수경, 『한국전통주거의 채와 채나눔 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신치후, 『안동문화권 ㄱ자형 주택의 평면형식의 특성』, 연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1.
- 이용재, 『영동지역 ㄱ자형 주택의 구성 원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1.
- 신수경, 『한국전통주거의 채와 채나눔 구성방식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석사논문, 2011.
- 강인선, 『조선후기 한성부 상류주택 안채의 건축 특성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2.
- 유병용, 『조선시대 한국 전통주거건축에서 경계개념을 통한 경계공간으로서 마루에 관한 연구』, 한국교통대학교 석사학위논문, 2013

나. 국내 학술지논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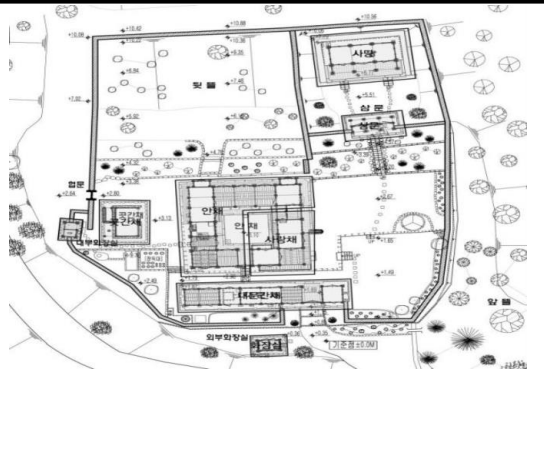
- 장성준, 「安東 土溪洞 의 住宅類型 에 대한 研究」, 『대한건축학회논문집』, 1978.
- 김봉렬, 「방밖의 방」, 『건축과 환경』 8606. 1986.
- 이원교, 「반가의 공간 구성과 마당의 공간도식」, 『플러스』 8903, 1989.
- 최동호,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1)」, 『건축사』 9609, 1996.
- 최동호, 「한국전통 주거공간의 마당 구성원리(2)」, 『건축사』 9612, 1996.
- 김미나, 「안동문화권 뜰집의 안채와 사랑채 영역의 경계구조」, 『대한건축학회지』, 18권 11호(통권 169호), 2002.
- 김화봉, 「'연결형' 뜰집의 공간구성 유형의 특성」, 『대한건축학회지』, 20권 3호(통권 185호), 2004.
- 신지후, 「안동문화권 口자형 뜰집 평면구성의 지역적 특성」, 『건축역사연구』, 19권 5호(통권 72호), 2010.
- 백유정, 「대문간 위치로 본 경기북부 맞고패집의 바깥채 공간 특성 연구」, 『대한건축학회지』, 27권 7호(통권 273호), 2011.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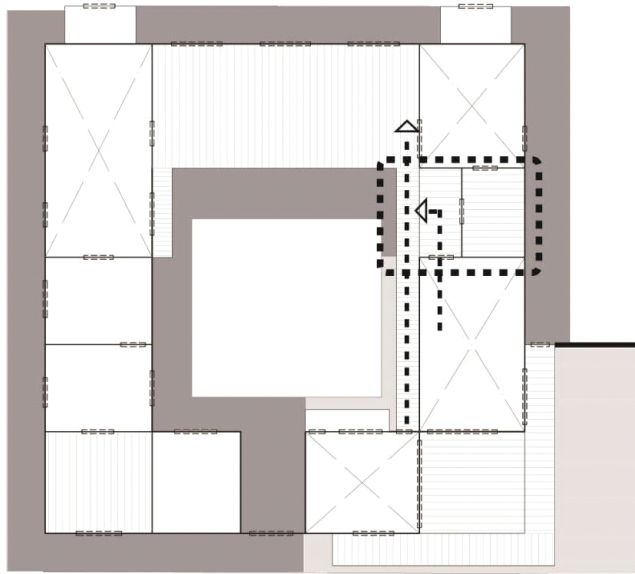
명칭	구례 운조루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문 - 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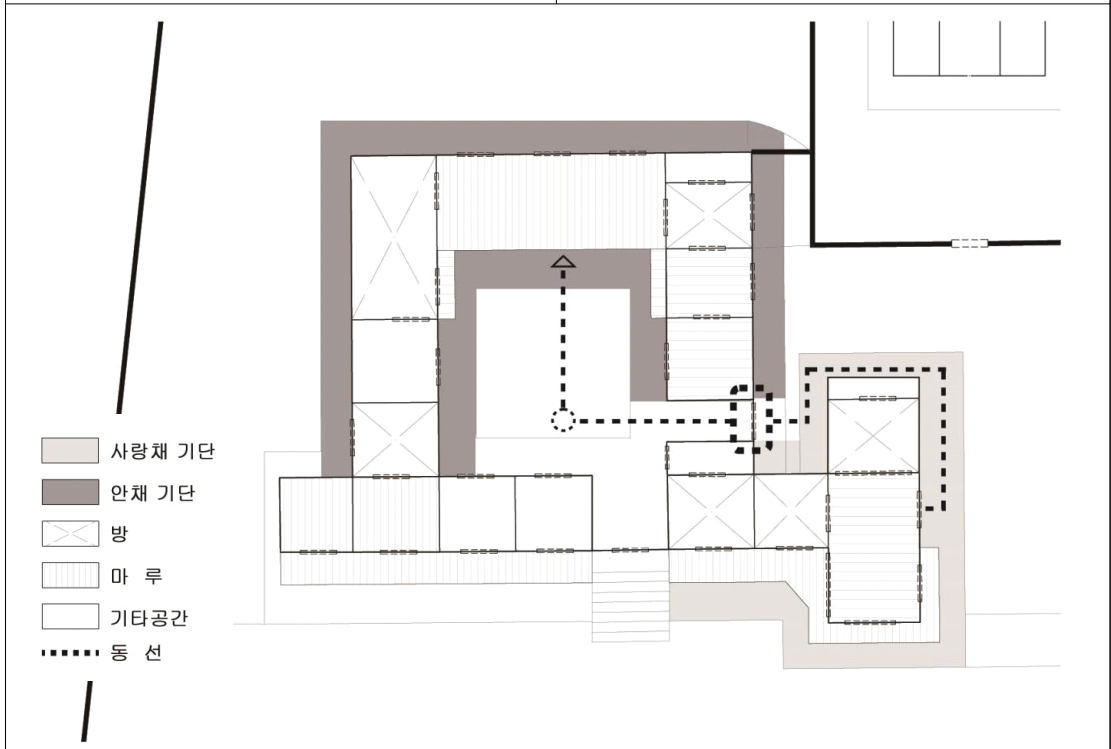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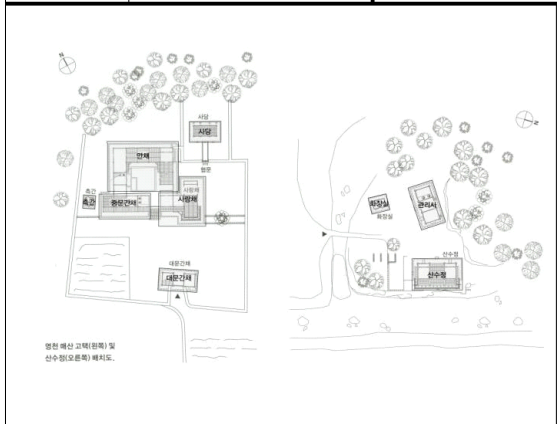
명칭	양동 서백당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루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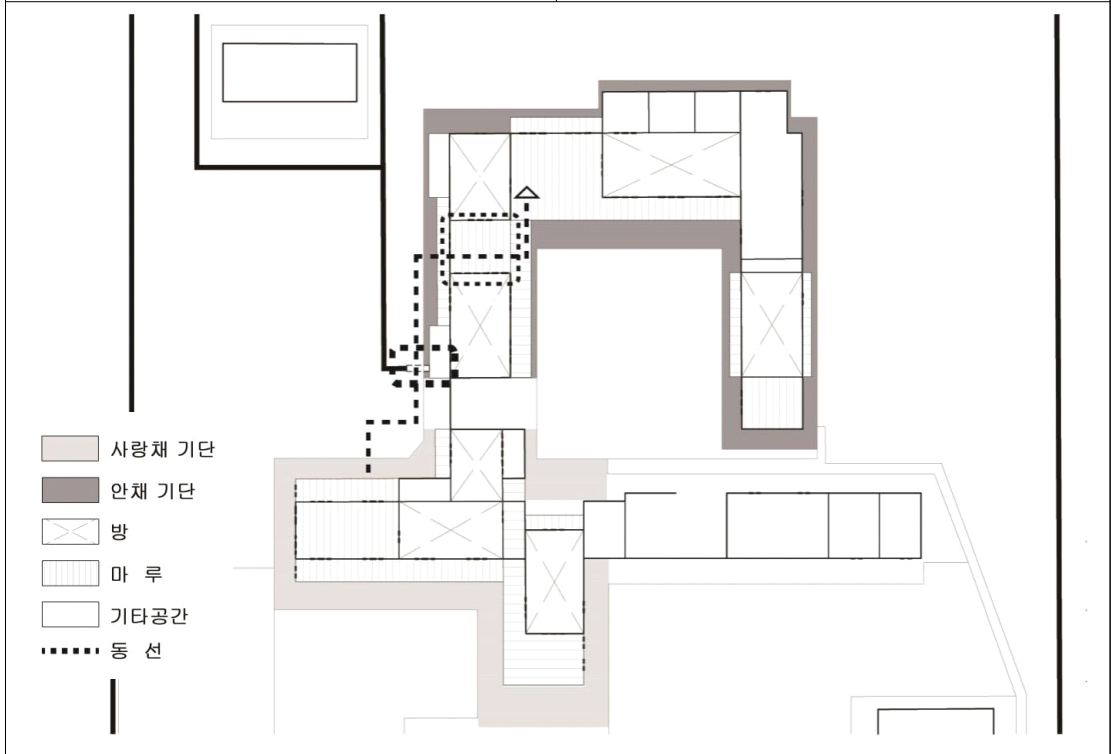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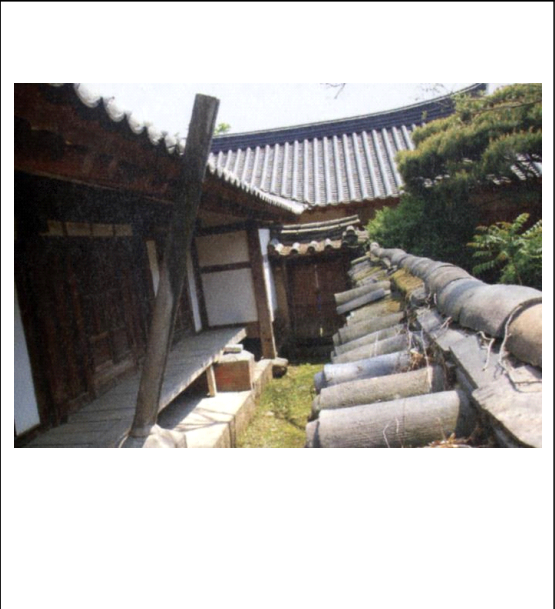
-  사랑채 기단
-  안채 기단
-  방
-  마루
-  기타공간
-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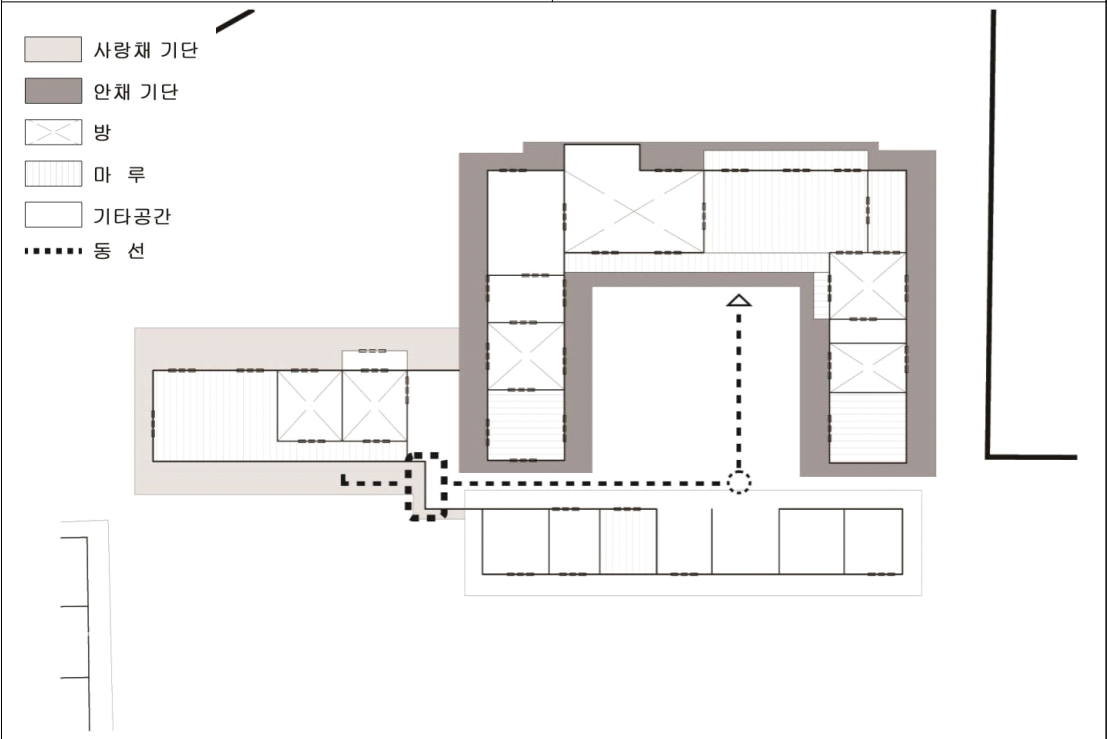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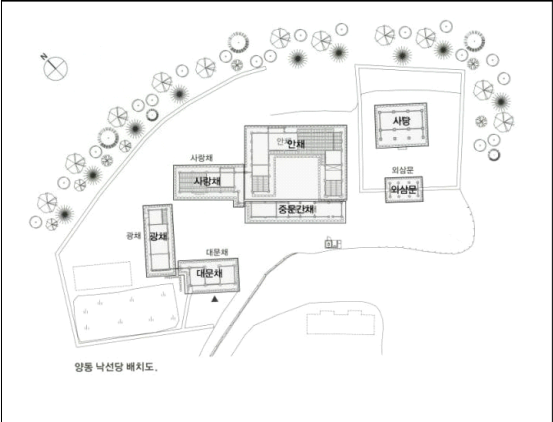
명칭	영천 매산고택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문 - 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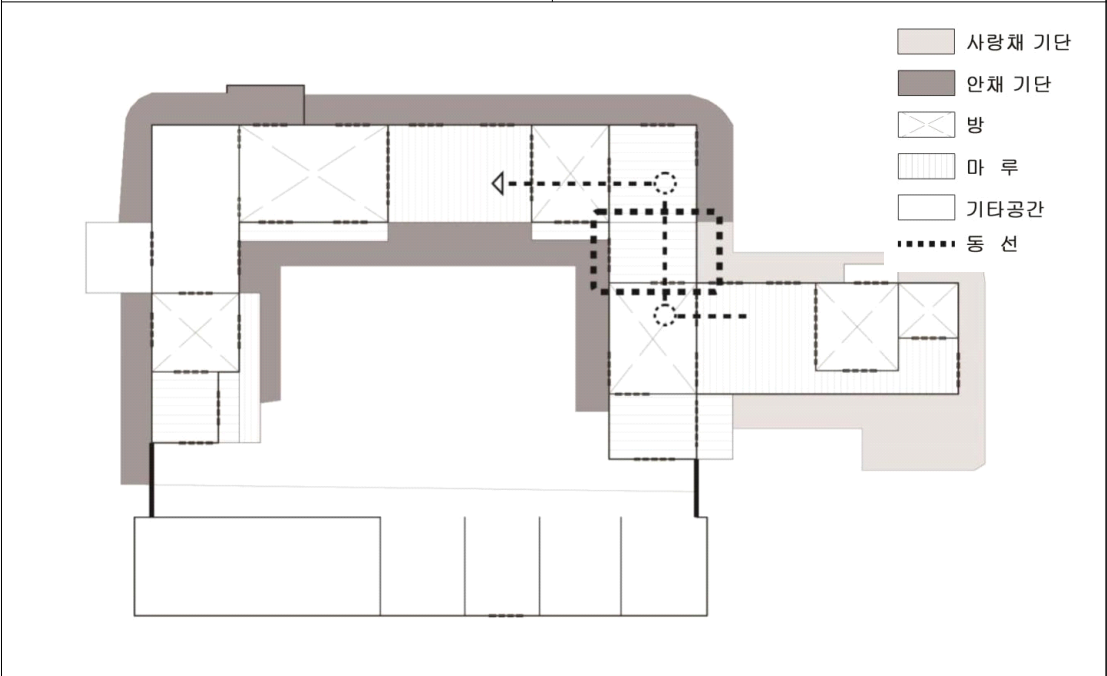
명칭	경주교동최씨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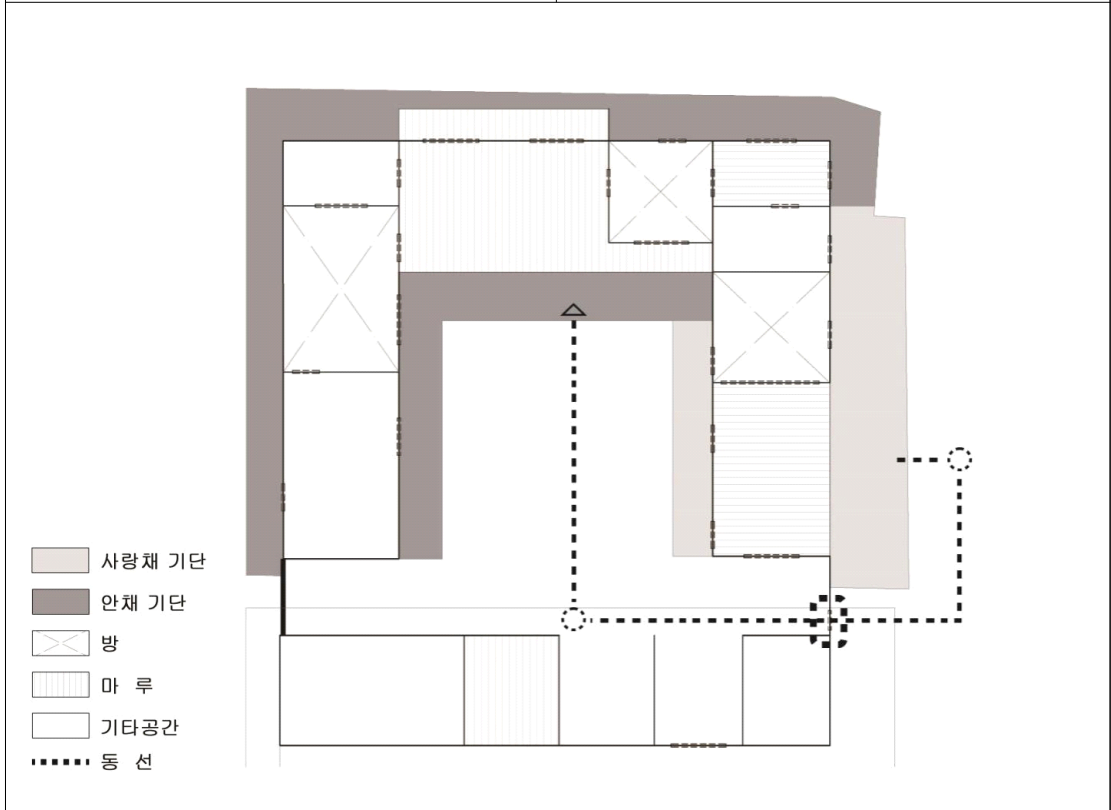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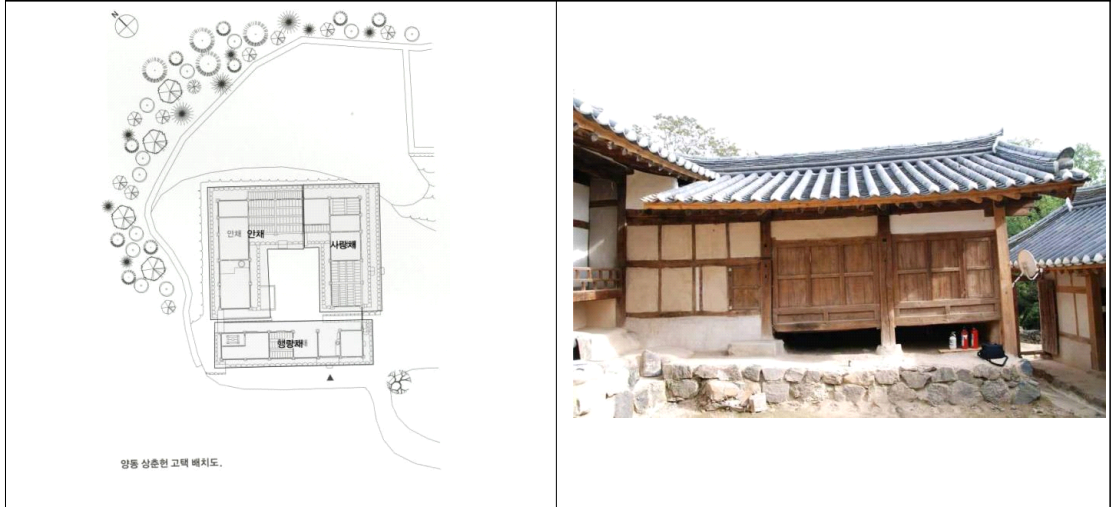
명칭	양동 낙선당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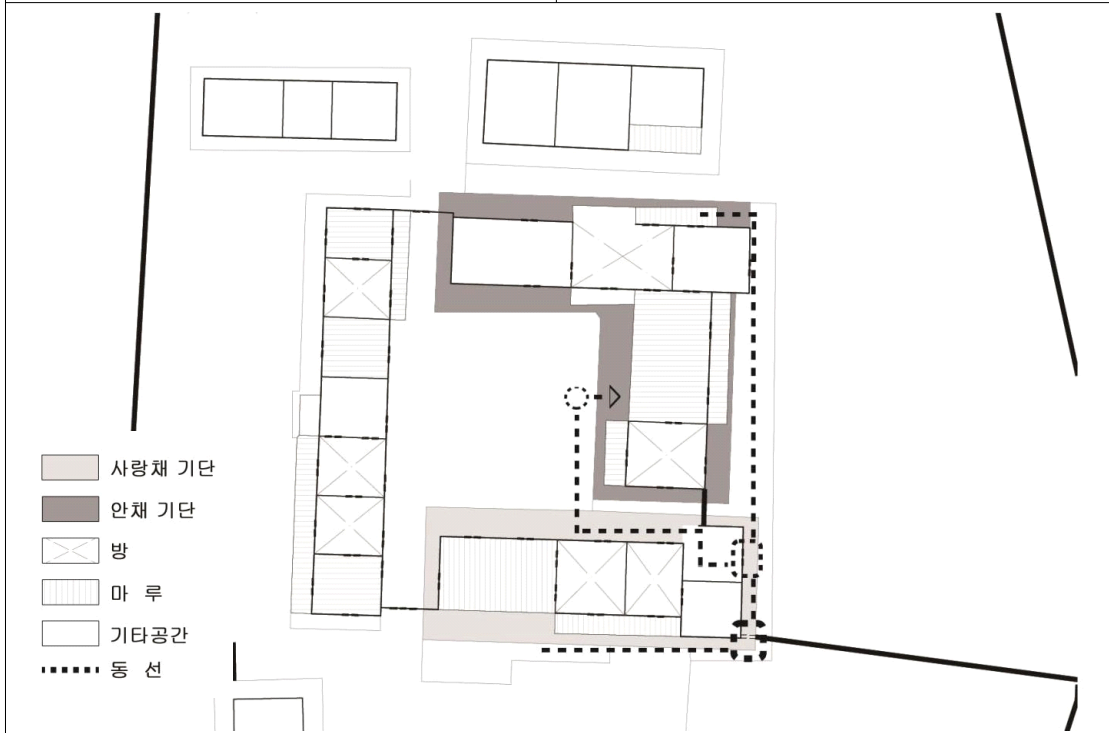
명칭	양동 사호당 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루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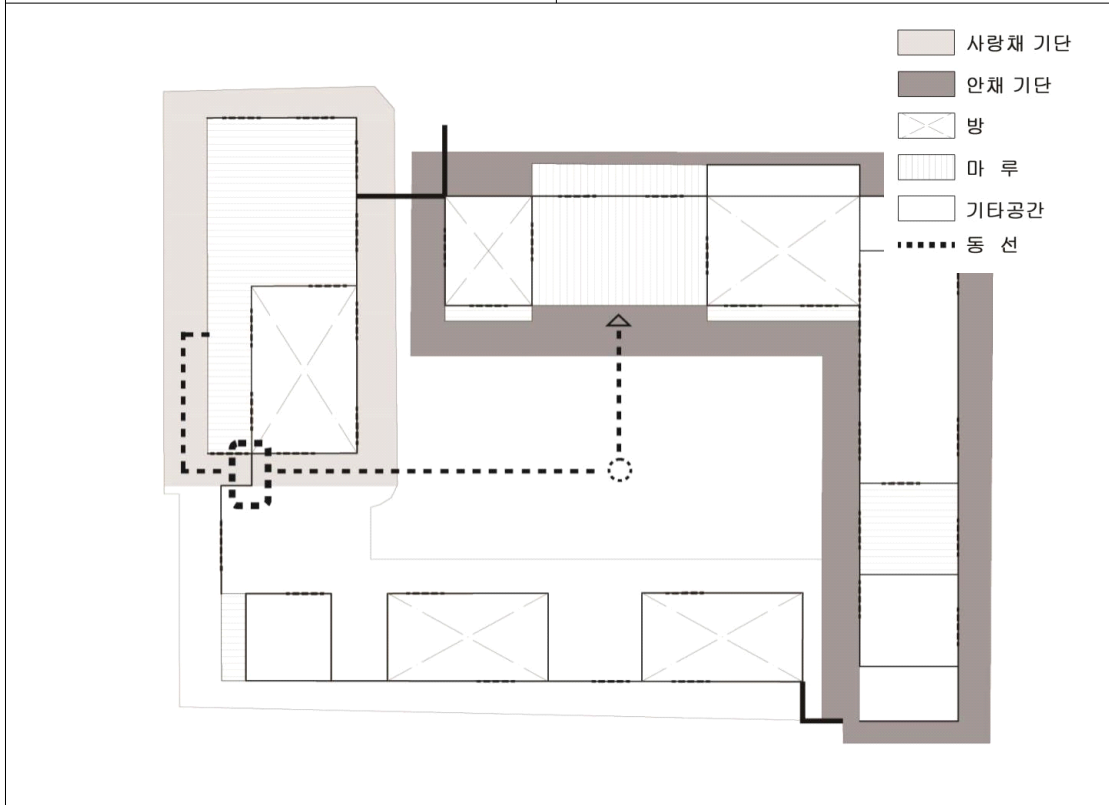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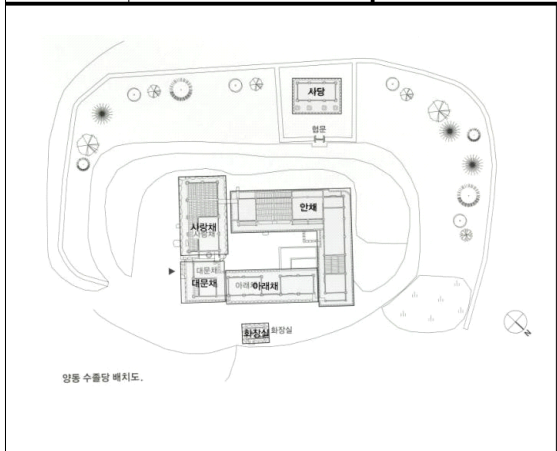
명칭	양동 상춘헌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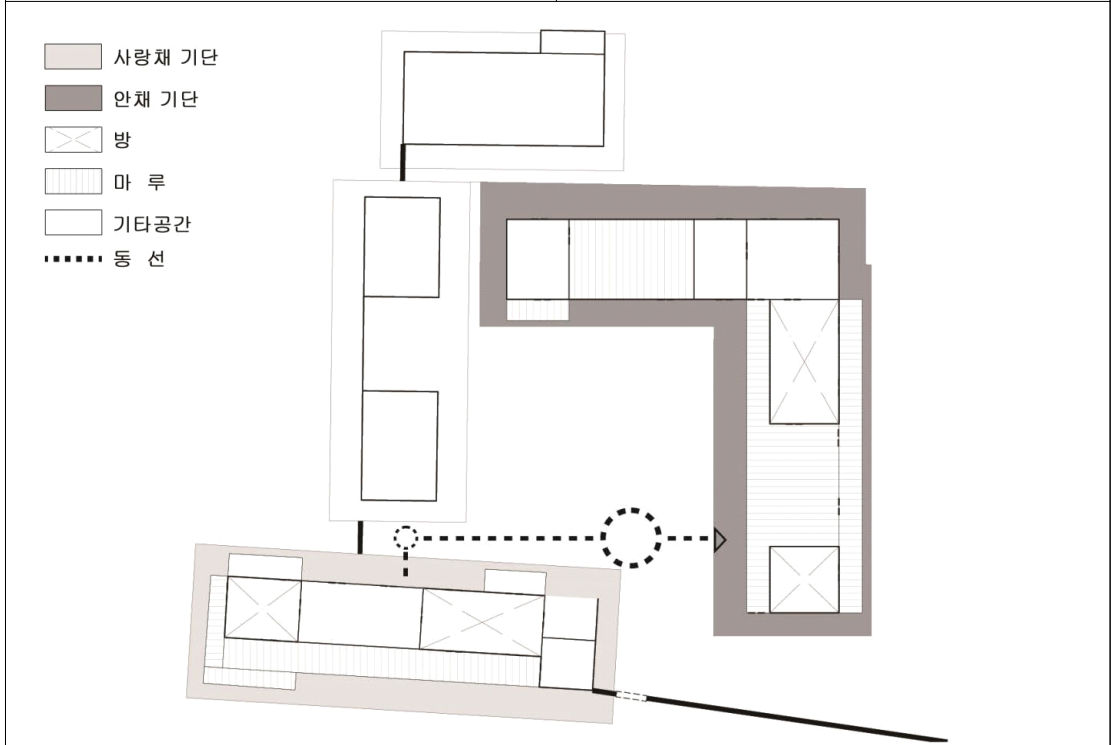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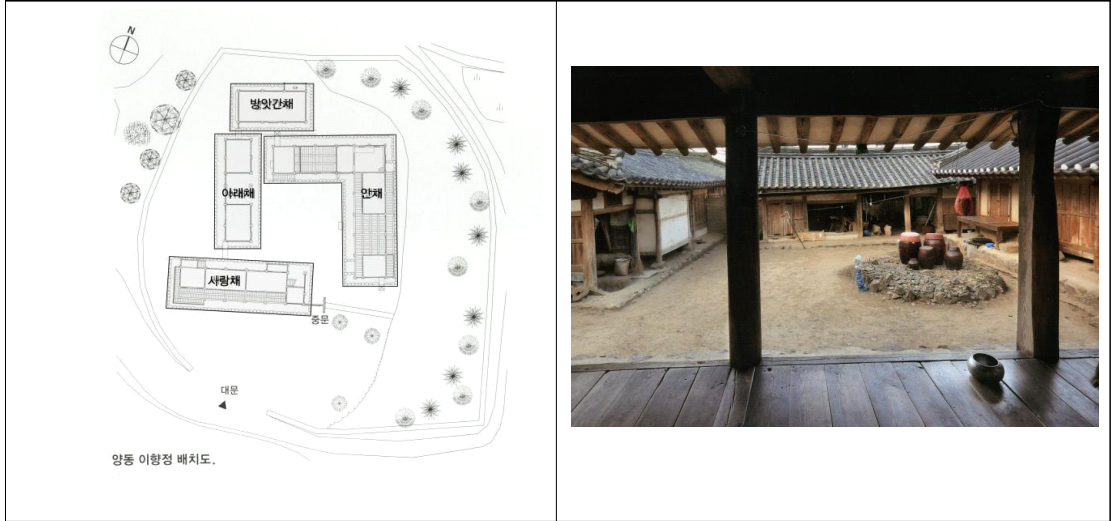
명칭	양동 두곡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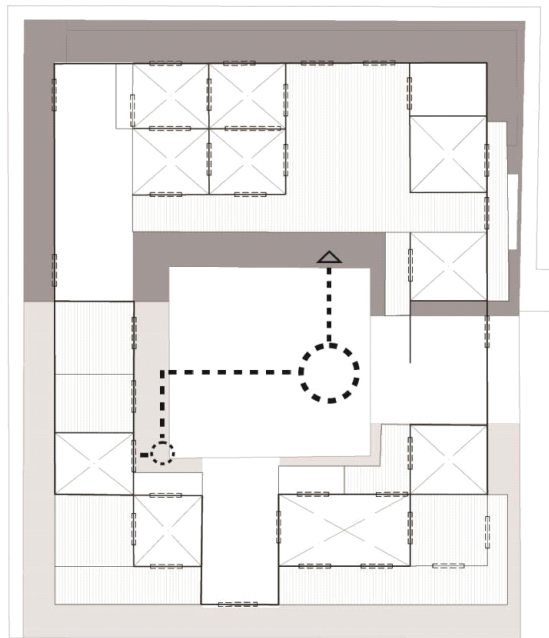
명칭	양동 수졸당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협문
----	--------	---------	-----	-----	--------



명칭	양동 이항정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차폐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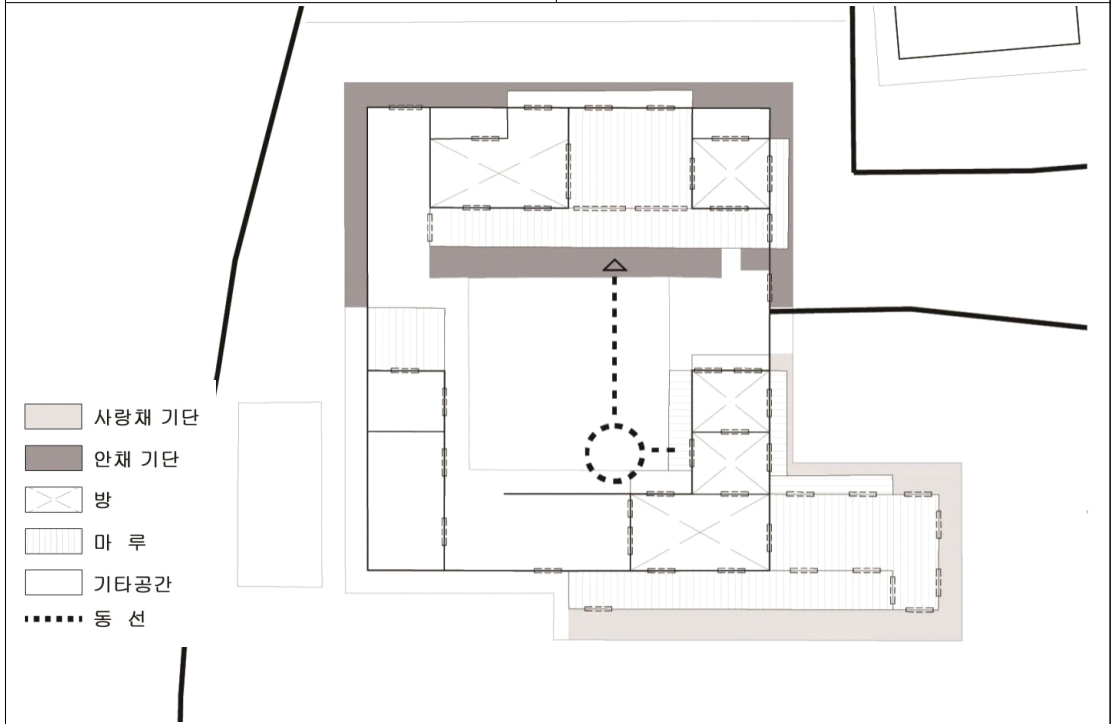


명칭	하회 북촌덕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차폐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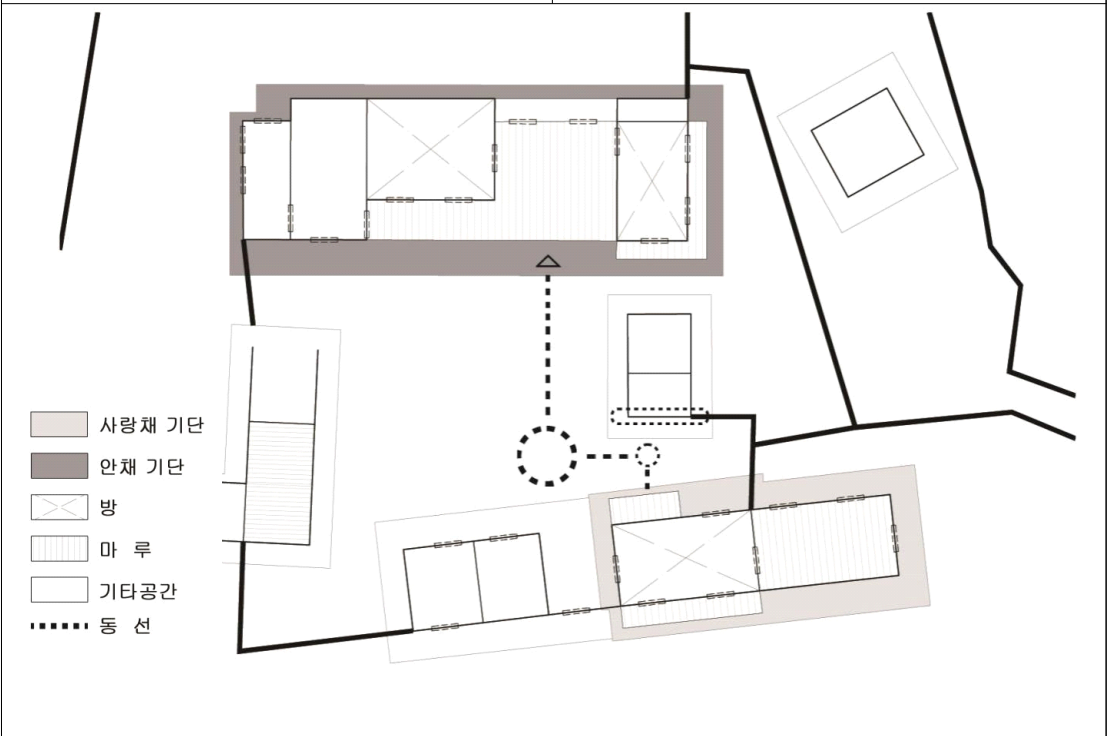


- 사랑채 기단
- 안채 기단
- ⊗ 방
- ▨ 마루
- 기타공간
- ⋯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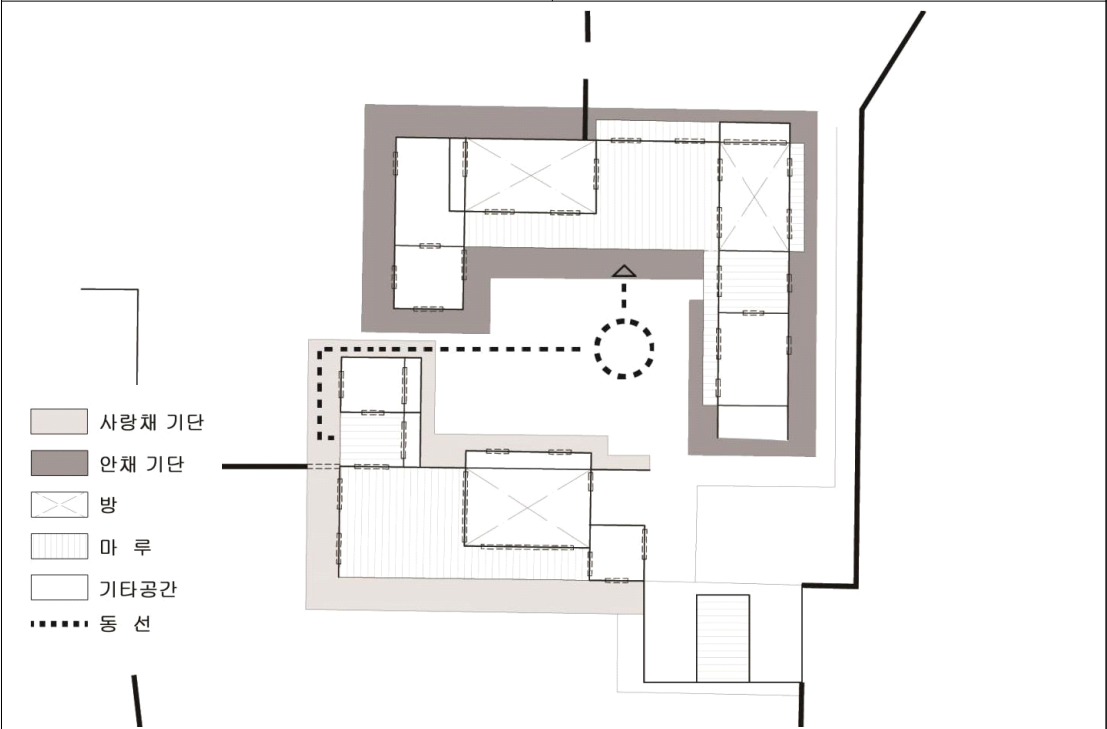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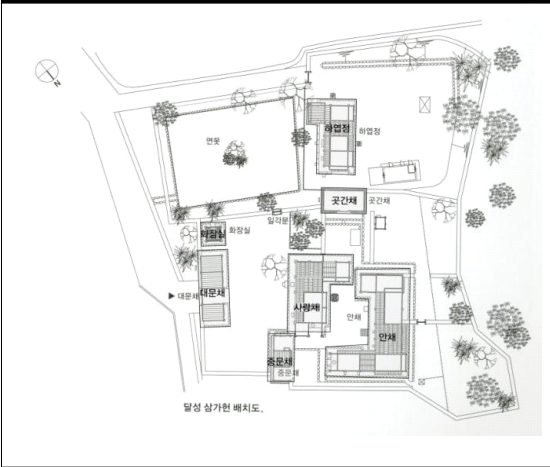
명칭	하회 남촌댁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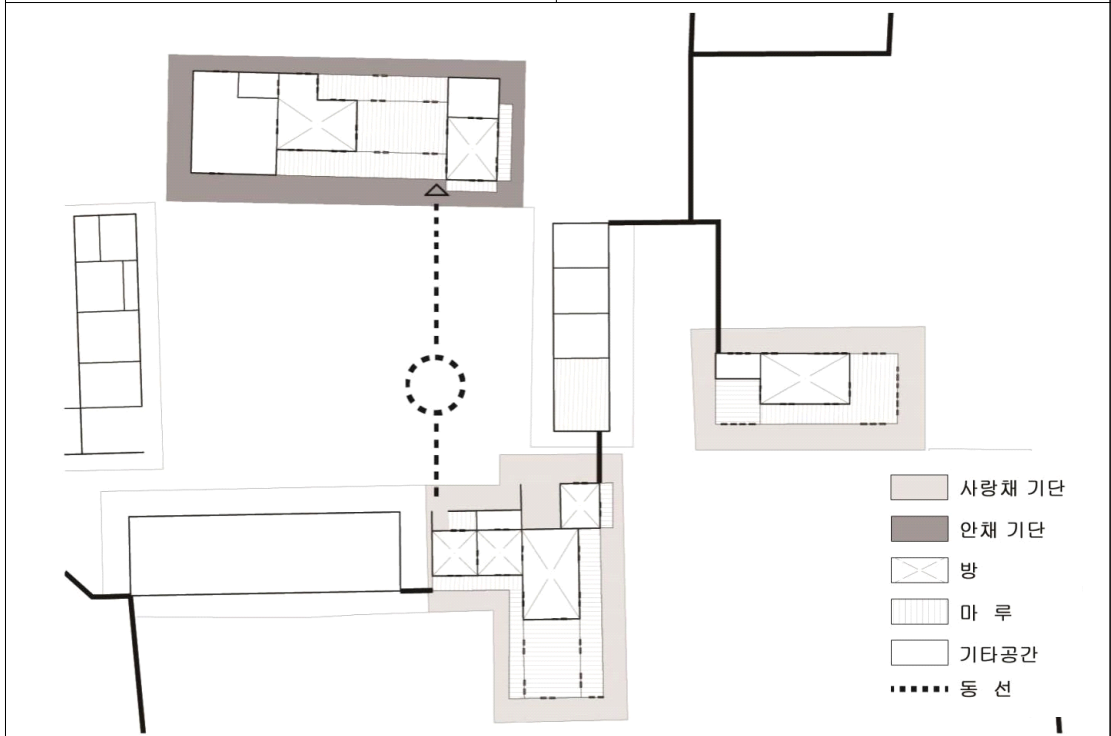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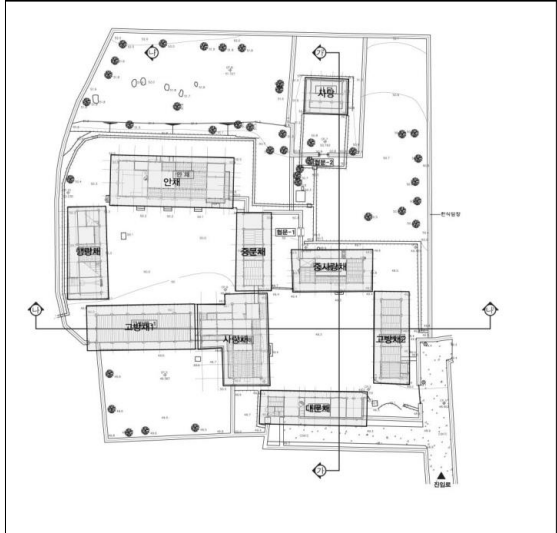
명칭	하회 주일재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차폐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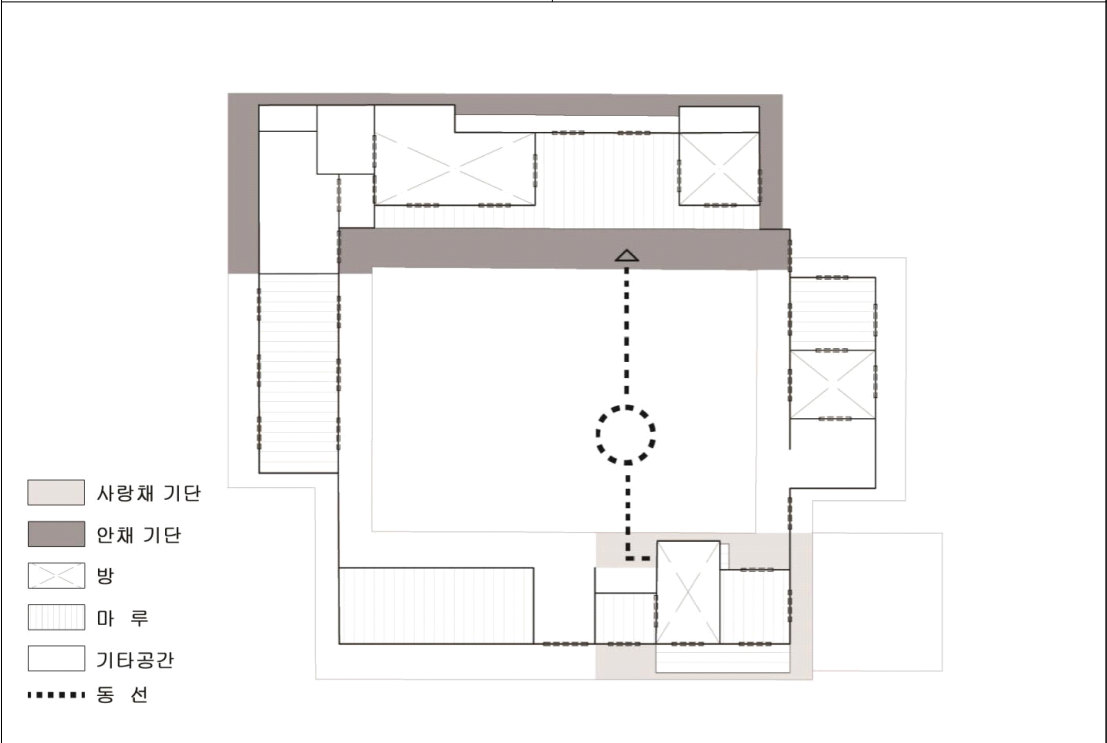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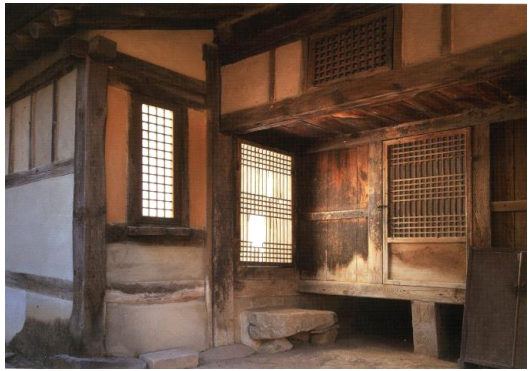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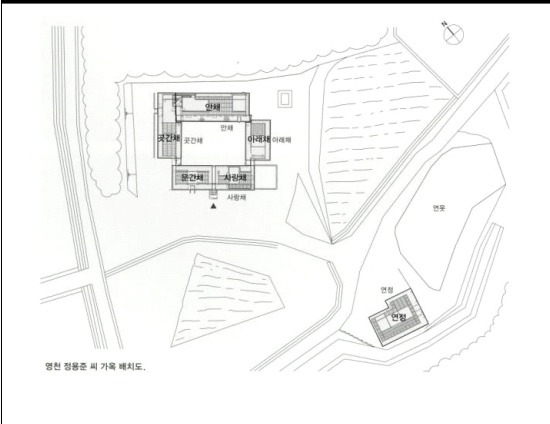
명칭	달성 삼가현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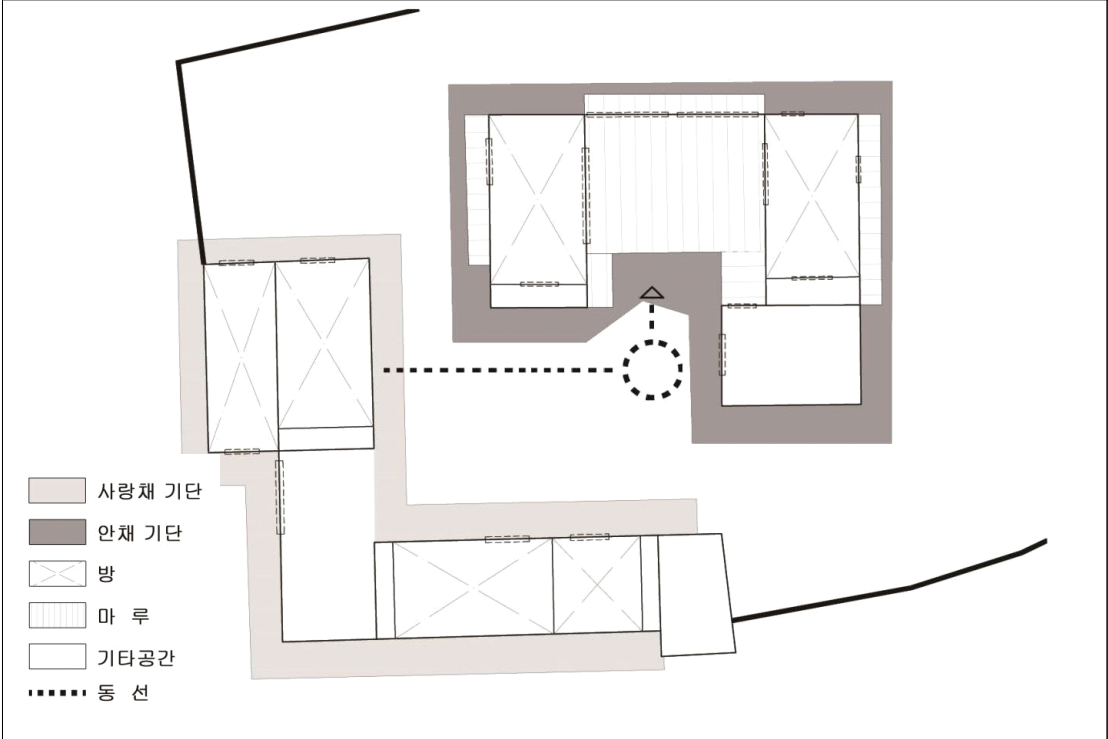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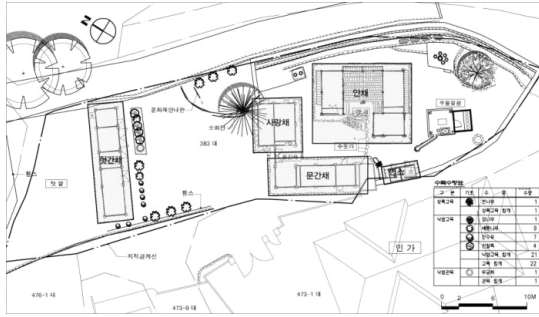
명칭	청도 운강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직선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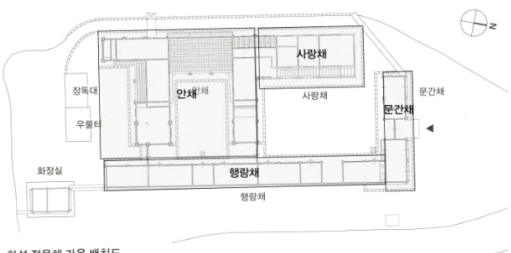
명칭	영천 정용준씨가옥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명칭	수원 광주이씨 월곡댁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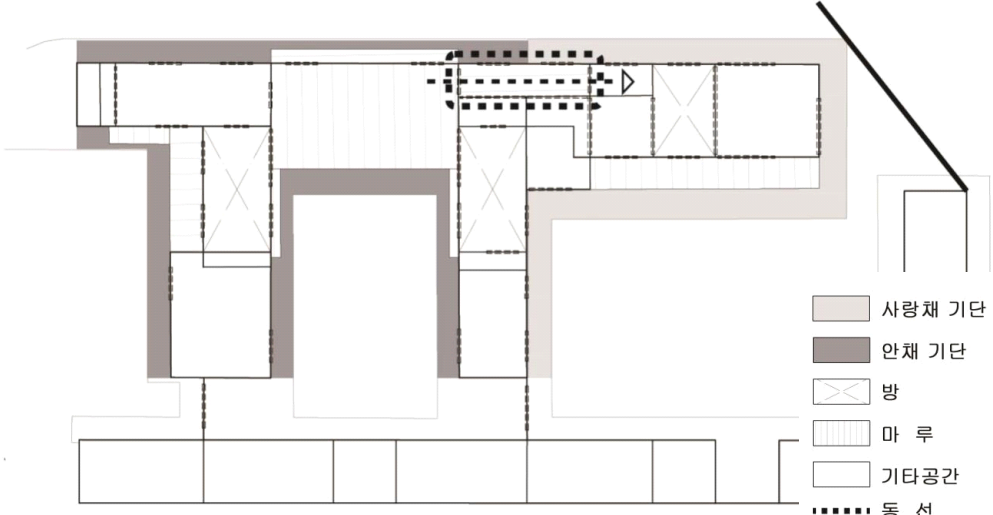


명칭	화성 정용채 가옥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루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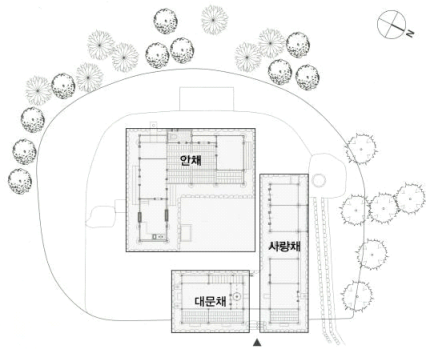
화성 정용채 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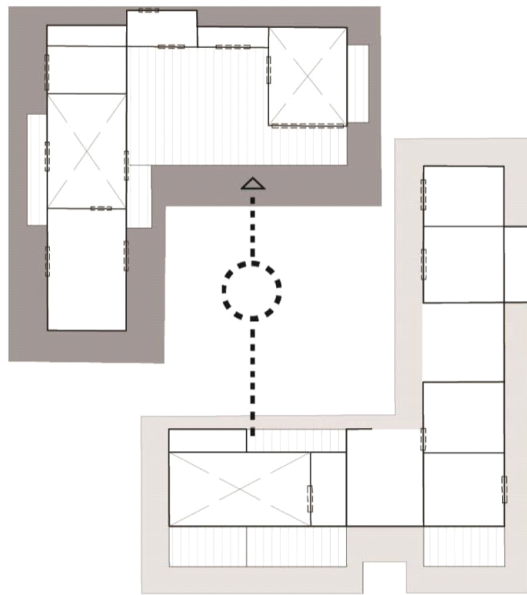


- 사랑채 기단
- 안채 기단
- 방
- 마루
- 기타공간
- 동선

명칭	화성 정응래 가옥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차폐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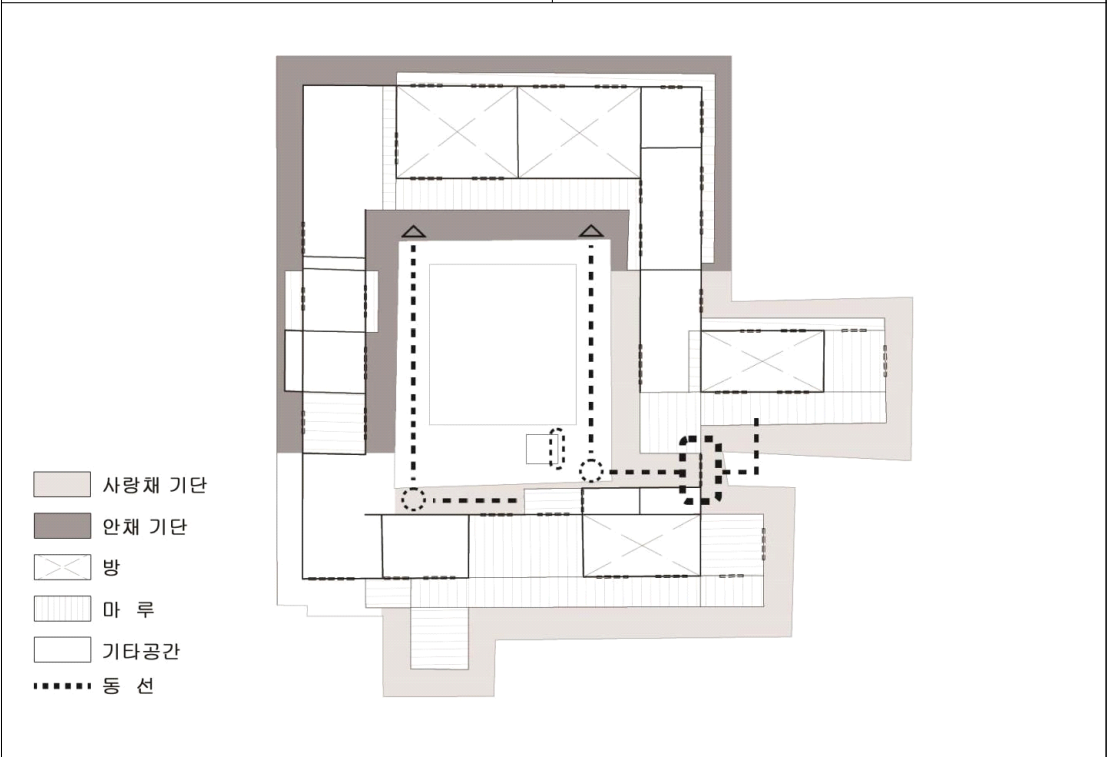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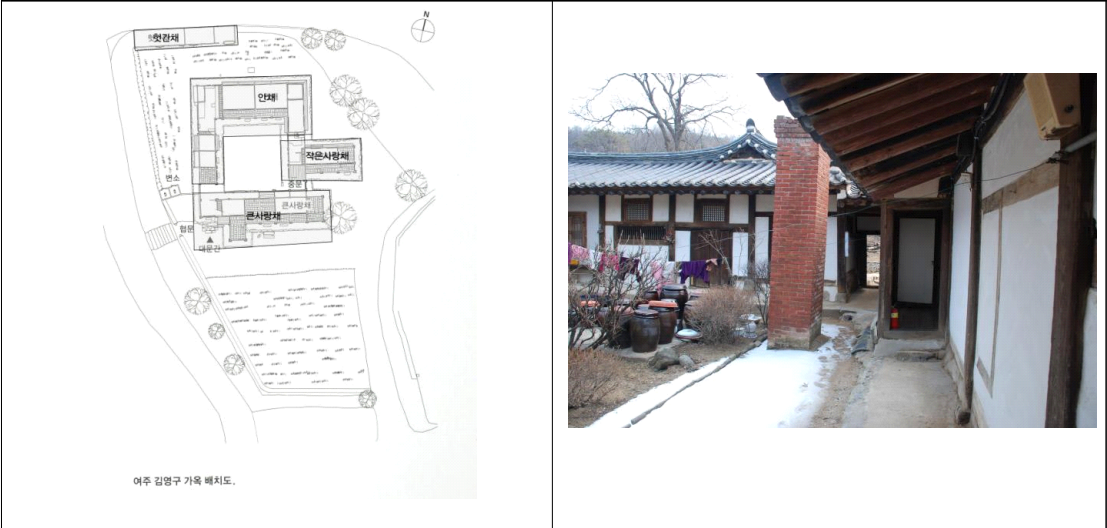


화성 정응래 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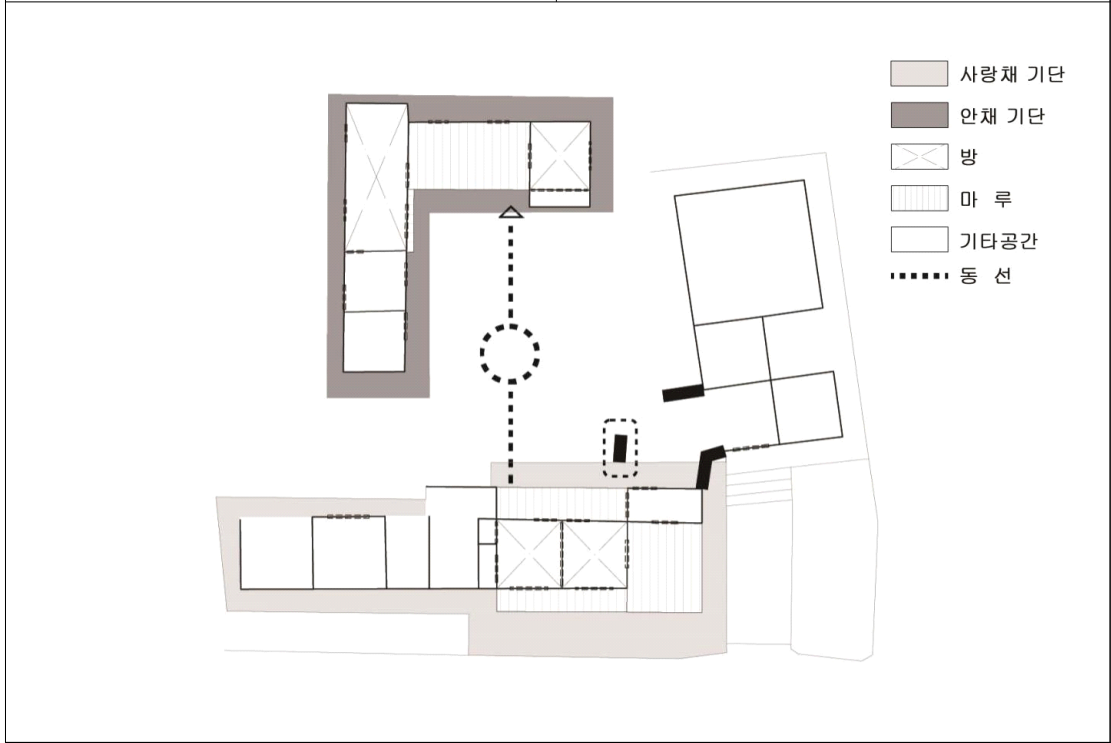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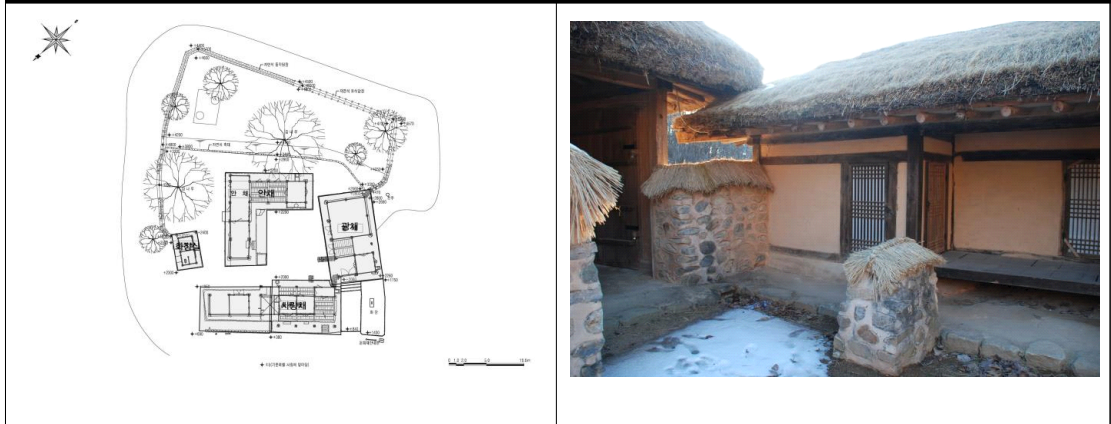


- 사랑채 기단
- 안채 기단
- 방
- 마루
- 기타공간
-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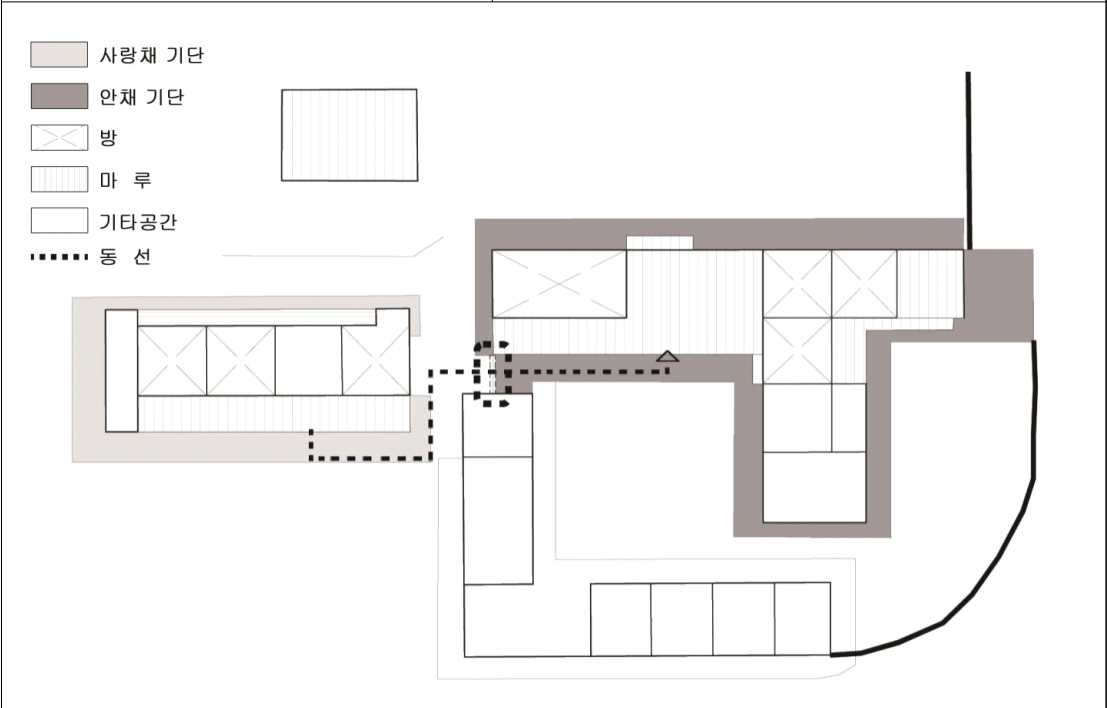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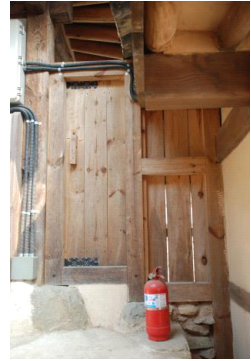
명칭	여주 김영구 가옥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문 - 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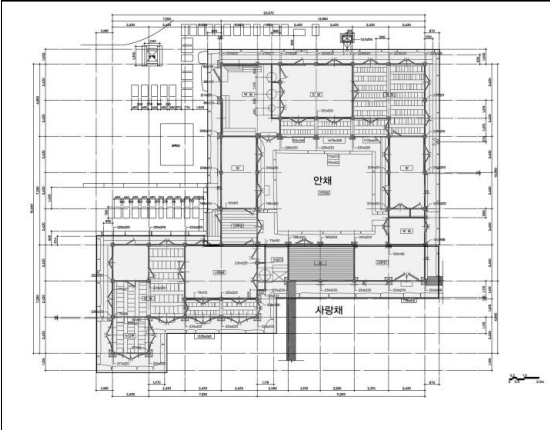
명칭	어재연 장군 생가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직선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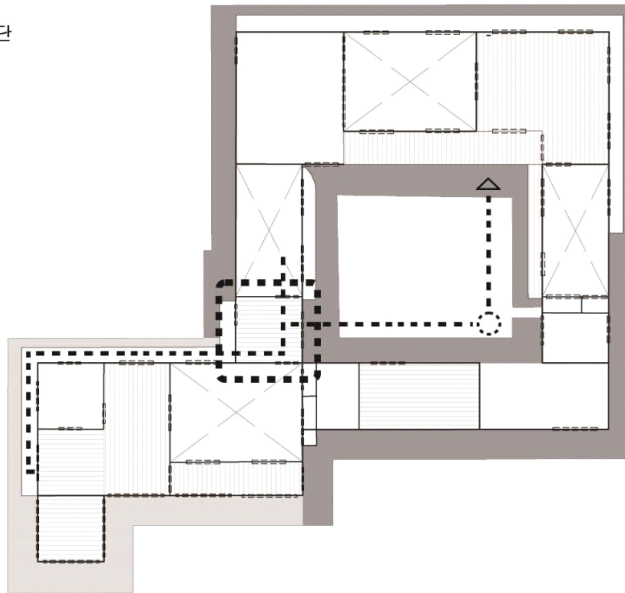
명칭	진접 여경구 가옥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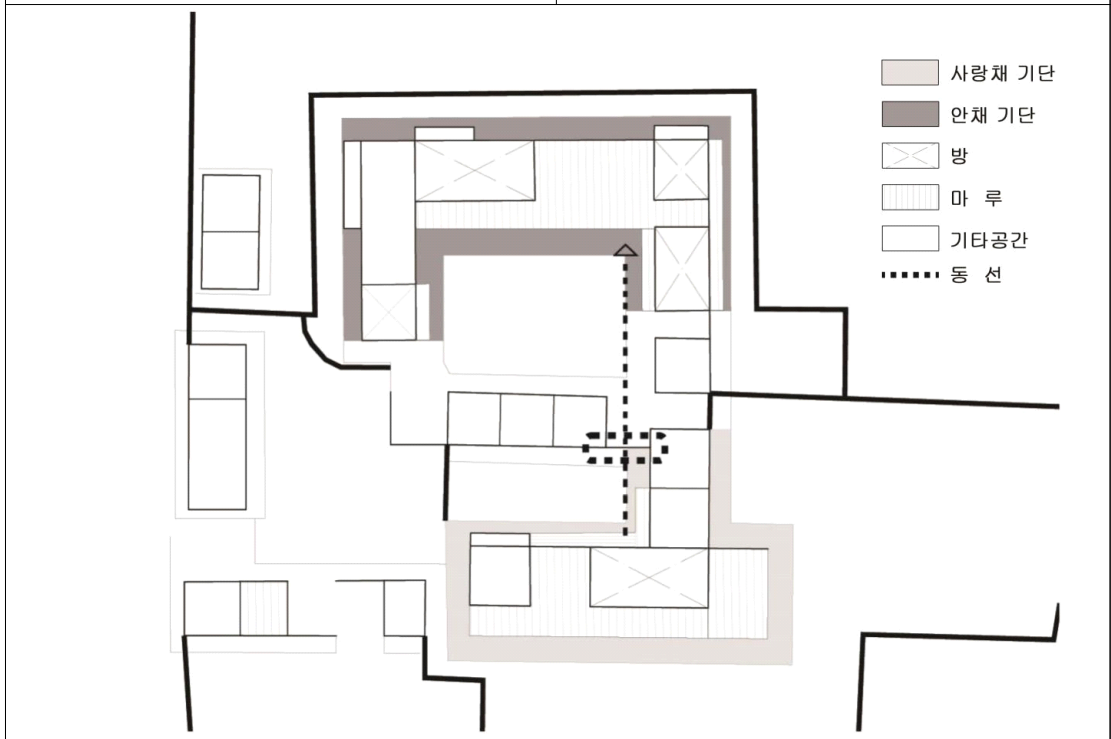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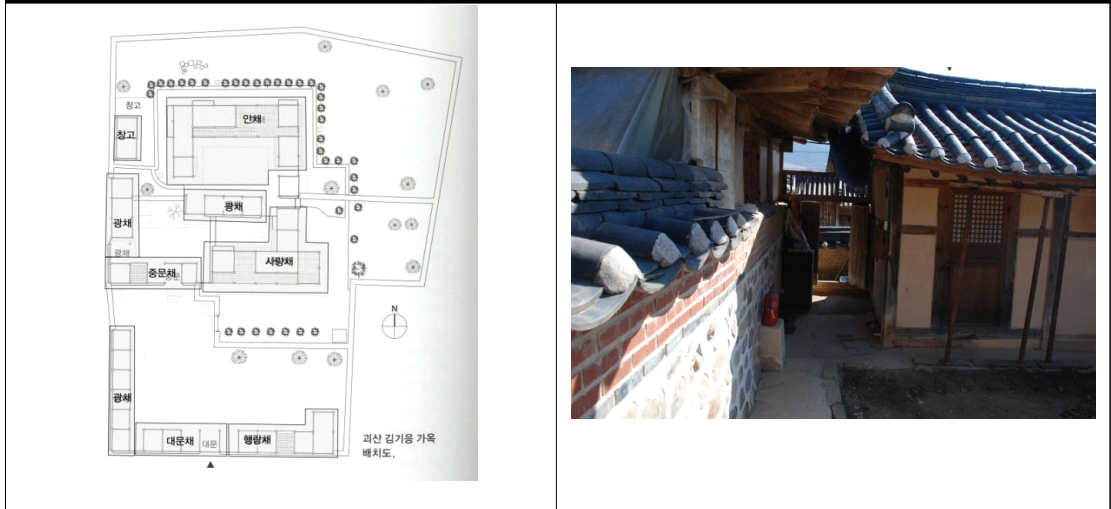
명칭	남양주 궁집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루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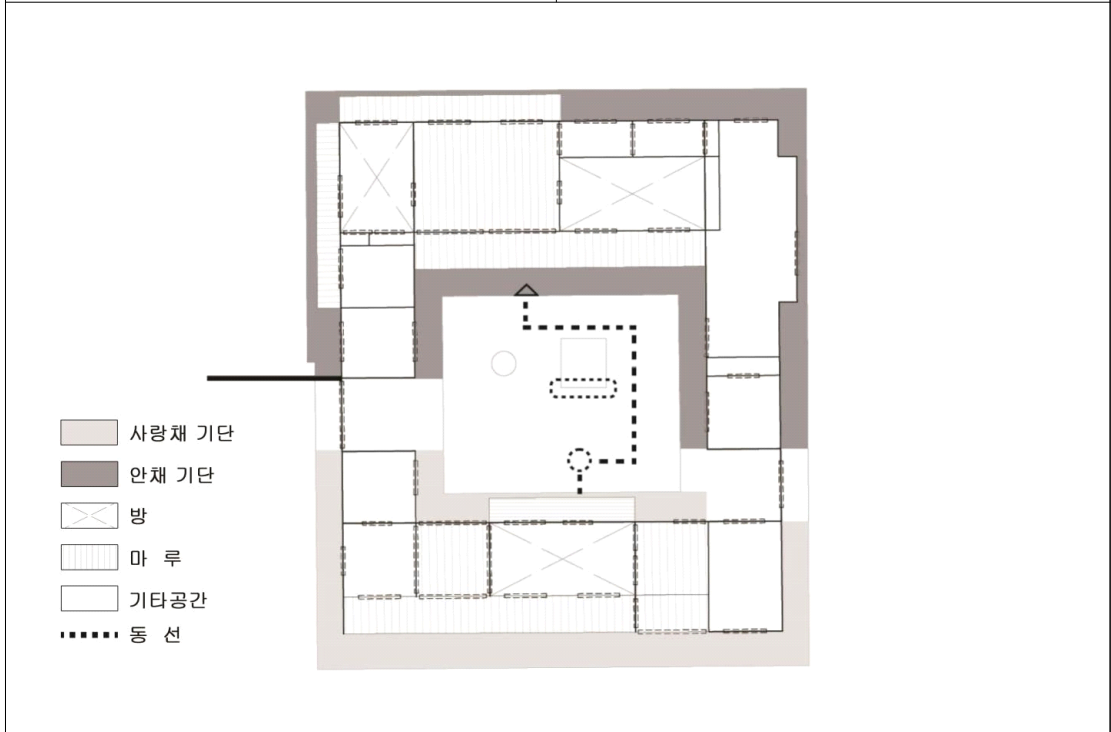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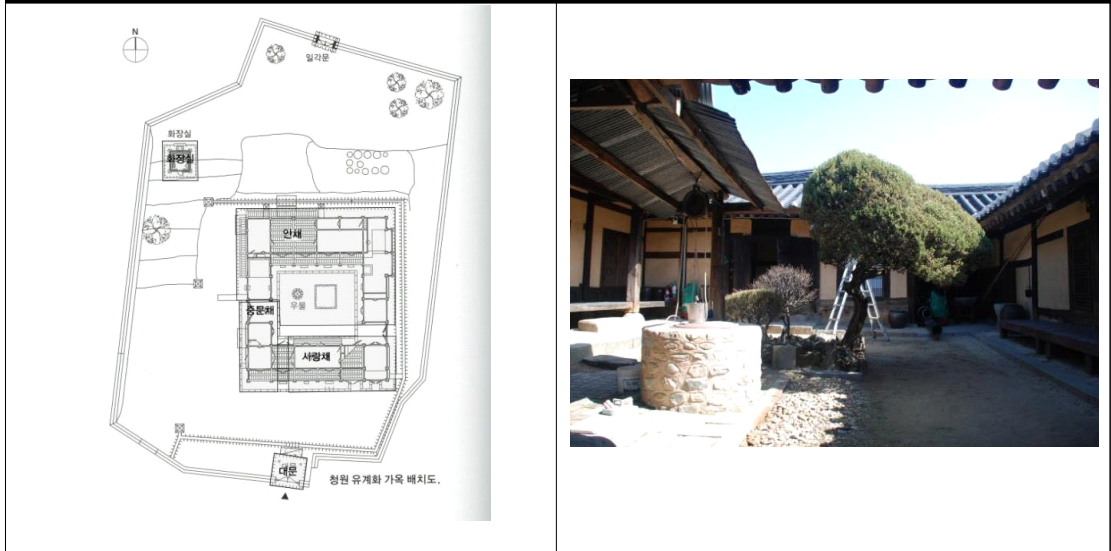
-  사랑채 기단
-  안채 기단
-  방
-  마루
-  기타공간
-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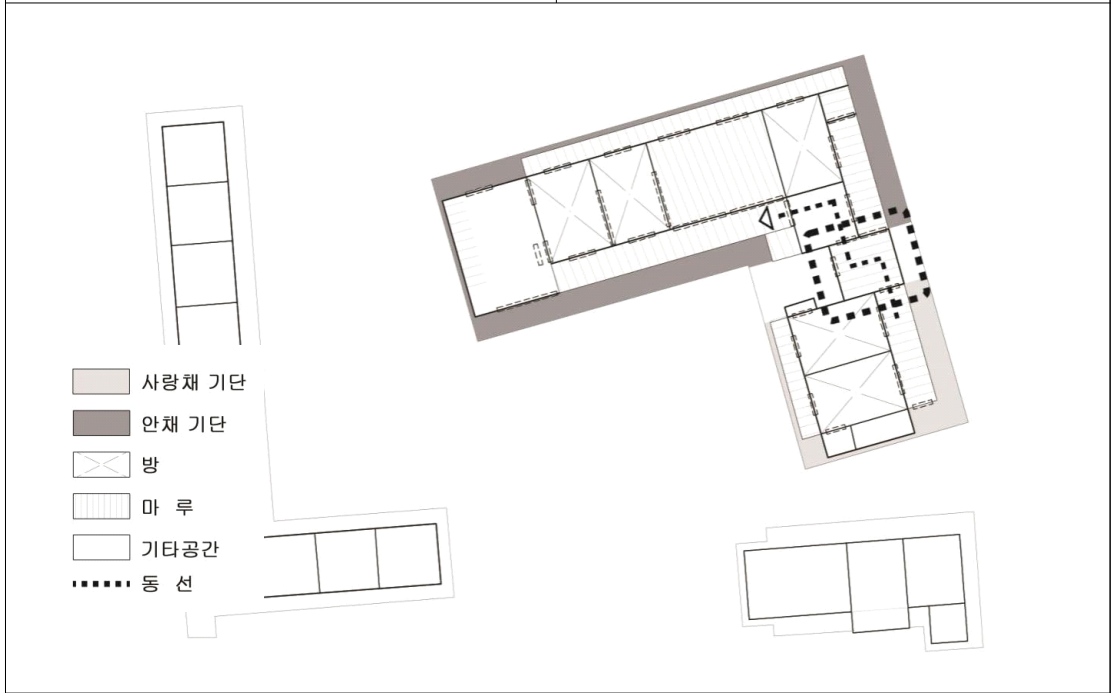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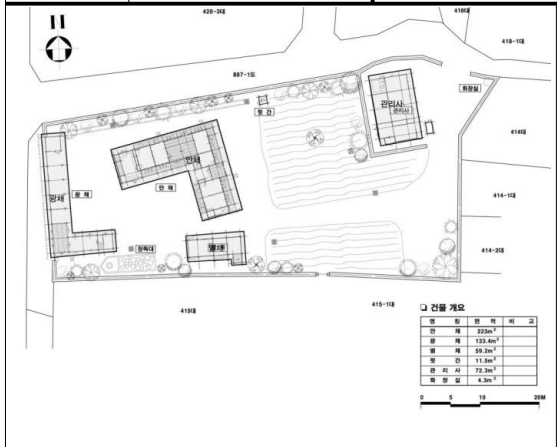
명칭	괴산 김기응 가옥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협문
----	-----------	---------	-----	-----	--------



명칭	청원 유계화 가옥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차폐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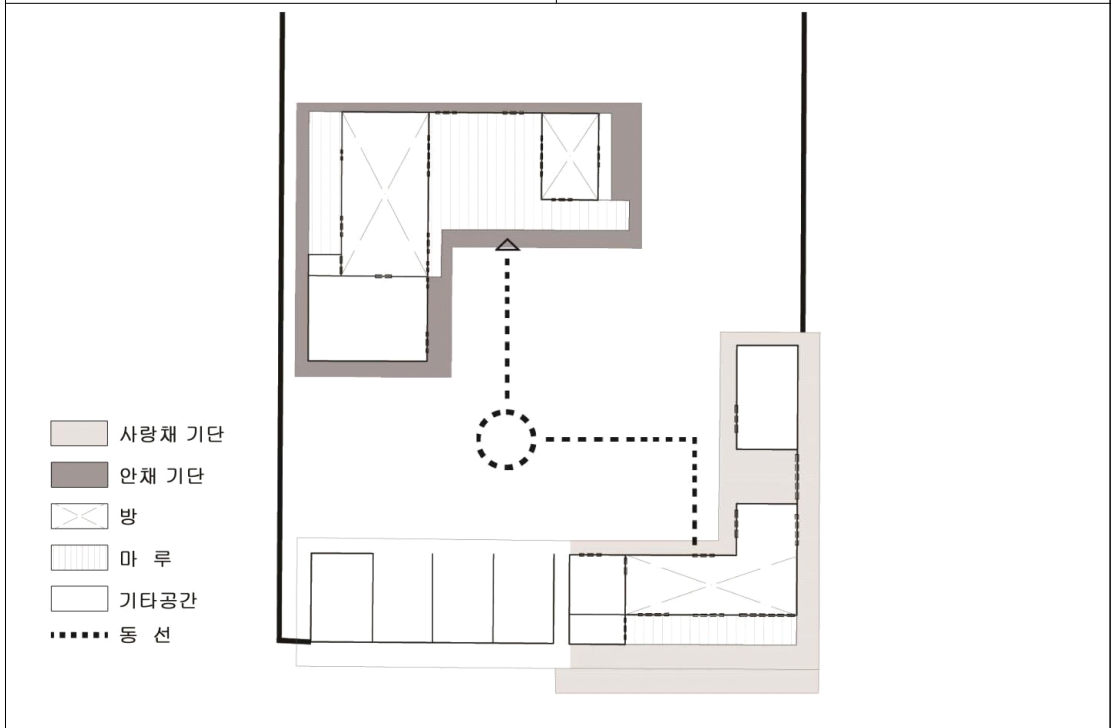


명칭	영동규당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루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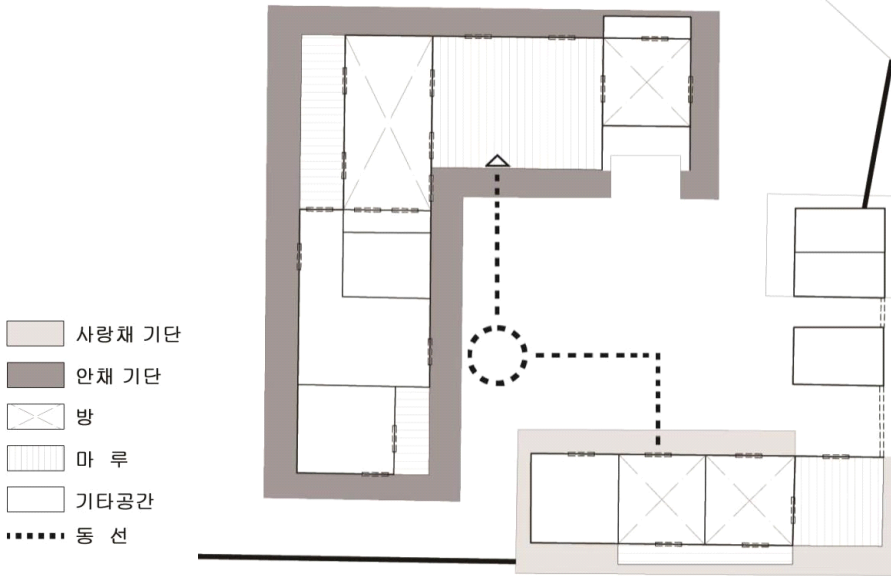


명칭	음성 공산정 고가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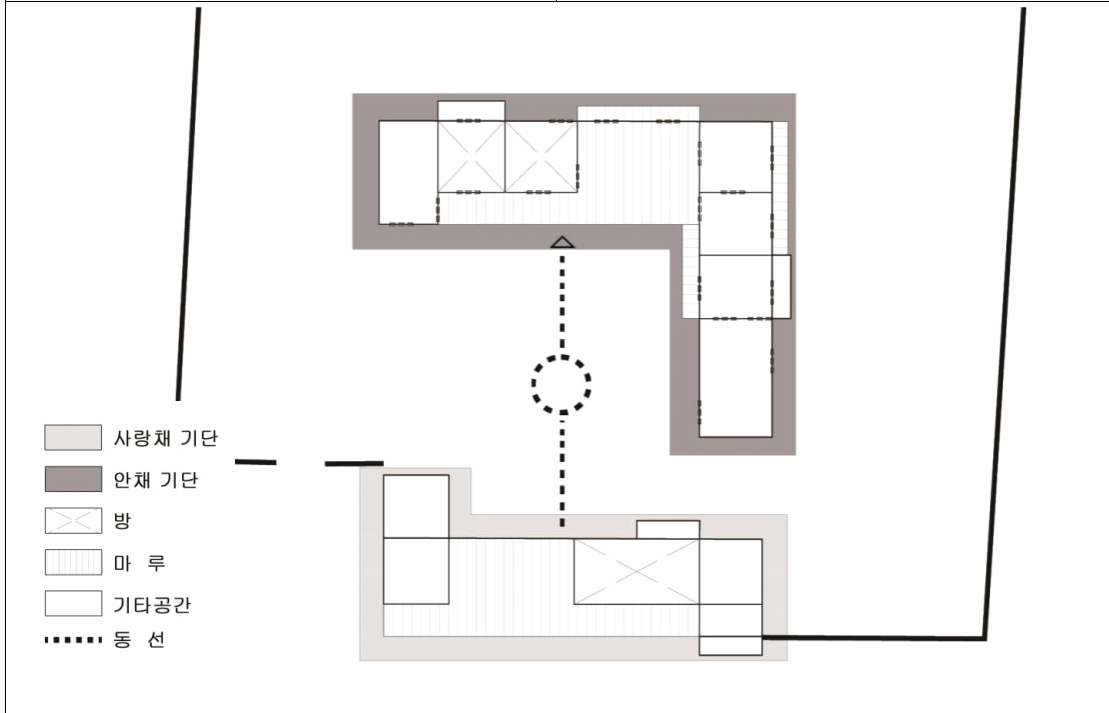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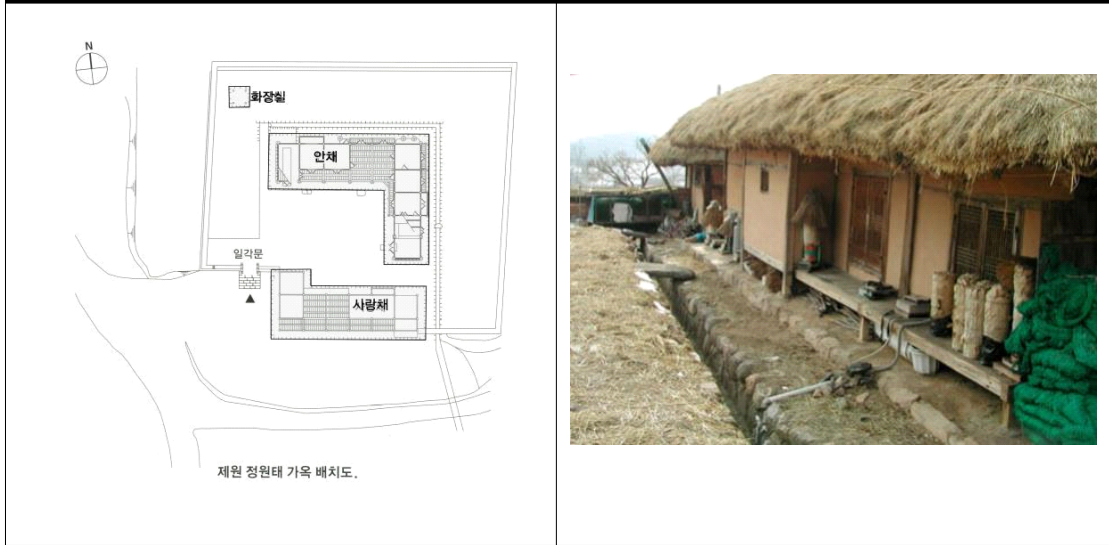
음성 공산정 고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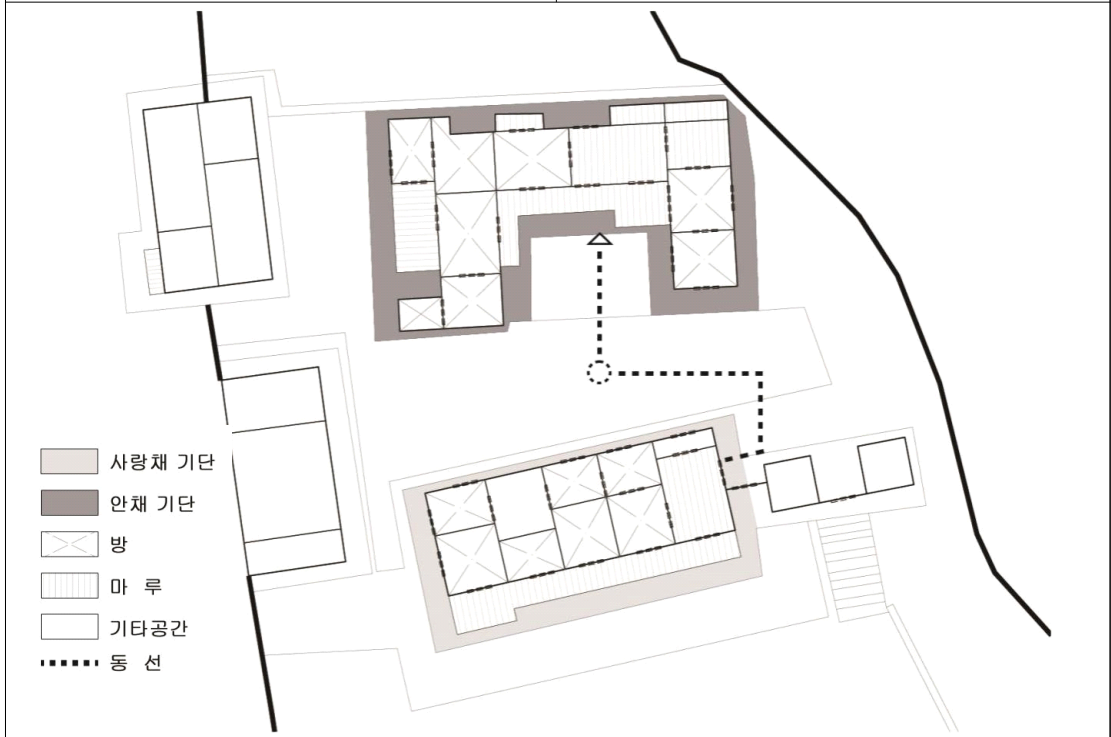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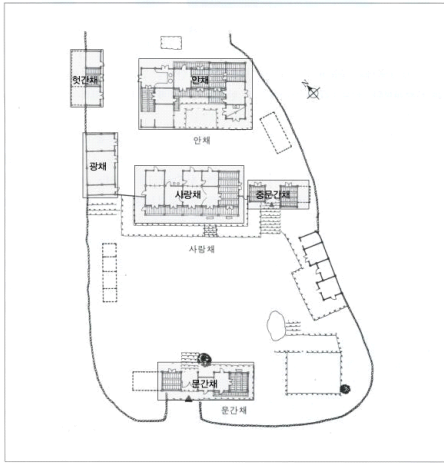
명칭	단양 조자형 가옥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명칭	제원 정원태 가옥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직선형
----	-----------	---------	-----	-----	----------



명칭	남원 몽심재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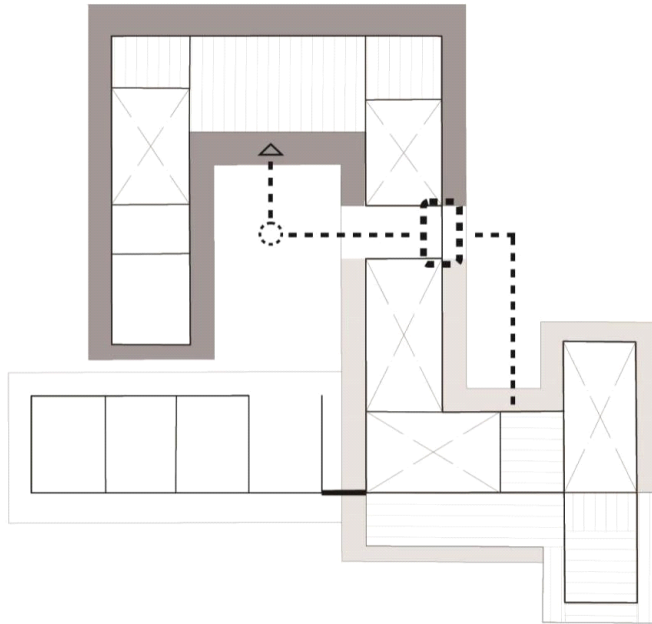
명칭	해저만회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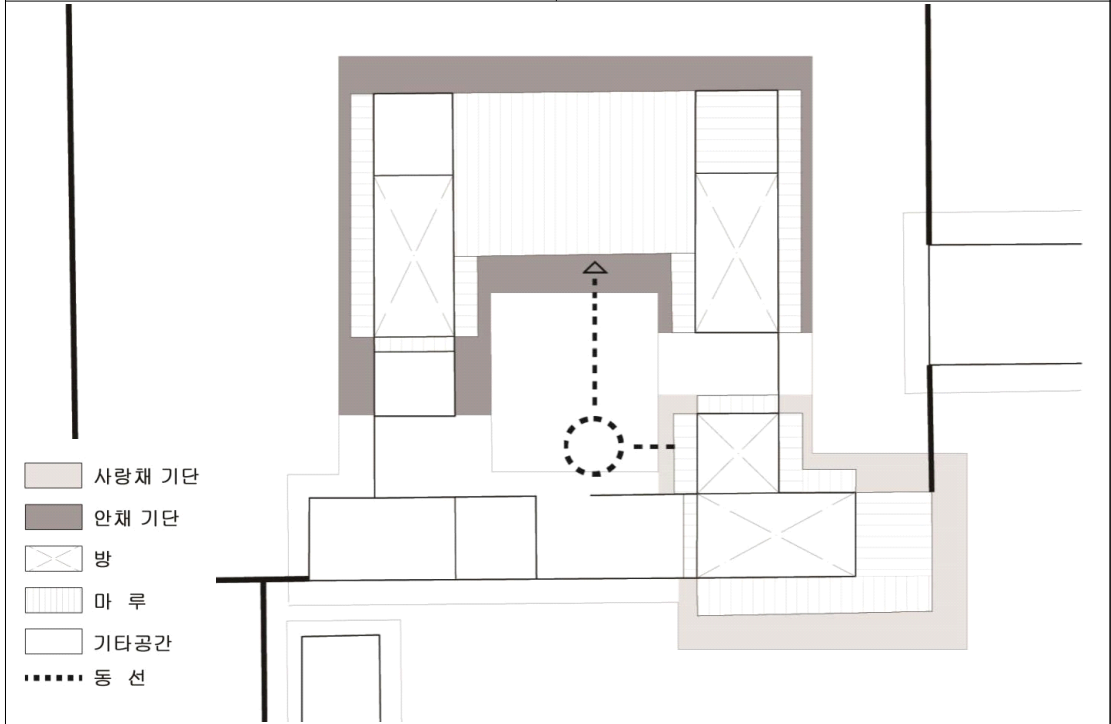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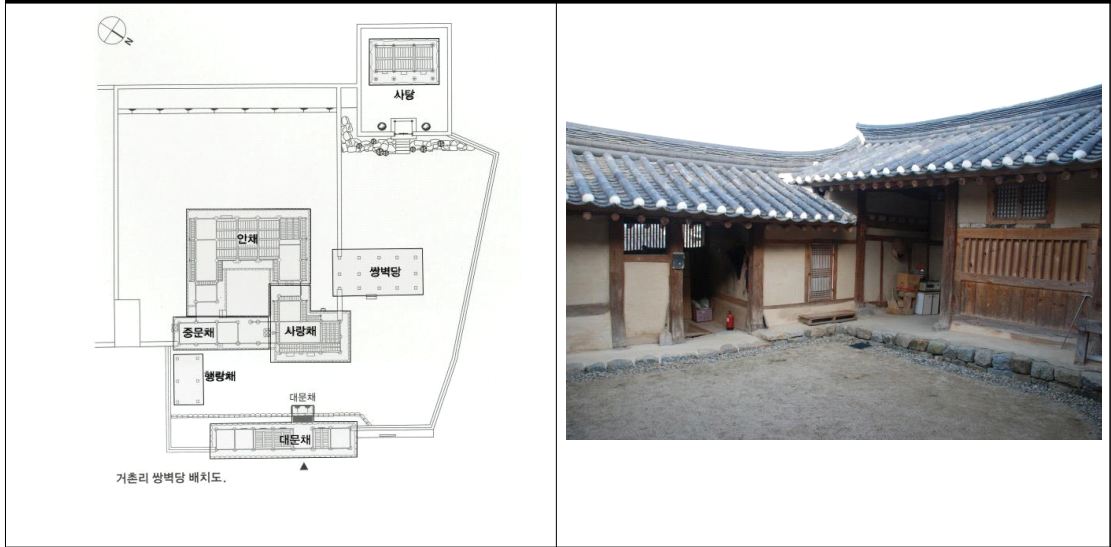
해저만회고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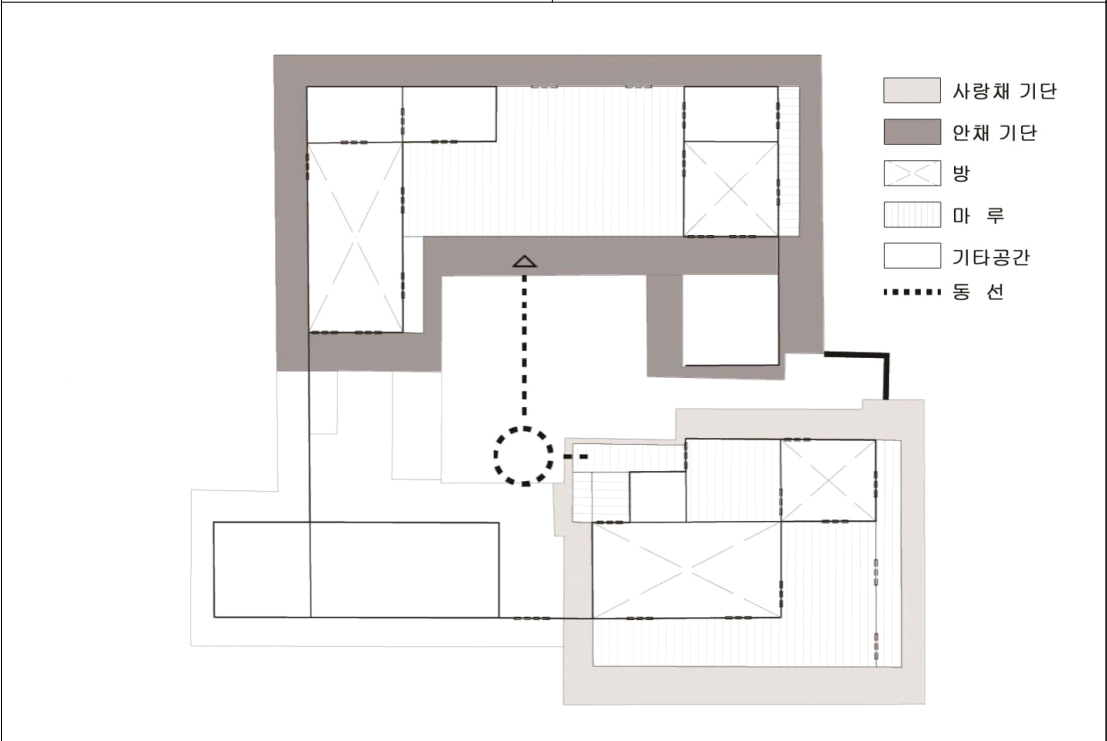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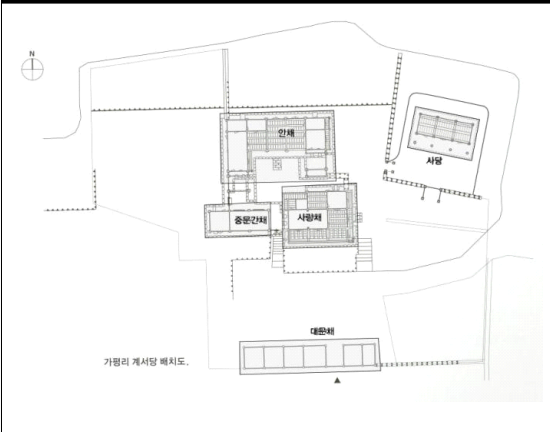
-  사랑채 기단
-  안채 기단
-  방
-  마루
-  기타공간
-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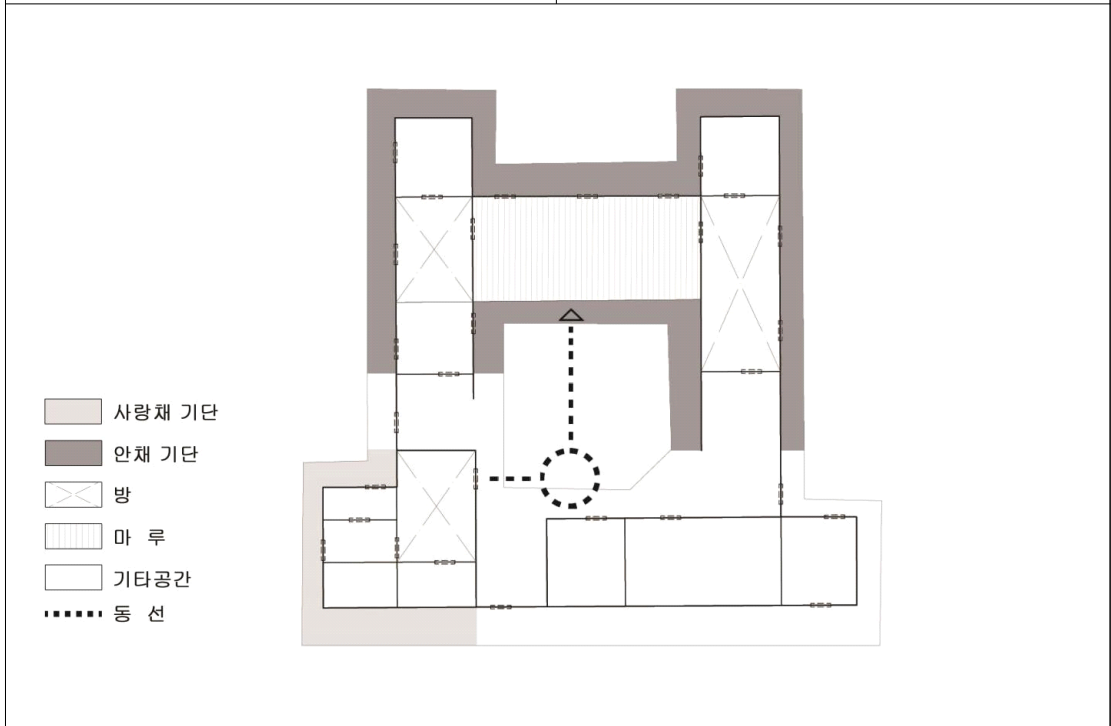
명칭	거촌리 쌍벽당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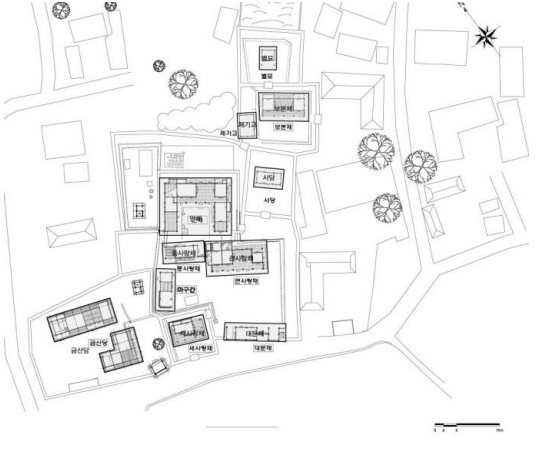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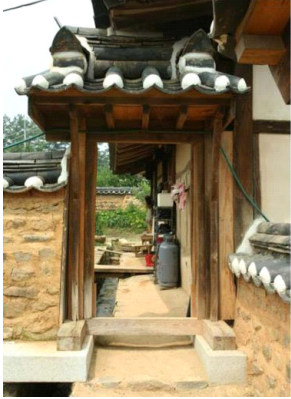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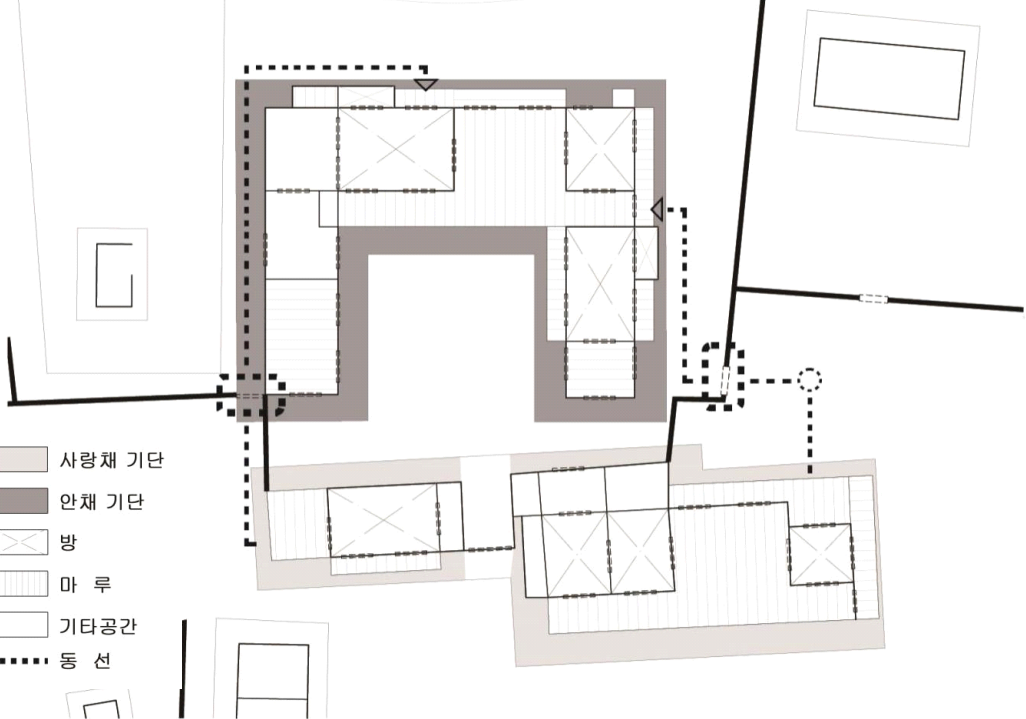


명칭	가평리 계서당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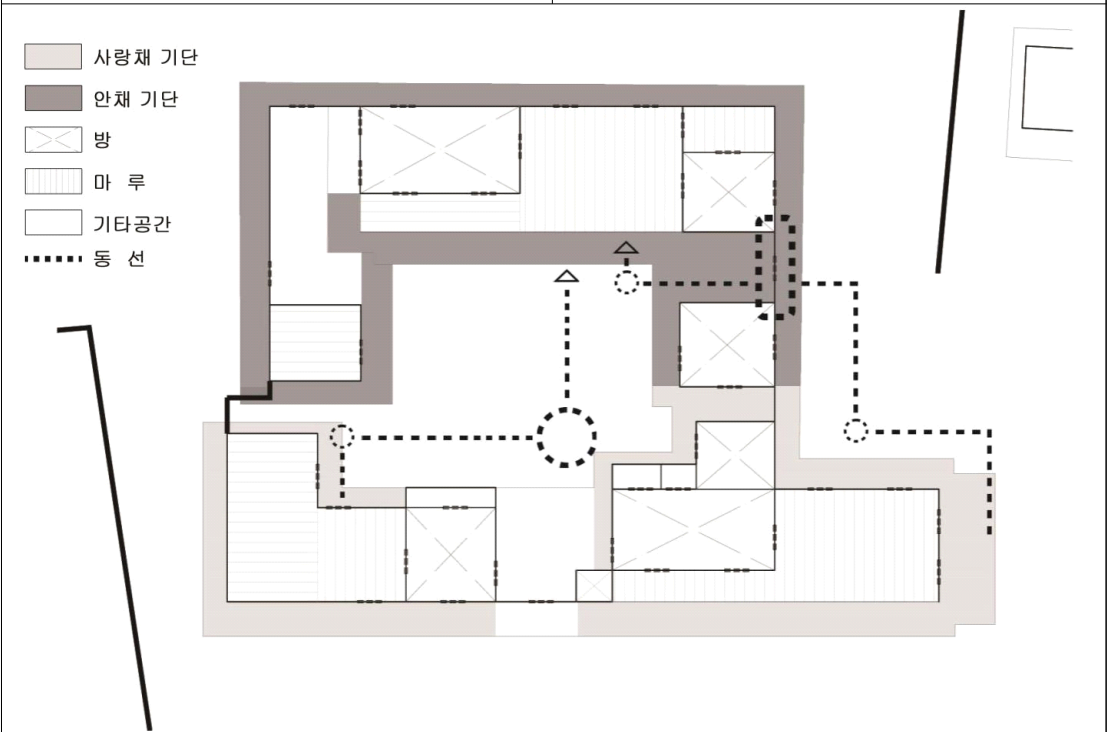


명칭	울현동 물체당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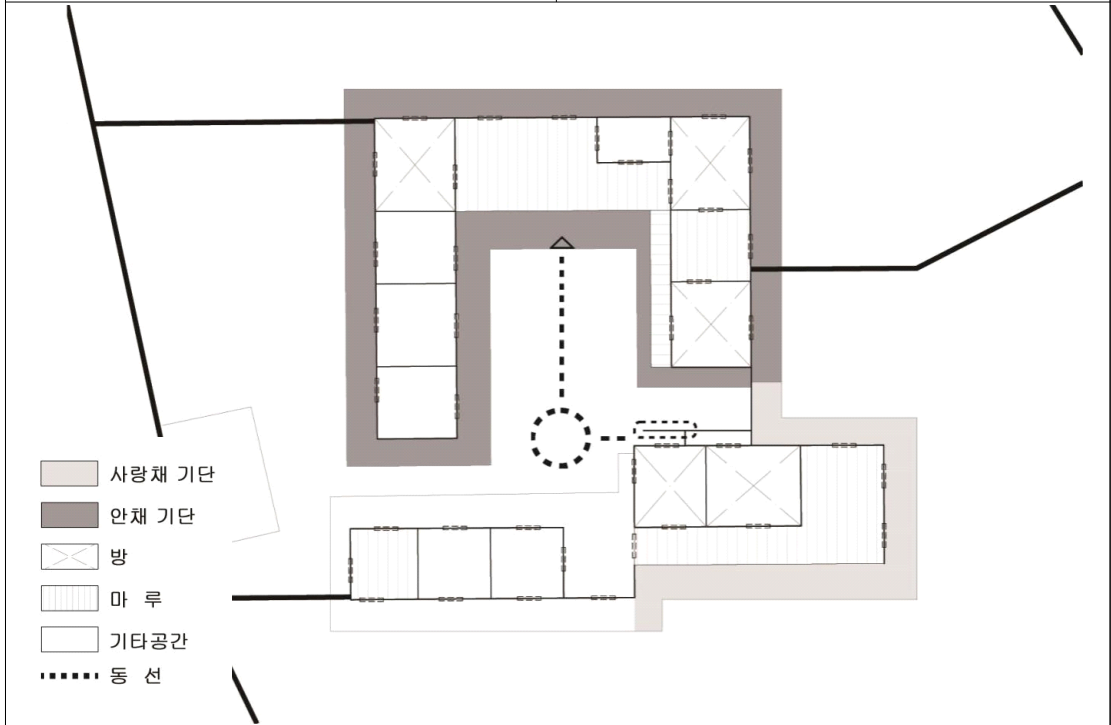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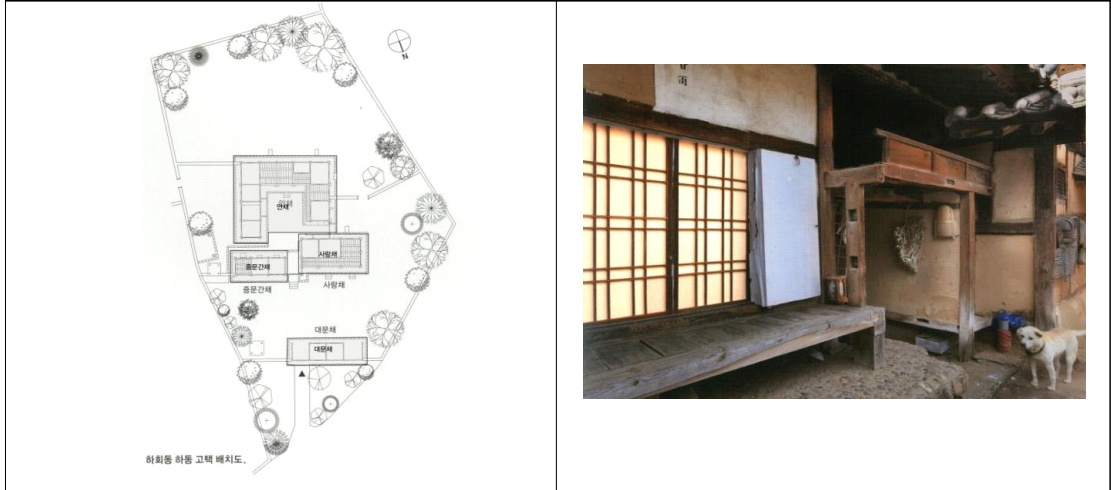


명칭	영천 만취당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협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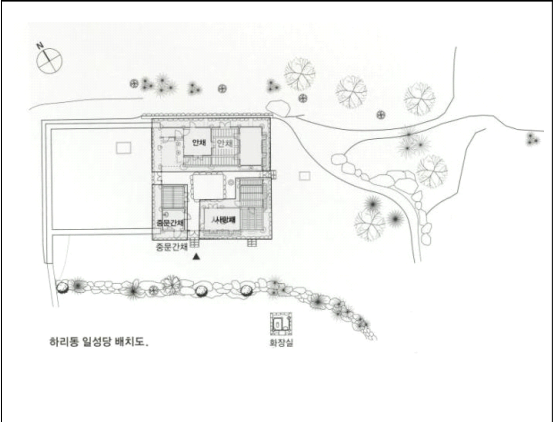
명칭	가일수곡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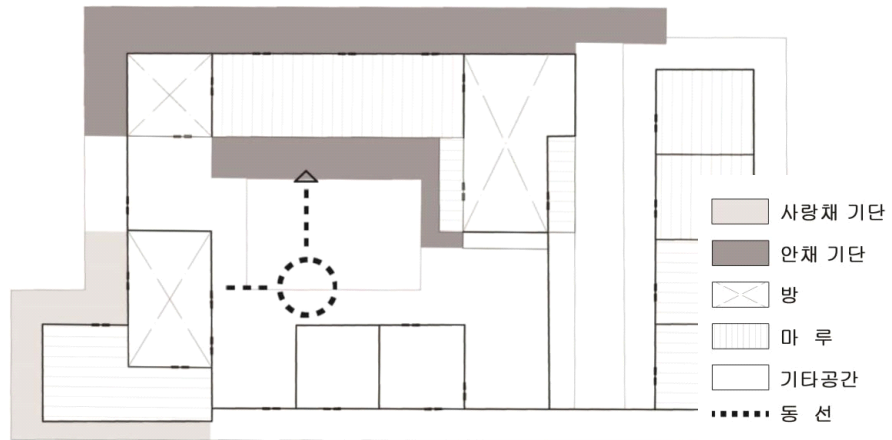
명칭	하회동 하동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차폐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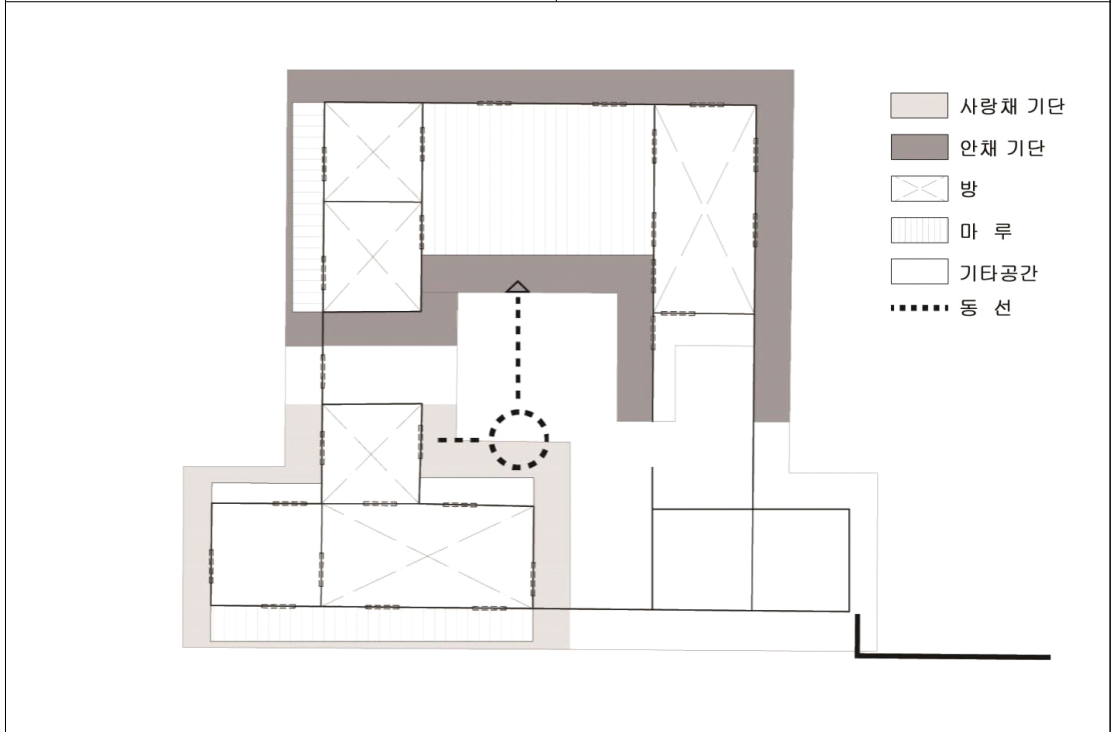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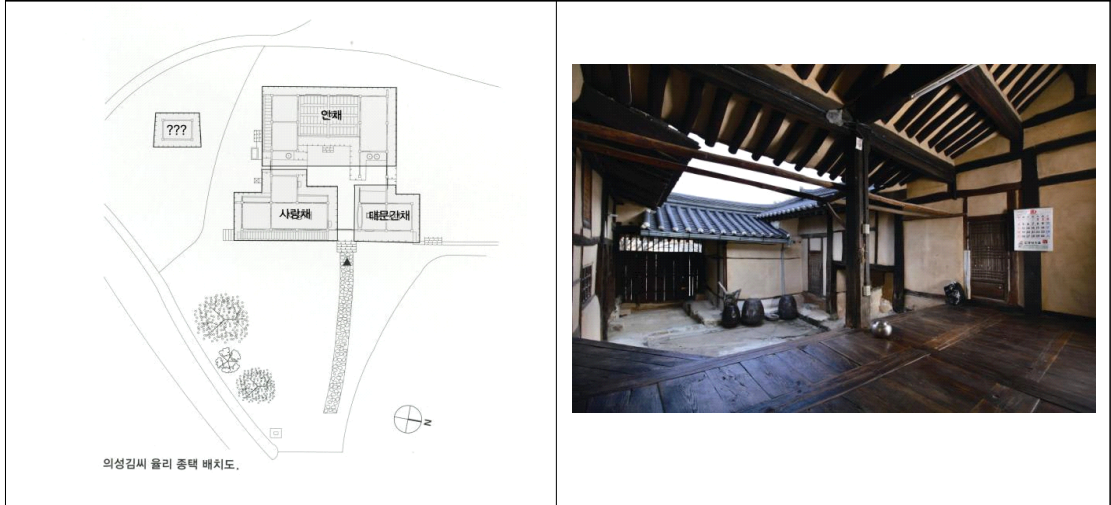
명칭	하리동 일성당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명칭	안동 학암고택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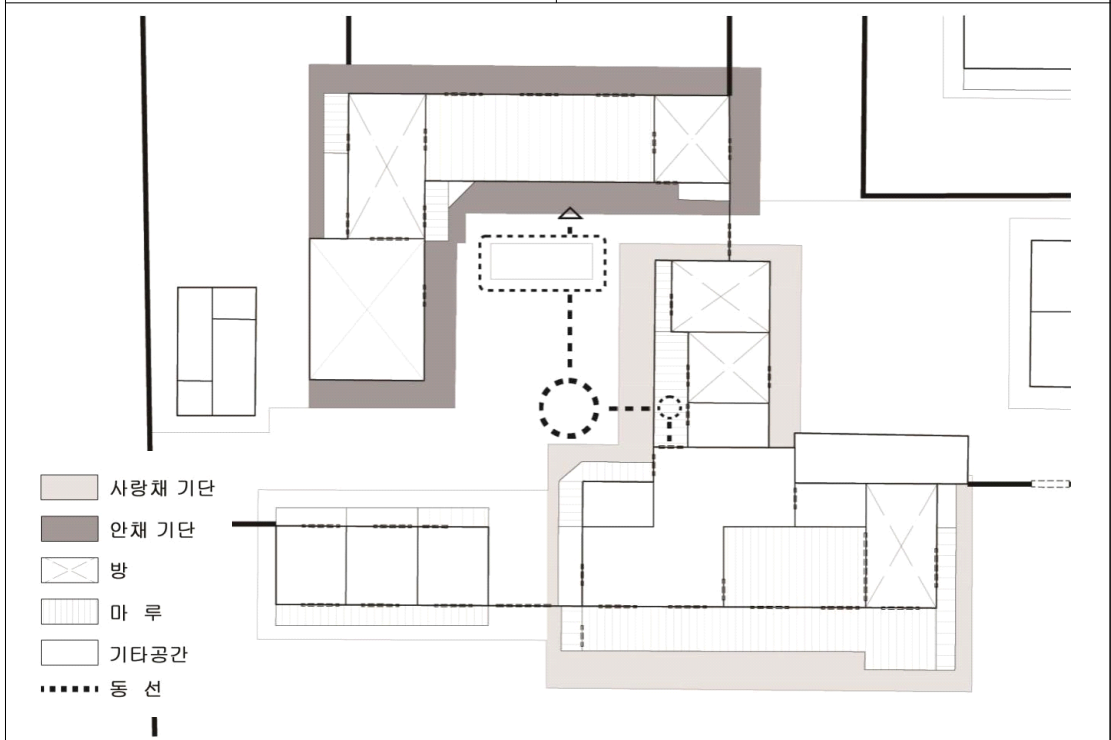


명칭	의성김씨울리종택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명칭	안동 오류현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차폐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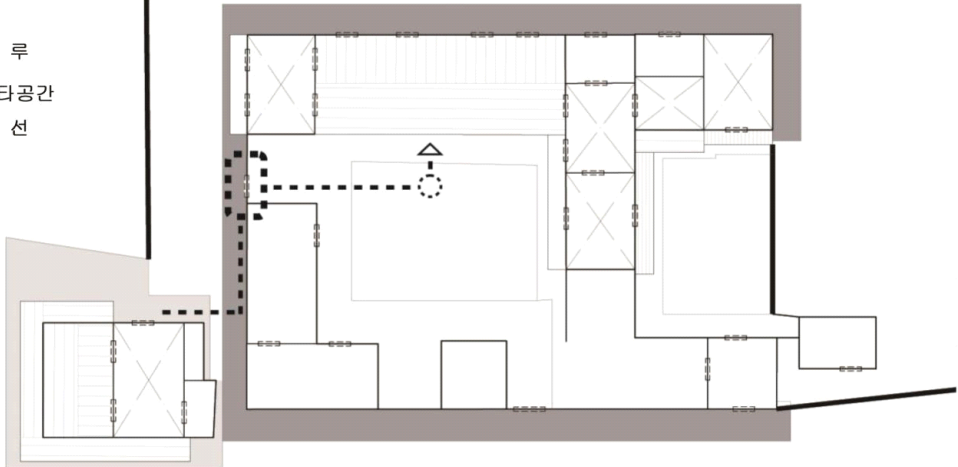
안동 오류현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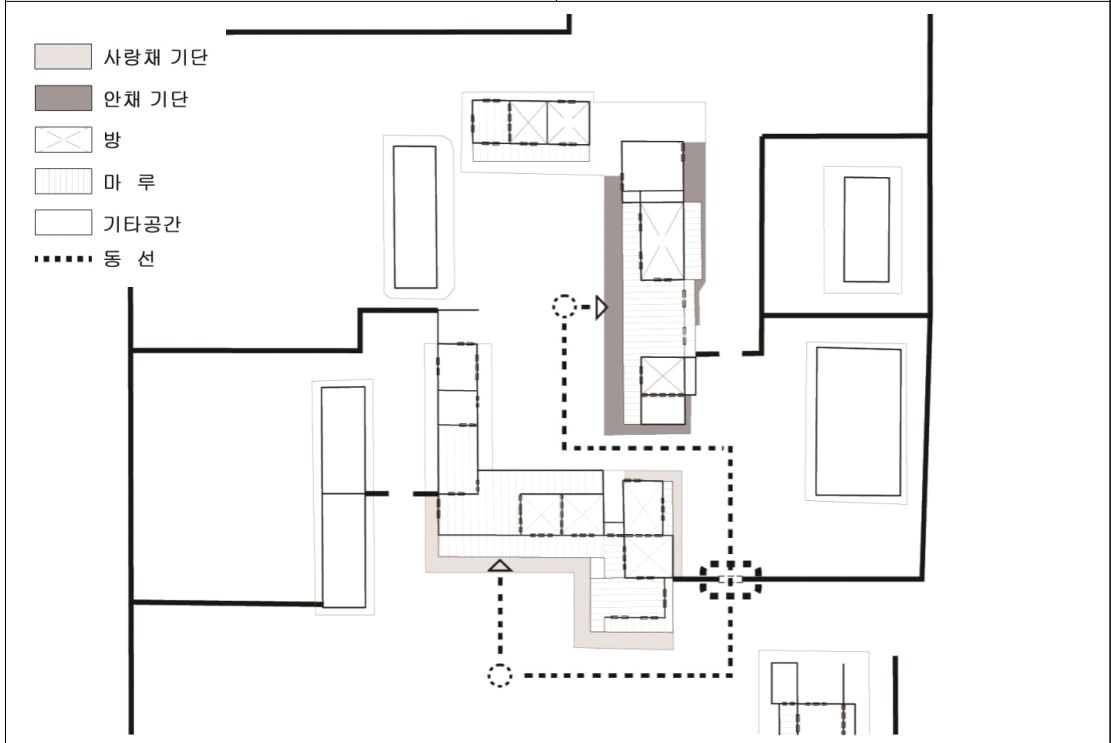
명칭	법흥동고성이씨 탑동파종택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문 - 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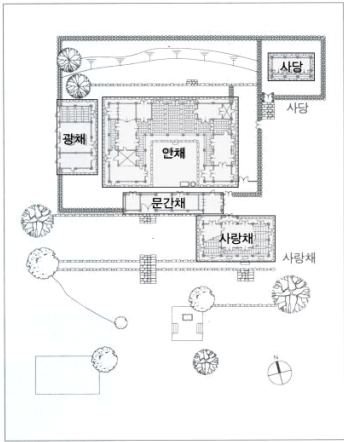
- 사랑채 기단
- 안채 기단
- 방
- 마루
- 기타공간
- 동선



명칭	함양 일두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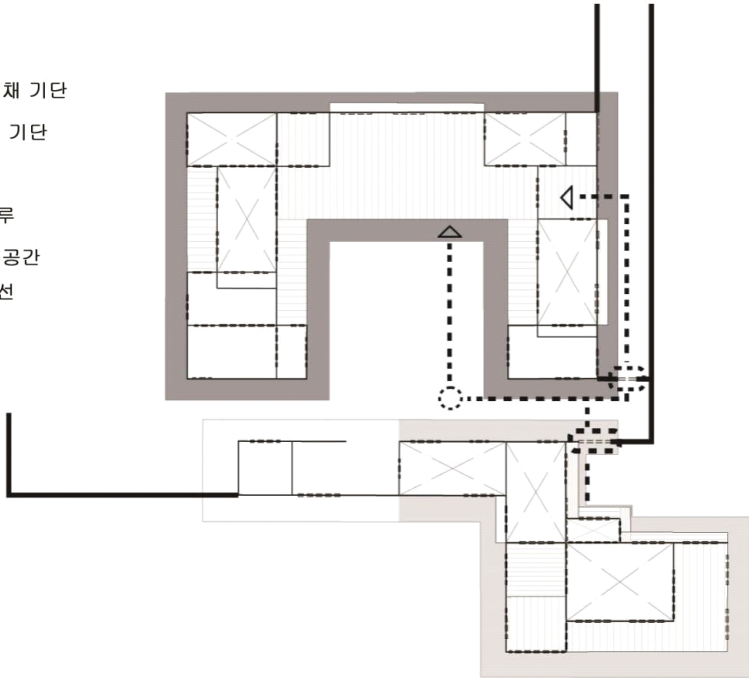
명칭	논산 명재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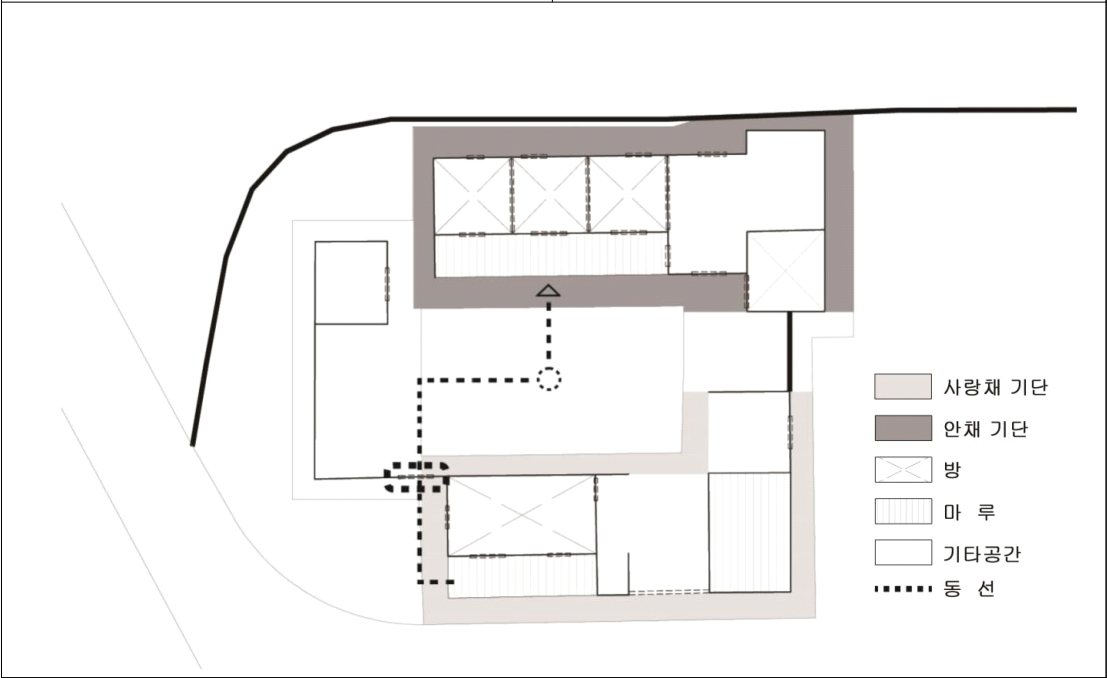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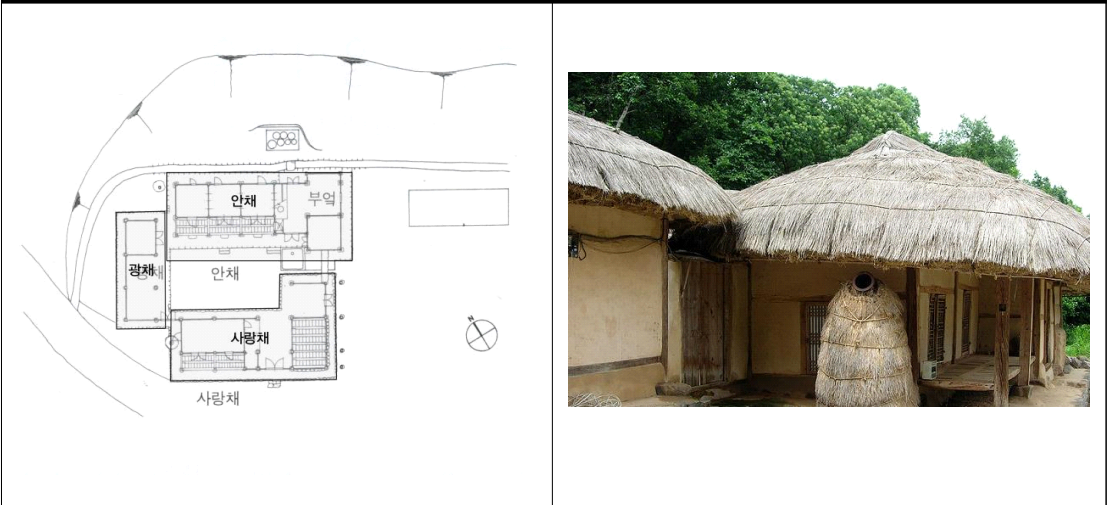
윤증선생 고택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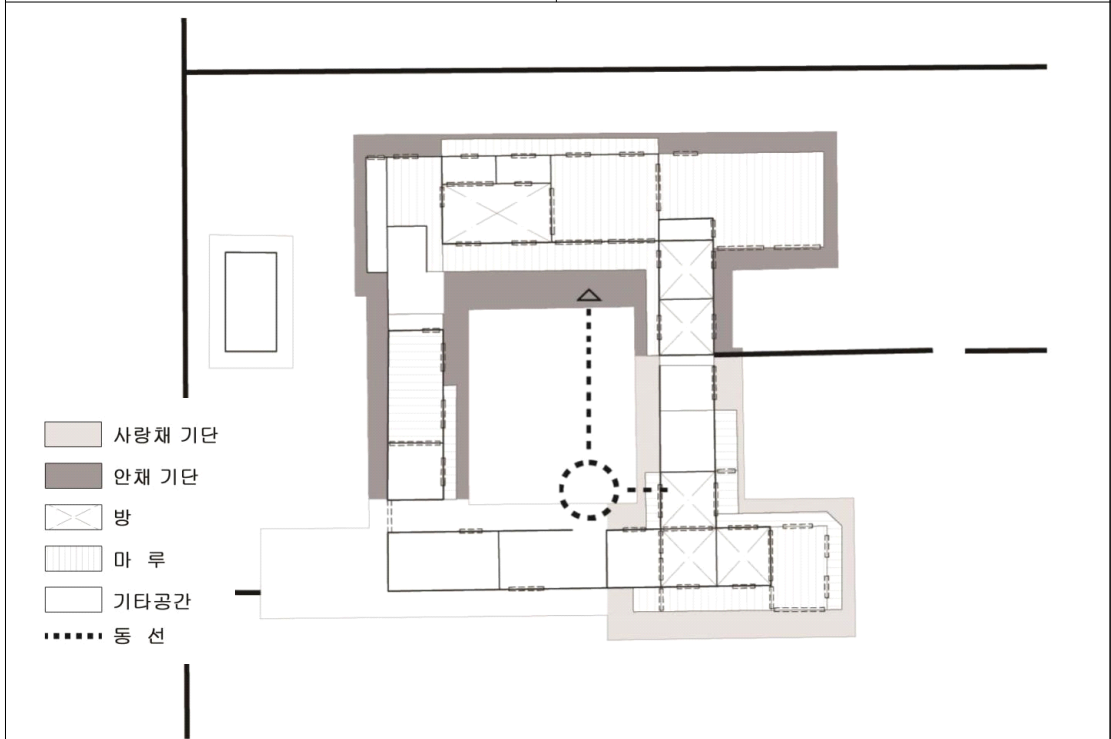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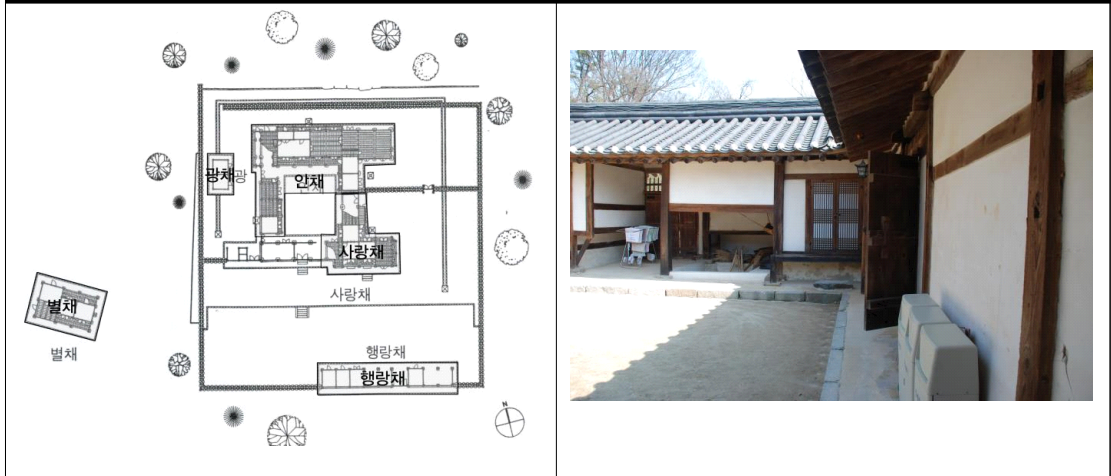
- 사랑채 기단
- 안채 기단
- 방
- 마루
- 기타공간
-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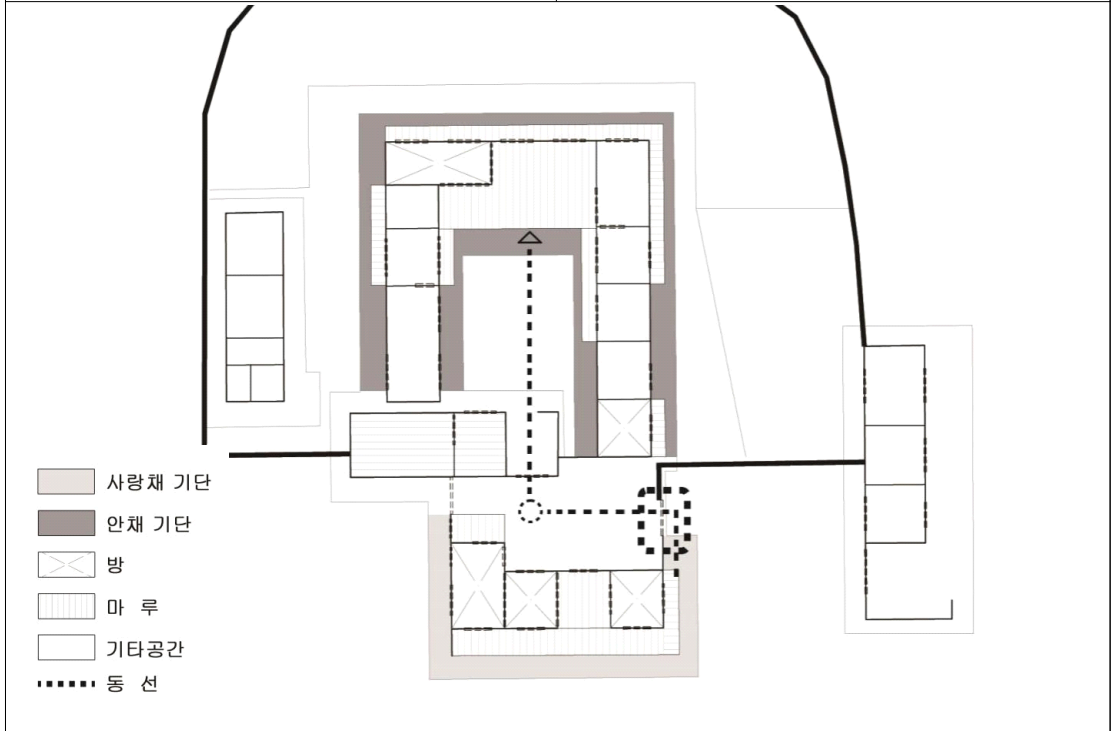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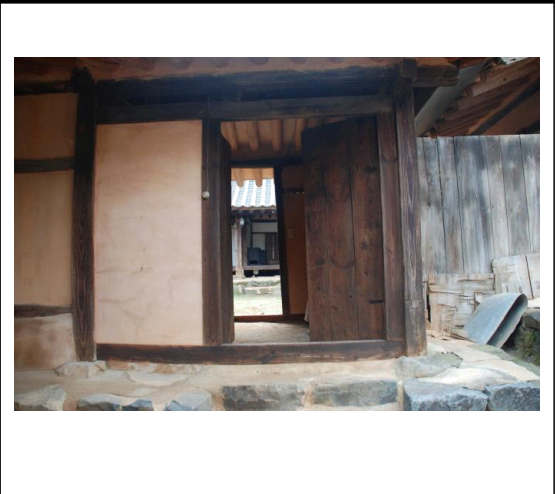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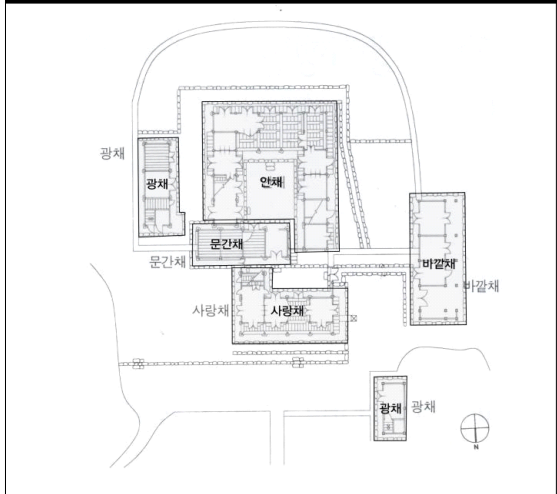
명칭	예산 정동호 가옥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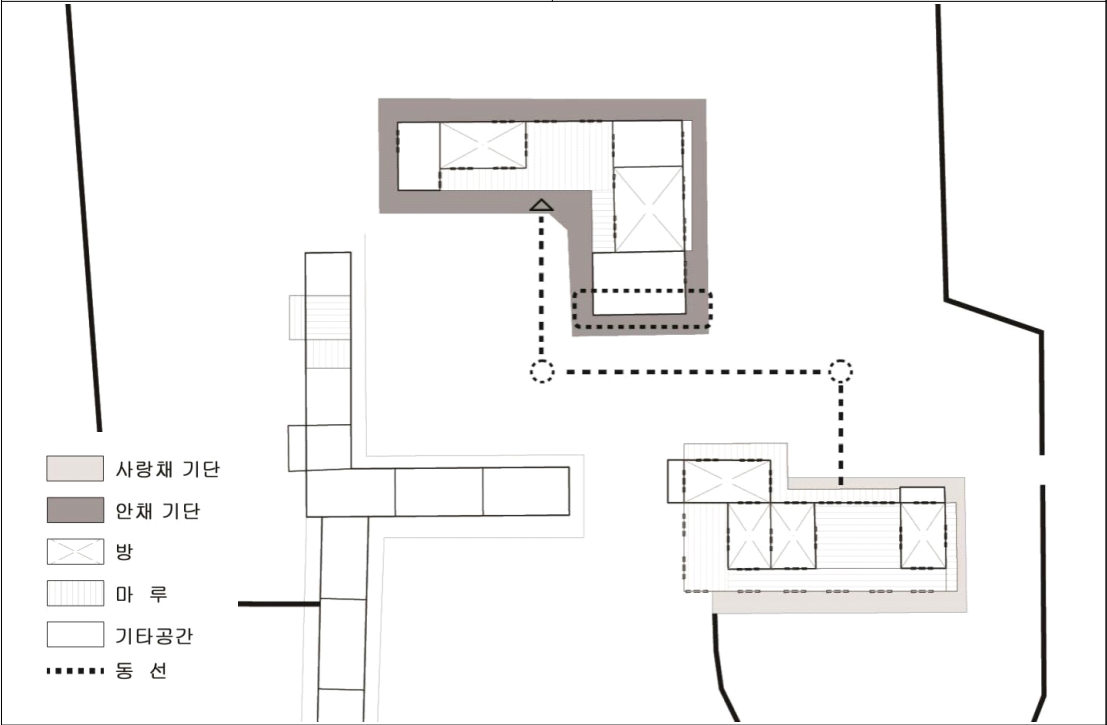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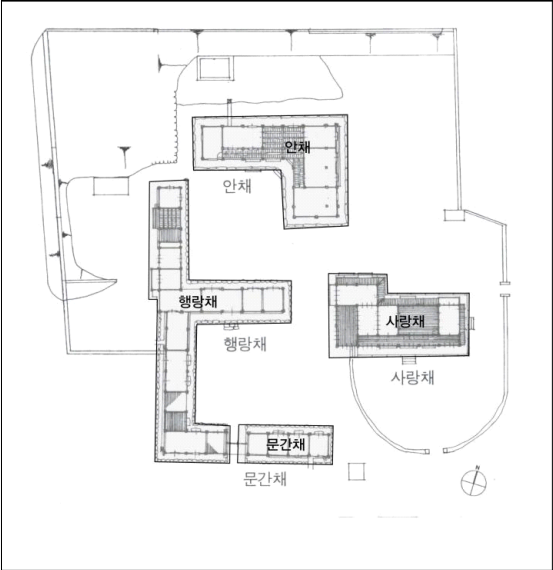
명칭	부여 민칠식 가옥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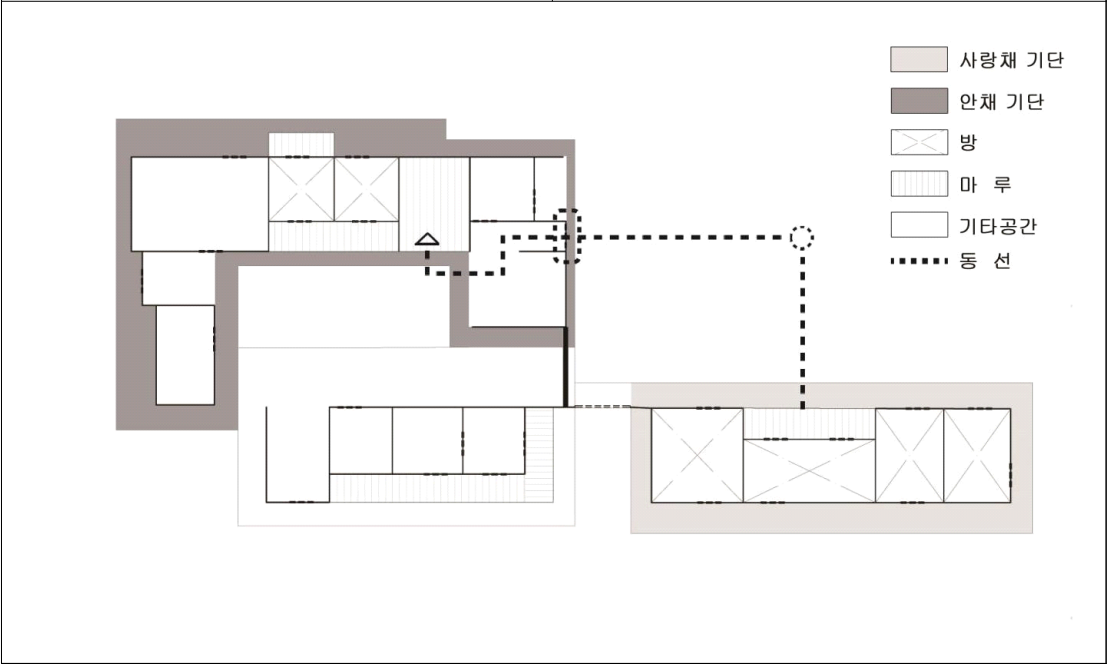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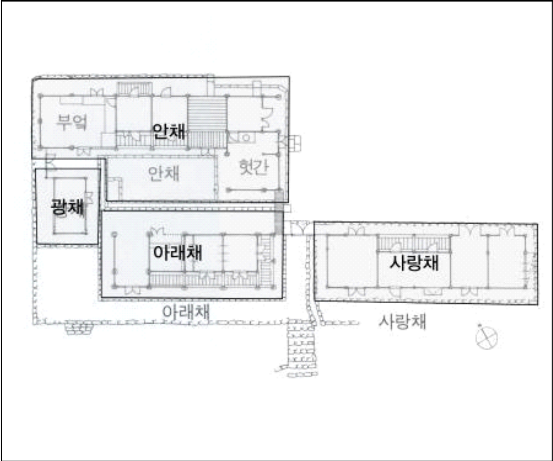
명칭	아산 성준경 가옥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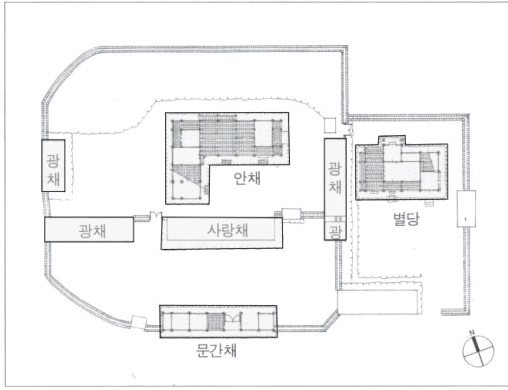
명칭	윤보선 전대통령 생가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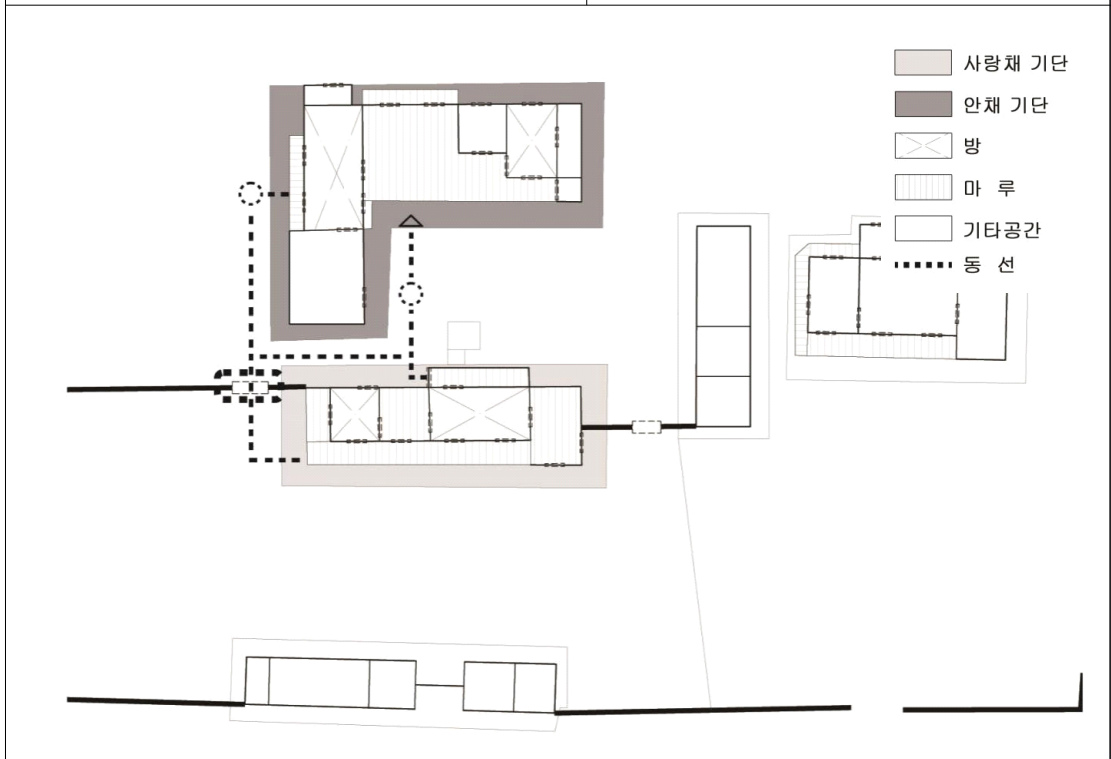
명칭	서천 이하복 가옥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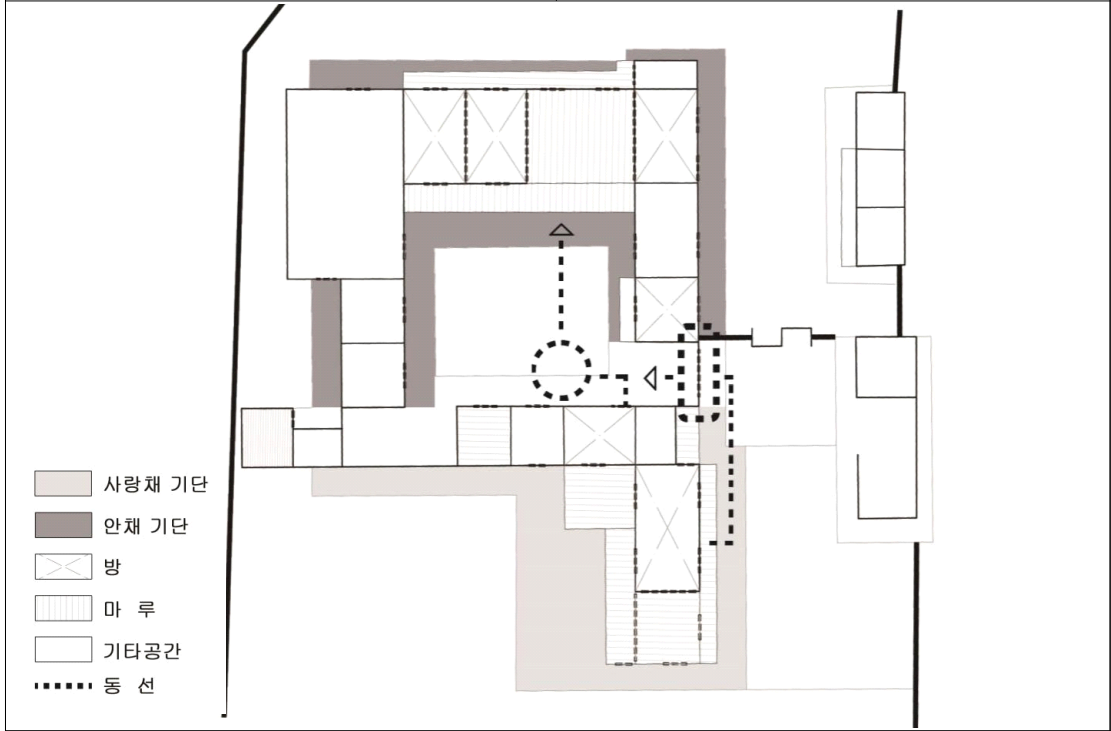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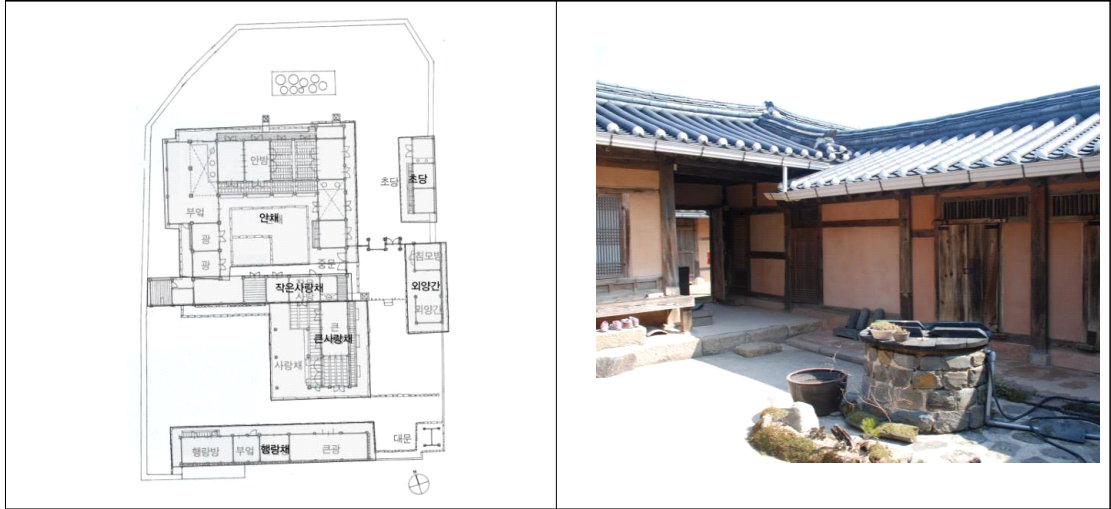
명칭	홍성 사운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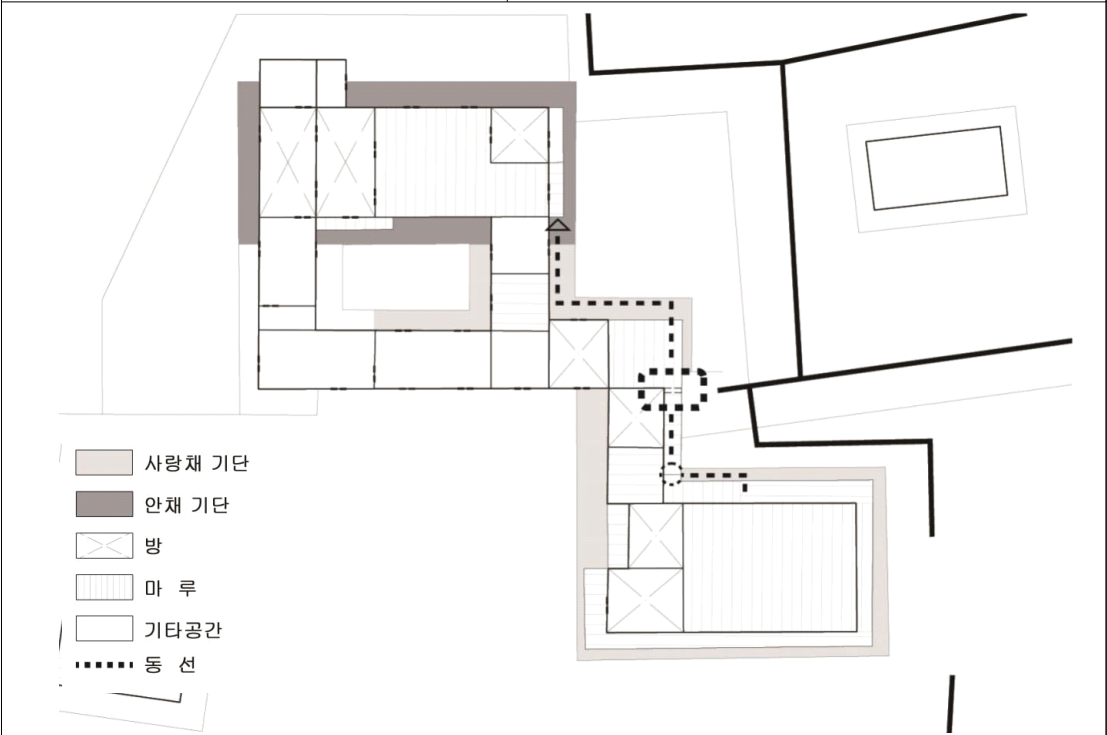
조응식가옥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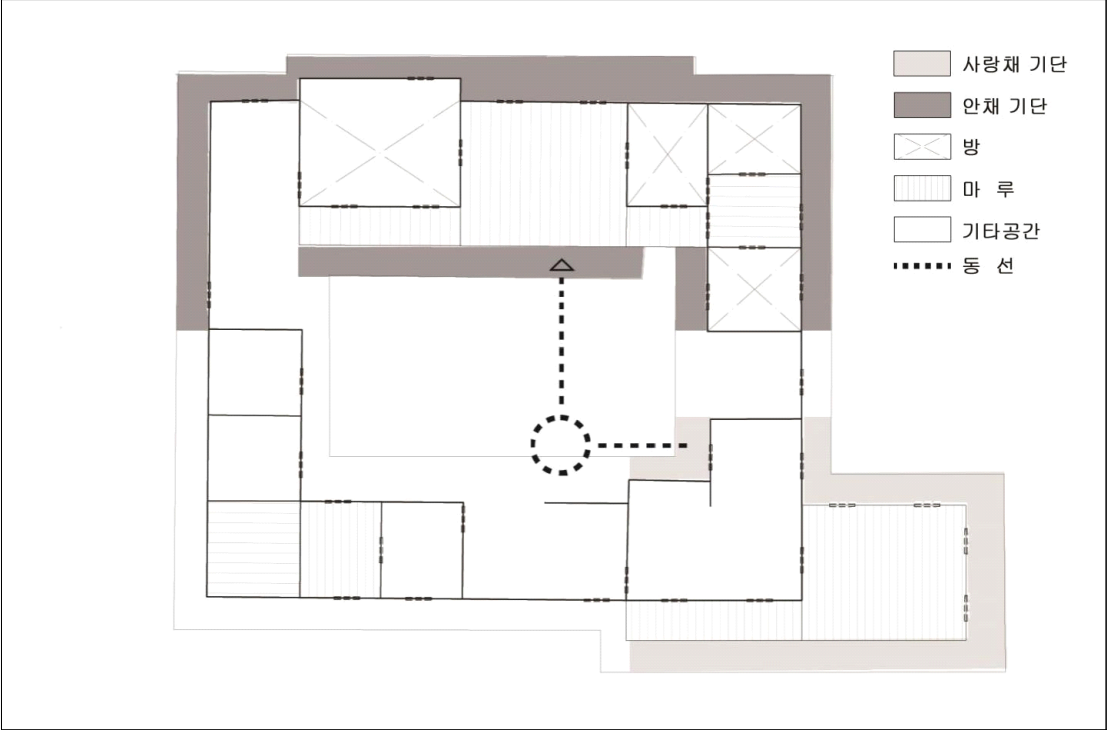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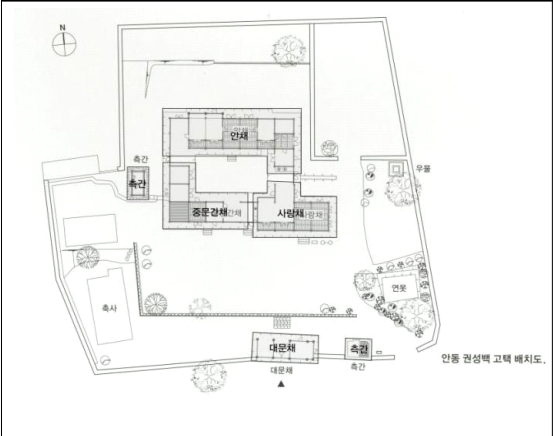
명칭	서산 김기현 가옥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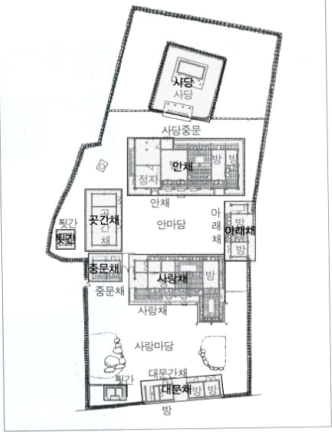
명칭	예천권씨초간종택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문 - 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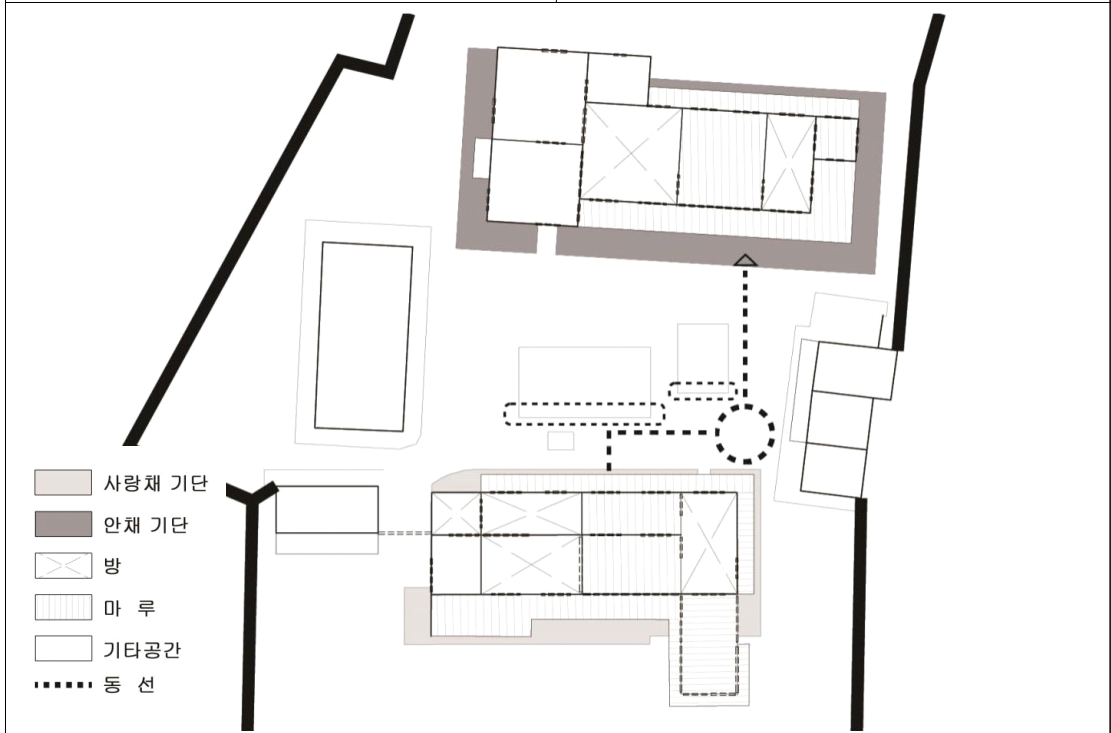
명칭	안동 권성백 고택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명칭	정은선생생가	묘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차폐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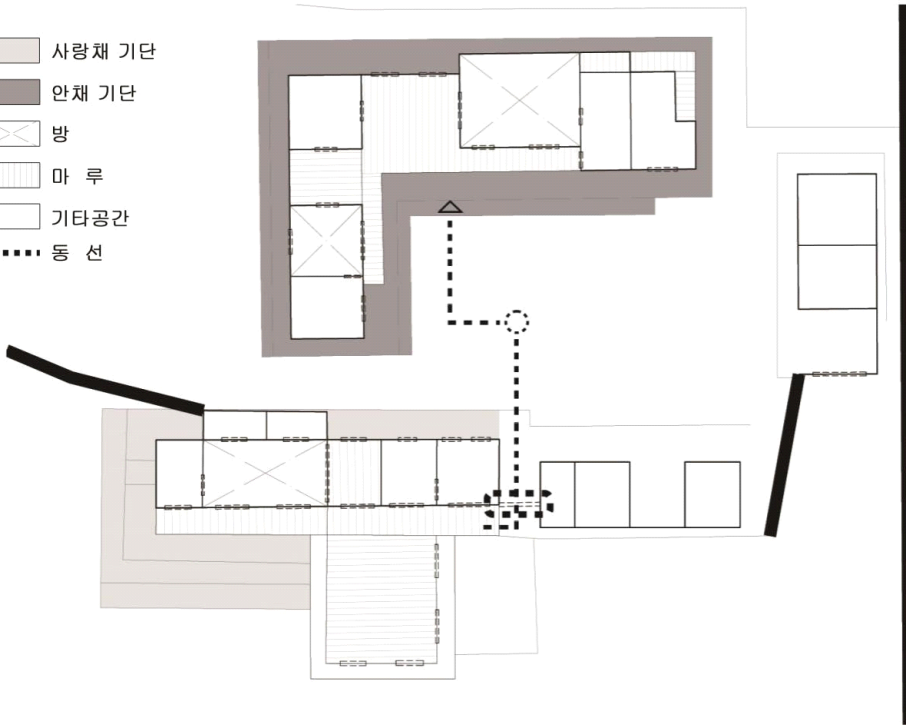
정은선생 생가 배치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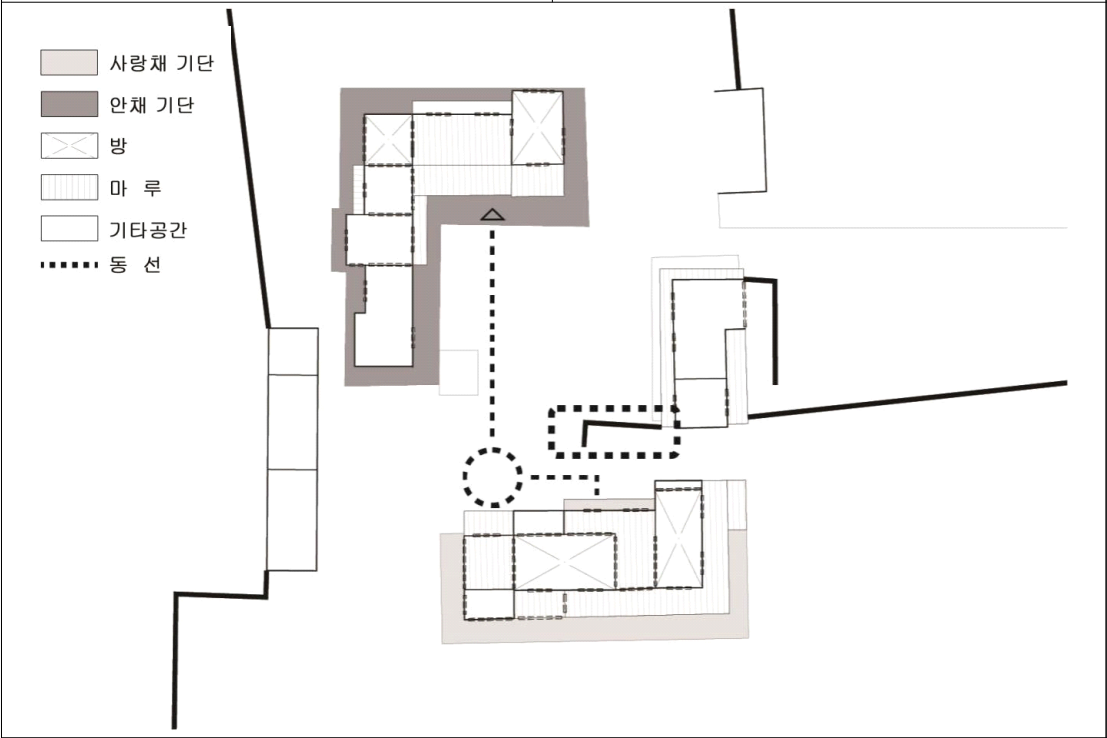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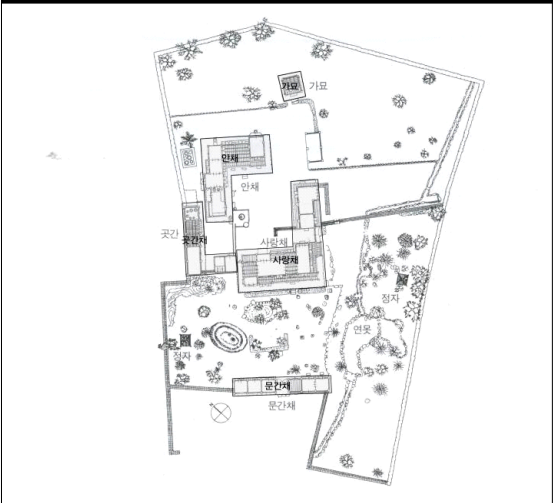
명칭	합천묘산목와오가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중문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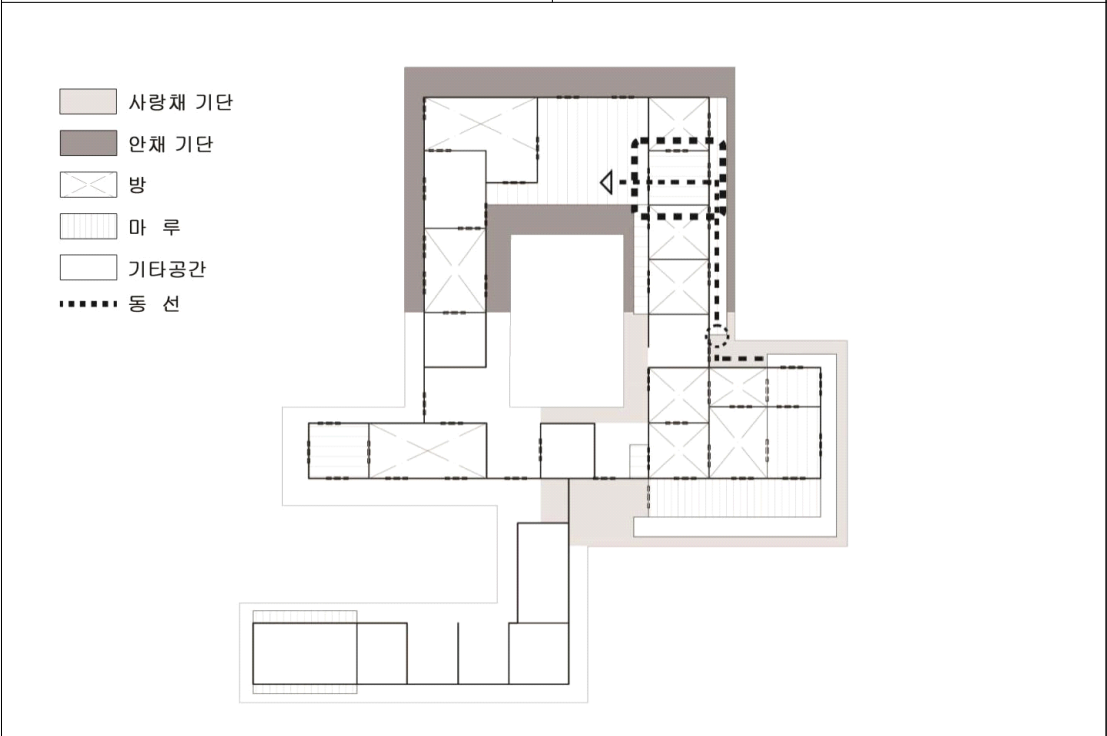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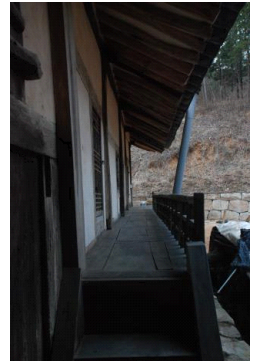
-  사랑채 기단
-  안채 기단
-  방
-  마루
-  기타공간
-  동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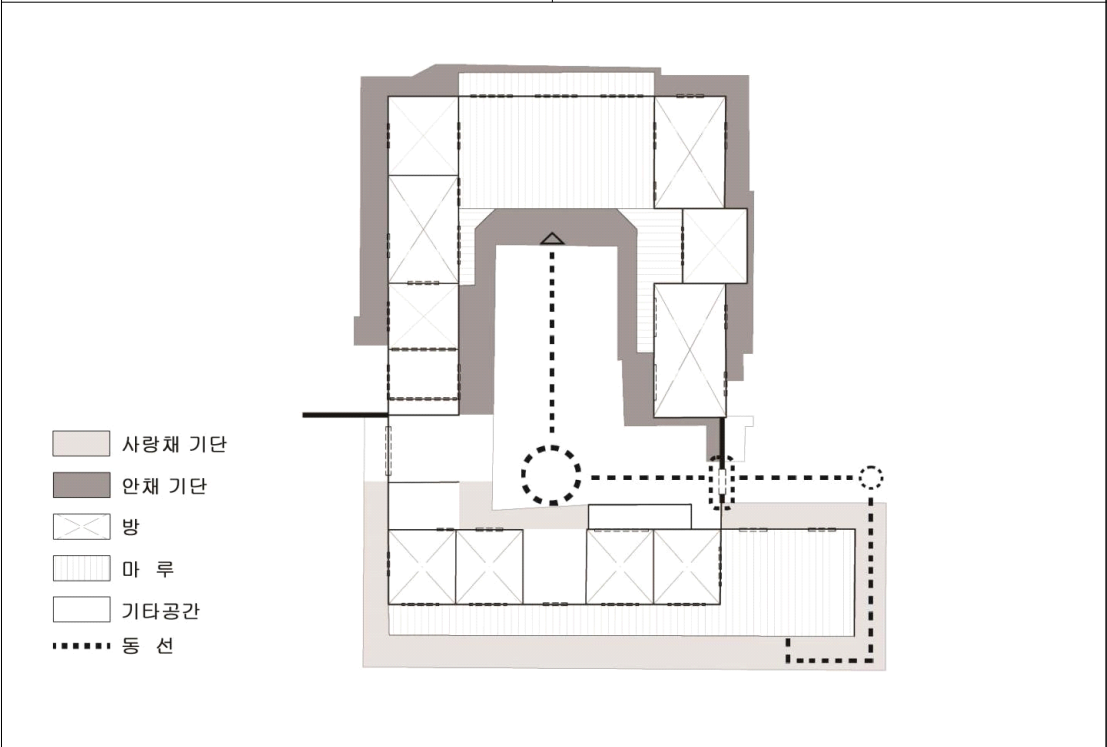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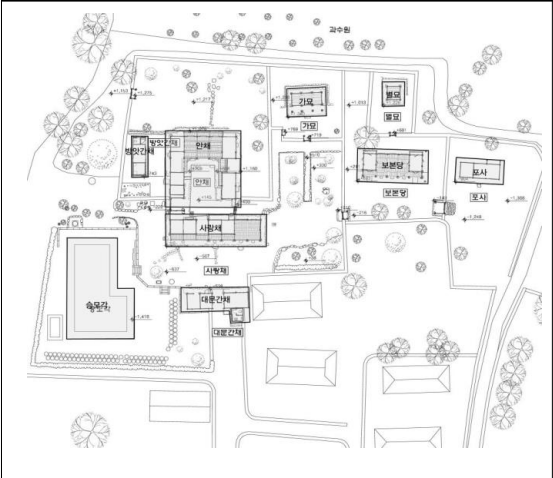
명칭	아산건재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차폐형
----	--------	---------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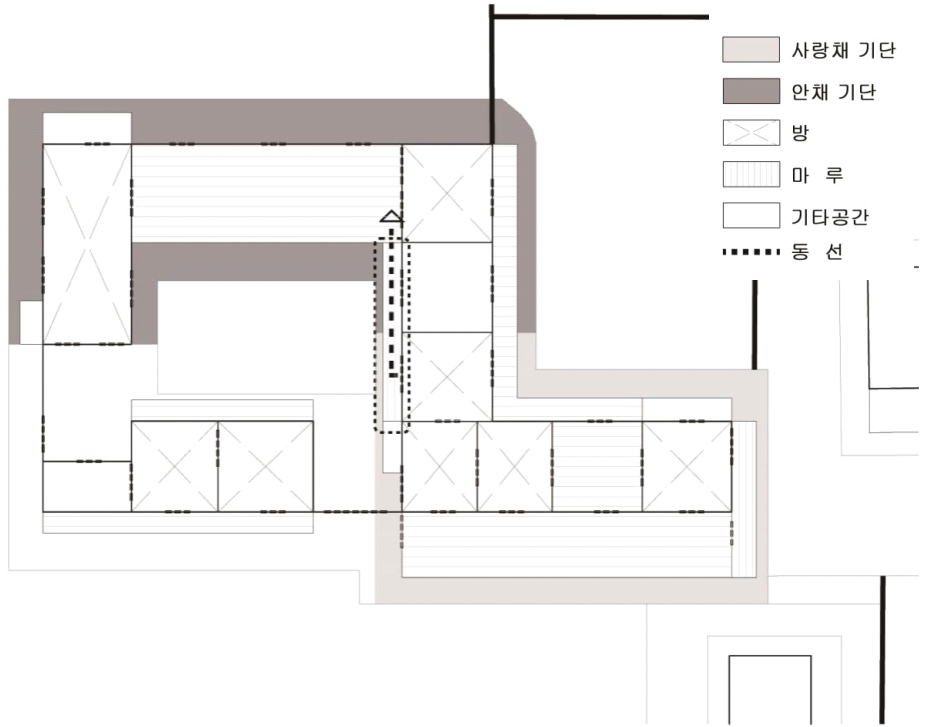
명칭	예천의성김씨 남약종택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루
----	----------------	---------	-----	-----	----



명칭	대구 둔산동 경주최씨 종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문 - 중문
----	-------------------	---------	-----	-----	--------



명칭	송석헌	모자 평면유형	폐쇄형	연결형	마루
----	-----	---------	-----	-----	----



명칭	영주 괴헌고택	모자 평면유형	개방형	연결형	마당 - 굴절형
----	---------	---------	-----	-----	----------

